

공공

1972

〈제127호〉

1972년 1월 25일 인쇄 1972년 1월 31일 발행



김 종필 국무총리 공군 주요 부대 초대순시

김 종필 국무총리는 1월 8일, 옥 만호 공군참모총장의 안내로 3593부대 · 부대 등 공군의 주요 부대를 초도순시, 공군 제반 작전에 대한 현황을 순시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위무 격려했다.





「공군」제127호 <1972년1호> 차례

권두언	정훈감 / 신찬 / 2
신년사 공군 참모총장	공군대장 / 옥만호 / 4
나와 군과 조국	덕성여대 교수 / 지명관 / 6
유엔에서의 한국	서울신문 논설위원 / 주영관 / 17

명사칼럼

▷나의 좌우명	서울대학원장 / 이승녕 / 26
▷군인정신	기독교방송국 운영 이사장 / 오재경 / 27
▷교양 인으로	연세대 문과대학장 / 오화섭 / 28
▷용기의 미덕	경희대 사대학장 / 양병택 / 29
▷네 발밑을 따라	충전대 교수 / 안병욱 / 30
▷쓰레기 인간이 안되려면	이대 시청각 교육원장 / 김은우 / 31

<앙케이트> 지휘관의 신년 설계	33
-------------------	----

특집: 정예공군을 향한 우리의 자세

창의력을 발휘하자	이창록 / 43
정신 무장	마욱 / 52
정신전력 강화의 당면문제	홍종도 / 61
명령과 복종의 올바른 인식	윤영춘 / 68

공군 연구개발에 관한 소고	김도식 / 74
----------------	----------

신해년유감

· 한 해를 보내면서	박철규 / 84
· 나의 가정생활을 반성한다	문무길 / 87
· 나의 군인생활을 돌아본다	차순도 / 91

북괴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	이종현 / 95
군법회의의 관할권의 확인조치	정덕장 / 101
소련의 대 북괴정책 변천과 한국안보	강인덕 / 107
우리나라 국기론	편집실 / 116
군의 정신교육 강화책	김갑태 / 128

【세계 위인 순례】 링컨	134
---------------	-----

항공 군사 과학

과학하는 항공스포츠 진흥방안	항공 대학장 김석환 / 141
구라파의 항공공업(파리·에어쇼 참관기)	홍준표(역) / 160
초음속시대에 있어서의 항공의학과 그 문제점	편집실 / 173
보잉 737의 새어러굴	184

군중	미지의 그날과 그때	유의웅 / 193
코너	도박	박순재 / 195
	군의 정신무장과 군목활동	최제경 / 196
<항공실화> 동체 비상 착륙수기	조섐·스톡커 작	202
명동야화		김병로 / 220



축진급

상: 1월 1일부로 준장으로 영예의 진급을 한 ○명의 장성들에게 옥만호 참모총장이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옥총장 장은 이들의 진급을 축하하고 중책완수에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 ○명의 전역장교들이 1월 31일 옥 참모총장에게 합동 전역신고를 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상 : 정 규섭 주 튀시니아 대사가 2월 7일, 부임인사차 공군본부로 옥 참모총장을 예방, 환담을 나누었다.

하 : 신임 주일 한국점임 태국 공무원 Prasert 대령이 2월 3일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이 자리에서 옥 총장은 Prasert 대령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공군

<제 127 호 : 1972년 제 1 호>

발행처 :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 편집인: 공군대령 신찬
인쇄처 : 공군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최금규
편집실 : TEL. 406-2204, 69-3511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산계열에서는 이와 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 훈 감 실

<권두언>

「제2전력 개발」을 위해 고려할 점

최근 우리는 「제2전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군력의 증강은 장비, 시설 및 물자의 증가와 병행해서 투철한 군인정신 아래 각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이를 다시 하나의 총체로서 조직 운용하는 무형적 기능, 즉 「제2전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제2전력」은 장비 각자의 정신무장과 잠재력의 개발에 시발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명감의 자각과 건전한 인간관계에 앞서야 한다. 그리고 개발된 각자의 능력은 효율적인 지휘관리를 통해서 부대임무 수행에 총집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정예화」의 길이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이와 같이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우리의 여건으로 볼 때, 종전의 목표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최대의 성과」를 추구해야 할 지경에 도달했다. 예를 들어서 폭탄운반차량이 부족하면 손수레로 충당하며, 8시간의 일과는 연중무휴로 연장되고, 행정관리 예산을 절약해서 전투시설에 전용하는 등, 기존 관념을 초월해서 새로운 수준의 목표를 수립하여 달성해 나가야 한다.

사명감의 올바른 인식은 먼저 공군의 사명과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음에 자기 부대의 임무를 숙지하여, 각자의 직책이

부대임무 수행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아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공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닫도록 한다. 우리 중의 한사람이라도 자기의 재임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를 대신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직책은 그 지위의 상하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임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장병 전원에게 공군의 일원이란 명예심을 심어주고 자발적인 참여로 일체감을 형성토록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군인상은 먼저 참된 민주시민이 된 다음,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전기연마에 열중하는 한편, 군대예절을 성실히 지키고 검소한 기풍을 따르는 군인을 가르치므로 권위주의적인 지휘나 독선적인 통솔로 부하에게 맹목적인 추종을 요구하는 것은 벌써 민주이념에서 빛나간 통솔 방법이다.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각자의 사명감을 철저히 인식시킨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통솔 방법은 「술선수법」이다. 우리 공군 요원은 대부분 국민교육을 받은 자로서 사물의 시비를 가릴 능력은 이미 충분하나, 해야 할 바를 실천하고 생활화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이와 같은 집단에게 가장 유효한 교육 방법은 역시 「술선수법」이다.

공군은 기술군 이므로 건전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재론의 필요조차 없다. 그러면서도 사병들의 병영생활면에 아직도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가 머물러 있음은 크게 반성해야 할 점이다. 아무리 투철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지휘통솔의 묘를 살려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병영생활 중에 이러한 강압성이 감돈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해치는 것은 곧 전력향상을 저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신년사>

신년사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옥 만 호

친애하는 공군장병 및 문관 여러분!

수많은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정예공군”의 목표달성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던 신해년도 이 제다 저물고 새로운 희망과 알찬 결실을 기약하는 임자 신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경하하며 본관은 먼저 그동안 각 기지에서 그리고 산간벽지와 고도에서 영공방위에 진력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회고하건대 지난 1년 동안은 동서간의 접근과 중공의 유엔 가입 등으로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전장병이 합심단결하여 전력의 증강과 전투대비태세의 완비에 진일보하였음을 실로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70년대의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북괴의 남침준비 현황과 최근의 국제정세로 보아 우리의 안전보장은 어느때 보다도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긴박한 정세에 비추어 정부는 지난 연말에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이와 같은 비상시국에 72년도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 본관은 먼저 우리의 임무와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함을 절감하면서, 안보중심의 올바른 시국관을 확립하고 비상전투태세를 항상 견지함으로써 언제나 싸울 수 있고 또 싸우면 반드시 이는 정예공군을 이룩할 비상한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장병여러분!

휴전 후 19년의 역사는 실로 긴장과 위기로 점철되어온 투쟁의 연속이었음에도 사회 일각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경제성장에서 이룩되는 개인의 생활

안정에 따라 준 전시하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망각하고 점차로 사치와 안일에 흘러가는 경향이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 자유와 행복의 향유는 모두 우리가 생존한 연후의 문제일 것이며, 우리의 민주적 사회질서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공산주의 총칼 앞에선 오로지 생존과 승리를 위한 투쟁이 있을 뿐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국방에 전념하는 안보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올바른 시국관, 그리고 국가의 보유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하며 어떠한 고귀한 희생도 무릅쓰겠다는 군인다운 정신자세야말로 민족의 장래를 영광되게 이끌 수 있는 가장 으뜸이 되는 요소임을 우리는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처한 비상시국을 타개하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실천적 행동이 긴요한 것이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난관을 외면하거나 남의 도움에만 의존하려는 의타적인 자세나 심지어는 이를 생각하기조차 두려워하는 식의 패배주의는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군의 72년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국가와 민족을 보위한다는 결의로써 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주공군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며, 물량적인 전력의 부족은 보유전력을 운용하는 정신적 자세와 전술적 기량으로서 이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력발휘나 전투태세 강화에 저해가 되는 종래의 모든 운영 방식을 과감히 전환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전력증강에 기여하는 예리한 독창력과 용기있는 결단, 그리고 힘찬 행동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70년대의 우리세대가 오늘 흘리는 피와 땀 그리고 거룩한 희생의 대가가 번영과 승공 통일의 영광에 빛나는 조국의 앞날을 기약한다는 밝은 희망으로 각자 맡은바 임무완수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하며 임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영광과 행복이 한결 같이 우리의 조국과 공군 그리고 친애 하는 장병 및 문관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기를 기원하며, 제관들의 분투와 건승을 비는 바입니다.

나와 군과 조국

지명관
〈덕성여대 교수〉



- 나는 지금 군에서 보낸 그 어느 한 순간도 내 일생에 ○
- 서 지워버리고 싶지 않다. 그것은○

비극의 한가운데로

나는 여기에서 6.25 사변을 통한 나의 경험에서 느낀 것을 더듬어 보려고 한다. 헬만. 헛세가 어디에선가 한 말이 생각나다. 인간은 가장 쓰라렸던 과거의 어느 한 토막도 끊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경험을 할 때는 회피하려고 몸부림친 것이라고 하여도 이제 그것을 그 사람의 일생에서 몰아낸다면 그 삶 전체가 허전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었다.

나는 1950년 7월에서 55년 7월에 예편되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을 군에서 보냈다. 나는 때때로 학원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슬픔에 사로잡히곤 하였다. 그러나 나는 지금 군에서 보낸 그 어느 한 순간도 내 일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지 않다. 그것이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나는 잊어버릴 수 없는 순간들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나는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나는 그 후 어떠한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충실감을 느껴 본 적이 없다. 내 행동과 생활이 곧 내 조국을 위한 길이 된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 나날을 안이하게 보낼 수가 없었다.

나는 처음에 상병으로서 작전과에 근무하였다. 주로 육군본부에서 오는 통신을 기록하였다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때 통신연락이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어느 날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공산군의 패잔병으로 남아 있으면서 양민을 괴롭혀 온 빨치산들을 처형하는 일이 있었다. 막 수복된 지구에서 지방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처형이 있게 되었다. 나는 이때 육군본부에서 절대 처형하지 말고 후방으로 내려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다지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 전화였다.

나는 그 전화를 받자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가지고 막 처형장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때 어떻게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바로 처형 전에 육본의 명령을 전하고는 허둥지둥 쓸어 지고 말았다.

상부의 명령을 전달하여 그대로 시행되게 하겠다는 생각, 비록 적이라도 인간의 생명을 구하여야 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한 병사로서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는 긍지, 이러한 것이 달려가는 나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군인의 긍지를 몇번이고 되뇌었다.

나중에 나는 통역장교가 되었다. 주로 인사와 군수를 담당한 고문관과 함께 일하였다. 그 때 나에게서는 하나의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것은 일선 고지에 부상당한 위급한 환자를 위하여 부근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헬리콥터를 부르는 일이었다.

연락이 오면 「빨리 불러야 한다. 빨리 불러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분만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피가 흐를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를 것이 아닌가. 연락을 끝내고 천막을 나오면 내가 말한 지점을 향해서 헬리콥터가 날아간다. 나는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나와 나의 동료 군인 그리고 나의 조국, 나는 그 사이에 거의 거리를 느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다가 나는 20일 휴가를 얻어 부산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군에 들어온지 일년이 넘었지만 나는 1950년 6월 27일, 바로 공산군이 서울에 침입해 오던 그날 홀어머니를 작별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첫 휴가에서 무엇보다도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하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대학 졸업이 어떻게 되나 확인하여야만 하였다. 시험을 보고 졸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물론 대학을 찾아가서 나는 냉랭한 대접을 받았다. 천막 사무실 안에 맞이해 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돌아와서 학점을 따라는 것이었다. 군 복무를 피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전선에 보내고 그래도 편히 지낸다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기보다 질시하고 경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이 때 다소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요령 좋게 군을 피한 사람들은 남아서 공부하고 외국 유학의 길로 떠난다는 것이 아닌가 정직한 사람들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말로「나와 군과 조국」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 아닐까.

나는 어서 속히 화천북방에 있는 내 부대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20일 휴가를 10일간으로 단축하고 부대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떠나는 인사차 찾아간 어떤 교수 앞에서 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 교수는 모든 것을 다 긍정으로 받아드리면서 위로하여 주었다. 그러나 막 방을 나서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한 마디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지군 나는 젊었으면 전선으로 가겠어. 남들이 싸우면서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나만 편히 있겠다고 하겠는가』

나는 눈보라 치는 전선으로 되돌아 오면서 몇번이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하였다.

『그렇다 역시 군으로, 조국을 위하는 젊은이들 속으로 가야한다. 더욱이 내가 없는 동안에 분명히 익숙치 못한 내 동료가 헬리콥터 요청을 지연시키고 있을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동료들의 피가 더 흘러내리고 있을 것이 아닌가』

내가 부대에 도착하자 나와 함께 일하던 미 고문관이 뛰어 나왔다.

『나는 네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다시금 눈물겹게 생각하였다. 내가 떠날 때 학교 일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 빨리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그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전선 그 천막 속에서 다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야전침대에 누워서 또 한 가지 지난날 일을 생각하였다. 막 군에 입대하기 전이었다. 나는 폐를 앓는 친구와 함께 낙동강 부근에서 피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더니 문 앞을 지나가는 트럭에 가득 실린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학도병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도 건강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의미도 모르지만, 나도 저들과 함께 가겠어」

그는 그 때 건강 탓도 있고 또한 회색적인 지식인이라는 탓도 있고 하여 껍데기 회의적이었다. 그는 이 전란 중에 종래 폐를 앓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이 때 그가 말한 것을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때때로 생각해 보곤 하였다.

이 때 나는 나를 환영해 주던 미 고문관과 참으로 아름다운 우의를 가질 수 있었다. 나중에 그는 내가 다시 학원에 돌아갔을 때 나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담해 주다싶이 해 주었다. 나는 군에 봉사하는 동안 내 동료병사들과 나라를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상의 요람 속에서

나는 지금까지 군에 있는 동안처럼 깊이 인간과 역사의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내가 경남 창녕에서 군에 입대해 갈 때 폐를 앓던 친구는 뚝 위에서 나를 배웅하면서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다. 그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는지 모른다는 생각, 내가 전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기 병과 앞으로 죽음의 날이 멀지 않다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동래까지 가는 머나먼 길에서 줄곧 남기고 온 건강치 못한 벼를 생각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들 입대자 일행은 김해 어떤 국민학교 교정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가마니를 한 장 깔고 또 한 장을 덮고 잔 밤이었다.

이 때 나는 일행 중에서 대학생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두운 밤 하늘에서는 총총한 별이 무척 아름다웠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이제 가면 우리는 죽을지 모르잖아』

『그렇지 모르지』

그러나 나는 이들에게 죽을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보아 20분의 1도 되지 못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다. 우리는 더 많은 확률에 가능성을 걸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 민족사의 비극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다가 살아남으면 나는 무엇인가 내 삶의 변화를 맞보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나 사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죽는다면 이 괴롭 많은 세상을 미리 가버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 학생은 농학을 공부하고 또 한 학생은 국문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이들도 그날은 심각한 심정으로 나에게 동의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 불안이 가시지 않는 것 같았다. 지금 나는 그들이 어디서 사는지 이제는 이름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휴전직후 나는 그 중의 한 사람을 만나 모두 무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낙동강 전선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미국 병사들의 그 큰 몸이 눈에서 허덕이다가 쓰러진 모습도 처참하였다. 피난 가던 흰옷 입은 부인이 쓸어져 있는

모습도 지금 내 눈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인간의 운명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사실 나는 이 무렵부터 종교적인 상념에, 깊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1953년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막 우기가 닥쳐오자 적의 공세가 심해졌다. 우리 부대는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때 가벼운 수술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으나 후퇴하는 트럭 위에서 비를 맞으면서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이란 왜 싸워야 하는가」

「신이 있다면 왜 이러한 처참한 역사를 방치해 두는가」

이 무렵에 나는 마침 미국의 거대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이버의 명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원죄성(原罪性)에서 인간의 온갖 비극을 풀고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인간은 오만하여 죄를 범하고 인간의 역사를 어둡게 한다」

그 책에서 얻어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나는 트럭을 타고 인간의 비극 속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사색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나 자신에게 타이르며 무슨 인생이 장엄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때 나는 괴로웠다. 그리고 주위에는 참으로 많은 모순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것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못되었다. 나는 다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성실할 수 있는 최대의 가능성을 살고 싶었다. 물론 많은 실패를 거듭하였지만 나는 비교적 대가없이 그 시기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젊음 속에서 지금보다도 내 의지력이 강했던 탓인지도 모른다.

이 때 나의 마음속에는 민족의 비극 속에서 여러 가지 상념이 피어올랐다. 이것을 나는 라인홀드·니이버 교수에게 써 보냈다. 그리하여 여러 통의 서신이 오고 갔다. 이것이 기연이 되어 1967년에 나는 오랫동안 그가 가르친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1년간 공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의 사색은 군과 나라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후일에 어떤 한국 사회학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우리의 예술에는 저항정신과 창조정신이 흐르지요. 석굴암의 불상은 일본을 한 눈으로 노려보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신라의 평화를 침범하는 적에게 저항하는 정신이 위대한 창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민족을 위한 염원, 그리고 외적에 대한 저항이 예술로 승화되는 것이 우리의 국가운명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이러한 입장에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도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동란 속에서 우리 사상을 모색하고 거기에서 예술과 문화를 찾아간다는 것도 당연한 길이 아닐까.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는 나와 군과 조국의 연결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한국동란에 있어서 군에 몸을 담았다는 것이 나의 사색의 밑바닥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시절을 나는 빈약한 것이지만 나의 사상의 요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때 느낀 파토스를 오늘도 간직하려고 하고 있다.

봉사의 뜻에서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이다. 미국이 위대한 건국의 역사를 담길 수 있었던 것

은 자유와 민주의 나라를 신대륙에 건설하겠다는 이상주의에 불탔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먼저 있고 국가 이념은 후에 추가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이념이 국가보다 먼저 있었다. 자유가 없고 약력에 감싸여 있는 유럽의 구대륙을 떠난 그들은 자기들의 꿈을 미국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미국에서 그것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인류 역사에서는 그 꿈을 실현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였다. 오늘 미국의 고민은 이러한 건국의 정신을 잃어 가는데 있는 것이 아닐까

일본에서도 방향은 달랐지만 나라를 위한다는 심정이 강하게 흘러내려 왔다. 그것이 시들었을 때 그들은 언제나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20세기 초에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패기없는 모범청년, 입신 출세열에 들뜬 성공청년, 인생문제에 고민하는 번민청년, 그리고 무엇에나 무관심한 무색청년 등」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 때는 「국가적 몰리상」(國家的沒理想), 「국민적 몰리상」(國民的沒理想)의 시대라고 불리웠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들은 심하게 몸부림쳤다.

그리하여 일본은 천황제로 그 기강을 확립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1945년 이후 그러한 강요된 애국이 무너졌을 때 다시 그들은 정신적인 공동(空洞)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그들은 그것때문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일제하에서는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이 우리 사이에 하나의 정신적인 기강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것이 1945년 이후에도 상당히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어쩐지 그러한 이념의 힘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다. 사실 오늘 국제정세와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 나는 가끔 나 자신을 반성해 본다. 내 생활 속에서 참으로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있는 것일까. 나 알고 남을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일하는 것이 있을까. 나는 참으로 탐욕적으로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철저한 소시민적(小市民的)인 삶이라고 하여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정신과 생활 속에서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남을 위한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이 퇴폐해 진다고 하여야 한다. 20세기 초기에 국가적인 의미에서 물리상적이 되었을 때 일본의 젊은이들이 무기력하여졌던 것처럼 우리는 남을 위하거나 국가를 위한 이상을 품을 때만 위대한 인간일 수 있다. 나만을 위해서 살 때 나는 퇴폐해지고 남을 위해 살 때 위대한 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바이블에 서는 목숨을 잃고자 할 때 도리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래도 봉사의 생활을 가졌던 때라고 할 수 있는 군에 있던 그 무렵이 나에게 있어서 둘도 없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그때는 역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한 때였으니까. 그리고 이 미미한 나도 나라를 생각하고 조국방위에 서 있다는 긍지를 느꼈을 때니까. 어떤 의미에서 남은 병역을 피하고 있는데 나는 바른길을 가고 있다는 긍지를 느꼈으니까.

나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 때 병역을 회피한 생활을 한 사람과 위기에 처한 조국이 부르는 대로 묵묵히 총을 들었던

사람과의 사이에는 인생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적어도 나는 그때 군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손해 본 것 같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 보상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내 정신에 있어서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봉사한다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언제 그렇게 나라를 위해 산다는 충족감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나를 희생하면서 산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인내심을 키워본 적이 있는가. 지금도 눈 내리는 길을 올라가 일선고지를 찾고 미 고문관에게 우리 병사들의 생활을 보이면서 어서 속히 보급을 증가시켜 달라고 호소하던 때가 눈앞에 떠오른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에 가슴이 떨렸던 것도 감미롭게 회상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그 때 나는 나와 군과 조국 사이에 깊은 연결을 느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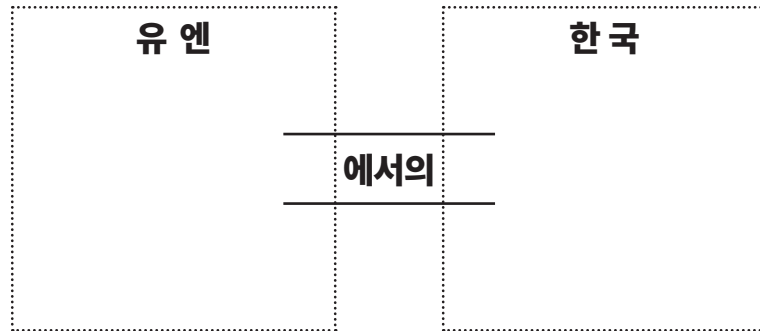
<선행의 교훈>

벗에 대해서는 그대를 더욱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행하고 적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친구가 되도록 선행하여야 한다. <게을르규>

착하고 좋은 일이란 다른 사람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띠우게 하는 일이다.

<마호메트>

한꺼번에 여러 가지 선을 행하려는 하는 자는 결국 하나도 착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S. 존슨>



앞으로 우리의 자주외교는 적지 않은 시련을 겪어야 하며 그러한 때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외교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영관
(서울신문 논설위원)

지난 9월 22일(한국시간)에 막을 올린 제26차 「유엔」총회는 한국문제의 토의를 1년간 연기하기로 가결하였다. 금년에 한국문제를 토의해왔자 이렇다 할 해결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 이를 1년간 연기했다가 내년의 제27차 총회에서 다시 보자는 것이다. 1947년 한국문제 가 처음으로 「유엔에서」 제기된 이래 그 토의가 1년간 연기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유엔한국 통일부흥위원단」(언커크)이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에 게 제출한 연례보고서와 몽고 등 북괴의 동조세력이 제출한 두개의 결의안, 즉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안」과 「언커크해체안」은 올해 「유엔」에서 다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한국문제 토의를 1년간 연기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한 영국과 이에 동조한 우리 우방들은 한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찾기」를 위해 적십자회담을 막 시작한

〈유엔에서의 한국〉

이 때 「유엔」에서의 부질없는 입씨름은 도리어 남북한의 평화적 기운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유엔」의 다수 국가들은 한반도사태에 변화의 요인이 없고 또 한국문제를 해결할만한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만국문제가 해마다 상정되어 냉전시대와 같은 논쟁을 벌이는데 대해 싫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한 때에 관문점에서 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고 영국이 토의 연기안을 내놓았으니 「유엔」의 많은 나라들은 이에 동조하게 된 것이다.

「유엔」의 공기도 그러했거니와, 이 계획을 관철하는데 있어 우리 외교진의 활약도 눈부시었다.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이 결정을 보고 「우리 자주외교의 일대 승리」라고 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68년 이른바 「재량상정」방식, 그러니까 한국문제를 해마다 「유엔」에 자동적으로 상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재량」에 따라 상정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 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를 살리면서 금년에는 이를 상정치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고 이 방향으로 우방국가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자주적인 판단과 자주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우리의 방침을 관철한 것이 가위 「자주외교의 승리」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곁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 넘겨서 안 될 것이다.

「가발 작전」

68년 「자동상정」에서 「재량상정」으로 방침을 바꾼 정부는 69년과 70년의 총회가 열리기 전에도 한국문제 토의의 연기를 시도한 바 있다. 69년,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워싱턴」당국은 『아직 북괴 동조세력과의 대결에서 많은 표차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궁색하게 의제상정을 봉쇄하는 약세를 보일 필요가 없다』고 의의를 표시하였다. 70년에는 「유엔」의 미국대표부를 통해 한국문제 상정의 보류에 관해 소련의 의도를 타진하였으나,

그들의 동조를 얻지 못하였다.

올해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중국의 대표권 문제, 즉 중공의 「유엔」가입문제가 「유엔」의 압도적인 관심거리로 등장하였다. 미국으로서는 「닉슨」대통령의 북평방문을 앞두고 중공문제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중공문제 토의가 한국문제 토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고 염려도 했다. 한국문제에는 공산측이 제안한 미군철수문제와 「언커크」의 해체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국으로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유엔」의 일각에서는 「유엔」의 보편주의정신에 따라 한국, 독일과 같은 분단국가의 쌍방을 다같이 「유엔」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유엔」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해 왔으므로, 한국과 북괴가 같은 지위로 「유엔」에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의 명분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된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된다면 일부 국가가 분단국가의 동시가입을 다시 쳐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는데 한국과 미국은 뜻을 같이 하였다. 마침 판문점에서는 우리 적십자사의 8월 12일 제안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세에 큰 변화가 없었던 데다가 올해에도 한국문제해결에 진전이 이루어질 전망이 보이지 않아 「유엔」회원국가들 사이에는 금년에도 한국문제를 토의해야 하느냐는 데 대해 회의를 갖는 경향이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재량상정」방침을 설득, 관철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정부는 한국문제 토의의 연기를 위한 외교계획을 「가발작전」이라 이름 붙이고 이의 관철을 위한 일대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문제가 의제로 상정되려면 먼저 「유엔」운영위원회의 채택이 있어야 하고 이어 「유엔」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외교활동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25개국을 상대로 전개되었다. 「가발작전」을 지시받은, 우리 「유엔」대사한표옥(韓豹頤)씨는 9월 초순 전통적으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19개 국가들과 전략회의를 열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 계획에 적극 찬성이었고,

중국 대표권문제에서는 중공에 동조적인 영국은 오래전부터 한국문제의 자동상정에 회의적인 나라였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강대국 중에서 「프랑스」가 다소 동요를 보였으나 막바지에 가서 우리에게 동조하기로 돌아섰다. 우리의 설득공작은 우방국가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25개국, 나아가 제26차 총회 개막당시의 「유엔」회원국인 12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토의 · 표결의 내용

정부가 이번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토의의 연기를 위해 은밀한 외교공작을 펴고 있는 동안 한편에서는 한국문제토의의 자료가 「유엔」에 제출되고 있었다. 「언커크」는 8월초 한반도정세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 이를 「우·탄트」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는바, 사무총장이 이를 총회에 보고하면 한국문제는 자동적으로 토의케 된다. 한편 북괴에 동조하는 몽고는 8월 23일 해마다 제출해온 두 개의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하나는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과 그 밖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고, 다른 하나는 「언커크」의 해체를 요구하는 결의안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한국문제토의의 연기를 추진하되, 뜻대로 안 될 때에는 총회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가 다루어질 때 이 자리에 북괴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한편 북괴는 9월 12일 특별성명을 발표, 그들은 「유엔」의 헌장과 목적을 지지해왔으면서 한국문제가 토의되는 자리에 그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초청되어야 한다고 우겨댔다.

예년 한국문제가 「유엔」에서 다루어지는 절차는 이러했다. 총회가 열리면 먼저 총회 운영위원회는 그해에 다루어질 의제를 채택한다. 70년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결의안은 105번째 의제로, 「언커크」해체결의안은 106번째 의제로 그리고 「언커크」의 연례보고서는 107번째 의제로 채택되었다. 그 다음 이상의 의제는 모든 「유엔」회원국으로 구성된 정치위원회에서 토의된다.

〈유엔에서의 한국〉

한국문제가 정치위원회에서 토의되기에 앞서서는 의례 이 자리에 남북한 대표를 초청함에 관한 절차문제가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한국대표는 무조건 초청하되 북괴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 초청되어야 한다는 서방측 주장이 일관해서 관철되었고, 남북한 대표를 조건없이 다같이 초청하지는 북괴동조세력의 주장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북괴를 초청하는데 그러한 조건을 붙인 것은 그들이 한국전쟁 때 「유엔」을 적대시해서 싸웠기 때문이다. 정치위원회에서의 토의가 끝나면 한국문제는 총회로 넘겨진다. 여기서 북괴동조세력이 해마다 제 출해 온 2개의 결의안은 부결되는 한편 「언커크」의 보고를 확인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유엔」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결의가 채택됨으로써 그 해의 한국문제토의가 종결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왔다.

금년에는 총회운영위원회가 9월24일(한국시간) 한국문제의 의제상정문제를 다루었다. 우리 의 전략대로 영국대표는 남북한적십자사가 판문점에서 회담을 시작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회담의 성공을 위해 「유엔」에서의 부결없는 한국문제토의를 1년간 연기하자고 제안하였다.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우방국가들과 북괴에 동조하는 국가들간에 3시간에 걸친 결론이 있는 끝에 영국의 제안은 찬성 13, 반대 9, 기권 2로 통과되었다. 47년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제기된 이래 한국문제의 토의가 연기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68년 우리가 채택한 「재량상정」방식이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며 동시에 우리 자주외교의 일대 승리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운영위원회의 이러한 건의는 26일(한국시간) 「유엔」총회에서 제기되었다. 북괴동조세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번복시키려고 반격을 시도했으나, 결국 총회는 이 건의를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하였다. 미군 철수안은 찬성 68, 반대 28, 기권 22, 「언커크」해체안은 찬성 68, 반대 25, 기권 22, 그리고 「언커크」보고본 찬성 70, 반대 21, 기권 23으로 이번 총회에서 토의하지 않기로 최종적인 결정을 본 것이다. 예년 같으면 한국문제가 12월까지 「유엔」에서 논의될 것이었지만, 금년에는 우리의 기습작전이 성공하여 총회가

〈유엔에서의 한국〉

열린지 불과 4일만에 한국문제는 매듭이 지워진 것이다.

「유엔」과 한국의 역사

「유엔」에서 한국문제의 토의가 연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47년의 일이다. 우리가 해방을 맞은 45년의 연말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영국·소련의 3국외상회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 한국정부의 수립을 돕게 하고 이어 한국을 최장 5년간 미국·영국·중국·소련 4개국의 신탁통치 하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내정 초기에 있어서의 미·소의 극심한 대립과 한국국민의 신탁통치반대 때문에 외상회의의 결정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47년 한국문제를 「유엔」에 제기하여 그 해결을 꾀하게 되었다.

47년 「유엔」총회는 「유엔」임시 한국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반도 전역에서의 선거를 감시토록 했다. 그러나 김일성과 그 배후의 소련이 이에 협력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엔」은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58년 5월 최초의 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유엔」은 곧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항해서 김일성은 끝 그들의 괴뢰 정권을 선언하였다.

50년 6. 25가 터지자, 「유엔」은 북괴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유엔」군을 한국에 파견, 우리와 「유엔」과의 관계는 한층 긴밀해졌다. 그 반면 「유엔」은 북괴를 침략자로 낙인을 찍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침략으로부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직접 군사행동을 취하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유엔」군이 반격으로 나가고 있을 때 「유엔」총회는 10월 7일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를 통해 한반도를 통일하도록 다시금 결의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즉 「언커크」가 구성되었다. 북괴의 비협조

로 「유엔」의 이 결의는 지금껏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언커크」는 해마다 한반도정세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해 왔다.

그 후 한국문제는 「유엔」에서 연례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유엔」은 해마다 채택하는 결의를 통해서 첫째, 「유엔」이 한국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둘째, 민주적인 통일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유엔」감시하에 자유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북괴동조세력은 한국의 통일이 남북한의 직접 교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의 철수와 「언커크」의 해체를 요구해 왔다. 우리와 「유엔」과의 관계, 그리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기를 거부해 온 북괴의 태도에 비추어 금년 총회에서 우리가 한국문제 토의의 연기를 추진한데 반해 북괴동조세력이 한국문제의 토의를 희망했다는 것은 역사의 한 「아이르니」가 아닐 수 없다.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상의 실질적인 문제보다도 남북한 초청이라는 절차상의 문제가 차차 중요시되어 갔다. 한국 문제를 다루는 총회 정치위원회에 누구를 참석시키느냐는 문제이다. 59년의 14차 총회까지는 우리의 단독초청이 별 문제없이 관철되었다.

그러나 60년의 15차 총회에서 미국의 「유엔」대표 「스티븐슨」은 한국은 무조건 초청하되 북괴에 대해서만은 「유엔」이 한국문제를 다룰 권한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케 하자고 수정을 제기하였다. 이른바 「스티븐슨」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괴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를 지금껏 거부해 왔기 때문에 「유엔」에의 초청이 거부되었던 것이다. 「유엔」에서의 정세는 차차 변하여 이제는 남북한을 동시에 초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세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토의연기」를 추진케 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다.

정세의 변화와 「유엔」대책

제26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봉쇄하고, 이를 1년간 연장토록 한 것은 그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자주적인 판단과 외교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자주외교의 일대 승리라고 할만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총회 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가 다루어지는 자리에 북괴가 초청될지도 모를 가능성을 미리 막을 수가 있었고 또한 세계가 냉전 시대에서 탈피해 가고 있는 이때 한국문제가 「유엔」에서 냉전 논쟁의 자료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국 문제에 관해 「유엔」이 지금까지 채택한 여러 가지 결의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우리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었다. 금년의 선례에 따라 내년에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국문제의 상정을 봉쇄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가 「유엔」에 있어서의 한국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 보이므로 우리는 정세의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기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원고가 작성되고 있는 10월 25일 현재 중공의 「유엔」가입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중공의 「유엔」가입이 금년에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실현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인 바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중공의 수뇌들은 72년 5월안에 있을 「닉슨」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한의 정치적인 분단 상태를 동결함으로써 북괴의 정치적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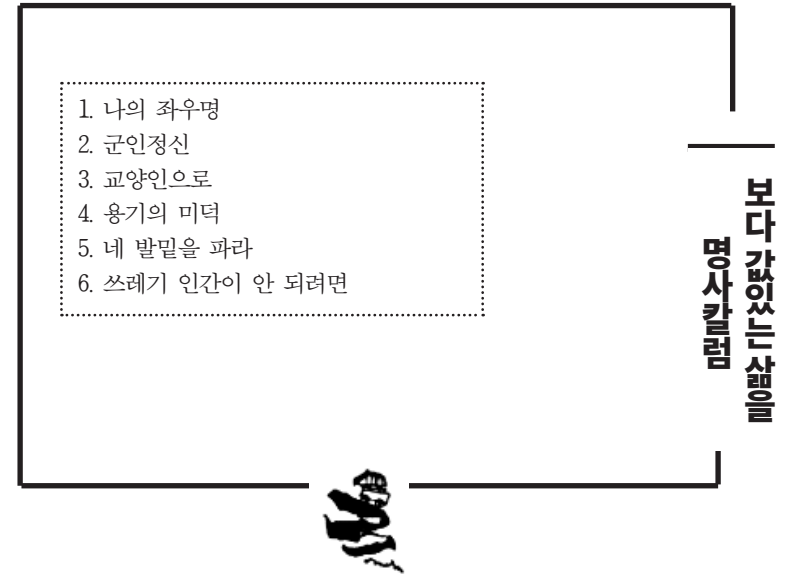
또한 「유엔」의 일각에서는 최근 「유엔」의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독일과 같은 분단국가의 쌍방이 다같이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우·탄트」사무총장 자신 72년 총회에서는 분단국가 쌍방의 「유엔」동시가입이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같은 분단국가인 독일

〈유엔에서의 한국〉

의 경우, 서독은 서부 「베를린」문제에 관해 동독과 타협이 이루어지면 동·서독의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우리의 명분은 큰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한국과 독일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 특히 북괴는 6·25 때 침략을 자행하여 국제사회에서 「침략자」의 낙인이 찍혀 있고 지금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여 북괴의 「유엔」가입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명분을 살리느냐. 현실과 타협하느냐는 중대한 결단에 직면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남북한의 동시 가입 문제가 제기되기에 앞서 내년 「유엔」에서 한국문제의 토의가 의제로 결정된다면 남북한 동시·무조건초청문제가 제기될지 모른다. 그러할 때에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금년 우리는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되지 않도록 힘썼지만 이는 결코 우리와 「유엔」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의 지금까지의 결의는 계속 유효하며 정치적인 통일은 「유엔」과의 협조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용식 외무장관이 한국통일에 관한 3단계 조치 즉 제 1단계에서 인도적인 교류를, 제2단계에서 비정치적인 경제·문화교류, 그리고 제 3단계에서 정치적인 통일을 모색하는데 있어, 특히 제3단계는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북괴는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다루어지는 자리에 그들이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통일문제는 남북한의 직접협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겨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적십자회담을 하루 속히 정치협상으로 끌고 가서 한국문제를 「유엔」과 단절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금년의 「유엔」외교를 무난히 넘기는 데는 성공했으나, 앞으로 우리의 자주외교는 적지 않은 시련을 겪어야 하며 그러한 때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외교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나의 좌우명
2. 군인정신
3. 교양인으로
4. 용기의 미덕
5. 네 발밑을 파라
6. 쓰레기 인간이 안 되려면

보다 값있는 삶을
명사칼럼

나의 좌우명

이승녕
〈서울대학원장〉

내가 일생 학문하는 직업에서 느낀 것은 「한 눈을 팔지 말고 외길을 달려라」라는 처세관이다. 젊어서 재주가 있다고 주위에서 칭찬을 받던 수재들이 그 일생의 업적을 끝에 가서 저울질해 보면 이렇다고 할 값있는 일을 못하고 생애를 허송하는 예를 많이 보아 왔다.

재주가 있으니, 처음에 공부를 해도 우등을 하고 무엇을 손대어 보아도 남보다 쉽게 보람을 낸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게 되는데, 어려운 것이 없는 듯이 느껴서, 마구 닥치는 대로 해본다. 그러다가 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평범한 일꾼에 그치고 마는 법이다.

학문에서 이런 학자를 우리는 학생 때에 「잡화상」이라고 불렀다. 이런「잡화상」타입의 학자에게는 어느 것도 잘 하는듯하나, 따지고 보면 하나도 쓸모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무식한 대중을 혹하게 하는 약장사식 학자가 되는 것이어서, 뜻있는 자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만다. 철학도, 문학도, 어학도, 미술도, 음악도 안다고 의시대나, 하나도 뚜렷한 학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젊어서부터 이것을 경계해 온 터이다. 한 학문만 가지고 일생,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파고들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끝에 가서 성공한다고 믿어 내 일생 이러한 처세관을 가지고 살아온 셈이다. 그리하여 어느 후배들에게 자신을 가지고 권한다. 「한눈을 팔지 말고 외길을 달려라」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재주보다 끈기와 성실이 이긴다」라고.

나도 재주가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믿고 있기는 하나, 그 재주라는 것이 때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기 쉬운 것이니, 나는 재주가 도리어 화근이 되고, 신세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믿는다. 재주보다는 「끈기와 성실」이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재주를 믿지 말고 일생 끈기와 성실로 노력하면 누구나가 다 성공할 것이다.

「한 눈을 팔지 말고 외길을 달려라」

「재주보다 끈기와 성실이 이긴다」

이것이 내 좌우명인데, 내 일생의 체험과 노력에서 얻은 것이다

군인정신

오재경

〈기독교방송국 운영이사장〉

나는 군인생활을 못해 보았다. 그러나 나의 학창시절의 짙막한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정신이 어떠한 것이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적의 고지를 빼앗기 위한 분대별 공격의 모습을 생각한다. 적을 쳐부수기 위해 눈앞의 고지를 점령해야만 한다. 적의 총알은 비 내리는 듯 심하다. 이를 공략하기 위해 분대원은 제각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자리를 찾아 분산해 앞드려 있다.

분대장은 적의 형편을 살핀다. 그리고 분대원의 이름을 불러 적당한 지점까지 개별적인 진격을 하도록 명령을 한다. 고지 가까이 도달했다. 뭉친 공격의 때가 온 것이다. 분대장은 분대원 전원에게 일제히 일어난 공격하라고 호령한다. 그리고 앞서 나간다. 함성의 돌진이다. 그리고 육탄전이 벌어진다. 우리 에게도 희생자는 있었다. 그러나 적의 고지는 이제 우리의 것이다. 이래서 또 다시 새로운 전투에 대한 준비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다시 보다 많은 적을 무찌르기 위해 진격하는 것이다.

학창시절의 군사훈련은 나에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법을 깨우쳐 주었다. 싸워서 이겨 남는, 그리고 또 새로운 싸움을 위해 준비하는 그리고 또 싸워 이기는 이러한 삶이 진정 우리 모두의 것이 될 때 우리 사회 우리 국가는 보다 바람직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하는 나의 삶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나는 내가 맡은 일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나의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신조가 나로 하여금 싸움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맡은 바 일,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을 최선의 것으로 가꾸어 올릴 때 우리의 삶은 확실히 보람된 것이 되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해치우는 일은 고된 일이 되겠다. 그 누구나 오늘의 삶을 근거로 해서 보다 나은 생산을, 창조를 마련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고, 해서 안 될 일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군인정신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양인으로

오화삼

〈연세대 문과대학장〉

우리는 이따금 모든 일을 나 혼자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일 밖에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이 두 번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한 가지 첨부할 것은 적어도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충실히 하되 교양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장교들입니다. 장교는 지도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군인은 일반 사회인과는 달리 투철한 정신력이 요청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장교는 더 한층 강력한 정신력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충기를 다루고 작전을 하고 규칙을 엄수하는 것은 군인이 지켜야 할 기본 임무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장교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것은 교양일 것입니다. 교양은 인격이라는 말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원래의 뜻과 다르게 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교양이라는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교양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사람 됨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용 지식과 교양을 구별해서 씁니다만 장교로서의 지식이란 군인이 알아야 할 여러가지 일들일 것입니다. 장교로서의 교양이란 지도력이라고나 할까요? 지도는 지식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 교양이 따를 때 인격적인 상호 작용에 의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토방위를 맡고 제신 여러분은 장교로서의 교양(인격)으로 부하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역량을 지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군사지식 이외에 광범위한 인문과학의 지식을 토대로 한 인격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로써 풍부한 정서를 지니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메마르고 한정된 지식을 넘어서 폭 있고 깊이 있는 교양(인격)을 지니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보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융화되고 단결될 때 조국은 단단히 다져진 대지 위에 서는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용기의 미덕

양병택
〈경희대 사대학장〉

미국 작가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은 노어부(老漁夫) 「센티어고」인데 그는 영웅적인 위대성을 지니고 있다.

그도 80일 동안이나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끝내 바다로 나간다. 같이 데리고 다니던 소년도 그의 양친의 반대로 가끔 도와주는 하나 다른 배에 옮겨 가고 만다. 아내와도 예전에 사별하여 이제는 정말 고독한 몸이다. 몸 어디고 노쇠의 표시가 뚜렷하다. 그러나 눈만은 바다와 같은 색으로 생생하며 불굴의 빛을 발하고 있다.

「오늘은 사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혼자서 바다로 나가자 큰 고기를 낚는다. 그는 탁월한 기교와 초인적(超人的)인 인내력으로 용감무쌍하게 그 큰 고기와 사흘 동안의 사투(死鬪)를 전개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불굴감투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싸운다. 이처럼 노인은 지난날의 자신(自信)과 용기를 불어 일으키면서 싸우다 드디어 그 대어(大魚)를 정복한다.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 떼의 습격을 받는다. 아무리 격퇴하나 자꾸만 떼를 지어 덤벼든다. 노인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다. 「인간은 패배되도록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인간은 육체가 멸망하는 수가 있어도 패배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노인은 칼이니 곤봉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운다. 결국 상어떼에 다 먹힌 채 항구로 되돌아온다.

노인은 이 시련 속에서 인간 최고(最古)의 도덕가치인 용기를 발견하고 나아가서도 사랑 겸양 상호의존(相互依存) 등의 실제적 윤리가치를 확인한다. 노인은 만만한 자신과 굳은 신념에서 불굴, 불패의 정신을 발휘하여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 줌에 우리에게겐 결핍되고 있는 「용기의 미덕」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이 아쉽다.

네 발밑을 따라

양병욱
〈숭전대 교수〉

「네 발밑을 따라. 거기에 맑은 샘물이 있으리라」 시인(詩人) 괴테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맑은 빛이 솟게 하라. 네가 서 있는 자리

에서 맑은 샘물이 나게 하라. 네가 서 있는 땅을 축복과 광명의 땅으로 만들라. 사람은 저마다 자기다운 천분이 있고 저다운 빛이 있고, 저다운 노래가 있다. 저마다 정성껏 제 천분을 드러내자. 저다운 보람을 발휘하고 자기다운 노래를 부르자. 사람은 각각 제 천분을 지닌다.

우리는 제 천분을 바로 알고 정성껏 키우자. 산 속의 돌 틈에서 솟는 실날같은 샘물이 모이고 합쳐서 큰 바위를 부수는 힘찬 폭포가 되듯이 나의 천분을 날마다 기르고 달마다 키워서 커다란 힘과 빛을 발하게 하자. 저마다 가슴 속에 높은 뜻을 지니자. 빛을 구해서 높은 곳을 찾아서, 깊은 곳을 향해 서 날마다 새롭고 달마다 전진하는 생명이 되자. 생명(生命)은 젊을수록 아름답고 힘차다. 젊은 생명일수록 성장(成長)하고 비약하고 발전한다. 미래를 꿈꾸고 창조(創造)를 노래하고 전진을 벅삼고 노력(努力)을 지팡이로 의지하는 젊은 생명이 되자. 마음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여 역사(歷史)의 소리를 듣자.

한국의 역사는 사람을 부르고 있다.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 성실(誠實)하고 책임감(責任感)있는 창조적(創造的) 엘리트를 부르고 있다. 사람은 많아도 정말 훌륭한 사람은 보기 드문 세상이다.

우리의 역사는 인물을 찾고 있다. 역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용감(勇敢)히 응답할 수 있는 창조적 인물이 되기 위하여 묵묵히 힘을 기르고 실력을 쌓자. 하루하루를 새로운 하루, 전진하는 하루, 보람 있는 하루로 만들자.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 한국 사람으로 한국의 땅에 태어난 이상, 한국 사회의 보탬과 보탬을 주는 자국을 남겨놓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마다 높은 뜻을 간직하고 정성껏 전진하는 젊은이가 되자.

쓰레기 인간이 안 되려면

김은우
〈이대 시청각교육원장〉

요새 와서는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기 쉽다. 헌돈과 같이 아주 진부한 존재가 되기 쉽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요새와서 돈만 인플레이션이 나서 흔하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기술정보나 모든 생활정보, 그리고 아카데미한 학문지 식까지도 인플레이션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간한 지식이나 기술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바뀌며 점점 더 새로 발견된 기술과 지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자기가 전문하는 분야에서 한눈을 살게 되면 벌써 그 사람은 무식하고 전무한 사람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는 오랜 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새 와서는 새로운 지식을 쉼 없이 새롭게 받아들여서 익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경험을 가졌더라도 쓰레기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

새 방법으로 새 공부를 한 소학생은 묵은 방법으로 그 전의 지식을 배운 중학생을 구세대라고 돌려놓는 시대가 됐다. 아무리 「컴퓨터」가 새로운 좋고 정밀한 최신 전자 기계라 하더라도 자꾸 새로워지는 지식과 감각과 철학을 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나 묵은 「인포메이션」들은 쓰레기가 「컴퓨터」 속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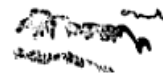
그래서 요새 와서는 「컴퓨터」에도 쓰레길 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쓰레기 밖에 없다고 해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너무 자기가 과거에 배운 지식만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사람의 Life Cycle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번 배운 것으로 10년은 써먹고 살았지만 이제 와서는 5년, 아니 2,3년도 못간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교육(終身教育)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게 되었다.

배우는 일이 이제는 교양이나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생을 지탱해 나가는데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쉼없이 배우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앞날은 태운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세상이 되지만 배우기를 중단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지휘관의 신년 설계

◆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발전을 기약하는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 보다 정예한 군이 되기 위한 각 부대 지휘관들의 신년 포부를 물어본다. ◆

설문

- (1) 신년도 부대 운영계획은?
- (2) 공군의 전력증강을 위해하고 싶은 말
- (3) 군민 유대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은?
- (4)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군 기강 쇄신을 위한 계획



3967 부대장

1) 인화단결을 구심점으로 책임완수와 전비태세 완비를 위한 전신전력을 개발하여 정예공군으로서 전력의 극대화를 이룩하며 조종사 양성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 전력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외적인 성과나 결과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장병 각자에게 맡겨진 조그마한 것 사소한 일부터 착실히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의욕적인 자세, 다시 말해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임무수행과 내적 충실을 기하는데 앞찬 성과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3) 현대전은 총력적이라 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현대전의 승리는 상상할 수도 없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당 단은 작년도에 이어 신년도에는 대민 계몽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휘관의 신년설계

취약지구 주민들에 대한 각종 계몽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이 지역 각 기관장 및 언론인을 비롯한 미합동 대민 섭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민 봉사와 대민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복지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여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도모코저 한다.



3593부대장

가. 현존전력을 극대화하여 각종 침투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1) 실전 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원 전투요원으로 정예화 시킨다.

(2) 항공기 및 지원 장비의 가동률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여 출격능력을 증가시킨다.

로 유지하여 출격능력을 증가시킨다.

(3) 작전지원시설을 신설 보수 및 지하화 하여 적 기습으로부터의 방어능력을 확보한다.

(4) 제반 작전장에 요소를 사전 배제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전력 손실을 억제한다.

(8) 기지 사격장을 보수 확장하여 전체적인 사격기량향상을 위한 강화훈련을 실시한다.

나. 정신전력을 강화하여 정병강군의 기틀을 조성한다.

다. 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고도의 전력효율을 기한다.

2. 가. 모든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 전력화하여 전투태세의 만전을 기한다.

나. 승공이념의 견지로 싸우면 이기는 군인정신과 군 기본자세의 정립.

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인상을 부각시키고 장병 상호간 인화단결과 군 기강을 확립

라. 기술 군으로서 기술연마와 사명감을 가져 국민의 군 대로서 책임을 다한다.

3. 가. 대민 계몽활동 강화 및 지원사업의 증대

나. 지역사회 개발과 불우아동 선도를 위한 학원 운영 및 지원

다. 홍보 및 정훈활동의 강화로 국민 상호간에 신뢰도 증진

4. 가. 장병 상호간의 이해도 증진

나. 군기순찰 강화와 계몽선도로 군 기본자세 확립

다. 여가 선용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보의 선용

마. 하사관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3762부대장

1) 목표달성 이 힘든 계획보다도 하나하나의 계획 자체는 큰 빛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모여서 큰 힘을 낼 수 있고 실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계획을 중심으로 부대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2) 전력증강이라고 하면 자칫 장비의 현대화나 병력의 증가를 생각하기 일수이지만 그런것은 보다 교차적인 선에서 정책적으로 다룰 문제이고 오히려

현재 현존하는 상태의 모든 인원 및 장비를 최고도로 훈련하고 정비하여 질적으로 강인하고 우수하며 어떤 상황에 대처하더라도 이를 능히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고도로 정예화 된 정신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력증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3) 첫째 기지견학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종래 신청에 의한 피동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성 있게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히고 이해를 증진 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단 보유의 최신예전폭기를 최대로 활용하며 기지견학 대상자도 지식층의 다수 인사를 위주로 하여 폭넓게 공군의 발전상을 견학 실감케 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단일종목 체육경기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대규모적인 다종목 체육대회로 인한 경비의 낭비와 기본 임무수행상의 지장을 배제하며 보다 효과적인 군민 유대강화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장병들의 체력향상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순수한 아마추어팀을 구성하여 친밀과 우애를 목표로 중요 관민단체와 시합을 가질 계획입니다.

4) 꾸집한 선물과 특식, 그리고 장병 위문공연, 이러한 것만으로 사기를 진작시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려운 나라 살림으로는 이런 류의 사기진작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며 그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안위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사기진작과 동시 군 기강 쇄신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병영생활에서의 고압적인 분위기라든가 비효율적인 사역동원이라던가 상급자에 의한 부당한 사적 제재 등을 철저히 색출, 엄단함으로써 병영생활의 의욕이 샘같이 솟아나게 할 계획입니다.



5692부대장

1) 가. 현재 파악되고 있는 애로 및 문제점의 해결과 개선

나. 임무의 수행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 적용다. 문제의 대두를 예방하는 사전조치 강구

2) 장병 각자가 맡은바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조급이

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가 처해있는 시대적 사명감과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하여는 원활한 상하 의사전달로 일체감이 형성되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하여는 상관이 부하의 고충, 고통을 자기의 고충, 고통과 같이 느끼며 술선 수범하여야 할 것임.

3) 군인은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외에 더 중요한 계획은 없음

4) 지휘관 자신이 장병의 입장이 돼서 일하고, 먹고, 자고, 쉬는데 불편이 되는 점을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개선이 안되는 것은 그 이유를 밝혀주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사기진작의 계획임



비행학교장

1) 조등 비행훈련에 만전을 기하며 각종 미비점과 애로점을 분석 검토하여 강화 개선할 것이다. 특히 비행훈련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 지원분야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는 물론 지원분야 상호간에 강력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대운영을 도모할 것이다.

2) 공군이 핵심전력인 조종사 양성에 있어서 정예 선발주의를 채택하여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둔 교육 훈련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있어서는 전술 전기 연마를 위한 교육훈련이 가장 귀중한 만큼 총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3) 무의촌에 대한 대민 무료진료와 순회 영화상영 농번기에 따른 노동력 지원 등의 대민 지원사업과 인근 주민에 대한 각종 선무활동으로서 군 민간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4) 장병들의 각종 체육관동을 널리 권장 장려하고 자활 영농사업을 통한 사병들의 부식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정기적인 위문공연을 마련하고 영외 장병의 가족을 위한 가족진료소를 운영하여 장병들의 복지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할 것이다.

군기교육대를 계속 운영하여 신상필벌로서 다스리되 지엽적인 처벌이나 단속보다는 자발적 이고 반복적으로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전반적인 군기확립을 위한 무우드를 조성토록 할 것이다.

특히 분대장, 소대장급 요원에 대한 집중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군기확립은 물론 기지방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5305부대장

1) 임자(壬子)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謎배 노력하여 공군 제1의 부대를 건설"하겠다.

특히 작전면에서 예상되는 여하한 적기의 침투도 사전에 이를 탐지, 격파할 수 있는 동시작전능력의 향상과 장비의 완전가동 및 총포, 탄약, 식량 등 기본 자원물자를 확보함으로써 작전지원태세를 확립하겠다.

또한 장병들의 과학적인 인사관리와 전천후 체력을 도모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지역적으로 분산된 당 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아 독립 전투부대 개념에 의거한 각 기지의 요새화와 복지시설을 확장 및 활용하여 싸이트의 가족화를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우선 제도적인 면에서 일사 유사시에 자동적으로 전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기민성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력증강을 위하여서는 저고도 침투 항적을 포착하는

G/F 사이트의 완벽한 운영 및 확장과 각 기지의 지하시설화가 시급하다.

3) 당 단의 인근 벽고지 주민에 대한,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물질적 지원과 의료, 영화, 이발, 장비지원 등을 계속할 것이며, 현재 운영 되고 있는 백령도 및 제주도의 신우학원, 의상학원, 그리고 강릉의 풍호학원에 뒤이어 각 사이트마다 한 개의 학원을 운영토록 추진하여 불우아동에 대한 학업지도와 벽고지 및 절해고도의 어린이에 대한 애국심 고취로서 조국근대화와 반공정신 무장강화에 전력하겠다.

4) 우선 장병들의 급식개선 및 내무반 환경을 향상시켜 여하히 힘든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초인적인 정신자세를 견지토록 하며 내무반 안에서는 여하한 피로도 완전히 풀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군 기강 세신을 위하여서는 영내외로 군기순찰을 강화하며 소관참모의 내무반 순시 및 접촉교육으로 사고의 미연방지에 힘써야 하겠다.



기술교육단장

1) 올바른 정신과 실질적인 능력을 기르는 동시 능률적인 임무수행의 본질과 요령을 배양하도록 부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즉 교육훈련체제를 정비 보강하여 우선 기본 군사훈련 중, 유격훈련, 사격훈련 등을 강화함은 물론 현대화 공군에 부응하는 각종 신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기지방어 훈련과 대간첩작전 훈련 등 정예공군이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지금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군내 유일한 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바람직한 공군의 기술역군을 배출하는데 전력할 것이다.

2) 공군의 전력증강은 유형적인 전력(장비, 물자 등)과 무형적인

전력(정신, 기량 등)이 다 같이 증강돼야 되는바 유형적인 전력증강은 예산 및 군원의 제한으로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더욱 정신 및 기량의 강화와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전력증강에 기여해야 하며 교육훈련의 목표와 방침도 여기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3) 국민의 군대라는 것을 충분히 교육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군대가 되도록 하며 일체의 민폐를 근절하여 장병 모두가 예의 바르고 친절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노력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군 민친선을 위해서 민간기관과 단체행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민지원과 각종 대민선두활동, 위문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4) 올바른 군 생활은 올바른 사회생활과 개인발전의 기틀이라는 것을 이해 체득시켜 실천케 함으로써 군생활과 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풍을 조성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계속적으로 교관들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각종 오락시설, 운동시설과 복지시설을 보완 구비하겠다. 그리고 엄정한 군기 확립책으로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고예방책으로서 군기확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관련 참모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 조치하는 본 계획을 계속 시행하겠으며 또한 자체 검열활동을 강화하여 지휘관님 군가 관계관들이 직접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겠다.



5426부대장

1) 급변하는 정세, 발전되어 가고 있는 사회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일 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정예공군을 우리의 지상목표로 하는 만큼 내외상황에 부응하는 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체개발이

무엇보다 필요 된다. 우리는 기술군으로써 손색없는 인적 요소의 자질개발과 그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보다는 질적인 우수성을 견지하여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신년에는 통신전자 능력의 극대화에 총력을 경주 할 방침이다.

2) 자주국방을 위한 공군력 증강의 필요성은 많이 논의 되어 왔고 계속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제는 우리 공군에도 확증(確證)된 지휘통제체제(Positive Command and Control)를 위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군 민 상호유대를 튼튼히 하는데 있어서 첫째,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대민자원, 친선운동경기, 기타 섭외활동의 강화 및 민간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군에 대한 인식을 항상 새롭게 하여 주어야 하겠고 둘째, 소극적인 방법으로서 군이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4) 병영생활에서 비록 주어진 여건이 만족스러운 상태라고는 할 수 없으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 등의 의, 식, 주 문제를 최선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고 제반 복지시설을 개선하여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 바탕을 마련해주는 반면 장병 각자에게는 주어진 임무를 강조하여 나아가겠다.



6326부대장

1) 수도권 방위의 일환으로 전 병력 전투화가. 전 장병에 대한 각개 및 집단 전투훈련을 일일 일과로 편성 운영하고

나. 각 형태별 기지방어 훈련의 주기적인 실천으로 도심지에서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정신적 이완

을 방지하고 항상 군인의 궁극적 사명인 전투자세를 유지, 각종 도발에 대비한다.

2) 중형 일체감의 형성은 곧 집단생활에서의 힘의 우열을 판가름함으로 상의 하의의 정확한 전달과 인식으로 매사의 실천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공동체 의식을 앙양하고 부여받은 사명에 대하여는 항상 정확히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설계 및 인식절차를 수립 운영한다.

3) 서울시와 협조하여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국도변 고가대지상의 군용시설을 이전하고 시로 하여금 아파트를 건립 토록 촉진함과 동시에 영외장병의 집단거주로 유사시의 긴급동원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4) 관할 전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및 복지 미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명랑하고 효율적인 병영 생활을 영위토록 하며 현재 실천중인 군 기강 확립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Time Table에 의거한 목표를 설정 운영하여 전 장병으로 하여금 투철한 군인정신 아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군인이 되게 한다.

<생활의 교훈>

그날그날이 일평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라.

<에머슨>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영국 속담>

그대가 건강하다면 남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고 그대가 병들어 있다면 그 병 때문에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톨스토이>

정예공군을 향한 우리의 자세

창의력을 발휘하자

이창록

〈전우신문 논설위원〉

◆세계 각국의 공군 현대화 경쟁은 치열하다. 이 대열에서 우리만이 낙오자가 될 수 없다. 남보다 먼저 창의력을 발휘해서 앞장서야 하겠다. ◆

한 시대의 군사정세를 좌우하는 큰 요소 중에서 군사기술(軍事技術)의 변천을 소외할 수가 없다. 어느 면에서 보면 군사기술의 전환에 따라 그 시대의 군사 정세가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 가장 두드러진 예가 핵무기(核武器)의 실전단계와 더불어 극대화(極大化)되고 있는 현하의 군사정세라고 하겠다.

최근 중공(中共)이 유엔총회의 표결에서 회원국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자유중국대신 유엔 가입이 가능해진 것도 따지고 보면 핵력(核力)의 작용이 절대적이었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중공이 중거리 탄도탄(中距離 彈道彈)의 실전단계까지 핵무기 보유가 불가능했다면 그만한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것이 면하기 때문이다. 8억

특집: 정예공군을 향한 우리의 자세

의 인적자원과 그 광대한 대륙 및 지하자원 등 무시 못할 국력 요소가 배경된 것도 사실이었으나 무엇보다도 〈핵 이빨〉을 갖추고 「아시아」 및 세계정세에 반작용만을 노리고 있다고 해서 유엔에 끼집어 들이면 중공으로 인한 분쟁이 줄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찬성 각국의 근본 이유였다고 한다. 이를 뒤집어 중공이 보유하는 정도의 〈핵력(核力)〉을 자유중국이 보유했던들 타율적으로 충실한 회원을 몰아낸다는 불행한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군사력(군사기술을 포함한)은 일국의 국운(國運)을 좌우하는 것이니 군인 된 우리들은 국군의 군사력 충실에 노력을 아끼서는 안 될 것이다. 중동(中東)의 〈6일 전쟁〉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공군력의 우열(愚劣)이 곧 전세를 결정짓는 것임을 볼 때에 이 글의 주제가 된 〈창의력을 발휘하여 정예공군 육성에 이바지하자〉는 평소의 각오는 곧 우리의 자주국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1. 공군세력 격차와 전쟁 심리

광의적(廣義的)인 전쟁심리는 국민 전체의 전쟁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을 말하는 것이며 협의적(狹義的)인 전쟁심리는 전장(戰場)에서의 전투요원이 겪는 심리적 영향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여러 요인중에서도 무기의 격차(格差)가 가져오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사실 전투간에 있어서의 무기의 우열은 곧 사기(士氣)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사실은 공중전(空中戰)을 위주로 하는 공군의 경우는 거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 즉, 항공기의 성능이 적보다 우수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자신(自信)과 여유, 그 반대로 적보다 성능 나쁜 항공기로 싸워야 하는 경우의 불안감 및 초조감과 차이에는 전쟁의 승부를 미리 평가할 수 있는 마력이 숨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 공히 항공기 개발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 노력의 성과는 곧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한 푼어치의 에누리도 없이 평가되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은 진주만(眞珠灣)의 공중기습에서 시작되어 히로시마(廣島)의 원자탄 투하로 막을 내린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항공세력의 소장(消長)이 승패의 굴곡을 기록한 혈전이었다.

일본 해군의 전설적인 명제독(名提督)으로 기록된 「아마모도소이로꾸」(山本五十六) 대장은 그 자신이 해군출신이면서도 당시 일본 해군 전략을 대표했던 거함거포(巨艦巨砲)주의를 배격하고 해전(海戰)에서의 항공세력을 극구 주장했었다. 이 주장이 일본大本營(日本大本營)에 먹어들었다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역사평론가도 있다. 사실, 일본은 미국의 공군력에 진 것이었다. 해상에서, 섬에서, 일본군의 수많은 장병이 항공기를 목마르게 기다리며 백골이 되었다. 공군력을 가볍게 보았던 군국주의(軍國主義)의 처참한 말로가 바로 일본패전이었다.

일본 본토의 국민들은 신성불가침이라고 자처하던 후지산(富士山)을 밑에 깔고 제비처럼 난무하는 미함재기(美艦載機)와 B29의 공습을 당하면서부터 패전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루손」군도(群島)와 「마샬」군도의 상륙 부대들도 하늘을 덮는 미 공군기를 보면 머리부터 처박고 두더지 꼴이 되었다. 이른바 무적 황군(無敵皇軍)도 무기의 열세하에서는 여지없이 잔적(殘敵)으로 시세가 떨어져야 했다.

1967년 6월의 중동 <6일 전쟁>에서 「아랍」연합군이 참패를 당한 최대 원인도 「아랍」공군의 기술 미숙과 작전소홀이었으며 「이스라엘」군의 속전 속결은 그 정예 공군의 뛰어난 기술과 치밀한 기술 작전의 경이적인 성공에 의한 것이었다. 수적으로 우세한 「아랍」지상군은 유리한 조건하에 있으면서도 「시나이」 반도를 패주해 갔던 것이다. 이 <6일 전쟁>은 현대전에서 공군 우세가 전세 전반을 결정짓는다는 생생한 교훈을 우리의 뇌리에 새롭다.

2. 우리공군과 북괴공군

<6일 전쟁>은 결코 허술하게 보아 넘길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오랜 숙적을 대치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듯이 우리의 숙적인 북괴집단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괴군이 <6.25>와 같은 재침으로 나올 때 그 기습의 양상은 1950년 당시와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는 추리는 군인 아닌 일반시민들 간에도 회자되어 있다.

즉, 휴전 후 재군비강화에 광분해 온 북괴군은 우선 공중기습을 가해올 것이라는 추측이다. <6.25> 당시는 <탱크>를 앞세운 지상군의 전면공세로 나온 북괴군이었으나 재침의 경우는 우리의 주요 군사시설, 주요 산업시설, 주요 교통망 등을 강타하는 공중기습을 서슴지 않을 것 이다.

이 추측은 오늘날 공공연한 상식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며 군 또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터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측이 나올 만큼 북괴공군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전략연구소(戰略研究所)의 기년도 군사 「밸런스」 보고에 따르면 북괴공군의 현 유세력은 다음과 같다.

- ◇ 북괴 공군 총병력 3만명
- ◇ 전투용 항공기 5백30대
- ◇ 「일류신」 경폭격기 70대
- ◇ 「미그」15형전투폭격기 60대
- ◇ 「미그」21형요격기 90대
- ◇ 「미그」19형요격기 20대
- ◇ 각종 수송기 약 30
- ◇ 「야크」 연습기 등 70대
- ◇ 「헬리콥터」 20대

이 밖에 비공식 확인이긴 하지만 알려진 「미그」23형의 일부가 도입되어 있다고 한다. <6.25>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폭증강이며 최근의 민을만한 군사정보는 북괴공군의 전진기지가 휴전선으로 접근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교묘하게 위장된 공군기지는 거의가 지하격납고(地下格納庫) 및 수리공장 등 부수시설을 지하화 하는 등 북괴공군의 현유세력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비하는 우리 공군의 현유세력은 F-4 「팬텀」비행단 창설 등 정예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만 그 대수에 있어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어서 공군 증강은 비단 공군자체만의 숙제가 아니라 자주국방상의 최대 과제이자 전 국민의 열렬한 염원이 아닐 수 없다.

필자 자신도 우리 공군의 시급한 증강을 염원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알팍한 군사상식 정도로 장차전을 운운함은 주제넘어 보일지 모르나 연전(年前) 어떤 기회가 있어 제○○전투비행단을 부대방문했을 때 비행단장에게 평소부터 알고 싶었던 일 몇가지를 물어본 일이 있었다. 그 때의 대화 일부를 소개 해 본다.

필자 『우리 공군만으로 영공방위는 가능합니까?』

단장 『아직은 ○○% 정도라고 봐야 할 겁니다.』

필자 『그 공백은 어떻게 보충하려는 겁니까?』

단장 『일본에 기지를 둔 미 제 5공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필자 『공군은 24시간의 불침번을 자처하고 있는데 ……』

단장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만피트 상공에 끊임없는 초계비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자 『서울은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운데 <6일 전쟁> 식으로 공중기습 받을 염려는 없습니까?』

단장 『레이더가 한반도 뿐 아니라 중국대륙일부까지 커버하고 있으니 기습이란 불가능합니다.』

필자 『우리공군과 북괴공군을 비교하면 전투기술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지요?』

단장 『우리 공군조종사들의 비행기술과 전투기술은 세계적입니다.』

필자 『북괴공군은 거의가 지하로 숨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군사시설은 너무 지상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단장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비행단장의 답변은 자신만만했다. 미 제5공군의 지원하에 영공방위는 물 썰 틈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의 마음은 흐뭇하며, 군 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장과의 대화내용을 어디엔가 발표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두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그 하나는 언제까지 미 제5공군의 비호하에 안온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미 제5공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괴공군 배후에도 소련과 중공의 공군세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과 더불어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일본의 항공자위대

세력이 국산신예기(國產新銳機)에 의해 증강되고 있으며 이미 「아시아」 최강의 성능과 대수를 보유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우리의 현상향과 비하면 엄청난 격차로 증강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제4차 방위계획도 역시 공군 현대화에 치중하고 있다는 바 우리는 미 공군의 비호에서 하루 속히 탈퇴하여 독자적인 공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성을 통감해야만 한다.

앞서 인용한 제○○비행단장과의 대화를 좀 더 보충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도 있었다.

즉, 미 제5공군과의 연합작전을 펴게 되는 우리 공군의 주 임무는 북괴공군의 기습 제1파를 격파하는 것이며, 반격은 미 제5공군이 맡게 된다는 것이었다. 북괴공군측에는 경폭격기 등 공격용 항공기가 있는데 우리 공군에는 왜 폭격기 같은 공격기가 없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말하자면 북괴 공군기지를 습격해서 그 기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주요 군사 시설면

산업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물론 미 제5공군이 건재하는 한 우리와의 협동작전에 차질이 없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지원>이라는 테두리에서 도와주는 협동작전과 <우리의 힘>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작전 수행과의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 <자원>은 영구불변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또한 우리 자신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수요의 충족도 기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자주국방의 내실적(內實的)인 추진을 기하는 피땀어린 노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연구시설이 미비해서, 자재조건이 불충분해서 손도 못 댈다면 감나무 밑에 앉아 감 익기를 기다리는 우(愚)에 불과하다. 우리 공군의 현실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내는 의욕과 연구개발의 역전분투를 갈망해 마지 않는다.

<창의력을 발휘하자>는 논제도 이 의욕과 연구개발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세목 제시를 원하는 뜻에서 주어진 것으로 짐작한다. 불행히도 필자는 항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해 편집자의 의도에 충분히 보답할 수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3. 우리만 처질 수 없다

다만 세계 각국의 치열한 공군현대화 경영속에서 우리 공군만 처질수 없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을 남기지않게 느끼고 있다.

이 안타까움을 무엇으로 풀 수 있게 될 것인가. 나쁜 아니라 국민전체의 염원이며, 특히 공군관계관들의 심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을 짐작한다.

각국의 공군세력은 제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신기원을 맞게 되었다. 전쟁 중은 물론 전후 2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공기 의 신예화 및 연구개발은 조금도 <템포>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핵 운반 수단(核運搬手段) 및 포화(砲火)의 <미사일> 화(化), 방공수단의 다면화(多面化)등에 대항하는 항공기의 성능 향상은 그 자체의 임무수행을 위해 설 새 없는 연구개발을 필요로 해 왔다.

제2차 세계 대전시 「유럽」 상공의 쟁역을 이루었던 두 개의 기종(機種), 영국의 <스핏프라이어>기와 독일의 <멧사슈미트>기의 불 뿜는 대결은 현대 항공기 경쟁의 효시적(嚆矢的)인 실례였다.

<멧사슈미트>기가 속력과 상승력(上昇力)에 우세하자 <스핏프라이어>기는 선회력(旋回力)과 장비포화의 우세로 맞섰다. 항공과학의 경쟁이었다.

<6.25>당시의 <세이버>기와 <미그>15형도 그와 다를 바 없는 경우였다. 우리의 F-84기가 등장하자 공산측은 <미그>17형기를 내놓았고, 그 후 <미그> 및 19 및 21형기가 만주기지에 집결하게 되자 우리는 <팬텀>기의 한국 기지 진출을 서둘러야 했다.

몇 가지의 실례에 지나지 않으나 항공기의 성능은 이처럼 전세의 귀추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전력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공중공격 능력의 비약적인 증대는 공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을 보장했다. 공군이 육군과 해군에 우선하여 현대 군비의 중심과 제로 중요시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공군작전의 제1목표는 제공권(制空權) 장악에 있다. 상대방의 공군세력을 완전 제압하고 임의로 공중공격을 가할 수 있는 이 제공권 장악은 비단 공군 작전 뿐 아니라 육군 및 해군의 작전수행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힘>이 된다. 지상 작전 및 해상작전이 제공권 보장 없이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음은 군사상식의 초보에 속한다.

현하 국내외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북괴의 군사적 도발이 전면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한 우리의 자주국방태세는 물셀 틈도 없이 완벽해야한다.

그 중에서도 국방의 핵심으로서의 공군의 정예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따라서 공군 관계관들의 용전분투야말로 국방의 귀추를 좌우하는 <국가의 힘> 이 되는 것임을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 우리 공군이 여러 가지의 악조건을 벗지 못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예산의 뒷받침도 충분치 못하고, 연구시설도 미비하고, 자원 또한 부족한 가운데서나마 24시간의 불침번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그 노고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정예공군 육성에 온갖 정열과 창의력을 쏟아내는 <보라매>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도 간절하다. 「아시아」의 불사신(不死身)으로 곳곳하게 나래를 펴가는 우리에게 무(無)에서 유(有)가 창조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행의 교훈>

① 그대에게 착한 일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대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더욱 방심해서는 안 된다.

<톨스토야>

② 너는 모든 좋은 방법을 다하여 언제나 또는 어느 때까지든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행을 하라.

<요한 · · 웨슬레>

정신무장

마욱

<전우신문 편집부 실장>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고 남북적십자 회담이 횡수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듯 다변하는 정세에서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이 우리의 정신무장이라 하겠다. ◇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고 자유중국이 출몰했다.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7차에 접어들었다.

「닉슨」 미국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다. 등등 시대는 급진적으로 변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을 대화의 시대 또는 해빙시대(解氷時代)라고들 한다.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갈구하는 것은 인류의 필연적인 요청이요 당연한 섭리이기도 하리라.

긴 세월을 두고 서로 으르렁대던 세계는 이제 대화와 협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같은 민족으로 대화의 길을 잇은 채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가 대화를 통해 민족의 아픔을 풀어 보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대한적십자사가 주도한 인도적인 견지에서 「남북 가족찾기」 운동이다.

단절되었던 과거에서 파생된 이산가족 등에 대화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민족적인 열망이요 인간으로서의 도리인 것이다.

그러나 북괴는 이러한 대화와 화해의 「무드」속에서도 그 고질적인 침략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처럼의 기회를 흐리게 하거나 앓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국민은 물론 영공을 방위하는 우리 공군장병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전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이되기 쉬운 수리의 정신전력이 허울 좋은 화평「무드」에 시들 때 지금껏 계속되는 북괴의 도발이 또 그 어떤 큰 과오를 저지르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 이러한 국제, 국내의 여건에서 우리가 더욱 필요로 하고 또 가다듬어야 할 정신전력 배양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로 한다.

해빙 「무드」와 남북대화, 계속되는 공비침투의 저의

장병들도 잘 알다시피 최근의 동·서 접근 「무드」가 극적으로 성숙해가고 있고 민족적 염원인 남북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세계의 주시 속에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도 북괴는 무장공비를 계속 침투시키고 있으며 특히 남북 가족찾기 운동 제의 직후인 8월 16일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된 침투 양상을 보였고 어선 강제 납치 등의 만행이 있었다.

이와 병행하여 작년도 보다 현저히 증가된 심리전 활동을 통하여 정부비난 북괴 자찬 한·미 이간 등의 선전 선동활동에, 평화통일을 가장, 학생선동 선전이 6내지 10배로 각각 증가되었다.

이러한 북괴의 만행이 포기되지 않은 한 우리는 우리들의 정신전력을 더욱 연마하기 위하여 보다 굳건한 승공이념과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겠다. 더욱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북괴의 이러한 대남공작 활동의 저의는 대내적으로 지하 핵심지로부터의 조직 및 확대로 군중봉기 유발을 위한 전술기

지를 구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대 북괴관을 오도하여 국민의 여론을 비등시키려는데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주한 미군의 철수와 국제사회에서의 북괴의 지위향상 내지는 한국 문제의 고립화 등으로 소위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적화통일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가족찾기 운동 제의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척하면서 북괴는 대남공작의 전술적 여건 조성을 기도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하겠다.

또한 가족찾기 운동을 통하여 북괴는 이산가족 및 연고지를 대남공작에 이용코자 할 것이며 합법을 가장한 간첩 침투와 통일논의를 가장한 혁신 용공세력의 합법적 진출 등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도주의의 가면을 쓰고 위장 평화공세로 대내외의 선전과 제3국을 통한 우회 침투에 악용할 우려가 없지 않다.

동서 접근 「무드」는 이제 중공이 「유엔」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함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독자적인 세력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북괴의 무력 남침의 기본전략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으므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집단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임전대열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정신 자세를 확립해야 하겠다.

그럼 여기서 지난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 가족찾기운동 이틀만인 14일 정오 북한 적십자사가 이를 수락한 후 그들의 도발상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 8월 16일. 이날 중동부전선에 무장공비 5명이 침투한 것을 우리 이재우 소위가 이끄는 수색조가 발견 이들을 모두 사살했다.

△ 8월 18일. 이날 아침 강화도에 5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한 것을 군·경 예비군의 합동작전으로 섬멸.

△ 8월 19일. 이날 밤 중동부 전선에 2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한 것을 아군 수색조가 격퇴했다.

이 교전에서 아군은 기관단총 1정, 수류탄 2발, 실탄 38발을 노획했다.

특집: 정예공군을 향한 우리의 자세

△ 8월 20일. 이날 새벽 서부전선 임진강에 북괴 무장공비 2명이 침투한 것을 우리 해병대 용사들이 사살했다.

또한 이날 밤 중부전선의 아군 잠복지역 에 출현한 무장공비 3명을 모두 사살했다.

△ 8월 27일. 아침 6시 30분 서부전선 임진강 하류에 침투해 온 무장공비 3명을 아군 잠복조가 발견, 사살했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3정의 「아까보」소총과 3개의 배낭, 권총 2정 등을 노획했다.

또한 바로 이날 하오 1시부터 5시 사이에 임진강 하류인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오금리 아군초소에 북괴병들이 기관포 약 1만 여발을, 또 하오 8시부터 28일 새벽 사이에 5만여 발 등 모두 6만여 발을 난사했다.

이는 번번이 침투해 온 무장공비가 모조리 소탕되는데 대한 양심있는 자는 몰라도 거의 매일처럼 전방지역에서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8월 30일 8시 30분 어로저지선 남쪽 근해서 오징어잡이를 하던 여수항 소속 「덕성호」(선장 광성주)가 선원 30명을 태운 채 북괴 쾌속정에 납치되어 끌려가려는 것을 우리 해군함정이 발견, 네 시간 대치 끝에 납북을 막아낸 것이다.

이렇듯 그들은 남북대화와 병행하여 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더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경계에 임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서해병이라는 급작스러운 변동에 편승하여 헤이되기 쉬운 우리의 정신자세에 새로운 경종이 아닐 수 없다..

모처럼의 대화가 계속되는 이 마당에 계속적 인 공비의 침투는 회담에 장래를 의심케 하며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의문을 안겨주는 것이라 해도 좋으리라.

특집: 정예공군을 향한 우리의 자세

정신전력 강화하는 길이 승공통일의 지름길이다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 놓고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괴의 고질이 포기되지 않은 한 우리의 임전태세나 정신전력은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오히려 보다 강력한 승공정신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이 대화의 시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이다. 또 그래서 오늘날까지 공군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변전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단결해야 하겠다.

하급자는 상급자를 친 형이나 아버지 모시듯 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친동생이나 귀여운 가족으로 생각하는 상경하예의 군대가정을 이룩해야 하겠다.

상경하예의 참사랑이 없이는 제아무리 현대화된 무기로 장비하고 있다 한들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또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자에게는 한낱 악세서리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더욱 투철한 승공정신으로 굳게 뭉쳐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상급자는 하급자의 불평이나 불만이 없는가를 잘 살피고 해결되는 것이 도리 일 것이다.

정신전력의 밑바닥은 안심하고 군무에 종사하면서 군기를 지키며 명령을 완수하는 자세, 바로 그것을 말한다.

실천이 없고 행동이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이다.

일사불란한 임전태세란 바로 명령에 복종하고 목적의식에 투철한 과감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에는 군대가정으로서의 화목단결이 그 밑바닥이 돼야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과거 걸핏하면 구호나 외치고, 「쇼」적인 경향에 흐르던

특집: 정예공군을 향한 우리의 자세

내무생활의 타성을 탈피해서 진지하게 우리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해결하는 조용하면서도 격동하는 자세를 추구해야 하겠다.

결국 우리는 변전하는 시대를 직시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시점 에서 공군의 1개 구성원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군 기강을 확립할 스스로 임전태세를 갖춘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태세가 스스로의 힘에 의해 확립되었을 때 우리의 정신정력은 보다 강력해지고 나아가서는 백승의 기백으로 육성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일반 사회나 군대 사회에서도 당연한 것을 당연치 않게 하고 사실을 왜곡시켜서 행동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통금시간을 지켜야 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며, 또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다의 정신상태가 주위의 환경이나 설마 하는 타성 때문에 헤이해서 통금시간을 어겨가면서까지 음주방가하고 또 번연히 횡단도로가 아닌데도 뛰어 넘어가다가 하면 길가에 가래나 침을 함부로 뱉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도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대사회에서도 의당히 지켜야 할 군기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다.

한 예를 들면 상관을 대하면 경례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군대에서는 「군기엄정」은 경례로부터 라는 등으로 그 당연한 일을 다시 강조한다는 것은 모두가 자진 참여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실천에 옮기는 군인이 되자는 뜻에서 나오는 교훈이라고 봐야 하겠다.

이러한 자진 참여의식, 그것이 곧 단결된 정신전력을 개발하는 근원이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밑바탕의 힘의 승공으로 뭉쳤을 때 그 힘의 과시는 임전무퇴의 기상이 되는 것이요

특집: 정예공군을 향한 우리의 자세

나아가서는 백전불굴의 기백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신전력의 강화는 그 어느 신장비보다 중요하고 군의 모든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정신전력의 강화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필승의 대공정신 자세 일상생활서 닦아야

우리는 현대전의 특수성을 인식하면서 그에 임하는 올바른 정신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재인식해야 하겠다.

핵전쟁이라는 높은 차원에서 볼 때는 현대 과학전을 밀고 나아갈 주역자로서의 정신적 현대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시야를 우리의 현실 면에 돌려 본다면 우리는 방관할 정도로 목전의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소 양 대국을 주축으로 한 동서 양대 진영의 고차적인 대결형태와는 달리 우리나라 현 전선에서는 아직도 「아시아」적인 전술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올바른 승공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무력 남침이라는 광적인 도발행위를 일삼고 있는 북괴의 만행을 분쇄하고 또 한 우리를 주위에서 사회의 안전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갖은 침략 방법을 자행하고 있는 공산「분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안정을 보장해 가며 우리가 지향해 나아갈 조국 근대화 작업에 차질없는 진군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침착과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도 북괴의 망동이 비록 더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다 냉엄한 자세로 필승의 대결 태세를 완비하여 그들의 망동을 여지없이 분쇄해 나갈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신무장이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 인류의 자유와 안전을 수호하고 국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특집: 정예공군을 향한 우리의 자세

세계 포화의 탄막지점인 월남전선에서 평화군으로서의 일익을 맡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북괴 공산도 당들의 불량난을 일삼은 1백 55일의 휴전선과 9백「마일」의 해안선을 지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양면적인 방위 수호태세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정신 자세 면에 있어서도 현대전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어 나아가는 한편 목전의 적도 여지없이 섬멸시켜 나아가는 대적 필승의 정신자세와 굳은 의지를 더욱 드높여야 하겠다.

그러한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국의 근대화되는 모습을 알고 공산당의 침략성에 대응할 때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견지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산주의와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정신적 지주가 우리에게 견지되지 않으면 필승은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자세는 일상생활에서부터 닦아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의 타이름 보다는 자신의 생활에서 얻어지는 정신자세야말로 실전에서 무회의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각자의 정신자세가 확립 되었을 때 그 전력은 감히 그 누구도 넘어다 보지 못할 것이다.

1억의 「아랍」공이 1천만의 「이스라엘」을 넘나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저하는 것은 그 정신전력 면에서 「이스라엘」을 당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같은 조건, 같은 장비로서 대응한다면 현대전의 승리는 역시 정신전력이 강한 편의 승리란 건 두 말할 여지도 없으리라.

끝으로 그럼 군 정신전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대략의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로, 군인의 명예. 내가 조국과 민족의 부름에 이 군복을 입고 나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상을 지닌다면 스스로 느껴지는 의무

특집: 정예공군을 향한 우리의 자세

감에 그 행동이 성실하고 바람직한 것이 되리라.

다음 두 번째로, 충성심이다. 자신이 국가의 주권에 대하여 진심으로 헌신하려는 불변의 관념인데 이는 국가에 대한 대의 앞에서 자아의식을 초월하는 마음가짐이다.

셋째로, 군인으로서의 필승의 신념이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굳은 의지와 자신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의심 없이 굳게 믿는 정신이다.

그러한 신념은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높은 차원에서 그 태도를 지배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넷째로, 책임이다. 안으로는 양심에 대한 충의요, 밖으로는 사회에 대한 봉사적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로, 군인의 용기이다. 군인의 용기는 위협이나 곤란에 직면하였을 때 그를 피하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자기의 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용기에는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양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굳은 정신에는 강건한 육체적인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 행동적인 일면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섯째로, 임전무회의 기상이다. 군인으로서 체득한 불로 불굴의 기질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몸가짐으로써 이와 같은 기본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내재적 요건이 건전히 갖추어져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정신적의 밑바탕은 이 여섯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겠다.

그 개체의 올바른 자세는 곧 부대를 구성하는 집단의 일원으로 보다 강력한 정신전력 구성분자 되어 나라의 방패로서 만유감이 없으리라.

정신 전력 강화의 당면 문제

- 사기 저해 요소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홍종도

◇오늘 우리 나라는 군의 청대화와 전력의 정예화를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현대화나 정예화를 이루어야 할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서론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역사와 전통과 조국의 장래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유지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군대를 유지해 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은 세계가 아무리 다원화해 나가고, 국제 정세가 다변화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산 침략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나라로서의 처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군사력은 보다 증강해야 하고, 정예화해야 하고, 현대화하여 충분한 자위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군대의 현대화와 전력의 정예화를 부르짖고 있는 현금에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첫째로, 민족 주체성에 의한 정신 전력의 강화와 둘째로,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의 현대화를 들 수 있겠다.

정신 전력의 강화로서는 국토방위의 최첨단에 서 있는 군인들의 확고한 국가관과 사상관이 정립되어야 하고 군인 정신에 의한 장병 상호간의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인화단결로서의 군기 확립과 현대전은 무력뿐만 아니라 사상전과 신경전임을 주지할 때, 군인 유대 강화를 통한 군인 총화에 의한 민족 전체의 전력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집: 정예공군을 향한 우리의 자세

또한 장비의 현대화에 있어서도 각종 신에 장비의 도입과 개발로 시간을 다투는 현대전에 대응해야 하지만 그 보다 앞서서 가능한 한 전력화 할 수 있는 모든 인력자원의 전력화와 물적 자원의 전력화를 토대로 해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본론

- 정신 전력 강화에 장애가 된 요소 -

그러나 우리가 장비의 현대화보다도 더 당면한 문제는 정신 전력의 강화 문제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군인들의 용모가 단정하고 경례동작이 바르고 사무실이나 내무반의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며, 과대한 업무량이라 할지라도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 놓고, 씩씩한 군가를 부르며 발을 맞춰 행군하면 그 부대는 사기가 충천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 얼마나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인가?

군인의 신분과 책임은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과 국민을 지켜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스스로와 성의와 정성을 다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모두가 충실한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전 장병들의 근무 태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다.

일부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해서 불만과 회의를 느끼고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표본 조사만 보더라도 군대의 사기는 얼마나 침체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병들의 사기가 침체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지휘관의 편견과 무관심에 기인하고 있다.

많은 지휘관들은 자기의 직속 부하들에 대한 철저한 신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사고자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하여 사고의 유발과 사기 저하의 요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휘관의 사병들에 대한 자세는 과연 사병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바람과 불만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간적인 유대와 대화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의 권위와 명령과 자신의 향후 진로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어진 업무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사고의 방지보다는 사고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또는 일어난 사고에 대한 대외적인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병들의 사고는 발생 후 은폐와 제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이해를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이다.

사고는 주로 한번이라도 저질렀던 사고자들이 재발시키는 경향이 가장 많은데, 이것은 지휘관의 편견에 의해서 더욱 재발할 가능성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휴가나 외출 중 사고자나 또는 영내에서 사고를 낸 사병은 문제 사병으로 간주하여 휴가 및 외출, 외박 등을 철저히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그 당사자는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기는 커녕 보다 새로운 반발 심리에 의해 내무생활이 거칠어지고, 자기의 후임자들에게는 그 분풀이로 난폭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문제 사병의 선도와 군기 유지에 보다 세심한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다.

둘째: 휴가, 외출, 특박 등에 대한 불공평한 실시에 있다.

내가 내무반 순회 특별 정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사병들로부터 귀담아 들었던 것 중에서 휴가, 외출, 특박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이었다.

심지어 어떤 사병들은 영내에서 일주일동안의 고된 근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바라고 생활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또한 그들이 외출을 하여 다른 뚜렷한 일들이 없이 극장이나 영화관이나 다방을 다녀오고, 영외에서 헌병 근무자들로부터의 감시(?)를 받는다 해도 영외로 탈출(?)한 것만 해도 여간 흥분한 일이 아니며 가슴이 후련하다고 한다.

그들은 또 휴무일이라고 해서 외출을 나가지 못하고 남은 사병들, 영내에 머물러 그들이 보고 싶은 책이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사역이다, 집합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주일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근무에 있어서도 열의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상태의 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군이 처해 있는 현실이고, 또 영내 사병들이 영내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해 줄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실정이다.

물론 사병들에게 있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율적인 면에서 보다 보람찬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지휘관이나 사병들의 생활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장병들도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휴가, 외출, 특박은 허용하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불만과 불평이 일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한 것이다.

셋째: 하사관 출신과 병과 출신 사병들의 알력 문제이다.

영내에서 내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사관 출신 영내 사병들과 병과 출신 사병들과의 알력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들의 알력은 군대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비롯되어 길게는 제대할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기교단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을 때부터 하사관 후보생과 기술병 사이에는 경쟁의식과 우월감, 열등감, 연병장 고참 등 가지가지 문제의 요인들이 발생한다.

그것이 일선 예하 부대로 배속되어 같이 내무생활을 하고, 하사관이 내무반장의 일을 맡아 병들을 통솔할 때 하사관은 계급적인 우위에서 병들의 군기를 잡으려는 당연성과 또 병과 출신들은 연병장 고참, 또는 군대 밥그릇 숫자를 따져 그들의 통솔로부터 벗어 날려는 것이 내면적으로 축적되고 간혹의 경우 표면화 되어 폭력 행위 등으로 발현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쉽게 문제의 핵심을 풀 수 있는 것이나, 후차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아서 전우애와 인간적인 유대 강화에 전력해야만 한다는 점에 귀착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추세로 보아 갓 입관한 하사관과 병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과 출신 사병들의 학력이 하사관 출신 사병들보다 훨씬 상회하고,

둘째: 연령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병과 출신이 더 많으며,

셋째: 같은 근무기간을 갖은 하사관 병들의 관계에서는 병과 출신 사병들이 하사관 출신 사병들보다 직계 또는 동계 학교의 선배들이 많은 점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그들은 계급보다도 지식의 과다에 따르는 우월감과 열등감

연령적인 선후배, 출신 학교의 선후배를 따져서 군대의 기강을 흐리고, 또 병과 출신 사병에게 직계 선행이 있는 하사관은 자기의 소신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러한 계제가 있게 되면 병과 동기생들은 그 하사관을 똑같이 후배 취급하려는 무리가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병과 출신 사병들이 하사관 출신보다 가정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제 조건이나 군 입대전 거취 등을 보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병과 출신들은 하사관보다 짧은 복무 기간을 마치고 곧 복교를 한다든가, 직장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적인데 비해, 하사관들은 사회에서 진학하지 못해 야간 학교라도 취학 하고저 하나 근무에 쫓겨 배움의 길이 뜻한 대로 되지도 않아 장기 복무라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심리적인 압박 관념에 잡혀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군무 이탈이나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병과 출신 영내자들을 괴롭히고 압박을 가하는데서 다소나마 물어보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이 계속 축적되게 되면 자연히 내무생활이 고달파지게 되고 또 근무에 염증을 느껴 군기 문란은 물론 인화단결을 해치고, 사회적인 문제와 정신 전력 강화에도 큰 장애 요소가 생기는 것이다.

넷째 : 하급 지휘관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아 사병들이 지나치게 혹사당하는 것도 사병들의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다.

다소의 경쟁의식은 장병 각자에게 긍지와 사기를 양양시켜 주는 것이나, 지나친 경쟁은 도리어 염증과 사기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경쟁은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치열한 것이다.

즉 내무 검열을 비롯한 군기 상태, 일상생활에 있어서 다른 대대에 조금이라도 저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만이 정의다」하는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나 적군과의 접전이 아니고 평상시의 확실한 근무였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리하면 될 것을 미루었다가 검열 또는 행사시에 잘 준비하고, 잘 정돈하고 미화시키겠다는 관념이 너무나도 지나쳐 일과 후에도 계속 야근을 실시하고, 외출을 통제하고, 피로한 심신에 휴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근무 능률의 향상에는 물론, 명랑하고,

의욕적인 내무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커다란 암운을 던져 주는 것이다.

다섯째 : 지휘관과 장병 상호간의 인간적인 유대 강화가 결여된 점이다.

아무리 군대의 조직이 종적인 조직을 유지하여 지휘체통이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상하 상호간 횡적인 유대와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인화 단결된 상태에서 제반 업무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명령과 명령에 따르는 복종만을 강요하게 되면 사기의 저하는 물론 군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결론

— 군기 확립과 사기 양양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제 여건—

이렇게 군기 확립과 사기 양양에 있어서 저해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한 지금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며,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인가를 망설이게 된다. 그러나 현안 문제를 잘 살펴보고 냉정하게 판단하게 된다면 그렇게 심각하거나 해결하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기 양양에 선행되어야 할 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들어본다.

첫째 : 우선 지휘관의 관심도와 친밀감을 높여야 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군대 조직상 군대가 아무리 종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보다간 인적인 유대로서 사랑과 존경심이 상호 교체될 수 있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많은 대화와 설득과 교육으로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해야 할 것이며 휘하 장병들의 신상 파악을 보다 철저히 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선의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주게 되면 스스로 제반 언행을 주의하게 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계율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 특히 영내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불만의 소재를 알아 해결해 주는 방법이다.

휴가, 외출, 특박의 공정한 실시는 말할 것도 없고 선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부당한干타와 기합 등의 행위를 근절시키며, 하사관과 병과의 알력에 있어서 그 문제의 핵심을 찾아 대화와 이해를 통한 전우애를 함양시키며, 군대의 특수성을 인식시켜 사적인 문제를 떠나 충직한 군인정신으로서 인화 단결토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휴무 등 휴식 시간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도서시설이나 내부반 기타 휴게실을 마련하여 건전한 오락 시설을 설치하고 정서 순화를 보아야 한다.

또한 젊은이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구의 불만이 크다.

그러므로 계몽과 선도에 힘을 기울이고, 건전하게 욕구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여가시간에 스포츠 활동이나 건전한 취미 활동을 장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끝으로 : 개인 면담과 상담을 통하여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의 해결을 찾아보고, 도와주며 개인의 인격을 옹호하고, 개인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해 주며 자발적으로 모든 업무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즉 면담을 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것이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상하 상호간 믿고, 믿을 수 있다는 상호의 신뢰도를 말하는 것이니만치 편견에 치우치지 말고 풍부한 인간성과 포용력을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 문제들이 선행되지 아니하고, 말로만 군기 확립을 부르짖고, 사기 양양을 외쳐 봐도 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공군의 목표인 정병강군과 전투태세 완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분투노력하고 있다.

우리들의 노력이 보다 알차게 결실되기 위해서는 장병 공히 혼연일체가 되어 인화 단결하고, 깊은 사명감을 인식하여 사기 충천한 상태로 군기를 확립하여 스스로 참여를 하게 될 때 우리 공군은 정예화 할 수 있고, 임전태세에 만전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병들에게 무조건 명령에만 집착하지 말고, 군기와 사기의 저해 요소를 제거해 가면서 확고한 군인정신과 국가관과 사상 관을 주입시킬 때 군의 사기는 양양되고 건설하고 명량한 병영생활은 이루어지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명령과 복종의 올바른 인식



윤영춘

〈경희대 초급대학장 영문학〉

명령계통이 서지 못하면 무덤천지가 되어 살벌과 부패가 속출되지만 명령계통이 똑바로 선 나라면 향상과 번영이 따르게 마련이다.

1. 법은 양약이다.

한 나라에 있어서 명령을 내리는 이는 국가의 최고원수인 대통령이며 군대에 있어서는 사령관, 재판소에 있어서는 재판관이며 한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이다. 명령을 내리는 이는 주체(主體)지만 복종하는 이는 객체(客體)이다. 꼭 해야 할 일을 시달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라고 시달하는 일들을 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복종하고 안 하는 것은 객체자신(客體自身)의 자유에 달려 있다. 이 자유의 한계가 법규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다.

복종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은 첫째로 한 국가를 통치하는 법령에 복종하는 일이다. 준법정신(遵法精神)은 그 나라를 질서정연한 나라로 만들지만 법을 무시하고 사는 나라는 야만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한다. 명령계통이 서지 못하면 무덤천지가 되어 살벌과 부패가 속출되지만 명령계통이 똑바로 선 나라면 향상과 번영이 따르게 마련이다. 법은 공평하기 때문에 어떤 계급이나 어떤 족속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며 화신(化身)이다.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며 법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무서운 책벌이 내려진다. 그만큼 법은 공평무사한 것이어서 나라 헌법을 기초할 때는 신중을 기하게 된다.

오늘날 문명부강을 누리는 미국만 보더라도 「제퍼슨」이나 「워싱턴」이 법을 초안할 때 성경책을 옆에 놓고 읽어가며 썼다는 일화가 있으며 중국의 손문은 저울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어느 한 권에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썼다는 것은 법의 공평을 모색하는 상징 인 줄 안다.

법을 어긴다는 것은 국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며 그 자신의 파멸을 초래한다. 중국의 결주(桀紂)는 만승천자의 높은 위치에 올랐으나 그는 준법정신으로 살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다가 망했고 탕무(湯武)는 제후의 몸이었으나 공법과 공리에 따라 국민과 더불어 한 덩어리가 되어 정치를 한데서 나라가 흥했던 것이다.

2. 불신평조

환자가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중태에 이르게 된다. 내가 잘 아는 친구 한 사람은 늘그막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애지중지해서 잘 길렀다. 나이 여나트살 되어서 뜻밖에 이 외동아들은 까닭모를 병으로 몸이 자꾸 말라갔다. 하도 딱해서 이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대단한 병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하며 약봉지를 주었다. 이 약을 먹으라고 아들에게 주었으나 먹는 체하고는 그 약을 요자리 밑에 감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딴 곳에 감추어 두었다. 종시 약을 먹지 않았으니 몸이 좋아질 리 만무다. 몸은 바짝 수척해져서 그의 부모의 근심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의 요자리 밑에서 약봉지를 발견해냈다. 아버지 눈을 속여가며 약을 먹지 않은 것을 알아낸 아버지는 아들에게 억지로 약을 먹였다. 아버지의 엄격한 명령에 순종한 아들은 얼마 안 가서 보송보송 살이 찼다. 그 다음에야 그 집에는 웃음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의사가 주는 약을 먹는 것이 병을 고치는 비결인데 이를 거부했으니 병이 나아질 리 만무다. 법을 순종하는 것은 양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복종보다 불신평조는 더욱 나쁜 일이다. 명령과 지시사항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곧 이를 시정하기 쉽지만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복종치 않는 근본적인 잠재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믿지 않는데서 긍정이나 합리가 나올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극진히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 누웠다. 날이 지날수록 병세는 악화일로였다. 그래서 남편되는 사람은 의사와 거짓 공모해서 아내의 병은 대단치 않으니 절대로 안심하라고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 위로를 주도록 했다. 환자는 의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안심한 데서 병은 곧 나았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남편이 똑같은 병에 걸렸다. 아내는 자기 병을 고쳐준 그 의사를 청해다가 남편의 병을 진찰시켰다. 대단치 않으니 안심하라고 의사가 거듭 타일렸으나 남편은 자기가 하던 수법을 답습해서 아내가 의사와 거짓 공모로 위로를 주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도무지 의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환자의 심리적 작용은 병판자제보다 더 소중한 줄 안다. 한 사람은 의사의 말을 신임하는 데서 전치 되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데서 죽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나. 의사가 병자를 진찰할 때 혀바닥을 보고 병증을 알아내듯이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믿고 또 순종하는데서 사회상태는 달라진다. 때 문에 「소크라테스」는 『당신이 말하면 내가 듣지요. 당신 말에서 나는 당신의 사람됨을 알아 낼 수 있습니다』했다.

오늘날 군대에 있어서 불신사조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상극하(上刺下)의 상태에서 쓰는 말투가 거칠고 툭하면 구박을 준다. 옛 어른들은 남을 칭찬할 때는 큰 소리로 하고 책망할 때는 낮은 소리로 하라고 했는데 군대생활은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는성싶다. 하기가 군대는 계급장을 소중히 하므로 계급이 높은 장성은 지도력과 통솔력이 강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나라 군인인들 제나라 규율의 엄격함을 모를리 없지만

제 나름대로의 혈기와 패기를 부리는데서 그만 장성과 졸병의 호못한 유대는 살이 찌고 살기등등한 분위기를 이루어 놓고 만다. 우격다짐으로 부하에게 대하기보다 좀 부드러운 말씨로 상관이 부하에게 말할 경우 상관의 위엄이 떨어진다고 볼 것인가. 물론 위풍을 지니는 데서 부하가 복종을 잘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엄격주의와 권위주의로 임한다면 이는 독재세계에서는 용납될는지 몰라도 민주주의 시대에서 용납될 성 싶지 않다. 그렇다고 국위와 안보책임을 지고 있는 상사에게 함부로 불손한 태도로 대한다면 이는 한 개인에 대한 불손이라기보다 국가에 대한 불손으로 보고 싶으며, 민주주의의 역행인줄 안다. 사랑과 관용으로 대한다면 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리 만무하다. 이것은 군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 사회에 걸쳐서 반성해 볼 문제인 줄 안다.

3. 말없는 인격적 명령

인격자이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교훈을 준다. 부모가 너무 잔소리하면 자식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물며 이래라 저래라 자주 명령을 하면 부하가 좋아할 리 만무하다. 인격의 소유자이면 그 부하가 눈치 차려서 상관의 뜻을 받들어 이행한다. 열번 명령을 내려서 억지로 하기보다 한 번만으로 달갑게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둔다. 자발적으로 하리만큼 결단을 내리게 하는 힘은 인격이다.

몇해 전에 <나라를 사랑하자>는 제목으로 열린 전국청년 웅변시에 나는 심사원으로 뽑힌 일이 있었다. 참말로 좋은 체격에 우람한 목청과 보람직한 제스처는 그 어느 누군들 피끓는 애국청년의 웅변이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심사위원들도 우열을 가려내기 힘들만큼 막상막하의 열변들이었다. 그러나 맨 나중에 나온 연사는 상이군인이었다. 그는 육이오 때 전선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그때 입었던 군복 차림으로 등단했다. 그의 웅변도 다른 연사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좋은 편이었으나 반응이 무척 좋았다. 반응 점수가 좋아서 다른 연사를 앞질러 결국은 영예의 특상을 차지 했다.

말보다 실물적이며, 학설적이기보다 체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줄 안다. 말보다 실천이요 지배보다 협조며 명령보다 자발적인 것이 낫다.

아무리 권력으로 지배하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감동되어 순종하는 일이 제 일 효과적이다.

어떤 사람이 상대성원리(相對性原理)의 선구자인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이윽고 박사는 붓을 들어 무슨 수학 공식같은 것을 써서 질문한 사람에게 주었다.

$X+Y+Z=$ 성공

X는 열심히 노력하는 일

Y는 일을 끝낸 다음에 쉴 것 쉬는 일, 그러면 Z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질문을 하니까 박사는 대답하는 말이

『당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능력』이 말을 되새겨 보면 현명한 철인의 대답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입을 자주 벌려서 이래라 저래라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일이 없다고 한다. 그의 인격이 고상해서 사소한 일에 간섭하지 않고 오로지 위대한 발명을 위해서 일심전력했다. 그는 온유겸손하며 소박하고 근신하여 늘 남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며 부하에게 허리를 꾸부려 가며 겸양의 미덕을 보여 주었다. 위대한 과학자는 말보다 실증적인 이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며 돈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그의 머리에는 언제나 그가 연구하는 목표가 떠돌 따름이었다. 이 말은 과학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나 문학이나 종교도 매일반이다. 그렇게 많은 에피소드를 남긴 「나폴레옹」은 명령계통이 삼엄한 군인생활을 한껏 즐기면서도 부하군인에게 명령보다 동료로서의 또는 전우로서의 자세로 대하는데서 그의 부하들은 도리어 다소곳 머리를 수그러 그에게 순종했던 것이다. 이 같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에게 역사공부를 시키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역사만이 진정한 심리학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청년은 기성세대와 제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파괴와 반항의 일변도로 흐르는 경향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혈기와 영웅심이 너무 강하고 시비를 판단하는 경향이 결여되어 있어서 옷 사람의 말이면 덮어놓고 거부해 버린다. 이는 바른 자세로 볼 수 없으며 국가를 대신해서 일하는 상사에게 불손한 태도로 대할 수 있겠는가. 「스탕달」의 대표작인 「적(赤)과 흑(黑)」을 읽어 보면 참 재미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 「쥘리앙 ·소렛」은 몹시 가난한 처지여서 「소렛」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해서 너무나 소홀했다. 하지만 「소렛」은 겉모양과는 달리 「나돌레옹」을 숭배할 줄 알고 상류사회(上流社會)를 꿈꾸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소렛」은 약한 사람이면서 강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친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권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동경심을 갖는 인간이다. 권위주의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자신의 열등의식과 동시에 우월감을 갖는다. 열등의식 때문에 무조건 순종이요 우월감 때문에 권위에 반항한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은 권위를 장악했다고 자부하는 것이다. 자기의 힘이 부족함을 느꼈을 때는 서클이나 클럽 활동을 통하여 반항하고 반항해도 얻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집단폭력과 테러행위로 번져간다. 이런 상태가 결국은 불안을 조성한다. 혈기 왕성한 젊은이에게 혈기나 영웅심이 없을 리 없으나 이를 잘 쓰지 않으면 악순환을 초래한다. 젊은이에게는 이 같은 대립의식(對立意識)이 따르게 마련이며 대항(Morals-mores Contrast of Conflict)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 같은 심리적 갈등을 이지적(理 如的)으로 억제해야 할 것이다. 이 갈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적과 흑」인데 오늘날 젊은 세대의 심리를 그대로 그려 놓은 듯하다. 복종하고 안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에 달려 있다. 올바른 명령에 복종함은 진정한 자유다. 이 자유를 도피하는 것이야 말로 비겁이요 자아속박이다. 신념에 찬 정당한 투쟁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겠는가. 정당한 권리를 쟁취키 위해 정당한 권리에 복종함은 인간의 의무인 줄 안다.

심도직 공군연구개발업무에 관한 소고	1. 서론 공군의 연구개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1971 10월 1일을 기해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에 부설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가구자체도 불완전하고 구성 인원도 불과 수 명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 한다기 보다는 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공군 연구개발 업무의 체계를 수립코저 시도하는 입장에 불과하다. 물론 전에도 이와 유사한 기구가 공군에 없었던 것은 아니나 현 시점에 서 이러한 기구의 재탄생은 시대적인 요청이 그만큼 절실하게 받아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현대 과학의 급속한 발달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고성능의 병기를 발명케 하였고 이러한 병기의 발달은 전쟁의 양상마저 변화시켜 버린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공군은 그 임무의 특수성으로 보아 이러한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른 현대화 요청이 그 어느 군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 또한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군은 건군 이래 이러한 병기를 우리 군자체의 선택에 의해서 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정책 방향에 의거 군사원조 형식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지급된 병기의 운영 또한 전적으로
---	--

군원에 의존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이제 이른바 닥스 독트린(DOCTORIN)에 의한 세계정세의 급변화 속에서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전반적으로 군원이 중단되거나 일방적으로 대폭적인 삭감이 단행된다고 가정한다면 현 시점이야말로 저 유명한 송 미령 여사의 탄언과 같이 비록 만시지감은 있지만 너무 늦기 전에 자주적 군 운영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한 필요성과 현재의 현황 및 장차의 연구개발 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비록 제한된 지면이나마 개략적인 내용을 기술할까 한다.

2. 연구개발의 정의

연구개발은 영어로 RESEARCH AND DEVELOPMENT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와 개발의 합성어며 보통은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적 연구개발을 말한다. 연구 즉 RESEARCH는 광 협 양의로 해석할 수 있고 광의의 뜻에서 연구는 개발을 포함하나 협의의 뜻에서는 순수 기초적 연구(BASIC RESEARCH)와 그 응용화 연구(APPLIED RESEARCH)를 말한다. 개발(DEVELOPMENT)은 연구의 성과를 제품화 하기까지 추진하는 개발업무를 말한다. 이와 같이 연구와 개발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고 양자의 영역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계를 좀 더 알기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기대성과	목표
기 초 연구	(1) 현상의 이해 및 서술 (2) 경험적인 결과의 획득 (3) 가정, 이론, 모델화 시도	(1) 새현상의 발견 및 이해 (2) 새현상간의 제관계 파악 (3) 예상되는 특성의 이해
응용화 연구	(1) 새공정과정의 이해 및 서술 (2) 시험결과의 실증적 증명 (3) 활용도와 경제성 및 타당성	(1) 신공정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의 입증
기 술 개 발	(1) 시험설계 및 제작 (2) 제원 및 특성규명 (3) 파이롯트공장 개발	(1) 공정 및 구체적방안의 설계

주 : 연구개발관리론「森俊治」작 HAND BOOK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CT V, PAGE. 5-33~119.

공군에 새로 부설된 연구 발전관실은 이 영어의 RESEARCH AND DEVELOPMENT를 해석상 개발을 발전으로 옮겨 놓았을 뿐이며 기본개념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군 연구발전관실의 기본업무 방향은 자체 업무의 방향설정에 대한 기본업무의 연구개발과 선정된 업무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이의 운영상의 기술의 연구개발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개발 업무의 필요성

가. 효과적적인 적의 전쟁 의지 억제에 위하여

군에 있어서 연구개발 업무의 필요성은 우선 군의 존재 목적부터 이해해 둘 필요가 앞선다. 클라우스비치(Clauswitz)는 그의 전쟁론에서『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며 전쟁이란 적을 굴복케 하여 자기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폭력행위』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다시 전쟁의 목적은『적에게 자기의 의지를 강제하여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전쟁의 목표는『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의 저항력을 상실케 하여 그를 굴복케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수단으로는『폭력 즉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를 그대로 수락한다면 군은 정치의 수단인 전쟁의 목적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이 수단을 직접 행사하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군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업무의 필요성은 국가정책의 추구에 대한 방해물으로써의 적의 전쟁 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총력전력(總力戰力)의 일부로서

전쟁의 수단인 무력을 옛날에는 창, 칼, 활, 포화 등으로 구성되는 병기와 그 병기를 사용하는 병력을 주로 뜻하였으나 금일에 있어서는 총력전력이라 하여 무력, 즉 군사력 이외도 한 국가의 경제전력 정치전력 및 사상전력 등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군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는 넓은 의미로 한 국가의 총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망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은 군에서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전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선도하고 장려하여 이를 적극 뒷바침함으로써 국가전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그의 2차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다. 자주국방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앞에서도 언급하였거니와 공군은 건군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 공군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소고 ★

앞으로 사용할 장비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우리의 요구에 의하여 장비를 선정하고 개발하여 개조해온 적은 없었다고 본다. 군원으로 지급된 장비들 그들의 기술지시서에 의거하여 혼보의 여유도 없이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하기에 앞서 지시된 내용을 이행하기에 급급해왔음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우리들 기술진에 의하여 수리작업을 끝내고도 스스로 말기지를 아니하여 제조회사의 기술진을 초빙한 예가 허다했다. 하나의 부속품을 교환하는 데도 고장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고장부속의 교환으로써 모든 작업은 끝났고 그 이상은 요구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성이 강조되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만큼 공군의 무기체계가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과 보안을 요구하는 결과의 소치라고 하겠으나 과연 언제까지 우리는 이대로만 지속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의욕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주국방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인 지식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과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경제적인 군 운영을 위한 참가 의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식과 의욕에 더하여 자주적인 군으로써의 정신적인 독립성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지휘권이 독자적으로 부여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주국방이란 단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반조성의 기초공사로써 독자적인 연구개발 업무의 3번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연구개발업무 자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군 임무 수행의 효과를 높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연구개발 업무기능이 공군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도 항공기와 관련 장비의 국산화 계획과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는 부분적이거나 군수참모부의 계획처와 정비처에서 각각 처리되어 왔고 그 밖의 장비 물자 개선을 위한 제안의 종합은 인사참모부 근무처에서 관장되어 왔으며 교리 연구는 기획관리참모부, 편성과 전략 전술은 작전강모부, 교육훈련은 인사관리참모부, 통신전자로 해당 주관참모부에서 기본업무에 추가하여 각각 처리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참모기능은 군의 연구개발소요 판단과 연구개발 자체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 참모감독부서하에서 전문적이고도 집중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부여

★ 공군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소고 ★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코저 하는데 그 4번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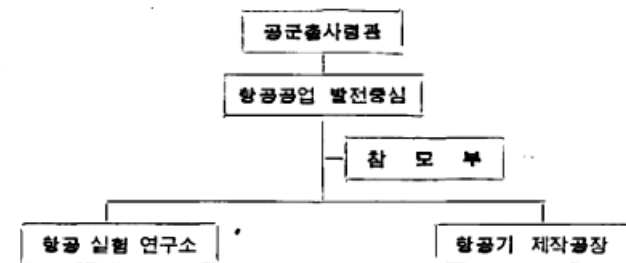
4. 연구개발 업무의 현황

공군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업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재 또는 장차 공군이 수행할 임무에 입각하여 당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전략 및 전술적인 견지에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위한 전술, 전략 교리, 편성, 과학기술, 장비, 훈련방법 등의 제 소요에 대한 업무를 연구개발하며 그 결과를 계속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대한 기구가 필요하다. 미국의 국방성 산하의 연구개발 조직을 보면(그림 1 참조) 국방장관은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국방연구 기술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국방연구 기술국장은 6개의 분야별 차장을 통하여 12개의 연구개발 참모부서와 실무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이 부서도 주로 각 군과 국방부 직할 연구개발 기관으로부터 제시되는 계획 혹은 사업의 승인과 수정을 하고 산하의 각 기관간의 협동을 촉구하여 필요하면 연구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 공군으로 내려가면 공군장관 아래에 연구개발 차관보가 장관을 보좌하며 공군참모총장은 연구개발 참모부장의 보좌를 받아 연구개발 분야의 실무부대인 AIR FORCE SYSTEM COMMAND (AFSC)와 항공연구원을 지휘하고 있다. AFSC는 8개의 시험소 2개의 무기시험장과 5개의 연구기술센터 그리고 8개의 연구개발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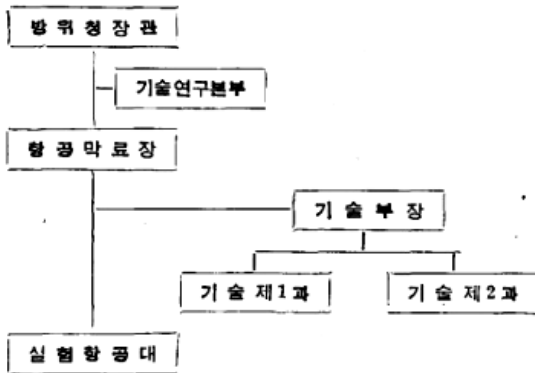
공군의 모든 병기 및 물자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미 공군의 이와 같은 방대한 연구개발 조직이 곧 우리 공군의 연구개발 조직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자유 중국 공군의 연구개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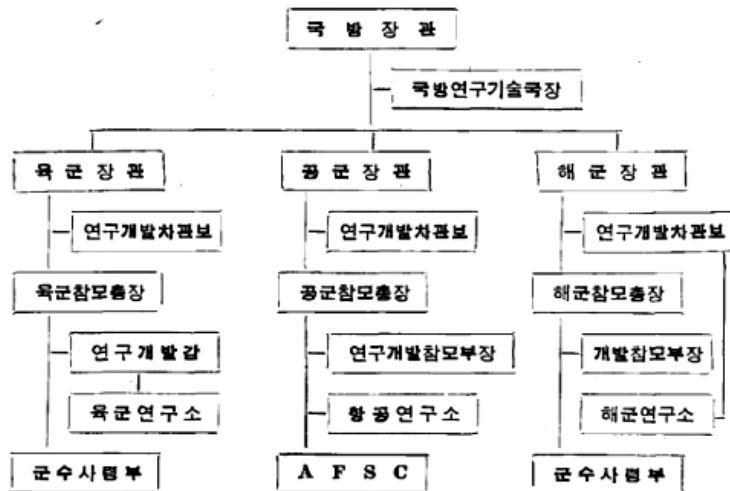
(표1)



일본 공군의 연구개발 조직



미국의 연구개발 조직



우리 공군도 언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려면 이와 같은 종류의 기능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시하려는 것이다. 일본, 자유중국 등 연구소와 연구개발 기구를 갖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각 군에 이와 유사한 부서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항공 공업발전중심 (AGRO INDUSTRIAL DEVELOPMENT CENTER)에는 사령관이 중장이며 예하에 장교 150명, 사병 131명, 민간인 152, 계 433명이 있고 앞으로 666명으로 증가될 예정으로 있음.

상기 표 2에서와 같이 국방부장관 산하에 별도의 기구로 국방과학 기술연구소가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군수차관보 산하에 방위산업 담당관실이 있어 각 군의 연구개발업무를 구처하고 국방부 산하의 제연구기관간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수차관보와 국방과학 기술연구소장으로부터 각각으로 2중적인 보좌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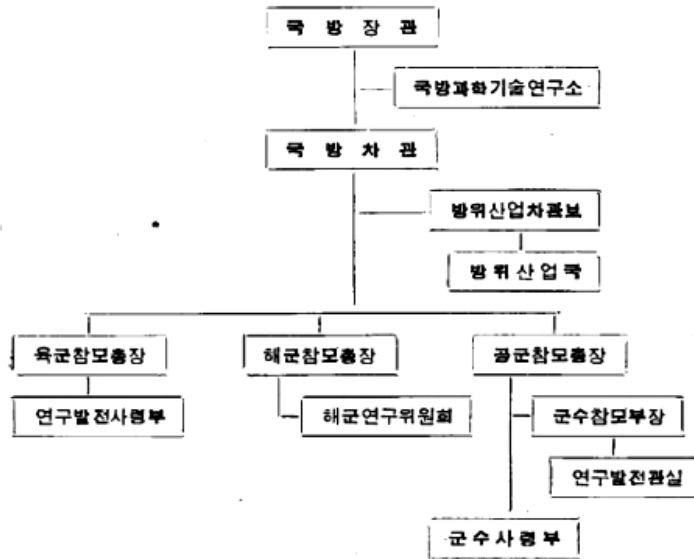
이 점에 대한 연구는 현재 관계 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차후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주로 공군의 현황에 대하여 말해 보고자 한다. 현재 공군의 연구 발전관실은 군수참모부장 산하에 1개의 실로서 발족하였으나 인원은 불과 수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한편 주어진 직능에는 (1) 공군 연구개발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의 운영 계획과 지도 감독업무

- (2)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장비 및 물자의 연구개발 업무
- (3)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 종합 계획 예산편성 및 관리업무
- (4) 무기, 장비, 물자의 국산화 판단분산계획 및 군수산업의 육성업무
- (5) 군 발전을 위한 외부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동업무
- (6) 군 제안제도의 관장 운영 업무
- (7) 군 과학자문 위원회 운영 업무 등 이다. 이를 다시 분석해 보면 공군의 전략과 전술, 교리 편성, 훈련방법 및 무기의 선정 등에 대한 업무는 기존 임무 부서에서 종전과 같이 수행하고 다만 기술과 장비 및 제안제도 등에 관한 일 부만 수행하도록 주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업무란 하나의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화하기까지 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더욱이 연구개발에 관한 실무부서를 갖고 있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이 인원은 업무자체의 성격으로 보아 너무나 미미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설정마저도 못하는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될 위험성마저도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의

한편 한국군의 연구개발 조직을 보면 (표2)

한국의 연구개발조직



한계를 초과하는 일은 결코 정당하게 성취될 수 없거니와 성취될 수 없는 일은 무성의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발전관실 신설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군 동질 직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동질참모기능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분산되어 있어 마치 기존체제에 일시적으로 증가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기구 같은 느낌마저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5. 공군 연구개발 업무의 방향과 전망

불과 수명의 인원으로 이러한 복잡한 업무를 담당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며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나 『속담에 한술에 배를 채울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주어진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성취시키고자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업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이고 시기적인

해결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직능에도 있듯이 현재의 공군 연구 발전관실은 주로 HARDWARE를 중심 한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에 대한 일차적인 기술검토와 가능성을 파악한 후 국방과학 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새로운 창안이 생기고 이것이 군의 장비에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2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미국의 연구개발 성과 분석(1965년부터 1967년까지 사이에 실시된 미국의 HIND SIGHT라고 불리는 연구개발 성과 분석보고)에서 판명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비를 연구 개발한다는 것은 항상 모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오랜동안의 준비와 연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모험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미국과 달리 경험이 부족하고 기초 연구분야와 연구시설이 거의 없다는 우리로서는 명백히 모방과 시행 착오를 겸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미래의 군 자립을 위한 일종의 보험가입으로 생각해 두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개발에 대한 업무의 진행에 있어서 연구개발 대상품목의 선정작업은 우선 보유장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유장비의 성능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신규장비의 연구개발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당장에 수요가 있는 품목으로써 이미 군원이 이관되었거나 장차 이관될 품목, 즉 군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품목에 대한 것이요, 둘째는 군원 이관이나 당장의 수요에는 관계를 두지 않고 단순히 설정된 기준에 입각하여(경제성, 임무의 중요성, 장차의 수요전망 등) 산정하는 경우이다. 투자의 경우는 군원 야관에 대하여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일이나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일단 유사시를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겠다. 그 어느 경우이고 간에 최초의 요구는 장비물자의 사용부대와 이와 같은 물자의 수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물자나 장비의 필요 야유와 필요량과 필요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일차적으로 군내의 재생 또는 제작능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할 때 비로소 국내외에 조달을 시도할 것이며 동시에 연구개발 부서에 그와 같은 품목의 개발의 필요성을 통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무부서에서의 적극적인

★ 공군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소고 ★

참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점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를 보건대 1946년부터 1966년까지의 20년 동안에 군의 연구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100억불에 달하였는데 그 결과 군의 장비 및 물자의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 판단의 85%가 연구기관이 아닌 실무부서에서 제시되었고 연구기관 내부에서는 불과 15% 였다고 한다. 반면에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이 일단 받아들여진 다음에는 연구기관에서 해결한 것이 76%에 달하고 나머지 24%는 실무부대와 상호 협조하여 해결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의 앞날은 실무부대와와의 협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히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다.

6. 결론

우리나라의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시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 되고 반면에 일단 시작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는 하겠지마는 그런대로 해 나갈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우리는 현재 국가적으로나 군의 입장에서나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구개발 부서가 비록 소규모나마 신설되었다는 사실은 연구개발 업무의 필요성이 그만큼 요청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필요성이 과연 무엇이며 현재 우리 공군의 현황은 어떠한고 앞으로의 연구개발 방향과 전망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우리 공군은 현재 또는 장차에 있어서 예상되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개량 발전되고 또 오래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또는 유지하여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능력을 기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 발전되어야 하며 이르기 위하여는 연구부서나 실무부서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진취적인 창의성을 발휘하여 상호 협동함으로써만이 공군의 장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신해년 유감

한해를 보내면서

박철규



신해년 한해가 저문다..... 지나가 버린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오래도록 깊은 상념에 젖게 됨은 인지상정이라고나 할 수 있을는지.

☆ ☆ ☆

— 누구나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면서 무엇인가 가슴 깊이 한가닥 외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어 보리라.

신해년 첫날에 나도 예외가 될 수 없었기에 차분한 마음 자세로 삼백 예순한 날의 생활설계를 하여 보았다. 물론 군인의 신분으로서 구상할 수 있는 설계도는 일정한 범주 내에서 맵도는 것이 되어 버리기도 하겠지만 그 범주 내에서 만이라도 알찬 결실을 맺어 보아야 하겠다는 나의 솔직한 욕심 같은 것이었을 게다.

신해년....하면 우신 생각나는 것이 꿈 많은 해, 행운의 돼지해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옛부터 우리네 조상들도 돼지라면 재수 좋은 동물로서 정의하여 왔고 오늘에 이르러 서는 돼지란 당연히 알찬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상징될 수 있게 되었다.

☆ ☆ ☆

나는 우선 신해년 한 해를 건강과 나, 건강과 가정, 건강과 군인, 그리고 건강과 사회, 아니 건강과 국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 회복의 해, 만회의 일년으로 기억할 수가 있겠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을 단 한 번도 문제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우연히

<신해년 유감>

병을 얻고 급기야는 3개월 동안 병상에 놓게 되다 보니 건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나 할까. 더욱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건강해야겠다는 것, 아니, 군인신분으로서의 건강문제는 더욱 의미깊은 것이라고 하여야겠다.

옛말에 건강한 육체는 건전한 정신을 낳는다는 말처럼 건강하지 못한 가장,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 건강하지 못한 군인은 우리들 주변을 답답하고 혼탁하게 한다.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야기여서 우리 모두들 별로 주의하지 않고 관심없이 지나쳐 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모두들 한 번씩은 자기 건강에 대한 바른 테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병약한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슬픔과 비탄의 역경을 감수하게 하고 한 나라의 병약한 군인, 군대는 그 나라의 존망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 모두 건강해져야 하겠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면 옆에서. 오늘도 출근에 지장없는 기분좋은 하루가 될 것인지 안타까이 가슴조리며 기도하는 자세가 건실한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 ☆ ☆

이제껏 14년여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부대, 여러 보직을 거쳤지만 작년 연말, 아니 급년초부터라는 것이 정확하겠다. 우리나라의 최남단 ○○항에 자리 잡은 우리 공군의 최후방 보급부대, — 부대 규모가 적으니 비례적으로 부대에서 처하는 책임과 의무는 더욱 가중되었고 전에 없이 많은 검열단과 방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부대 일에 얽매이고 보면 가정도, 개인 나에 대한 의식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신없이 보내버린 지루하고 괴로웠던 날들.— 가정을 지키는 아내에게 한가닥 미안한 마음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호느적거리는 축 처진 나의 건강문제가 남아나지만 힘겹게 치루어 낸 일들에서 오는 나만의 뿌듯한 자감과 만족감, 특히 이번 가을철에 장병들 가족과 부대 인근주민을 초청하여 부대 초유의 정백군 대향전은 물론 우리 영내 사병들이 가장행렬까지 한 대대적인 추계 체육대회며 장장 20여킬로미터의 도보행군훈련 등 어렵고 인상적인 사연도 많았지 만 바쁜 군무 중에도 늘 너리에서 떠나지 않던 우리 꼬마 중윤이의 한 달간 가슴앓이는 나를 몸과 마음이 같이 괴롭게 쓰리게 하였고 가까이 있던 부하 장병들이 많이 내 걸을 떠나게 된 모두가 행운의 돼지해에 치룬 내 나름의 인간적인 업보(?) 였다고나 할지.

☆ ☆ ☆

<신해년 유감>

아무튼 신해년 한 해여. 영광과 고뇌를 함께 가져다 준 회억의 해여! 잘 가거라. — 이 한 해는 나에게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우쳐 주었고 군인된 입장으로서 그 나름의 분명한 책임의식, 큰 의무, 책임감으로 주어진 직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조용한(?), 다행한 해였다고나 해야겠지. 지나간 세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 시절 그 이야기는 지금 생각하면 모두가 추억이요 아름다운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가닥 마음 편치 못한 아쉬움, 쓸쓸한 비소만이 남는 한편의 재처럼 어정쩡한 생활형편은 한시바삐 잊어버리고 싶고 두 번 다시 기분 나쁜, 뜻없이 번거로운 사연을 장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나대로의 다부진 결의. —

새로운 한 해. 다가오는 임자년은 용기와 열정과 희망만으로 건강한 한 해를 보내야지. 모든 서러운 추억은 무심히 흐르는 남해 바다에 띄워 보내고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아야겠다.

<생활의 교훈>

급한 것도 나쁘지만 느린 것도 또한 나쁘다. 모든 일은 알맞는 때에 행하는 사람이 현명한 것이다.

<오비드>

남에게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기 위하여 살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살라.

<톨스토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괴로움만을 걱정할 것이다.

<예수>

비판을 받지 아니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

나의 가정생활을 반성한다.



문무길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돌이켜 본다.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배경으로 얼버무려 생각해 보면서 무엇인가 희망 비슷한 것을 안고 새해로 넘어간다. 또한 무질서하지만 이것저것 머릿속으로 조아려 보다가 쓸쓸히 허물어 버리기도 한다.

나는 솔직히 해를 넘기면서 그리, 무엇을 반성한 적이 없다. 굉장히 잘나서도 아니고 반성할 것이 하도 많아서도 아니다. 그저 반상이란 이름의 행위가 뚜렷이 의식속에 움직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다른 사람도 꼭 그러리라 주장 할 수는 없으나 나는 짙막한 후회와 결심이 생활이라는 연속선상에 가끔 매듭지어지는 정도로 느껴진다.

이제, 책상다리를 꼬고 앉아 지난 일년간의 나의 가정생활을 반성해 보려니 까 얼듯 무엇이 떠오르질 않는다. 원고지에 생각을 옮기려니 더욱 그런 것 같다. 우리집에서는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 높다. 내가 하자고 하면 크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내 감정을 거슬릴까 조심까지 한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누가 무어라 해도 나는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조금도 거짓 없이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가족을 사랑한다는 느낌만 으로서는 제일 높은사람 으로서의 할 일을 다한 것이라 믿지 않는다. 나는 제일 높은 사람의 특권을 이용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짓을 일년 내내 늘어 놓았다.

<신해년 유감>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으로서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분수를 잘 알아서 크게 무리가 없는 처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나의 행동에는 불합리하고 무리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생활의 자잘구레한 일들로 예를 들어 보더라도 우선 집식구들은 2주에 한번 불고기를 먹을까 말까인데 나는 적어도 1주에 한번은 어떤 계제로라도 불고기를 먹었다. 그 돈이면 온식구가 1주에 한번 이상을 넉넉히 불고기로 즐길 수 있는 것이었다. 이걸 약파다. 술을 먹었다 하면 걸멋에 들러 팀이 천원이상되는 곳에서 꽤 여유있는 척 하였다. 물론 돈있고 정있는 친구의 과분함 대접에 얹은 자존심이나도 살려 볼려는 몸부림에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꼭 지켜야 할 도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애기를 늘어놓자면 먹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입는 것, 타고 다니는 것,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신의면에 있어서도 결코 나는 진실치 못하였다. 나의 처가 나를 믿는 것을 기회로 돈도 슬쩍 혼자만 알게 써 버렸고 아가씨와 데이트도 하였다. 이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인지, 또는 행위의 처리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좋고 나쁜 것 이 결정되는 것인지, 여기에 결론짓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나의 처나 아이들 입장에서 솔직히 환영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또한 그런 행위를 내 처나 아이들 쪽에서 하였을 때에 내가 환영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하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될 때는 분명 이름다운 것이었고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여하간 나는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그렇게 즐겨왔다. 재주를 부렸는지, 눈치가 빨랐는지, 가장으로서의 전통적 특권의식의 혜택에서였든지 간에 이제껏 무사했었다. 그러나 나는 분명 독재자나 폭군이었고 처나 아이들은 압박과 학대에 찌들어 그것조차도 분명히 의식 못하는 채 그것이 인생이려니 실실대며 살아왔던 민중이었다. 규모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분명 압박은 압박이요 학대는 학대였다. 그런데 하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집안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주제에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사실이다. 숫제 철저히 아내와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다른 여인과 아이들 또는 자기 자신에만 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쓰라린 일이지만 그래도 새 생활을 위해 그 남편과 아버지를 단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처럼 속으로는 가족을 위하는 자신의 마음을 굳게 믿으면서 행위의 양태는 결코 그럴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가장을 가진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친족에 의한 피해의 굴레를 운명처럼 쓰고 지낼 것 같다.

나는 나의 가정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요 아내는 부사령관격이다. 아이들은 철저한 졸자에 속한다. 나는 부사령관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권한의 합리적인 위양을 단행하고 졸자들의 처지를 통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며 늘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긍지를 찾아야 할것 같다. 혹 듣기에 처나 아이들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자격없는 지도자로서 꽤 오랜 세월을 지탱하여 온 것은 아내라는 충신과 아이들이라는 애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내가 갈팡 질팡하고 이랬다 저랬다하면 나의 신하와 나의 백성은 나를 우습게 볼 것 같다. 우습게 보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질서가 없어진다. 내가 별안간 정색을 하며 인상을 써 보았댔자 더 우습게 보이게 될 것 같다. 무책임한 가정과 놀아난 아내, 버릇없는 아이들! 이것은 가장 모범적이 아닌 가정의 형태이다. 철학이 없고 몰상식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잘난줄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딱하다. 몹시 술 취한 사람모양 자신은 똑바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옆 사람이 보기에는 처참한 것이다.

나는 억지로 과거를 돌이켜 혹, 내 걸음이 처참한 것은 아니었나 되새겨 본다. 비틀거린 때가 꽤 있었든 것 같다. 독선과 이기로 아내와 아이들을 조금은 불편케 했던 것 같다. 많은 남편들이 그렇듯이 아내에게 무뚝뚝하고 쌀쌀했던적이 많았던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쳐주다 잘 모른다고 어린 아이들을 때렸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다. 왜 그리 답답하고 신경질이 나던지 알밤, 종아리 할 것 없이 정말 손이 치사할 정도로 날려 다녔다. 그러는 주제에 혹 처가 아이들에게 소리치면 아이들 면전에서 몰상식하다느니 조용조용히 타이르라느니 잘난 척하였다. 아내는 꽤 여러 번 나에게 제발 아이들 앞에선 타박 좀 말아달라고 간청도 해 왔으나 나는 그것을 곧잘 이끈 하였다. 확실히 나는 사령관의 지혜도, 체통도, 위엄도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부하들(아이들)에게는 부사령관이 더 인기있고 존경을 받았을 것 같다. 혹 퇴근길의 호떡이라도 끊어질까, 가끔 주착없이 주는 용돈이라도 끊길까, 못생긴 눈을 혹 부릅뜨지나 않을까 두려워서 아이들은 나를 더 좋아하는 척 하였을지도 모른다.

우리집 아이들은 손님이 “너 아빠가 좋으니, 엄마가 좋으니?”하면 내가 옆에 있으면 틀림 없이 “아빠요!”한다. 나는 이것을 두가지로 분석한다. 하나는 나를 정말 나를 좋아해서이고 또 하나는

나의 썩스런 압력 때문이다. 물론 전자에 속하길 내심 바라지만 그것은 예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른 개체가 나를 좋아한다”이 사실은 행복의 극치라고 나는 생각한다. 반대로 “나라는 개체는 그 누구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 정말 외톨이다”생각될 때 이는 극도의 불행이요 심하면 자살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과거 일년간에도 무수히 알랑거려 보았다. 아내에게도 그랬고 아이들에게도 그랬다. 그러나 역시 잘 보이려는 노력은 좀 치사한 것 이라고 느껴진다. 제스추어는 결코 최상의 것은 아니다. 진실하게 상대를 사랑하는 깊은 자세, 이것이 최상인 것 같다. 상대를 사랑하려는 자세, 좀 더 친절하여 보려는 생각의 계속성은 반드시 그런 행동을 낳는다. 이것은 한 가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최소 규모의 사회인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 은행, 군대, 버스안, 운동장, 보도, 인간이 모이는 어느 곳에 이르던지 싸늘한 봄날의 양치처럼 따사로움을 안겨주는 것이다.

지금 나는 참 의미의 친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역시 친절은 참사랑의 자세에서 오는 것이 틀림없다고 마음속으로 다지게 된다. 지극히 섬세하고 주의 깊으면서도 판단이 정확하고 추진력이 강한 참사랑의 자세, 참 친절의 모습을 찾아 계속 간직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이것만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사령관으로서, 또한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처신 하는데에 휘청거리지 않고 곳 곳이 앞장서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믿어진다. “내가 너를 정말 돕는 길은 과연 무엇이야?”고 늘 자신에게 솔직히 묻는 자신이 되고 싶다. 그리고 얻어진 답대로 행할 수 있는 자신이 더욱 되고 싶다.

이렇게 반성하고 결의를 새로이 하는 마당에 내년엔 꼭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 없이 우물쭈물 이 글을 끝내볼까 한다.



나의 군인생활을 돌아본다.

차순도



하늘이 높아지고 온 누리가 황금빛으로 물들 때면 항공기의 상태도 훨씬 좋아진 것처럼 느끼면서 한결 상쾌한 기분으로 비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앙상한 고목 밑의 낙엽을 밟으면서 산책할 때처럼 자기 나름의 독특한 상념과 고독감 같은 것을 느끼는 계절이기도 하다.

흰 눈이 나리는 겨울 다음엔 반드시 다시 생동하는 봄이 오는 자연의 순환법칙은 변함없이 되풀이 되겠지만, 인간 각 개인이 맞이하는 새해의 봄은 1971년의 그것과는 전혀 색다른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신해년 365일이 지체 없이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국내선거, 그리고 닉슨 독트린의 여파로 주한 미군 일부 철수에 따르는 지난 봄 전홍 전선의 국군경비 전담, 그리고 술한 군 내외의 사건 등 예년과 다름없이 복잡다난하였던 한 해였다고 기억된다. 신성한 국토방위의 책임을 지닌 60만 한국군의 일원으로서, 하늘을 실생활의 무대로 살아온 공군의 일원으로서의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 본다.

일년지계 제어춘(一年之計 在於春)이란 말이 있듯이 매년 정초가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든 안되든 사람마다 제각기 몇 가지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상례이다.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군인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발한 사업을 계획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부여된 임무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빛나는 전공을 세워서 애국할 수 있는 값있는 인생을 꿈꾸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속, 보직변경/진급, 기종전환, 가족계획, 주택문제해결 등을 계획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직책과 사명이 거의 확실했던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귀하고 가치있는 자아의 성장과 가정적으로는 보다 더 충실한 가장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 그리고 부대생활에 있어서는 완전무결한 비행임무의 수행으로 나라 위해 공헌하려 했던 것이 목표였다고 생각한다.

1971년 1월 6일, 대망하던 최 신예 항공기가 내가 살고있는 모기지에 태극 표지도 선명히 그려져서 안착하였다. 지난해 겨울 미국 달러스 상공에서 미처 동체에 페인트 작업도 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훈련을 받아가며 시험비행까지 하던 항공기였다. 나는 이 항공기와 더불어 이날부터 더욱 중요한 임무와 책임이 부여된 것이다. 연초에 가져다 준 최초의 감격적인 날이었다.

몇몇 고위인사의 시승비행을 마친 다음 1월 27일(그날은 구정 초일이었다) 새로운 항공기 에 의한 최초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당시엔 지도상으로만 계획단계에 있었던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영동 고속도로의 공중 답사 비행임무였다. 대통령께서도 새로운 항공기의 기체와 좌석을 돌아보시며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만족한 표시를 하셨다. 나는 약간의 흥분과 긴장을 감출 수 없었으나 이내 침착과 이성을 되찾아 두 시간에 걸친 그 비행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맺었다. 처음으로 보람을 느낀 하루였다.

출동 임무는 계속되었다. 대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예고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필요로 하는 때도 있다. 또 비행임무의 성질도 전국 방방곡곡의 국가적인 행사에서부터, 도시와 농촌, 산악지대와 수해지구 시찰 등 다양하며, 어떤 경우에는 며칠간 계속되는 때도 있다.

승무원과 항공기의 기장으로서의 나는 평시에도 출동에 대비한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임무가 지시될 때는 빈틈없는 사전준비를 해야 된다. 철저한 항공기의 정비는 물론 재점검으로 확인해야 되며 항법계획, 목적지의 지형지세, 급변하기 쉬운 기상상태의 수시 파악, 보안문제, 그리고 각 승무원의 건강상태와 용의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신경전이 전개된다. 미소한 결함이나 한 건의 실수라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그야말로 완전무결

(Zero Defect)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철두철미한 준비에 겹쳐서 일단 실제 임무비행을 위하여 조종석에 앉으면 그동안의 경험과 조인으로서의 신념을 초월하여 잠시 동안 그 임무가 끝까지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신에게 기도한다. 이러한 습성은 본인뿐 아니라 관계되는 상관, 그리고 정비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때로는 악천후에서, 때로는 좁다란 생지, 착륙장에 여러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해야만 되는 어려움이 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언급된바와 같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용의단정은 물론 체취문제까지 고려해야 되며 더 중요한 것은 귀빈 승무원으로서의 매너(Manner)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중에서, 지상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어쨌든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조종사들도 그러하겠지만 비행임무를 무사히 끝마치고 모기지에 안전하게 귀환 착륙이 완료되기 전에는 잠시도 긴장에서 해이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본인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커다란 소득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고 강인한 의지의 영도자에 의하여 우리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으며,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눈부신 발전을 기하고 있는 생생한 역사의 개조 현황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금년 정초 앞에서 언급되었던 영동고속도로 공중 답사 비행을 하였을 때만 해도 조종사들이 소지한 지도 이외에는 아무런 표식조차 없었던 그 루우트엔 반년 후(7월 13일) 재확인 비행했을 때는 이미 넓직한 도로에 포장공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경부 고속도로가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국토는 지나간 짧은 기간 내에 수없이 지도를 변경해야만 되는 대 수술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곳곳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높다란 건물과 굴뚝이 세워진 것을 수시로 목격하게 된다. 물론 내가 본 필라델피아나 도오쿄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어제의 황량한 벌판이 오늘 웅장한 공업단지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수시로 관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은 우리의 피땀어린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러한 조약을 위한 투쟁과 불굴의 의지는 우리의 앞날에 필히 서광을 빚추어 줄 것임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공군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휘관 및 일선 공중근무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나의 생활 주변도 역시 “대기”로서 일관되었음은 예외일 수가 없었다.

임무가 부여되지 않는 평시에도 대기 상태가 계속 되었다. 무더운 여름철 가족과 함께 해수욕을 위한 바캉스라든가, 청명한 가을 휴일에 교외소풍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그리고 보면 지난 한 해에 있어서 가장으로서의 구실은 전혀 낙제생이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래 오래동안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생활에 잘 익숙된 가족들은 불평이 있을 수 없다. 원래 군인이란 가족을 생각할 겨를 없이 멸사봉공하며 애국, 애족하는 것이 본분일 진데, 거기에 비추어 나의 입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비교적 정상퇴근하여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나면서 때로는 귀여운 딸이 치는 피아노의 음률로 피로를 풀 수 있으니 과분한 것이라고 느껴지며 단출한 세명의 가족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다만 좀 더 세밀한 부문까지 신경을 썼더라면 더욱 흐뭇하고 단란한 분위기를 자주 만들 수 있었음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돌이켜 지나간 신해년을 회고하건대 나에게 부여되었던 무수한 비행임무를 별 사고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여러 방면으로 배려하여 주신 상사 선배와 함께 수고한 조종사들, 그리고 피땀어린 정성으로 노력해준 정비사들에게 감사한 마음 그지없으며 그러한 순탄한 한 해를 보냄 이 신의 가호로 이루어졌음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몇 가지 군의 중견장교로서 미흡하게 생각되는 점은, 좀 더 충실한 자기 발전과 성장을 기할 수 없었다는 것과 자주국방을 지향하는 차제에 일선 전투 조종사들처럼 주야로 전투임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정책수립가(Policy Maker)로서 오늘과 내일의 군의 발전을 위해 직접 헌신하고 기여할 수 없었던 것이 유감으로 생각된다.

다가오는 임자년 새해에는 보다 더 고귀하고 근면한 봉사와 책임완수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 덕성, 능력, 인격 등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되겠다. 그리고 주어진 현재의 직위에서 사명을 다해 가면서 비굴하지 않고 값있게 살 수 있는 자신을 길러야겠다. 그것이 곧 나 자신과 나의 가정의 행복이 되는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북괴정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

이중헌



괴수 김 일성 명령일하에 전 한반도의 적화를 괴수들의 유일한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괴의 숙청으로 일인 일당 독재체제를 굳혀가면서 북녘땅을 군사기 지화하고 북녘 주민을 무장시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무력적 수단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책동을 잠시도 쉬지않고 계속하고 있다. 또한 괴수 김 일성은 한반도를 적화하는데는 3가지 역량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떠 벌이고 있다.

이 3가지 역량이란?

첫째, 북녘땅을 대남침략의 정치, 경제, 군사적 기지로 만들어서 소위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할 사회주의 역량을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 남한 내의 공산주의 혁명조직을 부식 확대하는 일방 무장게릴라를 침 투시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소위 남조선 혁 명역량의 조성이며

셋째, 그들이 무력으로 남한적화를 획책할 때 국제공산진영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역량」의 확대를 들고 있다. 따라서 북괴의 모든 정 치, 외교 그리고 대남침투공세 등은 모두 이 같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천하 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즉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책임으로 맡기고 자산의 군사적 역할을 줄이려는 미국의 비미국화 정책을 놓고 북괴는 이를 소위 국제 혁명역량이 성숙된 것으로 오관하여 무모한 불장 난을 저지르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것이다. 호전적이고 경솔하기 비길데 없는 김 일성의 입장에서 볼 때 허손독트린에 따라 한국의 한국화가 이루어지면 한 반도에 긴장상태가 벌어지더라도 미국의 지상군이 쉽게 참전할 수 없을 것이 고, 그렇다고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군사력을 선불리

★ 북괴정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 ★

개입시킬 수는 더욱 없을 것이며, 설사 그런 경우 배후의 중공군이 가만있 지 않을 것이라는 오관을 자기 멋대로 내릴 수 있는 김 일성인 것이다. 사실 상 김 일성 1인 독재체제를 굳혀 놓고 지난 18년 동안 줄곧 전쟁준비에만 혈 안이 되어 온 북괴는 지금의 극동 정세가 마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 고 있는 것처럼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괴의 침략책동을 예의 주시 하고 어떠한 돌발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항시 갖 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북괴가 남침을 위해 전쟁준비를 적극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1962년 12월 노동당 4기 5차위원회에서 소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비 롯됐다. 이 4대 노선이란 소위 전 인민의 무장화, 전 지역의 요새화, 군의 간 부화, 군의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 4대 군사노선만은 1968년 4월 북괴 노 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목표완료의 보고를 할만큼 철저히 감행되고 있다. 그러면 6.25 재판을 노리는 김 일성의 침략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이 4 대 군사노선에 따라 북괴가 어떻게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었는가 알아보기 로 하겠다.

첫째, 전 인민의 무장화란?

괴되는 군사체제상 정규군 이외도 예비 군사력으로서 140만 노동적 위대를 편성하여 이를 소위 인민무력의 동원요소로서 강화하고 있다. 남자 18세부터 45세까지 전 주민을 강제 편입시켜 편성한 노동적위대는 대부분 직장을 가진 자들로서 직장마다 그 규모에 따라 소대와 중대로 편성되고 지역단위로는 이 마다 대대가 있으며, 공장 기업소 학교에는 연대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 의 기본화기는 자동소총이며, 대학노동적위대와 종업원 천명 이상의 공장 기 업소 노동적위대에게는 야포, 박격포, 고사기관총 등 정규군과 같은 장비를 지 급하여 훈련을 강행시키고 있다. 이들은 매일 낙하산 모형항공기 격주 등 특 수훈련과 게릴라 전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전쟁시에는 그들을 후방에 투입하 여 게릴라전을 하게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노동적위대 중에서도 핵심 세력이 될 수 있는 소위 열성분자 들을 골라 붉은 근위 청년대라는 조직체를 하나 더 만들어 노동적위대의 핵 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적위대의 전투능력을 강화해 가면서 이들의 가족은 물론 노인들에게까지 사격술 훈련을 시키고 있다. 특히 북괴는 소위 극북체육이라는 명목하에 수류탄 던지기, 장애물 극복, 등반, 강행군, 산야행 단, 담벽넘기 등

★ 북괴정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 ★

군사훈련을 전 주민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전 어린이들을 소위 방위 체육클럽에 가입시켜 모의 사격훈련을 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괴는 모든 사람은 군이다라는 모택동의 슬로건을 그대로 본받아 아내의 사격점수가 미달되면 그의 사상적 책임을 남편에게까지 문책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 지역의 요새화란?

북괴는 6.25동란 때에 유엔 공군에 제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모든 군사 시설 생산 공장을 파괴당했다는 사실을 뉘드리하고 있다. 사실상 휴전 후 그들의 발표한 것만 봐도 공장 기업소를 포함한 큼직한 공공건물들이 파괴 소진된 것만 6천여동이 넘었으니 그 피해를 가히 알만 합니다. 휴전 후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재 남침준비에 혈안이 된 괴수 김 일성은 재차 도발하는 전쟁에서도 유엔군이나 한국군의 공군력을 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모든 예비 시설에 전주민들을 총동원하여 공장을 지하로 끌어가 고 해안지 대에는 함포 사격에 대응할 지하 포대를 만들었는가 하면 가정마다 직장마다 또한 도시 북판에까지 대피호를 파는 등 그들의 말대로 전 북한 지역을 두더지처럼 파헤쳤으며, 지금도 계속 파헤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새화 정책은 무모한 전쟁을 도발하여 쓰라린 패전을 겪었던 6.25동란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의 침략전쟁에서는 어떤 강적과도 맞서보겠다는 호전성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셋째, 군의 간부화란?

군의 간부화란 북괴군의 각개 군인들을 자기 계급보다 한 계급 더 높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계획을 말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괴의 소위 인민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적화정책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북괴 노동당 규약 8장 66조와 67조에 조선 인민군대는 조선노동당의 무장력이다. 따라서 조선인민군대 내에 노동당 위원회를 조직하여 동 인민군당 중앙위원회의 지침서 밑에 사업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괴뢰군 장비 속에 약 30%에 해당하는 당원들이 비당원 군인들을 감시, 밀고함으로써 군대를 당의 수족노릇을 하도록 무서운 조직으로 묶어놓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공산당원이 군을 지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더구나 전쟁을 도발하여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을 때 간부 부족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와 당의 지배체제가 흔들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산당에 충성할 수 있는 간부를 미리 훈련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의 간부화를 위하여 괴뢰군의 당위원회는

★ 북괴정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 ★

천리마운동에 입각한 사상교육 전투훈련에 중점을 두고 붉은기 부대의 칭호를 주는 상호경쟁심 유발의 수법을 쓰고 있다. 붉은기 부대가 되려면 부대원 모두가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조직원리를 철저히 관철함은 물론 김 일성 사상 교양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학습하고 무기의 조작 기술에 능통하여 여하한 환경 조건하에 서도 능숙한 군사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진지공사와 노력동원에서 빼가 가루가 되도록 노동성과를 배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대장은 소대장의 직책을, 소대장은 중대장, 중대장은 대대장을 직책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훈련해 두었다가 전투시에 지휘자가 전사하면 혼란없이 그 직무를 담당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설명할 것도 없이 괴뢰군의 간부화정책은 대규모 살상이 예상되는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동요없이 군에 대한 당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또한 노농적위대의 대부분을 정규군에 신속히 편입시켜 당의 무장력으로서의 구실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넷째, 군의 현대화란?

군을 현대화한다는 괴뢰의 노선은 정세추이에 적합하게 훈련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괴수 김 일성은 한국적화를 위해서 6.25의 경험을 살려 발악의 충창을 갈아가 지고 단숨에 남쪽을 집어삼켜야 된다고 외치면서 내 옷을 팔아서라도 비행기와 탱크를 사들이겠다고 침략적 발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남한적화에만 눈이 어두운 김 일성은 허덕이는 주민의 생활실태에는 아랑곳 없이 그들의 고향을 착취하여 병기도입에 쓸어넣고 있다. 그러나 북괴의 장비현대화는 1965년 2월 소련의 「코시킨」이 북괴를 방문한 후 북괴의 소련 접근과 때를 같이한 소련의 대북괴 경제원조의 재개에 의하여 본격화되었다. 그리하여 67년 이후 현재까지 T54형 전차, 유도어뢰정 포함 MIG-21형 초음속 전투기, AN2 수송기, SA-2 지대공 유도탄 등 장비를 계속 도입하여 전투력을 현저히 증강시켜 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들의 훈련도 67년 후반기부터는 주로 공격훈련에 치중하고 있다. 이상에서 북괴의 대남침략준비의 기본이 되는 4대군사 노선을 살펴본 바와 같이 북괴는 전주민 무장과 전지역 요새화를 강행하여 전쟁잠재력을 고도로 배양하고 당의 군사지배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장비와 전투능력을 계속적으로 보강하여 무력적화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서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 북괴정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 ★

북괴가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괴수 김 일성의 지령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무모한 남침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지적했거니와 이에 대처하는 데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적보다 우세한 힘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힘이 부족할 때는 시간을 벌기 위해 평화협상을 내걸지만 힘이 강할 때는 반드시 무력을 앞세우는 것이 공산당의 전략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무력적화 운운하는 그들의 침략야욕을 포기하도록 하자면 그들보다 우세한 국력을 비축하여 힘에는 보다 큰 힘으로 응징한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력의 비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온 국민의 고귀한 땀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국민이 땀을 흘려 이를 실천해온 것도 우리의 국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자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하고 땀 흘리는 삼천만이 불침번이 된다면 우리의 경제는 자립되고 번영을 누릴때 우리의 국방력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게 되며, 여하한 괴뢰의 무력침략에 대해서도 격멸시킬 수 있다.

우리가 건설이 곧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에서 하는 말이다. 또한 경제군대가 되려면 우리의 장비를 현대화 하고 부족 되는 물자를 보충하는 것은 우리의 전력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자를 알뜰하게 아껴쓰고 선용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과거 우리는 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부터 피복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원조로서 충당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주는 물건이라는 생각으로 물자를 우리 물건처럼 아껴써야 한다는 생각이 희박했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됨에 따라 미국의 무상경제원조는 1970년도로 종결되고 군원도 매년 줄어 들 것을 예상할 때 국방비도 스스로가 부담해야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장차 다가올 이러한 정세에 대비하여 총포, 차량, 통신기재 등 우리나라의 공업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군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착착 추진 실천 중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장비가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떠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소기의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보다 인력과 물자와 예산을 절약하고 부족되는 물건을 선용하는 습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물자뿐만 아니라 우리 전술 훈련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적보다 여러 가지 불리한

★ 북괴정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 ★

조건하에서도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술을 발전시키고 철저히 훈련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적보다 항상 유리한 상황하에서 적보다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싸운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전쟁에서는 숫자의 우열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는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적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적을 물리친 전례는 역사상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가까운 예로써 최근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을 들 수 있다. 2백 70만의 인구에 8만의 상비군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병력이나 장비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세한 아랍제국을 단번에 무찔러 세계를 놀라게 했던 6일전쟁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역경 속에서도 내 조국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평소 훈련을 철저히 한다면 공산도배들이 아무리 우세한 전령을 가지고 침략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유와 국토를 한치라도 짓밟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전쟁에는 휴식이 없다. 적은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려놓고 침략해오지 않는다. 따라서 항상 긴장된 분위기에서 적을 경계해야 하겠지만 후방에 침투하는 적을 더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전 장병은 3천만의 불침번이 되어 괴뢰들이 침투할 틈을 주지 않아야만 승공통일의 길을 단축하게 될 것이다. 군인 모두가 최악의 경우 자폭할지언정 공산침략에는 굴복할 수 없다는 불사조같은 승공정신에 투철하고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위정신으로 뭉쳐 경제적 군사적 실력을 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산당을 물리치고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박대통령 문언록▶

◇ 훌륭한 헌법은 그 형식과 체제보다도 이를 수호하고 준수하려는 굳은 의지와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 법이 없는 곳에 질서가 있을 수 없으며, 질서가 없는 곳에 참다운 자유와 발전이 있을 수 없다.



1. 서론

군법회의법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관할관 제도를 두어(동법 제7조, 제8조) 당해 군법회의의 사법사무에 지휘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사법 사무도 군사작전체제(The Framework of Military Operation)라는 군 고유목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현행 군법회의는 보통군법회의, 고등군법회의 및 그 상고기관으로서의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법원에서와 같이 3심제로 되어 있다. 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와 각 군본부(해병대 사령부 포함) 및 예하부대 중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그 책임지휘관으로 하나 국방부 및 각 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 및 당해 각 군본부 참모총장(해 병대 사령관 포함)이 된다. 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 및 각 군본부

(해병대 사령부 포함)에 설치하며 그 관할관은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해 병대 사령관 포함)이 된다. 이러한 각 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각 군법회의의 행정사무를 관할하며 재판관을 임명 지정하며 검찰관을 임명 지정하고 지휘 감독하며, 재판 후 판결의

• 군법회의의 관할관의 확인조치

확인관으로서 판결의 내용에 실질적 변경(감형, 형의 집행면제)을 가 할수 있는 확인조치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므로 군법회의는 관할관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지휘계통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군법회의에 관하여 관할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확인 조치권에 관하여 상론하고자 한다. 구 국방 경비법하에서는 재판의 전후에 정하여 지휘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제도를 인정하였으나 현행군법회의법은 재판 후의 관여만을 인정하는 확인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다. 관할관의 확인조치는 대별하여 확인권과 은사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하 이를 고찰하기로 한다.

2. 관할관의 확인권

(1) 확인권의 의의

군법회의법 제369조 제1항은 「판결은 관할관이 확인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관할관의 확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구 국방경비법하에서 설치, 장판에 의한 판결에 대한 승인조치와 동일한 성격을 띄우나 그 내용은 상이하다. 동 조문은 군법회의의 판결만의 확인을 요하고있으므로 동 조문의 반대해석으로 기타의 재판인 군법회의의 결정 및 명령은 확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2) 확인권의 적용범위

관할관의 확인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이라 함은 동 조문규정의 체제상 실체 재판 중 유죄판결에 한할 것 같으나 조문의 체제와 별문제로 제한규정이 없는 이상 조문의 문리해석상 판결의 형식으로 되는 재판, 즉 형식재판, 실체재판을 불문하고 관할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조문상 관할관의 확인권이 형의 감경 또는 집행면제를 할 수 있는 전제적인 조치로 해석한다면 실체 판결 중 유죄판결에 대하여서만 관할관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군법회의법은 일반 형사소송법과 달리 군대의 질서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군법회의라는 특별재판소를 조직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군법회의의 조직, 운영은 군사작전 체제에 입각하고 있으며 지휘관으로서 관할관의 지휘권이 군사법 운영에 있어 존중되어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관할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찰관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모든 피고사건에 대한 군법회의의 중국적판결(유죄, 무죄 불문)은 지휘관으로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 조문의 문리해석과 함께 종합하여 고려하면 모든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 군법회의 관할관의 확인조치

(3) 확인권의 법적성질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현행 군법회의법상 관할관의 확인권은 구 국방경비법상의 부인권 및 재심취려권이 수반하는 실질적 권한이 아니고 다만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사후적인 형식상의 서명, 날인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4) 확인의 의제

군법회의법 제369조 제2항은 관할관에 의한 판결의 확인조치는 판결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확인조치 기간을 도과하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바 이를 확인의 의제라 하며 이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된 후 소정 기간 내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불확정 상태에 놓여 이 판결은 집행이나 상소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할 것이므로 10일의 법정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인기간이 도과한 후 관할관이 원판결대로 확인한다면 별 문제는 없으나 판결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였다면 그 효력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관할관이 확인하지 아니 하고 소정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군법회의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다. (군법회의의 규칙 제20조)

3. 관할관의 은사권

(1) 은사권의 의의

관할관은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확인과 아울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를 참작하여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군법회의법 제369조 제1항 후단). 즉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판결에 대한 실질적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 이를 일반적으로 관할관의 은사권이라고 하며 이는 실제 재판 중 유죄판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2) 은사권의 법적성질

이러한 은사권이 사법적 행위(Judicial acts)나 또는 집행권(Executive acts)의 행사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일설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은사권의 발동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재판 확정 후에 대통령에 의하여서만이 발동되는 것이 원칙임을 이유로 관할관의

• 군법회의의 관할관의 확인조치

확인조치는 사법행위인 재판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 변경을 가할 수 있음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의 문제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군법 회의법상 관할관은 헌법상 법관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의 영장을 수사단계에서 발부하며 판결에 실질적 변경을 가함은 그 성질상 사법권에 관한 것이고 관할관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관할관은 법관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은사권은 대통령만이 가지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그 성격상 특수한 재판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견해에 대한 반대적 견해는 헌법상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서 정한다는 것은 관할관의 경우를 포함할 수 없는 점, 관할관은 군법회의와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 구 국방경비법상의 설치장관의 승인조치와 달리 관할관은 양형 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조치할 수 있다는 점, 연혁적으로 보아 군지휘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경위가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하여 은사권의 일종으로 부여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는 법관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휘관에 부여한 은사권의 일종으로 집행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관할관은 사법기관이 아니면 확인조치권을 관할관에 부여한 목적, 근거 등을 고려하면 투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은사권의 행사는 관할관의 재량행위로 간주된다.

(3) 은사권의 내용

은사권의 행사기준으로 형법 제51조를 참작하는 바,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위 양형의 조건은 판결시에도 참작될 것인바 일단 참작된 정상을 다시 참작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단 참작된 정상이라 할지라도 관할관의 확인 조치시에 다시 참작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다시 참작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실제적인 문제로도 어떠한 정상을 어느정도로 참작이 되었다고 명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별하는 실익은 별로 없다고 본다. 또한 은사권은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이며, 양형의 부당성 여부의 인정은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관할관의 판단에

• 군법회의 관할관의 확인조치

입각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은사권은 판결의 양형에 국한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확인 조치시에 어떠한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관할관은 다만 군 검찰의 지휘자로서 검찰관으로 하여금 상소케하여 상소심 절차에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은사권은 형법상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발동하는 것이나 그 행사는 무제한이 아니고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데 한정된다. 형을 감경하는 것이라 함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형기를 단축시키든가 벌금형의벌금액을 감액하는 것 등 동일한 종류의 형벌을 감경하는 것에 한하고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형식으로 은사권은 발동할 수 없다고 본다.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함은 다만 형에 대한 실제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다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형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관할관이 감형 또는 형의 집행면제를 할 경우에는 판결은 이에 따라 변경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의 입장으로서 이 판례는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실익이 있다. 은사권의 행사기간은 10일로 법정되어 있는 점 기타 확인조치 의 의제 등은 전술한 확인의 의제 등의 경우와 동일하다. 구 국방경비법 하에서는 복형 중에도 은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현행 군법회의법에는 명문규정이 없고, 다만 군형법 제47조는 은사권의 발동형식인 가석방의 허가는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관은 복형 중에는 은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전시, 사변시의 특례

전시, 사변 등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군인, 군속 및 일정한 범죄를 범한 민간인 등 군형법 피적용자(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군법회의는 단심제를 채택하여 상소심 절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있다(헌법 제106조 제3항, 군법회 의법 제52.3조). 이 때에는 상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확정되게 된다. 군법회의법 제526조는 이 경우, 재판을 집행함에는 당해 군법회의의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관할관의 확인조치는 당해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행하되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법회의 관할관의 확인조치

이는 판결의 위법, 부당에 대한 상소제도에 의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가급적 완화하고,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집행력을 관할관의 재량에 보류시킴으로써 군작전 수행에 있어서 지휘관의 결단을 존중하려고 하는 입법취지인 듯하나, 같은 관할관에 의한 재차의 확인조치는 비록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행하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며 그 남용으로 초래되는 결과는 군사법 제도를 근저부터 동요시킬 위험이 크다 할 것이다.

5. 결론

(1) 이러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는 보통 군법회의의 판결뿐만 아니라,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나(군법회의법 제431조) 상고심은 대법원의 관할이므로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유사한 제도로는 군인, 군속 등의 징계에 있어서의 징계승인권자의 승인조치이다.

이는 징계권자의 처분행위에 보충하여 징계처분을 승인, 또는 감경하는 행위로서 징계처분의 법적효력을 완성시키는 일종의 유효조건으로 상급관청의 감독권의 발동행위로 볼 수 있으며, 군대에서의 징계권자의 승인조치는 군작전 체제라는 군사목적에 부대하고 있다.

(2) 상술한 바와 같이 관할관의 확인조치는 군사작전체제 및 군통수권의 확립에 그 인정근거가 있는바, 군대에서의 군기확립은 전투력의 근원이며 군의 명맥을 유지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군사법 제도는 이러한 군기확립을 유지하는 것이나, 타면 사법고유의 임무를 가지는 바 관할관은 군법회의의 판결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확인 조치권의 적절한 행사가 요망된다.

만일 관할관이 확인조치권을 남용하면 군법회의의 설치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며 군형사사법에 의한 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소련의 대 북괴정책변천과 한국안보

강인덕
〈국제문제 전문가〉

1. 서언

제 2차 대전 후 소련은 그들의 전략개념으로서의 한반도의 위치를 고려, 철저한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북괴의 소련위성국화를 촉진한 다음 강력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북괴를 소련의 극동전초지 내지는 안보상의 완충지 대로서 유지하도록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이 북괴 지역을 소련의 방위권에 교정시키려는 소련의 의도는 중·소가 「한 덩어리의 결속」을 다짐하던 중·소 밀월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실현되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1956년 제 20차 당대회에서 비롯한 중·소의 대립,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열, 북괴의 자주노선 등의 일련의 사태는 북괴에 대한 소련의 지배권을 약화시키었고 이때부터 북괴를 위요한 중공과 소련의 각축은 노골화되었으며 점차로 문제의 심각성을 노출한 이른바 「북방 삼각관계」의 복잡성을 형성해 나갔다. 북괴로서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인 관계에서 중공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면에서 중공측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소련의 대 북괴정책변천과 한국안보>

비록 군사적 경제적인 면에서 소련에 의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련의 대북괴정책에 허다한 난점이 있다고 하겠다. 때문에 소련은 중공의 고립화를 전제로 북괴의 대중공 일변도를 시정하려는 방향에서 북괴에 대한 군·경원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괴의 대 중·소 관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찰해 본다는 것은 소련의 대 북괴정책을 전망하는데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안보는 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 주변 제국의 제반 관계에서 비롯될 것이며 특히 북괴의 배경 역량이 되고 있는 소련·중공의 동향이 주목되는 바 우리는 무엇보다도 북괴의 「우발적 망동」을 경계하면서 소련·북괴 관계의 전망을 보다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종전의 소련·북괴관계

① 북괴의 대소일변도 시기(1945—1956)

1945년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한 소련은 8월말까지 한반도의 38도선 이북을 완전히 점령하고 소련군에 의한 군정을 실시하였다. 소련군은 북한 주민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일본적 요소의 일소, 노동자와 기술자에 의한 공장관리, 반일단체 결성의 허용, 정당 및 단체의 인원명부 제출, 무장단체의 해산 등을 주로 한 통치방식을 취하였다.

소련군은 평양시민대회에서 경력으로 보아서 당시 소련의 주구이던 김 일성을 소개(45.11.14)하고 1945년 11월 조 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과도행정기구인 「5도행정국」의 권한을 탈취 1946년 2월 6일 소위 「인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김 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김 일성은 이 사실을 가리켜 『북반부에서 소련 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조직된 이 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하였다』고 말하면서 소련 점령군의 조작된 각본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소련은 1945년부터 1948년에 이르기까지 북괴의 모든 정치체제를 완전히 장악한 후 정치, 경제, 사회, 군사의 각 방향에서 소련의 제도를 모방한 사회주의에 따른 북괴 정권을 1948년 9월 9일 수립하였다. 곧 이어서 소련정부는 9월 20일 북한지역에 잔류한 소련군을 10월부터 철수, 1949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소련의 군정은 끝나게 되었다.

북괴 정권 수립 후 소련은 1949년 3월 북괴와 10개년 경제 문화협조 협정을 체결, 북괴에 대한 경제 원조를 강화하면서 북괴 지도층 내에 소련공산당에 의해서 교육된 소련파 요인을 등용시킴과 동시에 김 일성 일파의 소련파 요인에 의존 북괴를 지배하였다.

더욱이 점령군의 철수와 함께 북괴내각의 소련 직계 부수상을 배치하고 소련 교문관을 두어 북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다. 결국 소련의 대북괴 정책은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일본의 중속으로부터 해방한다는 인상을 강력히 내세우고 표면적으로는 국가건설은 자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구라파에서와 같이 점령국으로서의 소위 「인민민주주의 혁명 방식」을 실시하여 북괴를 완전히 위성국화하여 그의 지배권 확립을 기도하는 것이었다. 한편 북괴는 1949년 3월 소련으로부터 2억 2천만 루블(舊貨)의 차관을 받아 경제건설과 군사력의 정비에 전념하면서 대남침략의 군사력 확보, 불법남침의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던 것이다.

1946년 초부터 1930년 말까지 소련의 북괴 경제원조의 총액은 약 5억 4천 6백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었다.

남침(50. 6. 25.)으로 야기된 북괴의 한국동란이 발생하자 소련은 재빨리 『공격은 남조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때문에 북조선이 그의 공격을 격퇴하도록 지령을 받았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라고 북괴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한국동란 중 소련은 북괴와 중공에 전략물자를 지원하였으나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던 관계로 막대한 중공군을 투입한 중공의 영향력이 북괴내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더욱이 김 일성을 중심으로 한 일파는 소련파 요인을 제거하려는 공작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소련이 1931년 6월 휴전회담을 제안한 이래 더욱 노골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북괴는 소련이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피하고 단지 측면적인 지원만을 아끼지 않았던 소련의 자세에 대하여 불만의 의사를 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후일 북경의 자주노선표방의 직접적인 구실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53년 7월 한국동란의 휴전이 성립되자 동년 9월 소련은 북괴의 전후 복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 일성과 대북괴 10억루블 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동시에 소련은 이전에 제공한 소련 차관의 상환을 반액 면제해 주었고 각종 물자와 기술지원으로서 북괴의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을 적극 도와주었다.

② 소련, 북괴관계 악화기 (1960~ 1965)

소련의 사회주의제국(Comecon가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정책은 소련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 분업방식이었다. 북괴는 코메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련은 북괴에 대해서는 경제수탈방식을 채택하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괴는 이와 같은 소련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반발했으며, 특히 1957년부터 시작한 경제 5개년 계획에 중공업 중심의 경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은 1956년 4월 제 3차 북괴당대회에서 소련대표 브레즈네프를 통하여 5개년 계획의 결점을 지적하고 김일성의 당 지배강화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한편 1956년 2월 제 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제안된 「평화공존」과 스탈린 격하에서 비롯한 중·소 간의 대립이 점차로 격화되고 돌연 중공이 북괴에 원조 제공을 서두르자 북괴는 대소 일변도 정책에서 서서히 중공측으로 전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소 분쟁의 초기 북괴는 중·소 틈바구니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전전궁궁하다가 중·소 대립이 이념에서 국가관계로 발전 1960년대 초에 표면화됨으로써 중공노선을 추종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서 1961년부터 소련 북괴 관계는 완전히 악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괴로서는 1961년 남한에서 군사혁명정부를 수립, 반공체제를 강화하자 북괴 자체의 안전보장을 재확립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하에 소련과는 조약상의 보장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북괴는 당시 정치 이념적으로 중공에 동조, 이른바 중공의 교조주의적 입장 및 폭력 혁명을 지지하는 한편 소련의 평화공존을 수정주의라 비난하였으나 군사적 경제적인 면에서 소련의 원조를 전혀 무시할 수 없었다.

1961년 5월 29일 당시 소련제일 부수상이었던 코시킨의 평양 방문 후 곧 김 일성은 6월 29일 ~ 7월 10일까지 소련을 방문 7월 6일 소련과 소·조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소련의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제공을 약속받았다. 동시에 북괴는 대내적으로 1961년 제 4차 당 대회에서 소련과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김 일성 측근으로 당 요직을 구성 자주독립을 표방하는 소위 허울 좋은 7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하였다.

북괴의 이와 같은 자주경제 표방은 다시금 소련의 분노를 샀으며 물론 중·소 대립에서도 연유하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1962년 10월 이후 소련의 대 북괴 원조는 중지되었다.

반대로 북괴는 알바니아에 대한 비판문제로 중·소가 격돌하고 1962년 10월 쿠바 사태, 1962년 11월 중·인 국경분쟁, 1962년 9월 소련·유고 간의 관계 개선 등의 제문제가 야기되자 전적으로 중공편에 서서 중공의 대소 비난공격에 합세하였다.

북괴는 쿠바사태와 관련하여 「쿠바인민의 반미투쟁에 투쟁적 연대성」을 표시하고 중공측에 동조하였으며 중·인 국경분쟁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소련의 입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소련·유고의 관계개선에 대하여는 유고를 강력히 비난, 소련의 유고정책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과 더불어 자체안보에서 대소의존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낀 북괴는 「국방에 있어서의 자위」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인민의 무장화」 「전영토의 요새화」라는 지구적 방위태세를 갖추어 대미투쟁과 민족해방투쟁 지원에서 획일적이라고 본 중공에 밀착하려 하였다. 아무튼 1962년부터 북괴의 대외정책은 소련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중공과의 이데올로기 관계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대 중공 일변도였다.

③ 북괴의 대소 관계 개선기(1965~)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 실각 후 등장한 현 「브레즈네프·코시킨」체제는 그의 대외정책에서 흐루시초프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이데올로기 논쟁과 국가간의 관계는 가급적 구별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소련의 권위를 회복하고 소련권 이탈경향이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소련 지도층의 노력은 우선 중공의 주변 국가이며 중공의 영향하에 있던 월맹, 북괴, 인도네시아 등의 친 중공제국에 대하여 특히 신중하고도 중점적으로 실행되었다. 다시 말해서 소련은 공산권 내에서의 친 중공계 정권을 점차적으로 중공으로부터 이탈시켜 나가는 이른바 대아시아정책의 기본목표인 「중공의 고립화정책」을 적극화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의 구체적 실현으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1965년 2월 소련 수상 코시킨의 북괴·중공·월맹의 3국 방문이었다. 당시 북괴는 중·소분쟁에서 중공과 완전히 동일보조를 취하고 있었으며, 월맹도 한편으로 중립을 제창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공 측에 기울이는 입장을 취하였다.

코시킨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 일성을 포함한 북괴수뇌와 회담한 후 발표된 쌍방의 공동성명은 ① 소련·북괴의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② 북괴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며, ③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 등을 강조하였다. 이를 계기로 소련 북괴간의 관계는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북괴가 이데올로기적 유대에 중점을 둔 대중공 관계를 희생하고 대소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관념적 이데올로기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도 국가이익이 우선시 되었던 것이다. 당시 북괴는 미국에 의한 인지(印支)의 북폭 확대로 북괴 자신의 안보에 위기의식을 느꼈고 또한 대내적으로 자립 경제 자립 생활을 크게 제창하여 왔지만 소련의 경제원조 중단은 북괴의 경제계획 수행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온 만큼 안보 경제 관계에서 대소련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편 중공측으로서는 북괴의 이러한 대소접근에 대하여 다방면의 압력을 가했지만 문화혁명으로 혼란기에 접어든 처지에선 대외관계를 관리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소련은 1962년 이래 중단되어 온 대북괴 원조를 재개하는 2개의 협정 즉 1962년 5월 군사원조협정, 1966년 6월 경제기술 원조협정을 체결하여 북괴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면서 북괴의 중공노선 이탈을 촉진하였다.

1966년 3월 29일 개최된 제 23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브레즈네프는 「소련 공산당과 소련 국민은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며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통일을 위해 싸우고 있는 형제의 조선인민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우리당도 전 소련 인민도 조선인민이 승리를 달성하며, 조선 전체가 통일되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북괴의 기본정책을 지지하였다. 그 후 곧 이어서 동년 5월 브레즈네프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비래, 김 일성과 단독 회담을 한 다음 소련은 계속해서 북괴와 우호 및 협조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미국이 한국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쌍방의 긴밀한 관계조성과 함께 1966년 2월 소련과 북괴는 1966~70년간의 장기 경제기술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며, 북괴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북괴 7개년 계획의 3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었다. 당시 북괴의 경제는 소련의 원조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관계에서 경제사정으로부터의 중공노선 이탈은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북괴는 1966년 8월 북괴의 이른바 「자주노선」을 선언하여 중공노선

완전이탈을 그들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면서 중·소 대립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추구되어온 친소 외교정책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갔다. 상대적으로 북괴에 대한 소련의 원조는 경제, 과학, 기술, 군사 각 부문에서 더 한층 강화되어 1967년 3월 체결된 군사 및 기술원조협정에 의거하여 소련은 북괴에 1억 7천 8백만 달러의 군원을 제공키로 했으며, 8천 9백만달러를 1967년~70년도 사이에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1968년 8월 체코 사태시 북괴는 재빨리 소련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고 소련도 1.21사태 후에 블로호사건에 대하여 북괴를 측면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3. 최근의 소련

(1) 70년대 이전의 관계

북괴는 3년 연장되어 70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 7개년 계획의 목표달성과 차기 경제계획 추진에 대한 소련의 절대적인 원조획득을 위해서 대소협조강화를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북괴는 침체된 경제사정의 개선과 군사력 증강이라는 양대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소련의 원조가 불가피했던 것이며 반대로 소련은 중공의 고립화라는 전제아래 중공 봉쇄정책으로서의 대 북괴 접근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9년 4월 9전대회 이후 문혁의 혼란기를 수습한 중공이 핵무기 개발을 배경으로 대외관계를 서서히 정상화시켜 철저한 배척외교로부터 장기적 안목의 합리주의적 외교로 전환함으로써 북괴는 근 4년 동안의 친소관계를 지양하면서 대중공 관계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9년 5월 12일 포드고르니이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의장이 1주일간 북괴를 방문하였다. 코시킨의 방문 이래 소련 수뇌로선 처음이었고 당시 중·소 국경의 무력충돌(69.3)로 중·소의 대립관계가 극한적 요소를 지녔던 만큼 동 방문은 크게 주목되었던 것이다.

포드고르니이의 북괴 방문 목적이 ① 모스크바 세계공산당 대회에 북괴 대표의 참석 중용 ⑤ 미정찰기 (EC-121) 추격 사건에서 드러난 소련 북괴간의 이견조종 및 북괴 설득공작 ③ 소련의 대북괴 지원확약 등으로 요약되었으나 쌍방의 공동성명에서 「상호협조와 연대성 강화」

만을 다짐했을 뿐 본래의 대북괴 설득목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북괴는 소련 이 고대하던 세계공산당 대회의 참석을 거부하였고 그 후 중·소 대립

관계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면서도 1969년 9월 10일 민보상 최현, 12월 8일 외무상 박 성철 등이 연이어 소련을 방문하여 북괴의 차기 경제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소련과의 합의를 보았다. 이렇듯 북괴는 소련과의 친밀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공과의 화해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2) 70년대 이후의 관계

북괴는 소련과의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1971부터 시작되는 6개년 계획에 대한 소련의 지지와 원조를 기대하면서 대중공 긴밀화와 무관한 현상의 대소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1970년 4월 중공수상 주 은래의 돌연한 평양 방문에서 비롯한 농공의 일방적이고도 급진적인 대북괴 접근은 소련 북괴관계에 미묘한 파문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북괴의 양면적인 대 중·소 관계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중공과 국가관계만에서라도 정상화한다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북괴의 대중공 접근추세를 최대한으로 저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군사적인 관계에서 소련과 북괴는 1970년 4월 24일 소련군 총참모장 자하로 프, 5월 7일 북괴군 참모총장 오진우의 상호 방문으로 ① 군사동맹조약 연장에 대한 구체적 문제 ② 소련의 대북괴 군사지원문제 등에 합의 유대강화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북괴는 3월 9일 소련이 주관하는 극동해양조사사업에 일본이 참가한다는 것을 그 실로 불참할 것을 선언 소련의 극동외교에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소련 제1부수상 마주로프는 1970년 8월 14일과 1971년 7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북괴를 방문 「아시아 안보체제구상」에 대해 역설하는가 하면 소련 북괴 우호협력조약 10주년에 참석하여 행한 군중대회에서 「사회주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북괴를 전면 지원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특히 북괴 제 5차 당대회 (70. 11. 3)에 보내는 축전에서 소련은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형제적 연대감과 정에 넘친 우의를 품고 있다」고 강조 북괴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확약하였다. 그러나 김 일성은 이와는 달리 「일본군국주의 침략성을 보지 않음은 아시아에서 투쟁 위험을 증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소련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

4. 소련 북괴와 한국안보

소련은 중공의 국제적 진출을 견제하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중공의

고립화를 기한다는 의미에서의 대중공 정책과 한반도를 위요한 대미 대일 본 관계의 상호관계로 미루어 볼 때 결코 북괴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괴로서는 국가적 이해관계에 우선목표라는 관점에서 소련과의 현상·유지를 전제로 중·소 대립관계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 자주 자율을 주장할 것이나 70년대 대남적화사업의 전략적인 견지에서 북괴의 통일정책 및 전략을 모두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중공과의 관계를 보다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1962년 이후와 같이 북괴 중공관계가 밀접해지면 질수록 소련 북괴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북괴가 아무리 자주국방 자력갱생을 외쳐도 북괴의 경제 계획수행, 군의 현대화 계획은 일대 차질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괴는 60년대 초반에 대중공 일변도로 인한 대소 관계의 악화가 북괴의 안보 및 경제개발계획에 중대한 위협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괴에 대한 중공의 지원은 항상 물질적이기보다는 이념적이었기 때문에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성이 있는 것이었으며, 북괴의 공산화 통일의 요구, 공업화 추진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북괴로서는 자신의 안전 보장 경제발전 문제를 중공보다는 항상 소련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농후한 것이었다.

북괴는 최근 성숙되고 있는 미·중공 접근추세에 냉담한 반응과 함께 당황하여 미·중공 접근의 한계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특히 미·중공 접근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북괴는 앞으로 아시아에 강대국에 의한 정세변화가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도발양상과는 다른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새로운 도발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북괴가 소련·중공의 지원 없이 남한과의 1대1의 우발적 망동을 각오한다면 소련은 과연 이를 방관할 것인가 직접 개입이 없이 간접적인 지원만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북괴가 기도하는 노선과 함께 소련의 향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보다 더한 경계와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소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괴의 대중공 노선편향을 최대한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전력을 다 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국기론

-편집실-

1. 서론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며, 그 나라 국민정신의 표상이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제각기 독특한 의의와 모양을 가진 국기를 만들고 있으며, 그 나라의 전통과 민족정신을 표시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자기나라의 표지를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인 것이다.

태극기는 심원한 태극사상을 근본으로 한 우주적인 의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자주독립의 숭고한 사상과 역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 국기보다도 훌륭하고 존엄한 것이다.

국기가 우리나라의 유래와 국민정신을 표시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기의 존엄성을 파악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일 것이며, 도리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한 국민의 경우로서는 우리 국민의 국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박약하며, 국기의 존엄성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은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예가 많다.

태극기를 내세우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이룩하고자 민족의 선봉에 나서서 공산 괴뢰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군인들 중에도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국군장병이 우리나라 국기의 의미를 해득하고 그 존엄성을 파악 인식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우리나라 국기제정의 유래와 그 역사적 의미 및 태극국기 도안이 내포한 뜻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틀리기 쉬운 국기의 제작법 등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만 할 극히 상식적인 문제 몇 가지를 다루어 기술한다.

2. 국기 제정의 유래와 사적 의미

우리나라 태극국기는 이조말엽 임오년 임오군란이 있은 후 그 뒷처리를 하기 위하여 일본정부와 제물포조약을 체결하고 그 조약에 의해서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박 영효 정사(正使)가 일본의 기선 명치환을 타고 도일하는 선 중에서 장안, 제정한 것이다.

이제 왕조 건국 이래 병자수호조약이 일본정부와 체결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사대주의 사상의 노예가 된 채 극단의 쇄국주의를 고수함으로써 근대적인 자주독립이라는 데는 눈떠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며, 자주가 무엇인지 또한 국기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이다.

군기(軍旗)나 수기(帥旗) 혹은 제왕기(帝王旗) 정도는 그 때도 사용하고 있었으나 국기에 관해서는 그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선조가 국기가 무엇이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병자년 우리나라 강화도에 서 일본선 운양호사건을 해결 짓기 위한 회당이 있은 후의 일이었다.

즉 우리나라 대표와 일본 대표가 운양호 사건을 조상에 놓고 답판을 하는 도중 일본 측 대표가 말하는 가운데서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 운운.....」 하는 말이 나오자 우리나라 대표는 국기가 도대체 무엇이나고 질문을 했던 것이며, 일본 대표의 설명을 듣고나서야 비로소 국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강화도 답판이 끝나자 일본 대표는 우리 대표에 대해서 「귀국이 자주독립국인 이상 하루 빨리 국기를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청국인 황 준헌이 「조선이 국기를 제정 사용하되 용가(龍旗)를 택하라」는 권고도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임오군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거기에 대한 논의만이 분분하였을 뿐 확실한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임오군란이 야기되어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하고 우리나라의 군사제도 대혁신으로 인해서 신설되었던 신식 교련소에서 교관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일본인이 피살되자 일본 정부는 그를 구실삼아 제물포조약 체결을 강요해왔으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못이겨 그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에 의하여 수신사로 박 영효, 김 만식, 서 광범, 김 옥근 등이 일본에 파견되게 되었다.

그때 비로소 사절단의 왕래 절차에 국기문제가 시급한 요청으로도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확실하게 제정된 국기도안이 없었기 때문에 임오년 8월 9일 조국을 출발할 때까지 국기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국왕은 사절단 일행에게 일본에 상륙할 때까지 사절단이 적당히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라고 내락하였던 것이다.

일개 국가를 대표하는 국기를 제정하는데 있어 국가적인 아무런 시책도 없이 외교사절단의 몇몇 인사에게 그것도 여행 중 제정하여 본국 아닌 외국에 가서 본국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국기를 처음으로 사용하게끔 하였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태극국기의 창안자인 박 영효 정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본국에 보내어 국기 제정 사용의 경위를 밝혔다.

「국기 표지에 대하여 명치환 선 중에서 영국 영사 아스톤씨에게 상의한즉 그의 의견이 이 배의 선장인 영국인은 주행사해(周行四海)라 하여 각국의 기호(旗號)를 알고 있으며, 각색 분별과 원근 이동도 고루 능통하고 있으니 그와 더불어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태극팔괘(太極八卦)의 도식을 내어놓고 그에게 상의한즉 팔제도식의 출색(出色)이 특별하여 우선 좋을 듯 싶으나 팔괘의 분포만은 조잡불명한 감이 있고 따라서 각국에서 이를 모방 제작하는 데도 매우 불편할 것이니 사제만을 사용키로 하되 사각(四角)에 배치하는 것이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 하였다.....

중략..... 이제 국기의 소일본(小一本)을 상송한다」 또한 국기 창안자인 박영효 특사는 다음과 같이 국기의 성질과 그 사용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미 각국과 더불어 통상수호한 후 사절을 파견할 때마다 예의상 국기가 없어서 아니 된다.

그리하여 각국의 항구에서 각국의 병함(兵艦)을 만나게 될 경우라면 육문 이상의 함제포를 가진자는 반드시 축포의 예로 대하는 것인데 이럴 때에는 각국의 사절이 제각기 국기를 게양하여 서로 분별하는 법이요, 각국의 여러 가지 경절(慶節)이 있을 때에도 국기를 달아 서로 치하하는 것이며, 각국 공사들이 서로 회합할 때에도 국기로서 좌석의 차례를 표시하는 법이니, 이 때문에 모든 경우를 생각하여 어느 나라이고 국기를 만들어 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영국,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는 모두 우리 국기를 그려 갔으니 이로써 천하에 널리 표명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국기가 박영효 정사 일행이 우리나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국기를 창안 제정하여 사용하게 된 동기를 알 수 있다.

우리 사절단 일행은 일본의 신호(神戶)에 상륙할 때 처음으로 국기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사절단이 묵는 숙소에도 비로소 태극기가 휘날리게 되고 동경에 도착하여서는 임오년 10월 3일이 곤전왕비 탄신을 축하하는 연회장에서도 각국 기와 함께 국기를 사용하여 식장도 꾸미고 석차도 표시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일은 국기의 창안자인 박영효를

비롯한 소장 애국자들의 국기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꾸준한 노력과 피어린 정성과 불타는 애국정신인 것이다.

그 당시의 우리나라 실정은 이씨조선 건국 이래 수백년을 두고 계속해 내려오는 사대사상의 노예들의 손아귀에 좌우되고 있었으며 민족의 자주주의식이라든가 독립정신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

그러다가 병자년 5월 병자수호조약을 일본과 체결하게 됨에 따라 일본정부의 강요와 항의에 못이겨 억지로 자주국가라는 문구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병자수호조약체결 이후 인천항과 원산항의 두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에 친선 사절단을 한 두 번 파견함으로써 쇄국정책의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구미의 문명을 어렵듯이나마 처음으로 받아들일게 되었던 것이니 이러한 풍조를 개화풍조라고 한다.

이와 같이 개화풍조를 받아들여 독립사상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박영효를 비롯한 소장 애국자들이 그때까지도 사대수구의 세력이 도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한 노력과 정력을 기울여 자주독립 정신에 입각한 국기를 제정 사용하였다 함은 실로 그 역사적인 의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태극기 도안의 의의

우리나라 태극기 도안의 의의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 대개가 대동소이한 것으로서 중국철학인 역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은 사실이다.

태극기 도안은 천지사방을 표시하며 태초에 혼돈한 우주에서 음양(陰陽) 두 원소가 생기고 만물이 철을 따라 생겨나서 사방으로 번지고 피어나는 것을 상징한 것이며 이는 곧 우리 민족이 나라를 세우매 온갖 제도 문물이 때를 따라서 차례로 생기어 사방으로 번지고 우리나라가 영원무궁토록 발전 번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기가 중국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태극도안에 사대부유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태극기 정 당시에 있어 청국인 황 순헌같은 인물이 자기나라의 용기(龍旗)를 본 따서 제정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이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양의태극(兩儀太極)을 국기도안으로 채택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기 도안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창안이며 자주외사에 의거해서 제정된 것이다.

다음에 국기 도안의 내용을 세분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가. 태극의의

태극은 우주만상의 근원이 되고 모체가 됨을 말하는 것이며, 지구생성설의 표현을 뜻하는 것이다.

중국역학에서는 태극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며, 한 명의 사람, 한 마리의 동물, 한 마리의 곤충, 일개 물체의 미립자까지도 태극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태극은 음양의 2기를 생하고, 음양 2기는 서로 중으로 횡으로 전후 좌우로 열키고 설켜어 「양」이 돌아 끝나치면 다시 「음」이 돌고 「음」이 돌아 끝나치면 다시 「양」이 돌아서 신비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수, 화, 목, 금, 토의 5행이 생한다는 것이다.

5행이 생하면 또다시 상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각각 순서에 따라 화상함으로 동물, 식물, 광물, 기체 등 여하한 물질을 불문하고, 음양의 2기가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천리와 지기를 받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극의 원(○)은 태극의 형체와 기성을 상징한 부호이며, 원의 가운데다 곡선 「태극문양첨가」를 그려 위를 빨간색과 아래를 푸른색으로 나눈 것은 홍(紅) 즉 양이요, 청(靑) 즉 음의 양의(兩儀)의 의의가 있는 것이고, 홍은 천(天), 일(日), 성(星), 풍(風), 한(寒)을 뜻할뿐 아니라

자유를 뜻함이며 청(靑)은 지(地), 월(月), 진(辰), 우(雨), 서(暑)를 의미함과 아울러 평등을 뜻하는 것이다.

나. 4괘(四卦)

태극의 네모퉁이에 「䷀䷁䷂䷃」4개의 부호를 나열한 것은 「䷀」을 순양(純陽), 즉 건(乾)이라 하고 「䷁」을 순음(純陰), 즉 곤(坤)이라 하며, 「䷂」은 감(坎)이라 하고 「䷃」을 이(離)라 한다.

건(乾)은 천(天), 남(男), 부(父)를 의미하고, 곤(坤)은 지(地), 여(女), 모(母)를 의미한다.

또한 방위로 보아 「건」은 남이요 「곤」은 북이며, 계절로 보아 「건」은 여름이요 「곤」은 겨울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은 물이라 하고 「이」를 불이라 하며, 또한 「감」은 서쪽이요 「이」는 동쪽을 의미하며, 계절로는 「감」이 가을이요 「이」가 봄인 것이다.

이상으로 태극과 사괘의 뜻을 설명하였거니와 태극은 중앙에 자처하여 전후 좌우 상하로 통어하는 주재자의 임무를 맡아서 우주만상을 지배하는 기상이 있고 네 모퉁이의 일괘가 「건남」, 「곤북」, 「이동」, 「감서」로 나누어 「三」「건도」 즉 천도(天道), 남도(男道), 부도(父道)를 맡아보는 임무에 처하고 「䷀」은 「곤도(坤道) 즉 지도(地道), 여도(女道), 모도(母道)의 책임을 맡아보는 것이며, 「䷂」은 감도(坎道) 즉 수도(水道)를 맡아보고 「䷃」은 「이도(離道) 즉 화도(火道)를 맡아보는 책임을 자부하여 태극과 더불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며 만물을 화생 하는 것이다.

다. 백포의 의의

태극과 사괘가 지닌바 신비한 내용의 부호를 백포 위에 그렸음도 이 백포는 곧 우리 민족이 모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순박하고 깨끗하여

털끝만한 더러움이 없는 정신으로 인도(人道)를 위해서 진(眞), 선(善), 미(美)로 발전하여 여천지(與天地)로 합기덕(合其德)하여 선(善)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청렴결백하고 질소(質素)한 생활을 영위하며, 도의와 윤리를 숭상하고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며, 인(仁)과 의(義)를 배풀어 세계만방의 인류를 널리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이치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라. 무궁화의 의의

우리나라 국기의 깃대 봉오리는 무궁화인 것이다. 무궁화는 백화(百花) 중에서 가장 번성하고 또 가장 장시일을 두고 끊임없이 피었다 지고 지었다 피고 하며 무궁무진한 향락(享樂)을 누리는 꽃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기는 앞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국가와 민족이 면면무궁(綿綿無窮)하게 영화를 누리며 천지와 더불어 무궁하다는 상서(祥瑞)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마. 오색(五色)의 의의

태극기는 오색 즉 청, 홍, 황, 백, 흑의 다섯 가지 정색을 가지고 있다. 백포의 백색, 깃봉의 황금색과 태극의 청색, 홍색 또 괘효(卦爻)의 흑색의 다섯 가지 빛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천지가 오성(五星)과 오행(五行)으로 서로 호응하여 오방(五方) 즉 동, 서, 남, 북과 중앙에 오기(五氣) 즉 한(寒), 열(熱), 풍(風), 조(燥), 습(溼)의 다섯 가지 이기(理氣)가 고루고루 배풀어 태극의 진리를 운전하는 기상(氣象)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오상지덕(五常之德)이니 오륜(五倫), 오복(五福) 등을 들어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까지 기술한 몇 가지를 추려 국기도안의 지닌 의의를 간략해서 말한다면 우리 태극국기의 도안은 우주적인 의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 숭고한 사상과 역사를 상징하고 우리나라가 영원무궁토록 번영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국기를 만드는 법

우리나라 국기의 존귀함은 전술한바 있거니와 그와 같이 존귀하고 훌륭한 우리의 태극국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국기를 만드는 것쯤은 그리 어려운 것같이 여기지 않으나 실상 우리 군인이나 국민들 중에 태극국기의 도안을 규격에 맞도록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이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볼 때 그 누구나가 다 그릴 수 있다고는 자신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장교들 중에도 이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의 표식인 국기를 제대로 만들 줄을 모른다는 것은 극히 부끄러운 일인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국기를 만드는 법을 적는다.

가. 기면(旗面)

- 1) 기면은 반드시 백색으로 하고 길이와 넓이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 2) 태극은 기면의 중심으로 하여 직경이 기면 넓이의 2분의 1의 원을 그린 다음 「건」과 「곤」을 통하는 사선에 의한 원의 직경을 4등분하여 좌우 각 4분의 1점을 중심으로 하여 좌는 선하에 향우는 선상에 반원을 그려 양의를 이루고 상반부를 새빨간 빛으로, 하반부를 푸른 빛으로 한다.
- 3) 괘(卦)는 두 대각선상에 태극직경의 4분의 1의 거리를 두어 우선 태극의 직경의 2분의 1과 3분의 1의 장방형을 그리고 넓이를 4등

분하여 효는 각각 한 푼으로 하고 효와 효 사이는 각각 반 푼으로 하며 검은 빛으로 한다.

그 위치는 「건」을 향좌상, 「곤」을 우하, 「감」을 우상, 「이」를 좌하로 한다.

나. 깃봉과 깃대

1) 깃봉은 대체로 구형(그 직경이 태극직경의 5분의 1)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를 상징하되 그 하반부에 꽃받침을 뚜렷이 표시하며 전부 금색으로 한다.

2) 깃대는 대(竹)로 하되 색깔을 하지 않고 대(竹)의 순색으로 한다.

3) 깃대는 「건」과 「감」에 닿게 한다.

다. 기의 대소

1) 옥상에 높이 걸거나 식장용의 대기는 넓이 180센치와 140센치의 두 가지로 한다.

2) 일반 가정용의 중기는 넓이 1미터와 70센치의 두 가지로 한다.

3) 손에 들 소기는 넓이 30센치와 20센치의 두 가지로 한다.

단 형편에 따라서는 임의로 치수를 만들어도 무방하나 그 길이와 넓이의 비례는 반드시 3과 2로 해야 한다.

5. 국기 게양 방법

우리가 국기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이를 정중히 해야 하며, 이를 게양하는데 있어서도 그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다.

다음 우리가 국기를 게양하거나 그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적어보기로 한다.

가. 국기는 원칙적으로 해가 뜬 무렵에 게양하고 해가 질 무렵에 내린다.

나. 비가 올 때에는 처마 밑에 세운다.

다. 축의를 표할 때에는 깃봉과 기폭 사이를 떼지 않는다. 조의를 표할 때는 반기로 한다. 반기로 할 때에는 기폭을 깃봉에서 기폭넓이만큼 내려서 단다.

라. 깃대는 곧게 세움을 원칙으로 한다.

마. 국기 하나를 게양할 때는 문안에서 보아 오른쪽에 게양한다.

바. 국기 둘을 게양할 때는 문의 좌우에 세우거나 또는 교차시킨다. 교차시킬 때는 문안에서 왼편 것을 안으로 한다.

이 밖에도 국기를 보관할 때는 기가 구기지 않도록 국기함에 잘 개서 넣어 두어야 하며 국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의를 표해야 한다.

또한 외국국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기와 마찬가지로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6. 맺는말

우리 국기가 임오년, 1882년 7월 박 영효 특사의 창안으로 제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로 눈물어린 바 있는 것이다.

병자수호조약 체결 이후 개화풍조가 이 나라에 수입되고 소장애국자들이 자주독립의 숭고한 정신 아래 조국을 건립하고자 노력했으나 사대부유 도당의 세력에 못 이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운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경술년 8월 28일 한일합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일제 침략자들은 이 나라의 주권과 국토와 문화를 박탈하는 동시에 이 나라가 자주독립국가임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말소하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 우리나라 국기론 ◇

그러나 한일합방과 동시에, 한국민의 독립정신의 뿌리는 짝이 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제 관헌의 삼엄한 총칼 아래서도 조국애에 불타는 안 중근 열사의 의거, 이 준열사의 할복분혈, 윤봉길열사, 이 봉창열사 등의 피어린 의거를 비롯하여 이 나라의 남녀노소가 합심협력하여 일으킨 기미년 3·1 독립운동 등 민족의 분노가 폭발할 때마다 우리 선열들은 태극기를 내들고 싸웠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 태극기는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피로 물들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기는 국민의 애국심의 포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애국선열들의 피어린 독립투쟁과 3.1의 위대한 독립정신의 결정으로 조국이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세계에 우리 한국이 자주독립 국임을 선포하고 약탈당하였던 주권과 국토를 회복하였을 때 전국방방곡곡에서는 구겨진 태극기를 다시 내들고 물결같이 휘날리며 환호의 만세소리를 천지가 진동하도록 외쳤던 것이다.

이와 같이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민족의 피눈물로 적시어 온 존엄하고도 영광스러운 우리 국기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 같이 태극기 아래 굳게 뭉쳐 공산당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국기가 지닌바 심원한 태극사상을 널리 사해에 선양할 것이며, 우리 민족과 더불어 영원무궁토록 길이 빛내야 할 것을 강조해 둔다.

군의 정신교육 강화책



군목 김갑태

정신교육 강화의 필요성

시대의 고금(古今)이나 양(洋)의 동서(東西)를 막론하고 군의 정신교육 강화가 중요하다는 이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옛날 중국의 병서(兵書)인 손자병법이나 육도 삼략(六韜·三略)과 제이차대전(大戰)시의 유명한 전략가 「칼·본 크라우제비치(Kal Von Clausewitz - 1780~1831)」의 전쟁론(戰爭論)이 공통되게 눈의 정신교육 강화가 강군(強軍)의 제일되는 요소임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영국의 사회경제학자 「토인비」(Arnold Toynbee-1852 ~ 1883)는 “나라의 흥망은 외적의 무력에 의해서보다 더 내무적인 정신력에 의해서”라고 정신적인 요소가 중요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군의 정신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이 정신교육을 강화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쉽지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실로 군인 정신은 군에 있어서 모든 물리적인 자원에 우선하며, 장비와 물자를 관리 운영하는 인적 요소인 군인정신력 여하는 군의 우열이나 강약이 좌우되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군인 정신 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그의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 이겠는가?는 오늘날과 같이 전쟁 양상이 게릴라전이나, 침략전쟁, 독립전쟁, 부족전쟁, 제한전쟁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혹은 혼합전쟁(비정규전(게릴라전)과 정규전(과학 무기전))의 형태를 띠고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현대전에 있어서는 더욱 더 군의 정신력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이다.

군인정신 개념과 그 형성요소

군의 정신교육 강화책을 논하기에 앞서 군인정신의 개과 그 형성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 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이며 이 저해요소들을 제거한 후 군의 정신교육강화책의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논리라 보아 아래와 같이 약술하는 바이다.

먼저, 군인 정신이란 공군대학 학술연구부의 정신무장에 관한 연구안(1965.7.1)에서 발췌해 보면 “군인프로서의 필요한 올바른 도덕 의식과 올바른 행위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 군인 정신의 형성요소는 국토와 국민의 권리 및 자유 수호를 위한 헌신(충성), 필승의 공격정신, 책임완수, 군기엄수, 예절, 협동단결, 청렴결백, 신의, 명예, 정의감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군의 정신교육 활동의 현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군이 목표하는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군의 정신교육 활동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당면한 우리 공군자체의 입장에서 고찰해 볼 때에 교육과는 달리 그 중요성에 비하여 많은 저해요소와 활동의 부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정신교육 실시는 공군규정50-3(1966.8.10)에 의거 지휘관, 정훈관, 군종장교, 군기보안관, 안전관, 법무관 및 기타 훈육관에 의하여 최소한 장교 연 6회, 사병 연12회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대의 교육실시에 있어서 부딪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문제들과 그리고 교육 담당자들의 성의나 준비상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그 이행상태와 활동이 미온적인 실정이다.

정신교육 강화에 있어서의 저해요소

“첫째”사회와 연장이 주는 저해요소 살미도의 난동사건을 비롯한 총기 탈취 후 시민 인질, 군경과의 총격전 사건, 배신한 애인 살해 사건, 그리고 각종 차량사고 및 음주난행 등 일련의 사고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군인에 대한 불신과 비난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사고의 범위가 군대 내에서만 형성되어진 것이냐? 고 하는 책임 문제를 논하게 될 때 이는 당연히 일반 사회의 책임이 그 비중에 있어서 더 월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각종 사고와 범죄를 유발하는 인간의 인성이라는 것이 「아리스(Argyris)」의

「인간 행동의 조직 균형론」에서 볼 때 “유전에 의하여 고정되고 환경에 의하여 변화된다”는 원리에 적용해 보지 않더라도 장기간 각종 범죄와 불륜의 불신 사회 환경 속에서 변화 형성되어진 인성이 군에 입대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각종 범죄의 주요 요인인 사병들의 경우 삼년 이내의 단기간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오히려 그 책임을 일반 사회가 더 크게 느껴야만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제도상에 있어서의 저해 요소

현재 공군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정신교육 강화의 대 전제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즉, 지휘관 정신훈화, 정훈교육, 인격지도교육, 군법교육, 군기 보안교육 그리고 각급 훈육관들의 정신훈화 등은 이 교육에 수반되어야 하는 인원, 장비, 물자, 예산 등의 여러면에 있어서 상호 유기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육자의 권위와 감화력을 통한 올바른 도덕의식과 행위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정신교육임을 생각할 때 계속적인 연구개발 문제나 세밀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직 활동 계획 등이 군의 정신교육으로서의 원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교육 방법상의 저해요소

군의 정신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피 교육자들을 피동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강압적 주입식 방법, 시사성 있는 전시, 견학, 방송 교육을 통한 객관적인 방법이나 각종 행사 부대훈련 또는 실전으로 표현 실행하는 방법이나, 현상퀴즈, 웅변대회, 강연회, 고적답사, 종교집회 등의 참석으로 인한 정서적 방법 등이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로 주입식 연설 방법을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교육은 여타 군사교육과는 달리 주입식 방법으로는 도저히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교육으로서 앞으로는 주로 능동적이며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교육 담당자의 자질에 있어서의 저해요소

정신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요소는 교육 담당자의 자질문제인 것이다. 그 이유는 정신교육이 인격적인 도덕교육으로 교육자가 요구하는 바에 대한 양심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선도교육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자의 모범적인 언행과 실생활을 통한 고매한 인격을 중요시 하기 때문인 것이다. 술에 만취가 되어 행패만 부리고 사고만 일으키는 내부반장이 자기 반원들에게 음주난행에 대한 주의를 주는 교육을 한다든지 군대

물자를 유용하거나 금전거래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청렴결백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조소꺼리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정신교육 담당자로서의 명실공이 자질을 갖춘 교관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정신교육성과 측정에 대한 저해요소

정신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관찰법, 질문법, 시험법, 보고서 분석, 평가, 검열, 방문 등이 있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측정방법들을 검토해 보면 관찰법은 정확성이 희박하고 질문법, 시험법, 보고서, 검열, 방문 등은 대개 형식에 치우치기 쉬운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신교육은 여타 교육과 달리 성과측정이 장병의 정신면을 분석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교육의 성과 측정은 어느 정도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이를 참고로 하여 다음의 정신교육강화에 있어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실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의 지도 통솔상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의미에서 정신교육 측정이 매우 중요한 점인 것이다.

정신교육강화에 있어서 저해요소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개선책

지금까지 정신교육 강화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저해요소들을 열거해 보았으나 문제는 이 제반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군인 정신을 지닌 바람직한 군인을 최단기간 내에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군의 정신교육 강화책이 될 것이다.

첫째, 사회악 연장이 주는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해결 방안으로는 사회에서 민간인으로서 군문에 입대하는 교육부대인 사관학교나, 기술교육단의 기술 고등학교, 항공병학교의 기본교육 과정에서 사회악의 요소들을 능동적인 최선의 교육방법으로 제거하고 군인정신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신 무장대(가칭)에 예비 입과시켜 일주일 간에 걸쳐 국토방위와 사생관 확립, 책임완수, 군대예절, 협동단결, 청렴결백, 정의, 명예, 전우애, 이성관 확립 등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한 후 정식으로 입대시켜 군사훈련 및 기본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전반적인 군의 운영면에서 볼 때 효과적이며 능률적이라고 본다.

둘째, 제도상에 있어서의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해결 방안은 공군본부가 각급 정신교육 담당관으로 구성된 기구를 편성하여 말단 대대급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정신교육 위원회를 편성하며 유기적이고 연관성있는 정신교육에 대한 연구, 계획, 실시, 감독, 성과 측정, 보상 등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셋째, 교육방법상에 있어서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해결방안으로는

(가) 능동적이며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서 주입식 방법을 지양하고 능동적으로 정신 무장을 확립할 수 있는 인격선도 교육에 치중하여 추상적인 이론 교육보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필승의 신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단체 운동경기, 책임완수 교육을 위해서는 출근시간 엄수 점검, 일일업무 진척표작성, 청렴결백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사행, 오락 금지운동 전개, 허례허식(낭비) 금지운동 전개, 군기확립 교육을 위해서는 군법과 규정에 의한 내무반별 자체선도 및 징계위원 구성, 협동단결 교육을 위해서는 여가 선용을 위한 단체경기 실시, 전투력 함양 교육을 위해서는 총검술, 사격훈련, 제식훈련의 참석도와 성적 종합분석, 애국 애족의 교육을 위해서는 불우전우 돕기운동, 전물가족 돕기 운동, 지역사회개발 협조(공민학교나 야간학교 도움기), 술선수교육을 위해서는 창의, 창안, 아이디어뱅크제도 전개, 과음과 흡연 절제운동전개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나) 정신무장대(가칭)에 의한 순회 교육

정신교육에 유능한 현역 장병으로 구성된 특수 정신무장 대원들이 각 부대를 순회하면서 집단 도의교육 강연, 영화상영, 사진전시회 등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네째, 교육 담당자의 자질에 있어서의 저해요소 제거 해결 방안으로는 유능한 교육자의 인선제도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제도의 확립도 중요한 문제이거니와 주어진 현재의 여건하에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본다

(가) 매월 1회 부대 단위별로 정신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자질향상교육을 실시하되 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현역장병 정신교육 담당자 중 실력있는 유능한 교관이 윤번제로 맡아 실시한다.

(나) 매 분기별 1회씩 정신교육에 전문적인 실무자나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교육자들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정신교육 성과 측정에 있어서의 저해요소 제거 해결 방안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관찰법, 질문법, 보고서 분석, 평가, 검열, 방문 등이 있다고 논한 바 있거나와 대체적으로 이 측정이 부정확하고 추상적이며 형식적인 면이 있으나 앞날의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측정하되

(가) 각급 정신교육 담당관으로 구성된 기구를 통한 각 부대별 정신교육 위원회의 교육성과측정보고서(별도 작성양식 의거)의 분석

(나) 각 부대 사고율 분석

(다) 교육방법상의 문제 해결방안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실행방법, 실시상태, 분석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요약해 본다면

중앙 정신교육 위원회 분석.....40%

각중 사고율.....30%

구체적인 실행방법 실시 상태.....30% 등 백분율로 책정 분석 검토할 수 있으며 이외에 또 한가지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중앙 기구에서 모범 부대에 대한 시상과 각 부대별 정신교육 위원회에서의 소속별 내무반별 개인별 시상을 철저히 실시하는 보상제도가 병행되는 것도 결코 도외시 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상에서 군의 정신교육 강화책을 위한 그 필요성과 군인정신의 개념과 그 형성 요소들을 열거하고 현실에 있어서의 정신교육 활동의 맹점과 저해요소들을 열거한 후 이 저해요소들의 제거방법과 함께 정신교육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 해보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전략가들이 한결 같이 지론으로 주장한 강군 육성을 위한 군의 정신교육강화는 이상과 같이 많은 문제점과 저해요소들이 내재되고 있는 것이며 이 난점들을 제거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군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신교육강화책은 바로 국가적인 문제이며 각급 지휘관과 모든 정신교육 담당자들의 각별한 각성과 그리고 전 장병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세계 위인 순례>



링컨

노예 해방의 선구자-



오월의 태양은 눈부실 정도로 밝게 뉴 오르린즈의 항구를 비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기를 형형색색으로 게양한 크고 작은 증기선이 높고 낮은 기적을 올리면서 항구를 나가고는 들어 오는 것이었다. 초여름에 가까운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하여 항구의 상점들은 모두 너울을 내리고 시원한 그늘 밑에 색채가 풍부한 상품을 진열해 놓고 손님을 부르고 있다.

떠벌이 프랑스인이나 이국정서 풍부한 멕시코인이나 이탈리아의 선원이 활기 띤 웃음소리를 내며 상점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또 상점의 뒷칸이나 안방에서는 비밀리에 상품의 거래를 하는 속삭임이 왔다 갔다 술집 여인을 둘러싸고 음담패설이 폭소를 타고 흘러가는 뉴 오르린즈의 항구거리는 5월의 태양처럼 오기(汚氣)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이 번성하고 화려한 거리를 평장스레 키가 큰 청년이 주위의 변화함에서 벗어날려는 듯이 음울한 얼굴을 하고 고개를 꼭 수그린 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 도대체 이런 일이 있어도 좋을까! 단지 색깔이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인간이 인간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소나 말처럼 부려먹는다. 백인이 인간이라면 흑인은 인간이 아닌가,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용서될 수 있을까?

그 청년은 아까부터 똑같은 문답을 마음속에서 되풀이 하고 있었다.

이 청년은 바로 2~ 3일 전 미국 북부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로

부터 많은 화물을 배에 싣고 생가몽의 격류를 타고 일리 노이강을 거쳐서 미시시피강을 거쳐 강위 천 수백 킬로의 하천여행을 거듭하여 미국 남부의 대 항구 뉴 오르린즈에 도착한 것이었다. 미국의 대하인 미시시피강을 화물을 만재한 배로 여행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이 청년은 훌륭히 그 책임을 완수하였던 것이다. 일을 무사히 마친 만족감에서 청년은 뉴 오르린즈의 거리를 구경하러 나섰던 것인데 오늘 이 청년은 우연한 기회에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그것은 <노예 매매시장>이었다.

많은 흑인이 쇠사슬에 매어져서 회초리 밑에서 힘없이 걸어가서 백인의 상인 앞에서 멋진 체격을 보이고 있었다.

「어때 이 성년 말 같은 건강한 사내가 단 7백달러. 자아 살 사람 없나?」

「7백 50달러」

「8백달러」

가격이 뛰어 올랐다.

「자 마지막으로 기막힌 물건이 남았어」

이렇게 말하고 노예상인은 한 사람의 흑인 처녀를 끌어내었다.

「자아 잘 보세요, 병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살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노예상인은 흑인 처녀의 의복을 훌랑 벗겨 버렸다. 흑인처녀는 그런 꼴을 당하여도 무저항인 채로 별 거벗고 대중 앞에 조각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눈을 돌리고 싶어지는 비참한 광경이었다.

청년은 이 노예시장을 보았던 것이다. 미시시피의 대하를 기선으로 내려온 용감하고 슬기로운 청년도 이 처참한 광경에는 온 몸이 소름이 끼쳐 뉴 오르린즈에 도착하였을 때의 즐거움도 어느 구석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청년이 음울한 얼굴을 하고 걷고 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

- 가령 어떤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 해도 말이다. 남부의 면화농업에 흑인노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하더라도 흑이 인간인 이상 양친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생존해 나갈 권리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이 한번 노예로 팔려 버리면 흑인은 이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백인의 도구가 되어 버린다. 그러한 일이 같은 인간으로서 허용되는 일인가! 이것이야말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을 손상시키고 자유와 평등과 독립을 부르짖는 미국의 존엄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닐까?

청년은 다시금 마음 속에서 자문자답하였다. 청년의 볼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청년이야말로 뒤에 미국 제 16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남북전쟁 도중인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 선언)을 한 에이브라함·링컨 그 사람이었다.

청년 링컨이 뉴 오르린즈에서 처음으로 노예시장의 비참한 상태를 목격한 1831년 경의 미국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때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지 48년째로서 당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워지는 증기기관으로 운전되던 방적기계가 발명되어 영국의 방적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였다. 그러기 때문에 방적업의 원료가 되는 솜(棉)은 있으면 있는대로 팔려 나갔다. 마침 편리하게 미국의 남부지방에는 광대한 평야가 있어서 토지는 비옥하고 기후는 따뜻하여 면화의 재배에는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면화는 날개가 돋친듯이 팔렸지만 종래의 소규모적인 재배로는 영국의 수요를 따를 수가 없어서 그런 때문에 대규모의 면화 재배를 하게 되었다. 대규모 경영에는 당연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흑인노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싸게 먹었고 거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남부의 농업 경영자에게 있어서는 노예노동은 필요불가분의 것이었다. 그래서 노예상인이란 것이 출현하였다. 노예상인은 겨우백톤이나 백톤도안되는 배로 대서양을 건너가 아리프카에 가서 충을 들이대고 흑인을 붙들어가다 배에 싣고는 남부의 항구에 데려가서 남부의 농장주나 부호



들에게 팔아먹었던 것이다. 한 항해에 23백명의 흑인을 싣고 돌아오면 한번에 10만달러 정도의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남부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노예 제도도 번창하여 갔다.

한편 미국의 북부는 토지가 좁고 농업에 적당치 않아 일찍부터 상공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북부 사람들은 수력, 철, 운하, 기선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도입하여 대공장을 일으켜 많은 노동자를 사용하여 공업생산품의 제조에 힘을 기울였으나 청교도의 피를 물려받은 북부인들은 어디까지나 인권을 존중하고 노동은 자유라는 원 측 밑에서 노예 노동의 사용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남부와 북부는 모든 점에서 대립하고 있었다.

링컨이 자라난 북부 일리노이주에서는 이때 이미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링컨이 노예시장의 비참한 광경을 보고 강렬한 충격을 받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때부터 북부의 일부에서는 노예제도를 철폐하여 불쌍한 흑인을 구제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링컨이 뉴 오르린즈의 노예시장에서 본 것과 같은 광경을 목격한 윌리엄·로이드·게리슨이라는 청년이 1831년 1월 1일 보스턴에서 <해방자>라는 주간잡지를 발행하여 노예 해방의 최초의 횃불을 올렸다. 게리슨의 생각에 찬성하는 세력은 해마다 불어나서 노예제도 반대회가 속속 발족하여 회원은 20만에 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미국은 노예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남부와 북부의 대립은 점차 악화되어 갔다.

청년 링컨이 용감한 게리슨의 사상에 공명한 것은 물론이었지만 미국의 켄터키의 숲속에서 빈곤한 나뭇군의 아들로 태어난 링컨은 우선 내일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뉴 오르린즈로부터 일리노이에 돌아가자 링컨은 다시 직업을 찾아야만 했다. 링컨은 생활을 위해서 투쟁하였다. 뉴 세일름의 잡화점에서 점원노릇을 하였다. 우편배달부도 하였다. 공부를 하여 측량기사의 자격증을 얻자 측량으로 돈을 벌었다. 그 사이의 생활의 고투는 필설로 다 할 수없이 비참하였으나 링컨은 생활의 고투에 불구하고



곳곳이 참아 나갔다. 그리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명랑하였으며 주위의 인간들에게 친절하였고 마을사람들로부터는 「고지식한 에이브」라는 별명을 얻었다.

점원, 배달부, 측량기사의 경험이 링컨에게 실제적인 지식을 준 것이나 링컨은 뉴 세일름 마을의 구석구석까지 훤히 알고 있었다.

1834년 링컨은 마을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주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링컨은 선거연설에서 어려운 정치의 이상이나 아름다운 언어나 실행할 수 없는 정책을 주장하지 않았다. 링컨은 구석구석까지 알고 있는 뉴 세일름 마을부근의 도로를 이렇게 하면 좋다, 제방의 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투표결과 링컨은 당선되었다. 이로부터 링컨의 정치운동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링컨의 정치활동의 제이보는 1847년에 일리노이주 선출인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다. 이 때 링컨은 이미 일 리노이주에서는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졌다. 국회의원이 되어 워싱턴에 가기까지 1년간 링컨은 시국의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이 때 텍사스의 병합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멕시코 간에 소위 멕시코 전쟁이 발발하였다. 물론 전쟁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1848년, 멕시코는 텍사스의 잔여부와 캘리포니아, 유타, 애리조나, 뉴 멕시코 지방을 미국에 양도하게 되었다. 링컨은 이 전쟁에 반대하였다. 그것은 미국이 멕시코의 약점에 편승하여 일방적인 침략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국회가 열리자 링컨은 당시의 대통령 포오크에게 예리하게 공격의 화살을 던졌다. 「전쟁의 최초의 피를 흘린 곳이 미국 영토 내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조금이라 하더라도 멕시코 영내에 침입한 연후에 전쟁의 불길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명백한 침략행위가 아닌가, 포오크 대통령이 앉은 좌석에는 일찌기 워싱턴이 앉아 있었다. 포오크 대통령은 그것을 상기하여 워싱턴이 대답한 것처럼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일리노이의 산골에서 선출된 몸집이 커다란 사내가 정열에 넘쳐



행한 이 발전 연설은 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선의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나 당시 전쟁열에 들떠 있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반감을 갖게 하고 미움을 사게 되었다. 이것을 본 링컨의 친구 헨리는 인기를 우려하여 그런 연설은 곧 중지 하는게 좋다고 충고하였다. 그 때 링컨은,

「만일 대통령이 이웃 나라가 침입해 올 것 같다고 예상하고 이웃 나라를 침략한다면 그가 그렇게 생각할 때면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있게 되지 않겠는가?」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링컨은 이런 의미에서도 인류의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들을 수호하는 전사였다.

국회에 나가서 링컨이 하는 일은 또 하나 있었다. 깨끗한 마음씨의 청년 링컨의 가슴에 깊은 자국을 남긴 <노예매매 시장>의 광경을 보고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노예제도 폐지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수도 워싱턴 주변에 있는 조그만 콜럼비아 구의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이었다. 링컨은 이 작은 콜럼비아 구의 노예폐지로부터 점차적으로 전국에 노예폐지를 확대시켜 가려고 했다. 그러나 개인의 인기만을 염두에 두는 의원의 모략에 걸려 이 법안은 우물쭈물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링컨이 워싱턴에서 얻은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이리하여 그는 홀로 외롭게 스프링필드로 돌아왔다. 링컨은 국회의원에 나갈 것을 단념하였다. 그 후 링컨은 변호사업에 종사하고 일리노이 서부지방의 황야를 누더기 마차를 타고 주로 순회변호사를 하면서 조용하게 살고 있었다. 6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링컨이 순회재판의 변호사를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노예문제를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가 전쟁을 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것은 노예문제에 대하여 남부와 북부가 1820년에 체결한 미즈리 교양법(交讓法)이라는 것이 다음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 의원 더글라스에 의해 폐기되려 하고 있었다. 미즈리 교양법이란 북위 36도 30분부터 북쪽에 신설하는 주는 모두 자유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더글라스는 어떻게 하던 남부의 인기를 끌어 보려고,



「켄사스와 네브라스카가 자유주가 되는가 노예주가 되는가는 30년 전의 법률로 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합중국의 자치 정신에 따라서 양주의 주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국회에 제안하였다.

그 건국의 정신에 「자유와 평등과 독립」을 부르짖는 미합중국은 이권에 눈이 어두운 정치가가 아니고 진정으로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정치가가 출현할 것을 회고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나의 마음을 괴롭혀 온 문제, 노예 제도 때문에 신음해 온 몇 10만 아니 몇 백만의 죄없는 흑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미국의 건국정신인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이야 말로 투쟁해야 한다」링컨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피가 끓어 올랐다.

「모든 것은 다 잃어도 정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링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노예 해방을 위한 싸움에 뛰어 들어갔다. 링컨의 앞길에는 남북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생명을 빼앗을 흉탄도 기다리고 있었다.

년표

1809년 2월 12일 링컨은 켄터키주의 룩크스프링이라는 숲 속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빈곤한 개척자이고 나무꾼이었다. 어릴 때부터 갖은 고생을 다했다.

1834년 일리노이주의 주의회의원에 당선되다.

1847년 일리노이주 선출의 국회의원에 선출되다. 한 때 정계에서 물러나 변호사 생활을 한 적이 있으나 미즈리 교양법을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가 대립하자 다시 정계에 복귀하다.

1860년 노예해방을 정견으로 대통령에 입후보해서 미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선언」을 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1864년 대통령에 재선, 릿치몬드를 순회한 후 워싱턴에 돌아와서 연극관람 중 남부출신 폭한의 권총에 맞아 1863년 4월 15일에 숨을 거두었다.





김석환
〈항공대 학장〉

1. 머리말
2. 항공스포츠
3. 활공훈련의 기초적 가치
4. 과학하는 스포츠 Soaring운동
5. 활공기상
6. 제주도의 수직 상승 기류 분석
7. 항공 설계제작의 문제점
 - 1. Motor Glider의 목적 및

◀ 과학하는 항공스포츠 진흥방안 ▶

구비조건

- 2 Motor Glider의 구분
- 3 기체구조의 새로운 개념
- 4 설계의 기본방침
- 5 항공 기재로서의 FRP의 특성

8. 새로운 생산 진흥활동

9. 맺는말

1. 머리말

국토는 국민생활의 바탕이며 이의 그릇이며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생활의 보금자리이다. 이 국토에는 옛 조상의 발자취가 남았으며 역사의 흐름에 따라 발자취는 고적으로 간직하게 되었고 또한 고적은 옛 우리 조상들의 해고 노력의 발자취다.

고적은 역사의 증거물이기에 내 국토 내 고장의 고적을 찾아 그 내력을, 그 모습을 눈여겨둔다는 것은 청소년 수련과 교육에 꼭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과거와의 대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에 눈뜨게 합니다. 따라서 앞날의 갈 바를 자주 자립으로 이고는 밑거름도 될 수 있다. 명승과 고적이란 낱말은 서로 붙어 다니게 마련이며, 명승이 있는 곳에 고적이 있고 고적이 있는 곳에 명승이 있다.

수려한 산, 맑은 냇물, 울창한 숲, 자연의 아름다움과 어울려 보기 좋게 놓여있는 가람과 탑과 조각들, 해인사며, 낙산사며, 석굴암이며 그 어느 것도 예외는 없으며 이것은 곧 우리들의 조상들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서 미와 극치를 찾았다는 증거이기에 뜻있는 사람들은 해수욕장을 가든, 산에 가든 그 부근의 고적을 찾는다. 20세기에 들어와 우리의 일터는 하늘로 뻗게 되었으며, 2차원적인 활동이 3차원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70년대 이후의 우리의 활동은 항공을 통한 입체적인 면을 가져야겠다.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 받을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항공 우주시대에 입하는 사상계발과 항공의 체험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돌이켜보면 항공의 역사는 사람과 비행기와 그의 배경이라는 시대가 서로 열키고 설켜서 진행되어 왔다.

생명이 없는 기계인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역사의 입김을 불어 넣은 것은 역시 사람이었으며 그의 활약할 바탕을 마련한 것은 시대이다.

비행기와 연관된 역사는 기술개발과 발달의 역사이며 이어서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이 잇달아서 출현하고 구현화 되었다.

그러나 이 역사가 기술만으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창안해내는 것은 사람이며 이것을 더욱 성장시키고 육성시키는 것도 또한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새로운 기술로 꽃을 피지 못하고 시들어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과 합치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기술의 진보에는 반드시 비약이 있으며 단순히 연속되며 계승되는 것만이 역사는 아니다.

또 하나의 항공진보에 있어서 그의 발달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전쟁이며 전 인류를 압축 속으로 끌어 넣은 전쟁은 항공력을 요구하였다.

전쟁은 비행기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큰 동기가 되었으며, 비행기의 발달이 또한 전쟁형태를 바꾸었으며 그의 재화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항공기는 전쟁의 도구만은 아니며 인류의 평화와 문명의 이기이다.

전쟁은 수 많은 명작 비행기를 안출하게 하였으나 동시에 많은 명기의 새까를 꺾어버리기도 했고 명기들은 많은 기대와 때로는 일국의 운명을 걸고 하늘을 날기도 하였으며 그 한대 한대가 인간의 역사와 얽혀 졌다고 본다.

비행기는 다만 자태가 아름답다는 것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것도 아니며 그의 넘쳐흐르는 Speed감만이 그의 매력의 전부도 아니다.

비행기는 우리들을 동경하는 하늘로 미지의 넓은 세계로 날아주는 존재만은 아니며 이곳에는 인간의 지혜와 힘이 남김없이 주입되었다.

비행기는 다른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한 진실성과 인간미를 피부로 느끼게 한다. 과학의 상징인 비행기와 대자연 풍물과 조화시키며, 구름과 바람과 광선속에서 자연상승풍을 이용하는 Soaring을 주체로 하는 과학하는 Sports는 항공하는 첫 길목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이라는 큰 피라밋을 세우려면 그의 기반이 되는 저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높이를 높이려면 더욱 굳건하고 넓은 저변이 필요하다.

이 저변을 마련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으로 과학적 항공Sports의 대중화를 들 수 있으며 특히 유망한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여부는 우리나라 우주항공발전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문제제기, 탐구, 응용의 원활한 순환은 학계의 Academic한 활동과 과학하는 항공Sports활동을 확고한 기반 위에 놓을 것이다

앞으로 항공스포츠로서 바람직한 것은 산천 따라 등산 또는 고적 탐승에 그 치던 것을 더욱 진전시켜 산수따라 구름따라 바람과 상승기류를 찾아 다니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서 미의 극치가 있음을 다시 찾고 Soaring으로 하늘을 날으며 상공에서 입체적으로 내 강산 내 고향을 굽어보는 하늘의 산책을 권장한다.

이것을 진작시키는 기본방책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는 바이다.

1. 자연열 자원인 상승기류의 발생이론과 탐색방법의 조사연구.
2. 과학 하는 항공스포츠의 경제적 효과적 기재로서 Motor Glider를 채택하고 이의 자급생산체제. 수립에 대한 조사연구.
3. 청소년 성장에 알맞는 국민우주항공사상의 계발과 항공스포츠 육성을 위한 체제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내에 상승풍 발생지역 탐색 Model Case Study로서 제주도의 지역풍 발생 상황을 분석 검토하고 상승풍 이용방도를 구명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연동력원인 상승기류의 발생지역을 탐색하며 국산되는 Motor Glider를 날리며 아울러 역사적 유서있는 명승고적을 하늘에서 탐방하려 한다.

이와 아울러 우주항공시대에 임하는 국민 우주항공 사상을 계발하고 국민체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청소년 운동을 전개시킬 수 있는 체제를 검토 연구하고자 한다.

2. 항공스포츠

항공은 인간의 새로운 생활양식이며 신시대의 진로이다.

항공은 원래 Sports로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항공과 같이 하나의 스포츠로서 신시대의 창조자가 되고 담당자가 된 사례는 인류 역사상 그 예가 없다.

인간은 수상경기를 하기 훨씬 옛날부터 수상에서 활약했고 Sports로서 승마를 하기 훨씬 이전에 말을 탔고 등산이라는 Sports가 있기에 앞서 먼 옛날부터 산에 올랐다.

그러나 하늘을 날오는 것만은 처음부터 Sports였고 Lilienthal은 Sports로서 이것을 시도하였고 Wright형제도 일생동안 Sports로서 비행했다.

이들의 Sports Man은 발명가가 되고 개척자도 되고 하늘의 정복자도 되었다.

이러한 Sports의 발달과 같이 인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예가 또 없을 것이다.

무기로서의 항공기도 교통기관으로서의 항공기도 모두 Sports로서의 항공에서 독립된 것에 불과하다.

현대에 이르러서 무기 및 운수기관으로서의 항공기가 갖는 절대한 가치 까닭에 Sports로서의 항공은 일반에게 흥미를 잃게 되었으며 잊어버리기 쉽게 되었다.

그러나 항공기를 이와 같이 가치있게 한 것은 Sports로서의 항공기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한없이 넓은 창공 속에서 글라이더를 타고 상승기류를 찾아 구름에 도전하고 악천후나 한냉전선과 싸우며 날으는 웅대한 스릴이 가득 찬 하늘의 산책은 다른 어느 스포츠와 비할 수 없는 장쾌한 항공스포츠로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열광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항공스포츠로써 글라이더를 탑승한다는 것은 활공훈련을 통한 심신의 연마와 체위를 향상하며 협동정신 및 책임감을 양양케한다.

나아가서 글라이더를 자신들이 직접설계하며 제작 수리하여 스스로의 비행 경험을 살려서 항공 지식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스포츠와 크게 다른 점이다.

대공을 동경하고 운계의 아름다움에 현혹한 많은 청년의 야망이 대공을 정복하였다.

무엇인가 발견하고 무엇인가 정복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년의 타오르는 의지력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항공Sports가 갖는 도덕적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고 또 항공이 국민의 장래 발전 국가의 방위를 위해 차지하는 역할을 생각할 때 항공Sports는 Sports로서 Sports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다음 세대를 젊어질 한국 청소년으로서 금후 항공 Sports를 보급시켜 항공의 경험을 갖지 않고 자라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할 때 장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바 크다고 생각한다.

3. 활공훈련의 기초적 가치

활공훈련은 장차 조종사가 될 소질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대해 수단을 제공한다.

인간이 비행하기 전에 새들의 나는 모습을 보고 인간도 날을 수 있겠는가 하는 꿈을 실현키 위해 과학자와 교육자들이 많은 연구와 실험을 해 왔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추구하여 보면 수종의 요인이 개재되어 있다.

첫째, 인간이 새와 같이 날고 싶다는 사고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 둘째,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후에 인간은 대기운동에 대한 수학을 고안해 내야 했고

세제, 날으는 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조종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내야만 했다.

Leonardo da vinci는 새들의 나는 원리에 대해서 서기 1500년에 논문을 썼다.

Giovanni Borelli는 동물의 이동력이란 작품을 서기 1680년에 출판하였다.

그러나 그때 이래로 19세기에 접어들 때까지도 진실한 활상비행에 대한 과학적 이론은 부재상태에 놓여 있었다.

과학적 진리가 재현된 것은 소수인의 덕택이었으며 그들 중에는 L.M. Moallard가 있었고 그의 저서 “공기의 위력”은 서기 1881년에 출판되었다.

이 저서는 서기 1893년부터 1896년 사이에 48초 동안 비행하였던 Otto Lillienthal, A.M. Hering과 Wright같은 개척자들을 고무시켰다.

동력비행이 비교적 신속히 진보하고 있을 때 활공분야는 2차원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으나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동력비행에 금지조치를 받음으로써 활공 비행이 부활되었다.

이는 독일의 과학자, 교육자, 기술자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수차의 비행을 하며 부단한 노력과 결심에 의한 것이다.

독일인들은 활공 비행기술을 유리하게 이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스 독일 공군 조종사들은 대다수가 글라이더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 때 이래 무동력 항공기의 임무 수행 능력과 이러한 항공기를 다루어 본 사람들이 증가되어 글라이더는 400,000ft이상의 고도에 도달하고 3백마일을 넘는 야외 비행을 성취하였으며 52시간을 체공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활공과 활상을 단순한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있다.

활상은 동력기로서 얻을 수 없는 비행술까지도 할 수 있게 해 주며 동력 비행기로 비행술을 배울 수 있는 연령보다 더 어린 연령에서부터 시작할 수 없다.

활상으로 훈련하는 것은 동력 비행으로 훈련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우주분야와 같은 미개척분야에서 종사하기를 지망하는 자의 성격적 적성 여부를 조기에 결정짓는데 비길 데 없는 좋은 방법이 된다.

조종사의 성질은 세 가지로 나누어

1 신체적 적성

2 비행에 대한 소질

3 성격적 적성인데 그 중에서도 주요한 것은 3의 경우이다. 성격적으로 주요

한 요소를 결정 짓는데는 정신분석학자가 그 중에 많은 것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활공훈련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찰을 할 수도 있고 기지의 어떠한 방법에 있어서 보다도 성격적 적성이라고 하는 선천적 요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비행을 위한 성격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는 활공 경력은 대략 14세경부터 쌓기 시작할 수 있고 장차 조종사가 될 소질이 있는 사람은 비행하는 동지들 사회에서 장시간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궁극적인 책임완수를 위해서 그만큼 잘 된다.

그를 훈련시키는 교관은 장시간에 걸쳐 관찰함으로써 성격적 적성이라고 하는 무형의 것에 관한 그의 잠재적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시기에서 한 청년이 비행사로서의 적합 결정이 내려졌을 때 다만 그는 스포츠로 활공으로서 계속하면 될 것임으로 심리학적으로도 성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의 작용을 받지 않는다.

서기1951년 화란의 모 비행훈련학교가 2년 반의 전 과정을 완료한 전체 학생단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1. 훈련기간 중 자퇴한 자 →글라이더 경험없는 조종사 18% 글라이더 조종사 없음
2. 고등훈련을 받도록 승인받은 자 → 글라이더 경험없는 조종사 27.9% 글라이더 조종사 70.9%
3. 훈련기간 중에 실격한 자 → 글라이더 경험없는 조종사 13.3%:글라이더 조종사 없음.

훈련은 더욱 조기에 시작해야만 되고 더욱 광범하고 어느때 보다도 철저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활상의 잠재역량은 스스로 참신한 각광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활공기의 연습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는가를 살펴본다.

최초에는 단순히 하늘을 날아오르는 도구로서 생각하였으며, 중기에는 Sports로서 간주하였다.

제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비행기 조종의 전제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그 존재 의의를 명확하게 하였다.

그의 제1의 이유로서 주로 경비면에 있다. 자원이 빈핍한 Deutch로서는 조종훈련의 초보부터 고가의 비행기를 사용하고 부족한 Gasoline을 소모시키는 것은

국정이 허락지 못한다.

활공기라면 연료도 필요치 않고 제작이나 수리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많이 공군요원으로 획득할 수 있으므로 대단히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활공기는 속도에 숙달시키려는 점에서 공중을 감독시키는 점에서 비행기조종 연습의 예비과정으로서 큰 가치가 있다.

조타에 관한 이론도 실물의 비행기와 거의 같은 것이므로 준비훈련으로서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고려할 것은 조종 적성자를 선발하는 수단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활공기로 조종연습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그의 결과에 따라 부적성자를 제외하는 방법으로도 비행기에 비하여 경비도 절약된다.

설혹 비행사로서는 적성이 맞지 않더라도 항공 Sports로서 활공은 계속할 수 있으므로 순진한 청년의 전도에 상처를 주는 염려도 적다.

그러나 활공기는 조종훈련의 예비수단으로서만 아니라 Sports로서의 흥미나 신체 육성이라는 목적을 겸하고 있으므로 부적성을 발견하여도 중도에서 활공기 탑승을 중지할 필요는 없다.

Deutch의 실례를 인용하면 처음 활공훈련을 받지 않은 자에게. 비행기 연습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로서 채용된 자는 300명 중에서 10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의 양성비용은 결과적으로 3배가 된 것이다.

또한 정신 교육면으로의 활공훈련의 효과도 Deutch에서는 가장 중요시 하였다.

훈련에 있어서는 「전원은 한 사람을 위하여, 각인은 전원을 위하여 노력하라」라고 주장하였다. 제작에 있어서도 완전한 협동일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각자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흩어지며 의지의 조화가 결집될 경우에는 결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협동 일치하여 일에 당하는 수련은 그들이 공군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때에 가장 필요한 성격이다. 활공기의 훈련은 엄격한 단체훈련이다. 이것은 전체를 위한 봉사정신과 같이 면밀한 주의 세심한 기교로서 조종, 정비, 조립, 수리, 제작에 있어 정확 정교의 기술을 습득한다.

활공훈련은 짧은 체공이지만 스스로 조종간을 잡고 하늘을 날 수 있다.

여기서 몰아의 기쁨, 대공의 쾌미를 만끽하고 항공에의 관심을 높인다.

활공기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하나의

항공기이므로 그의 조작과 운동은 전투기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사실상 활공훈련을 쌓은 청년은 실물비행기를 탑승할 때 전혀 처음 타는 사람보다 약 20% 빨리 단독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한 사람에 가령 5시간씩 빨리 기술습득이 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만큼 연료, 기체의 절약, 이에 따르는 모든 것이 생략되어 그만큼 경제적 운영이 될 수 있다.

활공훈련은 단지 기술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항공정신의 함양이다.

청년들에게 참된 내고(耐苦)의 힘을 기르고 하늘로의 진출하려는 것은 한사람 남김없이 활공에서 첫 발걸음 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1970년 현재의 국제 공인 항공기록

1. 직선 비행거리

단좌기(單座機) 1,041,52Km 1964년 7월 31일 미국

복좌기(複座機) 921,945Km 1967년 6월 3일 소련

2. 절대고도 단좌기(單座機) 14,102m 1961년 2월 25일 미국

복좌기(複座機) 13,489m 1952년 3월 19일 미국

3. 삼각코스

단좌기(單座機) (300Km코스) 138.3Km/hr 1967년 6월 4일 서독

복좌기(複座機) (100Km코스) 107,7Km/hr 1964년 9월 2일 폴란드

활공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낙관과 우울, 경기와 불경기가 되풀이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기복이 생겼다.

침체에서 벗어나고 발전을 기하려면 시야를 바뀐 관점을 달리하여 새로운 면에서 과학적 기술적 탐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프로펠러 추진의 음속돌파의 타개책으로 Jet engine의 불사추진이 대치되어 국면전환으로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다.

발전도가 떨어진 분야에서 누군가의 새로운 기술적 진전 발명을 전환점으로 삼는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다.

4. 과학 하는 스포츠 Soaring운동

인간의 창성 이래 우리들의 선조는 여러 가지 시대를 체험하였다.

미 개몽의 시대도 있었고 평화의 환상기도 있었을 것이다.

흥망유전(興亡流轉) 여러 시대에서 모든 체험을 하였을 것이다.

오늘같이 청년이 몸에 촉감을 느끼는

국가 중대시기는 없으며 어느 시대보다 다양 다각적이며 세계 중 어느나라도 인지와 기술에 총력을 발전에 기울일 때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심각하고 절박한 시기에 임하여 헌신적인 것은 청년이며, 이것을 건설적으로 이고는 것도 청년이다.

이 광영이 있는 시대의 활무대가 되는 것은 아직 전 시대의 사람들이 맞보지 못한 무궁의 창공이며 가장 남성적인 항공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다.

역사적 사례에서도 새로운 세대에는 반드시 청년의 힘으로 수립되며 청년의 열정은 새로운 사물성취에 헌신하였다.

항공기는 인지의 물중에서 가장 새롭고 정예한 것이며 청년의 것이다.

바야흐로 전 청년은 하늘로 전진할 시대이다.

제 1차 대전 후의 패전국인 독일은 영.미.불 연합국측에 의하여 「벨사이유 조약」이라는 쇠사슬로 묶이게 되었다.

세계 제1위를 자랑하던 독일의 항공계도 몰락하고 말았다.

그들은 재생의 길을 찾으려 온갖 노력을 다한 끝에 머리를 짜내고 생각한 것이 발동기가 없는 비행기 즉 활공기의 개발과 훈련이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허적이다 소생하는 독일의 끈덕지고 줄기찬 기백이 드디어 기사회생(起死回生)의 기적을 남게 되었다.

사실(史實)로 보아 우리는 독일의 불굴의 노력의 승리를 되살려 활공기를 통해 전국 청소년의 가슴속에 하늘에 대한 관심을 높인 「울지누스」교수의 헌신적인 활공활동을 본받아야겠다.

1930년 독일이 위급한 상태에 있을 때 저술된 활공의 이론이라는 서적의 서문에는 비장한 문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설혹 복일이 멸망한다 해도 활공이 존속하는 한 독일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독일은 활공 운동을 국가시책으로 발전시켰으며 활공기를 독일 비행의 모체가 되게 하였으며 무적 독일 공군 건설의 밑바탕을 이룩하였다.

1941년에 스위스에서는 활공 훈련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일반인에서 조종사가 되는데 필요한 훈련시간보다 활공사는 이의 5분의 1 내지 3분의 1로서 숙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활공 훈련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실험통계로서 귀중한 자료였으며 또한 세계에서 최초의 발표였다.

이 때 전시하에 있던 일본에서는 이 발표를 분석 검토하고 활공훈련의 효과에 확신을 얻고서 일본 항공국은 전국

적으로 활공훈련에 박차를 가했으며 나아가서 Motor glider를 정식으로 채용하여 전시하에 조종사 양성에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항공국은 활공기에서 Motorglider에서 연습기로의 과정을 확립시켜서 활공기에서 비행기까지의 종래의 방식보다 더욱 시간을 단축시켜 훈련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모든 청년들은 하늘을 애호하며 다소나마 비행의 체험을 하고 내일의 항공대환을 위하여 활약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할 수 있는 길은 Soaring활상(滑翔)이다.

발동기 없이 날으는 Soaror (滑翔機)의 묘미는 바람을 뚫고서 흰 구름을 헤치며 누비는 쾌미, 이것은 청년에게는 가장 큰 매혹일 것이다.

청년이여 대공을 날을 기회는 지금이다. Soaring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모든 사람은 항공으로의 출발이 가장 안전하고 손쉽게 간단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Himanist인 HUMBOLT가 말하였다

「너희들의 청년을 보여다오, 그러면 너희 나라를 알 수 있다.」

5. 활공기상

—머리말—

새와 같이 유유히게 하늘을 날으기 위하여 선배 활공사들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발전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높게 멀게 그리고 자유롭게.

하늘을 마음껏 날으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상승기류의 탐구가 필요하였다.

유명한 기록 활공을 이룩한 활공사들은 여러가지 상승기류 속에 돌입하고 구름과 폭풍우 속에도 날아 들어가서 탐색하였다.

불행하게도 몇 사람의 활공사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승기류의 지식은 이러한 귀중한 노력과 희생위에 구축된 것이다.

수직상승 기류의 개설

수직 상승기류는 대기의 순환체계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며 그 규모나 강도는 순환체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Soaror의 원동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상승기류는 그 강도가 지나쳐 활공에 절대적인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또 지속시간이 지나치게 짧아도 안 된다.

곧 일정지역에서 비교적 지속적인 상승기류가 가장 적합한 동력원으로서 이용가치가 크다.

상승기류를 크게 나누면

열적(熱的) 원인에 의한 것과 기계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류한다.

학문으로 나누면 열역학(熱力學)적 원인과 역학(力學)적 원인으로 개별 또는 결합하여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상승기류는 그 발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도 한다.

(1) 순열(純熱)적 상승기류

(2) 지형성 상승기류

(3) 기류성 상승기류

1) 기괴성(氣塊性) 상승기류

2) 수검성 상승기류

(4) 복합성 상승기류

1) Hang Wind

2) 이행성 상승기류

3) Foehn 상승기류

위에서 수검성 상승기류는 저기압과 태풍들 속 중심부근에서 기류가 붙어서 집중되어 발생하는 상승기류이며 이것은 저기압과 태풍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

2개의 산맥이 V자형으로 벌어져 있는 지형에서 바다에서 불어 들이는 기류가 좁은 곳을 통과하게 되면 이곳에 공기가 머무르게 되어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수검성 상승기류는 지형 상승기류로 분리할 수 있다.

Hang Wind는 산곡풍(山谷風)이라고하며 이것도 사면(斜面)에서 발생하는 기류에 열적원인이 작용하여 상승하강 기류가 생기는 것으로 지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행성(移行性) 상승기류는 한냉기괴(寒冷氣塊)가 비교적 온난한 해면을 통과할 때 기괴의 하부층이 더워져서 불안정 상태가 되어 발생하는 상승기류며 이것은 기괴의 특성이 변화하므로 기괴성 상승기류로서 분류할 수 있다.

Foehn 상승기류는 유명한 Mozagotte 구름이 발생할 경우의 상승기류이며 이것은 기류가 산맥을 넘는 것이 제1조건이 되므로 지형성 상승기류라고도 분류할 수 있다.

실제로 상승기류를 조사해 보면 하나의 간단한 원인이나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가지 조건이 결합하여 서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분류한 것에도 복합성 상승기류라는 종류를 넣게 되었다.

요약하면 상승기류는 구름을 형성하거나 악천후의 성인이 되기 쉽다.

악천후일 때에는 반드시 상승기류가 발생하며 좋은 날씨에는 하강기류가 생기기 쉽다.

상승기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은 그의 존재를 알려준다.

따라서 구름관찰의 중요성을 재인식된다.

상승기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 (1) 공기가 따뜻한 지면이나 해면에서 더워질 때
- (2) 상공에 차가운 공기가 침입할 때
- (3) 공기가 산을 넘어 흘러갈 때
- (4) 공기가 저기압 태풍의 중심으로 침입할 때

6. 제주도의 수직 상승 기류분석

제주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중부에는 직경 30Km 범위에 한라산을 비롯한 700m이상에 달하는 여러 산들이 고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 고지대에서 동서해안과 남북해안으로 기울어진 경사면은 각각 그 기울기가 평균 1/20과 1/10이다.

이곳에서 형성되는 지역 층은 주로 해풍과 Foehn이다. 이 현상을 모슬포의 Radio Sode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지역의 경도풍(傾度風)은 겨울에는 주로 북편풍(北偏風)이고 여름에는 남편풍(南偏風)이다.

여러가지 분석 내용은 생략하고 그 결과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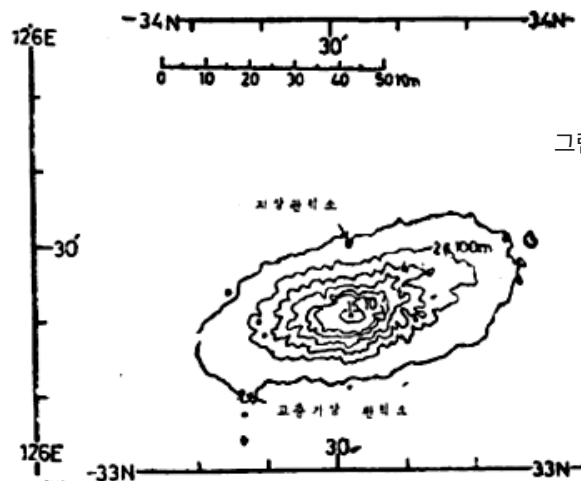


그림 6.1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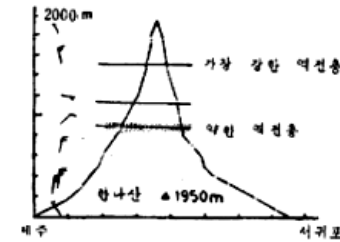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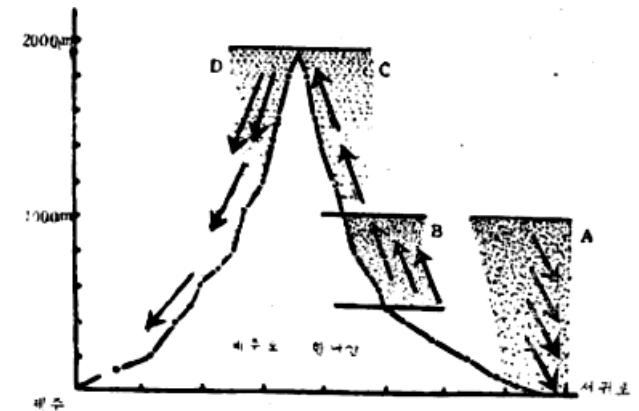


그림 6-2 제주도 단면도

NNW바람에 수직단면 TIROS로서 인공 위성 TIROS로서 관측된 KARMAN 와류상운(渦流狀雲)이 발생한 때의 형성층(습도 70%이상)이 표시되었음.
때 : 1969. 3.5. GMT 0시

그림 7. 한라산의 상승풍



- A 공역 해풍이 강할수록 하강 속도는 증가
- B 공역 고도 0.5-0.1Km사이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기류가 항상 있다.
- C 공역 산정(한라산 1930m)까지는 상승풍이 있다.
- D 지역 산정에서 강력한 하강기류가 있다.

제주도에서 Gilder가 이용할 수 있는 수직기류의 분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풍이 불 때 중부 고지대 부근에는 상승기류가 항상 있다.

가장 속도가 강한 고도는 0.5~1Km이며 이 고도에서는 상승기류가 항상 존재한다.

이 고도는 해안선에 접근함에 따라 감소되며 해안에서 고도 1Km에서는 해풍

이 강할수록 하강속도가 증가된다.

둘째 :

지상풍속이 5m/Sec 이상이면 풍상측(風上側) 경사면과 산정 부근 사이에는 상승기류가 있다. 풍하측(風下側)에는 해안선까지 하강기류가 있다. 이 하강속도는 해안선에서 가장 약하고 고지대에 접근할수록 강해진다.

7. 항공기 설계 제작의 문제점

- 국내실정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항공기의 설계 제작이라 해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재료, 시설, 보기등을 모두 우리 국내생산품으로 충당시켜야 한다면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Engine을 비롯하여 모든 보기재료(補機材料), 그리고 제작에 사용될 시설을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사용한다면 항공기의 설계제작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들의 부재성형법(部材成形法)을 따른다면 그들의 자료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소요되는 항공역학적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구조상의 소요 안전도를 갖는 항공기의 설계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Engine, 보기재료, 시설 및 자료표 등을 외국에 의존한다면 남은 일은 항공역학적 구조역학적 시험 및 해석이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옛날부터 알려진 항공기술 선진국들이지만 다른 작은 나라들에서 제작된 비행기들이 성능 좋은 것을 생산하고 있다.

스웨덴,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작은 나라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제작하고 있다.

그들은 Rolls royce engine을 장착하여 연구 개발하고 있다. Engine 외에 다른 보기(補機) 그리고 기체의 대부분 재료도 외제에 의존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설혹 대부분이 외국제에 의존했다 해도 항공역학적 구조역학적 설계와 제작(試作)의 실지작업은 자기 나라의 시설에서 자기 나라 기술진에 의했을 것이다. 재료는 국산도 좋고 외국산도 좋을 것이다.

다만 꼭 필요한 것은 그 재료가 규격화되어 지정된 기계적 성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충분히 가능하고 절대 유익한 분야는 항공기의 부분적인 설계제작이며 또한 중요부품의 도입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경항공기 또는 Motor Glider의 설계제작은 가능하고 이 범위와 수요면을 점점 넓히면 기업성을 지니게 되어 명실공히 항공기 제작 사업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국가 장래를 봐서도 꼭 실천하여야 할 일이다.

7.1. MOTOR GLIDER의 목적 및 구비조건

목적

1. 자력으로 이륙하고 상승풍권에 도달하면 모우터를 정지하고 활공한다.
2. 야외 착륙하였을 경우라도 자력으로 이륙하여 기지에 돌아온다.

구비조건

1. 충분한 이륙상승의 힘을 가졌으며 이륙 활주거리도 짧다.
2. 공중에서 모우터의 시동, 정지가 용이하다.
3. 동력비행중이나 활공시에도 강도가 크고 안정, 조종성이 좋다.
4. 모우터가 정지중에도 글라이더로서의 성능이 좋다.
6. 제작비, 유지비, 운반비가 적다.

7.2. MOTOR GLIDER의 구분

MOTOR GLIDER에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류 활공비 30이상의 경비용 고성능 Glider에 Motor를 장착한 것. 예; As-K14

제2류 제1류를 복좌로 한 것.

제3류 활공비 20정도의 연습기용 Glider에 Motor를 장착한 것. 예 : RF-4

제4류 제3류를 복좌로 한것. 예 : RF-5 제5류 활공비 10정도의 Glider에 Motor를 장착한 것.

제6류 제5류를 복좌로 한 것.

7.3. 기체 구조의 새로운 개념

항공기의 경량화(輕量化)에 대해서는 Monocoque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다.

경비행기에서는 그 크기에 대해서 외관의 두께 비율이 극히 적으며 따라서 외관의 두께에는 자연히 제한을 받게 되며 Duralumin판은 최저 0.4mm이다.

Monocoque식으로는 이러한 얇은 외관에 압축강도를 받게 하므로 이것에는 무수한 Rib나 Striner를 넣으므로 공수(工數)나 중량으로 보아 불합리점이 많다.

더욱 많은 압축강도를 가는 Stringer에 가해지는 Semi-monocoque 구조도 비행기에는 많이 사용된 것이나 이것을 경비행기에 적용시키는데는 약간 의문이 있다.

그러나 초기에 많이 쓰이던 강관(鋼管)에 직포(織布)를 씌운 구조의 특징을 다시 살펴보면 이 방식에는 구조상으로 볼 때 힘을 받는 부재와 그렇지 않는 부재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 특징이 주목된다.

공작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앞으로는 경비행기에 있어서 Monocoque 구조와 Truss 구조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종합된 구조방식을 세우고 실제로 제작한 부품의 중량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경량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이 구조는 Volkswagen의 Back bon식 구조와 비슷한 점이 많다.

부재를 힘이 가해진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여 사용함으로써 재료의 강도 두께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의사용하면 결과적으로는 경비절약도 이뤄지게 된다.

외관도 최소한 얇은 것을 설계범위 안에서 쓸 수 있으며, 최근의 발포성 Plastics, FPP 또는 화학재료들을 풍부하게 구사하여 간이화 경량화를 기할 수 있다. 동체후부나 꼬리 날개에는 발포 Plastics을 이용하여 강성과곡절강도(曲折強度)를 높이도록 배려하고 있다.

74. 설계의 기본방침

- ① 기종은 활상연습기로서 동력을 장착한다.
- ② 국내에서 일부 생산 및 조립공작으로서 자급케 한다.
- ③ 독창적인 고안을 도입하여 경량화 간이화한 구조로 한다.
- ④ 형태와 성능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안전을 기한다.
- ⑤ FPP를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도록 고안한다.

·각항마다 조정 보완하여 종합적인 경항공기이며 동력활공기인 새 형태를 이룩하도록 방침을 결정한다.

75. 항공 기재로서의 특징

경량구조(輕量構造)가 가장 요구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Al합금 보다 경량이며 비강도가 크며 가공이 쉽고 전파투과성(電波透過性)을 갖고 있는 강화 Plastic은 일찍이 주목되었으며 기재 구조의 일부에 또는 2차 재료로써 그 특성을 살려서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다.

FPP가 항공기 각 부분에 적용되는 특성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 ① 비강도(比強度)가 크다.
- ② 전파투과성(電波透過性)을 갖는다.
- ③ 가공이 용이하다.
- ④ ABLATION 냉각효과를 갖고 있다.
- ⑤ 내식성(耐蝕性) 내약품성(耐藥品性)이 있다.

8. 새로운 생산진흥 활동

현재 우리나라 학생활동이나 항공계

의 상황으로 보아 활공기의 생산으로 기업화하기에는 길이 먼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항공스포츠 진흥을 기하려면 값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계 확보가 선행되어야겠다.

이의 해결방안에는 특수한 조직활동인 수요자와 생산자 간의 유대 결합이 있어야겠다.

기업으로서 주문품을 고객(購客)에게서 받아서 생산하는 방법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이 Glider생산업체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 특수목적용 가진 곧 생산과 훈련을 병행하는 club활동으로서 Glider제작자와 Glider동호자(同好者)의 회합으로서 단순한 생산업자로서가 아니고 동호자의 한 Group으로서 Glider 설계 및 제작을 추진하며 발주자(發注者)도 한 Group으로서 Glider 동호자로서 설계 및 제작에 참여하고 Glider에 매력을 느끼고 이것을 입수하려는 각 대학의 항공부원과 협력하여 새로운 각개의 독자 Idea에 찬 기체를 개발하고 제작한다.

각 대학의 항공부원들은 자기들이 비행하는 Glider는 자기의 손으로 제작한다는 새로운 과학하는 스포츠정신으로 기축(機軸)을 마련하여야 한다.

516혁명 이후 특수체육이라 하여 활공분류를 각 대학생에게 실시한 일이 있었으나 그때는 대학생들이 훈련을 받는다는 피동적인 입장에서 실시된 결과로서 더 이상 발전이 없었고 특히 기재(機材)확보에 있어 외자사용 및 그 값이 고가이므로 타 기관은 입수할 수 없어 보급이 되지 못하였다.

자금은 없으나 Glider가 필요한 대학활공부원들과 한편은 이익은 남지 않지만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Glider를 개발하고 싶은 이 Club 생산부원들과 쌍방이 합심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자율적인 기재수급 체제와 과학하는 항공 sports 활동의 진흥방법이 요망된다.

9. 맺는말

항공스포츠를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논한 바를 다음 세 가지 방안으로 요약한다.

1. 항공스포츠의 진흥 방안

- (1) 학생 항공연맹의 조직과 육성
- (2) 항공 지도기관과 대학 항공부 간의 합동 활동.
- (3) 미국 CAP활동의 유대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전개 활동.

II. 활공기재의 설계 및 제작

- (1) 자기가 하는 Scaron는 자기의 손으로 만들자는 운동의 전개
- (2) 수요자와 생산자가 합동조직

◀ 과학하는 항공스포츠 진흥방안 ▶

운영하는 동호인(同好人) 클럽의 육성과 수급체제의 확립.

(3) 국산 활공기에 대한 항공육성비의 급여

Ⅲ 자연동력원의 탐색과 이용

(1) 전국 중·고교를 통한 내 고장 자연 동력원의 조사 활동

(2) 과학하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기상조사 및 조직적 상승기류 탐색 활동.

(3) 국민교육과제로서 자연동력원의 자연 관찰

(4) 자연풍 동력원의 과학적 이용으로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항공 스포츠 활동의 추진

이상 각항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설계 생산 계획은 별개의 세부적인 과제로 전개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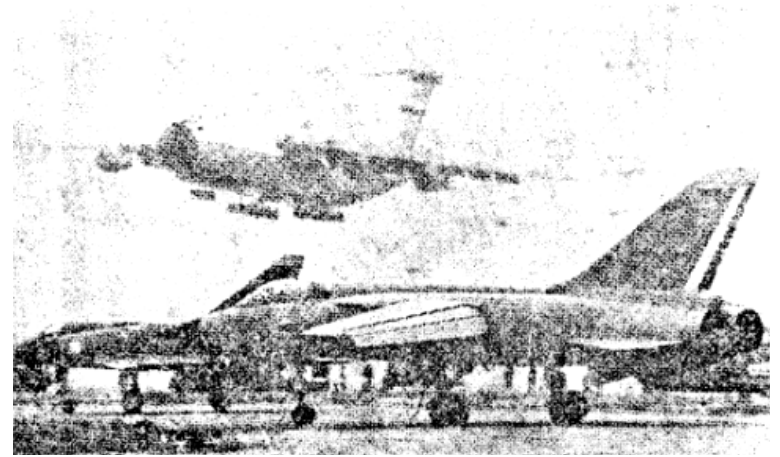
<선행의 교훈>

네가 할 일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겨라. <호리스>

배 부른 자는 꿈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 <솔로몬>

소용없는 물건은 한 톨이라도 비싼 것이다. <세네카>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소용없는 물건은 비싼 것이다. <흠스>



- 파리에어.쇼를 참관 - 구라파의 항공공업

<군용기 · 민간 수송기 편>
홍준표 역

영국의 구라파 협력기구(EC) 가입이 인정되어 구라파의 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으나 그 중에 있어서 항공공업은 국제협동화를 향하여 크게 움직이고 있다.

콘코드·자카에 뒤이어 진행되고 있던 가변익 전투기 AFVG계획이 불란서 측의 일방적 예정변경에 의하여 흘러가고 말았으며, 콘코드의 개발도 영국 측의 재정위기에 의하여 계속 어렵게 되었을 때는, 국제협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무드가 전해져 왔다.

현재 자유진영에 있어서의 항공기 생산의 태반은 미국에 독점되고 있으며, 또한 민간항공기 의 마케트의 태반도 북미에 있다.

이와 같은 커다란 힘을 배경으로 진출해 오고 있는 미국기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역시 구라파측은 협동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 구라파의 항공공업 ◇

구라파의 항공관계자 자신들은 말하고 있다.

이 국제협력체제가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서 특출한 것은 서독의 진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서독

서독은 전후 F-104의 생산을 하는 한편 VTOL기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Vjold, Do 31, VAK 191B 등의 기체를 시작하며 미국의 메이커와 공동으로, 각종의 개발계획을 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에서 오늘날까지 양산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다.

때문에 MBB의 연구 개발부문의 인원은 8,0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생산부문의 인원은 불과 13,000명일 뿐이다.

제이무리 항공공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불건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다음날의 항공기인 VTOL기의 연구를 일부 축소하여 현재와 내일의 비행기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근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104의 생산종료 후에 생긴 공백은 군용기 일변도(一邊倒)에 대한 강한 반성이 될 것이며, 국제협동 개발을 통하여 민간판매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항공공업은 전후 수차례에 걸쳐 합병과 통합을 반복하였으며, 한인켈, 휘켈, 운카스 등의 낫익은 이름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이름의 비행기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도 차차 뒤져가며, MBB와 VFW와 툴니에의 3개사에 거의 집약되고 있다.

이들의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국제협력을 열거해 보면

MBB~에어버스 A300B, 휘카 F28, 바나비아 200 MRCA 전투기.

VFW~(휘카와 합병하고 있다) VFW 614 여객기, 휘카 F-28, 에어버스 A300B.

「툴니에」~ 알화제트연습기

기타에도 현재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C 160 토란잘 수송기나 브레게·아트란틱 대잠초계기가 있으며, 헬리콥터나 미사일의 부분에도 몇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외에도 넓고, 깊게 서독이 진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자신의 손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획도 VFW 614를 위시하여, Bo 105 헬리콥터나 툴니에의 일련의 STOL기 등

◇ 구라파의 항공공업 ◇

특징 있는 것이 많다.

영국

독일에 비하여 영국은 약간 뒤진 감이 있는 것 같다.

영국도 통합과 합병 말에, 현재는 호카시드레(HSA)와 브리릿슈·에어크래프트(BAC)로 대별되었으나 작업량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각 공장들은 아주 한가한 형편이다.

호카시드레는 현재 대잠초계기 니프룟트의 생산이 되고 있으나 이 기체는 오래되어 낡은 코메트 여객기의 개조에 불과하므로 1963년 이래 호카시드레사에서는 군용기의 개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체스타 부문에서는 8,800명이 니프룟트 외에 HS 748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것도 금년의 예정으로서는 20기이며 전망이 보이기도 한다.

부로부분에서는 5,700명이 박가니아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것도 내년에는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그 후에는 A300B의 대형기계가공부품의 생산뿐일 것이다.

드라이텐트 3B는 핫트휠드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이것도 아직 롱그·세라이기는 하지만 베스트셀러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대되고 있는 A300B의 주익은 체스타 부분에서 생산이 시작되고 있다.

여기서는 아직 HS 125의 생산이 시작되고 있어 HSA로서 가장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다.

호카시드레에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VTOL기 헤리아의 생산이다.

헤리아는 현재 킹그스톤 부문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 예정기수는 전 호카시드레기를 능가하고 있다.

BAC에 있어 서도 사정은 아주 같은 것이며 BAC 311이 중지가 된 후의 상황에서는 민간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콘코드 뿐이다.

현재 생산중의 BAC 111은 일단 1974년까지 생산을 종료할 것이다.

군용기 부문에서는 라이트닝은 이미 생산을 종료하여 제트부로보스트 MK 5와 스트라이크 마스터의 생산만으로 되어 있다.

BAC에 있어서 최대의 힘이 되는 것은 국제협동개발의 자가와, MFCA전투기이지만, 이제부터의 개발이 적절하게 병행하지 않으면 각 공장의 작업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보면 23만이나 되는 관계 인구를 갖고 있는 영국의 항공공업에 눈부신

◇ 구라파의 항공공업 ◇

새로운 개발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이대로 가면 영국은 구라파의 하청기업을 맡을 정도로 각하될 것이다.

영국이 이렇다 할 수 없는 원인을 모두 영국 노동당 내각에 맡겨둔다면 가혹할지는 모르나 신형기의 개발을 중지하고 하청과 라이센스 생산에 집중한다면 발랜스리스트는 흑자가 될지 모르나 항공 관계자들의 의욕은 사라질 것이며 아이디어로 고갈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은 비단 영국에 한한 것은 아니다.

화란

구라파 중에서 독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화란의 휘카이다.

원래가 농업국이며 인구 1,200만인 적은 면적의 나라로서,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동이 필요하다. 전후 휘카에서 공장을 재건할 때에 있어서 이 장소를 선택한 것도 국제협력을 고려한 때문이다.

공장의 전면에는 하폭(河幅)이 수십 미터의 운하에 접하고 있고 후방은 스키폴공항에 연달아 있다.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와도 가깝다.

전방의 운하에서는 영국의 쇼트사에서 제작된 F28의 주익이 배편으로 보내오며 동체는 VFW와 MBB에서 또한 F27의 동체는 불란서의 블레게에서 각각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운반되고 있다.

공장 내에서는 F27과 F28이 각각 별동(別棟)에서 생산되고 있다.

F27은 현재에도 월산 2기의 수준으로서 생산되어 인도된 기체 570기를 넘고 있다.

F28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차자 주문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주문을 받은 비행기만도 38기를 돌파하였으며 전망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화란이라고 하면 풍차와 올림과 나막신의 나라임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비행기가 활기를 띠운다는 것은 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다.

휘카 공장을 방문한 사람이 누구나 느끼는 것은 바닥면과 공간의 이용도가 높은 것이다.

특히 조립공정은 문자 그대로 짜임새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장의 건물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공장은 1960년 경과 거의 변화가 없으며 양산(量産)시에도 확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스키폴공항에 인접하여 화란의 국립 항공연구소 NLR가 있다.

그 규모는 12m X 12m의 초음속풍

◇ 구라파의 항공공업 ◇

동을 위시하여 구조강도, 비행제어 등 일련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여기의 연구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있었으나, 특히 휘카와는 관계가 깊고 F28의 개발에 있어서는 일체가 되어 연구시행이 행해졌다.

물론 연구소로서 독자의 기초연구나 외국으로부터의 위탁시험도 하고 있어 콘코드나, VFW 614, 인공위성 FLDO에 대해서는, 풍동시험을 비롯하여 많은 위탁연구가 행해져 왔다.

하나의 연구소와 하나의 메이커가 각각 독립하여 더욱 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메이커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체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불란서

구라파의 여러나라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어니 해도 불란서의 항공공업계일 것이다.

불란서의 항공공업도 완전히 정리가 진행되고 전체적으로 국유(國有)와 민유(民有)의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항공기(국유) SNIAS(에어로스파살)

(민유) 닷소·부르게

엔진(국유) SNECMA

(민유) 쥬루보메카

미사일(국유) SNIAS

(민유) MATRA

자칫하면 나오되기 쉬운 영국을 강력하게 이끌고, 콘코드를 지속해 온 것은 확실히 불란서측의 열의이며 카라벨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A300B를 개발하면서 타방에서 메루쿨을 보내려는 움직임은 미국이나 소련을 제외하면 불란서 외에는 없다.

이 수년간, 불란서 항공공업의 매상은 영국보다 약간은 하회하지만 서독의 3배, 이태리의 5배에서 6배가 되었다.

특히 이 수출 중에는 카라벨 등의 민간기도 포함돼 있으나 미라쥬 전투기가 큰 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불란서의 업계를 보면 민유의 닷소·부르게 그룹에 군용기가 집중되고 있어 SNIAS측에는 군용기로서는 C160, 도란사루 등의 수송기와 헬리콥터가 남아 있는데 불과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용기]

저조한 군용기

세계 최대의 규모와 전통을 과시하는 파리 항공쇼는 71년 5월 27일에서 6월 6일까지 파리의 북쪽에 있는 루블제 공항에서 개최되었다.

72년에는 미국이 워싱턴에서 항공쇼를 개최하게 될 것이다.

성대하게 개최되는 이 항공쇼의 제1의 목적은 비행기를 파는 것이다.

「비행기의 제전」이 아니고 「비행기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돈이 될 수 없는 군용기가 저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전회까지는 국위선양의 기분도 없지 않아 남아 있었으나, 이제 그것도 사라지고, 「상행위의 시장」이라는 것의 기분이었다.

전시된 군용기는 거의가 수출을 목적으로 한 「상품으로서의 군용기」이었으며 시작기의 전시 나 자료의 공개 등도 현재의 상품의 후계기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전시된 군용기는 소련은 전후 한 번도 출품한 적이 없으며 미국도 활발한 군용기는 A-7D 뿐.

거기 따라, 서전의 사브-37 비켄이나, 이태리의 휘아트 G91Y와 같이 국내 마케트에서는 기수가 불충분한 기체는 열심히 전시되고 있다.

한편 주체 지이었던 불란서는 밀라주·시리즈를 준비하게 출품시키고 있으나, 놀랄 것은 없다. 작년 1년 동안에 밀라주·시리즈는 6개 나라에 합계 216기나 수출되고 있다.

결코, 주체지로서의 지원(地元)의 경기를 노린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조했던 군용기 중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을 주워 담아 소개하기로 한다.

「밀라주」

71년도 출장(出場)을 예정한 군용기중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도 VG 익의 밀라주 G8 이었다. 1월에 원형 G1이 추락하였으나 SNECMA 아터 09K-50(AB사용 7,200kg) 쌍발의 G8의 완성이 전해지고 있으므로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G8이 회장에 나타난 것은 개최식인 5월 27일과 6월 3일, 5, 6일 뿐이었다.

더욱 개최 당일은 비행뿐으로 지상전시는 없었으며 6월 4일에 전시되었을 때에는 요소 요소에서 관제되는 상태이었다. 마치 비밀의 장막을 연상시켰다.

지금까지 시작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기체의 크기는 F4팬텀 정도이었으나 익면적은 30% 정도 적게 되어 있다.

엔진은 장래 SNECAM 53에 변경될 예정이다.

이륙중량은 20톤 전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해군의 F-14 톰카트 보다 1회 적은 이 VG의 전투기의 장래는 이 쇼에 관한 미지수였다.

전회에 등장한 미량은 이번에는 S형이 전시되었다.

밀라주·미량S는 전익을 추가했을 뿐 아니라 엔진도 강력한 아터 09k-50에 갈아 달았던 관계로 밀라주-50에 비하여 이착륙 성능은 향상하고 마음속에 있어서의 운동성도 개선되었다.

계(視界) 전투를 주로 하는 경우에는 밀라주III보다도 유력한 전투기가 되는 셈이다.

현재 무장관계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회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다.

밀라주 F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므로 미란이 불란서 공군에 대량으로 채용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F1에의 계속과 구라과 내나 아아제국 등에서 채용될 가능성은 크다.

밀라주 F1은 외형상으로 보아 특별히 달라진 점은 볼 수 없으며 전체의 배치, 익면적의 선택에도 무리가 없으며, 1970년대의 전투기로서 굳은 감이 있으나 금후 차차로 발전 팽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밀라주III은 록키드 F-104 보다 약간 개발이 늦었기 때문에 구라파의 항공시장에서 후퇴하고 말았다.

록키드사에서는 대항기(對抗機)로서 F-104를 고익화(高翼化)한 기체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 기체는 현재에 있어서는 지상계획이며, 뿐만 아니라 현재 발표되고 있는 상상도에서 비교하면 F1이 우수하게 돼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닷소와 록키드의 경쟁은 결국은 닷소의 일방적인 승리로 보여진다.

「자가」와 「알뫼제트」

밀라주 F1과 나란히 전시되고 있는 것이 자가이다. XT-2는 화제가 되는 자가이지만, F1과 겨누어 보면 역시 대지 공격을 주로한 기체임을 알 수 있다.

영국공군이 트레이닝·코멘드의 사용을 중지하여 연습형의 기수를 삭감하는 등, 불란서 공군에서도 장비계획을 2년 늦춘다든가, 이 비행기의 전도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다.

언젠가는 어느 곳에서 자가와 XT-2가 자리를 같이 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이 두 비행기는 외형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 구라파의 항공공업 ◇

모작이기는 하지만 주목을 끈 불란서와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알튀 제트연습기이다.

후가 CM-170 마지스틸의 후계기로 돼 있으나 SNECMA 출보메가·라삭구(추력 1,350kg)의 쌍발이므로 고성능이며, 외형은 자가나 XT-2와 비슷한 고익 형식으로 돼 있으나 외형, 성능이 독일 공군이 희망한 대지공격기의 요구에 이 끌려가는 감이 든다.

현재까지로, 독일측 200기, 불란서측 200기, 계 400기의 생산이 예정되고 있다.

영국공군의 나트연습기는, BAC와 HSA가 모형을 전시하고 있었으나 기체보다도 엔진에 주력을 두었다.

후보엔진은 아프더마나가 없는 아드아와, 컴프레서를 재설계하여, 터빈도 2단으로 하는 큰 변경을 하였으며, 새로운 명명을 하면, 더욱 아필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옛날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 두는 것은 역시 영국적임을 벗어날 수 없다.

대지공격과 COIN기

LTV. T-7 콜세아·휘아트 G91Y, 막키 MB 326k, 거기에 HS하리아 GR-1은 이륙하여 랜딩기어를 집어 놓고 자유자재로 활주로 끝에서 상공으로 수직상승을 하는 등 저공에서 상상할 수 없으리 만큼의 우수한 비행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A-7과 G91Y는 서서 공군에 매각할 전망이 짙다.

서전의 사브사는 토라겐, 비젠, 105XT, MFI 등을 갖추고 있었으나, 평일의 전시 비행은 그다지 실시하지 않았다.

체코의 소고·야스트레후, 이기리스의 BAC 167 스트라이크마스타, 스페인의 HA 200사에 타 등의 경제트기 COIN기에 섞여서 BN 아이란다나, 쇼트 스카이반에 빠이론을 달고, 폭탄이 나 로켓탄을 단 기체가 COIN기로서 전시 되었다.

「군용수송기」

군용기에는 새로운 것이 많았다.

압도적인 것은 물론 C-5A카라쿠시 이었으나 이 747을 상회하는 대형기가 짧은 활주로서 이륙 비행장상공을 주름잡을 때의 환성 접지의 순간에 퍼지는 박수소리는 장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거기에 비하여 휘아트 G-222는 확실히 적은 것이었다.

기체가 적어 특징이 없는 기체이다.

기체가 소형이므로 단렬(單列) 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CASAC212는 더욱 성능이

◇ 구라파의 항공공업 ◇

약할 뿐 아니라 스카이 반도와 비교하면 습작과 같은 감이 있다.

독·불 공동개발의 C160 트란자르와 출장(出場)되고 있지 않다.

독일군부는 이미 이 비행기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군용수송기라고 하는 기종은 용병자에 있어서나 설계자에 있어서도 의외로 어려운 기종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군용기 헬리콥터에는 새로운 것은 없었다. 헬리콥터도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전술한 바도 있으나, 파리 항공쇼에 있어서의 군용기는 금후 더욱 더욱 저조하게 될 것 같다.

세계의 항공공업은 군용기만에 기대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으며 후진국에 대한 불용의 군비를 매각하는 시대도 지난 것 같다.

「민간 수송기」

파리 항공쇼의 주역이 민간수송기에 의하여 점유되었던 것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또한 소련민간기의 대량 참가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것도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군용기의 신개발이 정제되고 있는 것은 제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의 구라파측의 항공공업 이 불항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만큼 70년도의 항공쇼에서 변화를 보였다.

결코 군용기의 참가수가 적었던 것은 아니다. 주목할 만한 기체도 많았으나 항상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새로운 것에 있으며, 장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파리 쇼에서 의의가 있었던 것은 기대하고 있었던 SST 스포레후 Tu-144의 참가이며 그에 따른 IL-62, Tu-154, 야크40, Tu-134 등 현용 수송기가 대거 참가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소련은 독자의 기술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립국의 여러나라나 또는 서구권까지에도 적극적인 매각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파리의 항공쇼가 단순한 기술의 전시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상담(商談)에의 장소로 변질된 것은 사실이다.

「콘코드」와 「Tu-144」

화제는 무어니 해도 불란서·영국 공동개발의 콘코드와 소련의 스포레후 Tu-144의, 양 초음속 여객기 SST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콘코드는 파리 항공쇼에 두번째로

◇ 구라파의 항공공업 ◇

얼굴을 내미는 것으로서 서구사회에는 그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두 비행기가 서로 다른 점은 그다지 알 수 없으며, 콘코드의 개발이 다소 앞선 것으로 보였다.

여하튼 자신에 둘러싸인 콘코드이긴 하지만 미국의 SST 개발중지 에도 안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SST 전부의 운항이나 탑승금지령이 내린다면 장래는 절망적이다.

따라서 전시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관중들이 관심을 가진 것도 그 소음의 정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출장(出場)한 0.01기에는 또한 신형 엔진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스포테후 Tu-144는 단 1회의 전거 비행을 했을 뿐, 이착륙도 신중하게 활주로의 최말부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이륙이나 접지의 순간이 거의 관중들이 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기수를 내린 저속비행과, 기수를 올린 고속자세를 저공에서 실시하였다.

실물은 독특한 랜딩기어의 수용방식이었다. 랜딩기어는 동체 내에서가 아니라 수용발지의 속에 들어 있다.

관중들이 주목했던 것은 초음속 타보 켄. 엔진 NK-144에 대해서이었으나 예상한 만큼의 배연이 보이지 않았다.

단지 이 기체의 우측 엔진공기 취입구에 특수 장치를 한 것이 눈에 띈다.

Tu-144는 이미 제 100회의 시험비행을 실시, 최대속도 음속 2.3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나 현재 원형기는 1대 뿐이란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2기가 제작 중으로서 1970년 내에 시험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것은 1973년경, 취항은 1974년이 될 것이다.

◇ 의욕에 넘친 대형 소송기군 ◇

보잉 747은 이미 세계의 주요 항공로에 취항하고 파리에도 매일같이 그 자취를 나타냄으로 70년도 파리 에어쇼에는 출현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형기를 대표한 것은 록키드의 군용형 C-5A이다. 특별히 수출의 직접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기체는 루·블제의 활주로에서 불과 111kt의 이륙속도, 약 610m의 활주로로 거대한 몸체를 하늘에 띄워, 약 20도의 급각도로서 상승하는 비행을 보였다.

착륙도 브레이키와 리버스 스라스트를 사용하여 300m 정도의 활주로로서

◇ 구라파의 항공공업 ◇

정지하였다. 특히 이 시위시 에는 C-5의 총중량 211.5톤으로 동기의 최대중량 330톤의 약 63%에 불과하였다고 하나 여하튼 우수한 이착륙 특성에는 틀림이 없다.

록키드사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난점을 제거하고, 화물수송용의 민간형 L-500의 개발에도 결속되는 문제로서 여하튼 이 C-5A도, 공군의 MAC(공수군단) 소속기로서 서독의 후랑크홀트에 비래한 것을 록키드사가 차트하여 움직인 것이다. 여기에 당사가 현재 괴로운 사정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기대하던 에어버스 L-1011은 자신이 넘치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대서양을 지나 비래한 드라이스타는 중중량 135톤이며, 약 1,590m의 활주거리로 이륙하여 회 장상공을 한바퀴 돈 뒤에는 그대로 영국을 향하여, 로루스로이스사를 격려하면서 사라졌다.

유감스럽게도 이 L-1011의 제 3호기에는 또한 추력 18,450kg의 새 엔진이 시기에 맞지 않아 추력 16,000kg의 초기형(初期型) RB 211을 장착하였다.

소음면에서도, 배기면에서도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장의 기대에는 응하였던 것 같다.

이 비행기의 상공내방(上空來訪)을 받은 로루스로이스측에서는 “GOODLUCK TRSTAR”의 카드색션을 1,500명의 종업원이 동원하여 만들고 환영을 하였다.

한편 맥더널 더그라스 DC-10쪽에서는 L-1011에 완전히 압도한 기고만장의 기세로 등장하였다.

GE사제의 엔진 CF6-6D도, 이미 형식증명을 취득하여, 취항을 눈앞에 둔 감이었다. 록키드 L-1011이 이스탄 항공 토장기입에 비하여, DC-10은 제 5호기이며, 자사(自社)의 시험용 토장이지만 오히려 자신이 충분했던 것으로 간주 된다.

DC-10도 총중량 150톤의 가벼운 상태에서 시위를 하였으나 이착륙 모두가 1,000m 이하의 활주로로서 이 착륙시에는 리버스·스라스트는 사용하지만 브레이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여유를 보였다.

회장상공 100m의 저공을 후라푸 25°, 파워 71%로서 180kt의 저속비행을 하는 등 멋있는 비행이었으나 주목 할만 한 것은 소음이 전면 적은 것과 활주로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지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다.

물론 소음의 수준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변하므로, 이 1회의 시위로서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조용한 수송기의 실현에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경우 록키드 L-1011도 DC-10과 같은 정도로, 소음의 저하에는 성공하

◇ 구라파의 항공공업 ◇

고 있는 것으로서 어느 쪽이 최종적으로 패권을 장악하느냐는 예측을 불허한다. 그러나 DC-10의 조용함에 대해서는 극히 인상적이었다는 것이 정직한 평인 것이다.

영국의 HS 748의 출장(出場) 등으로 가라앉아 있는 정황에 비하여 맹렬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란서이다.

항공쇼 개막의 익일에는 초비행한 닷소·메쿨 단거리용기(116~155석)가 서두는 상태인가 하면 사독과 공동개발의 에어버스 A300B(261~285석)도, 이번회의 동체의 완전 모감을 전시하여, 71 8월에 예정되는 초비행의 전경기를 BAC 311이 절망적인 틈을 타 BEA항공의 발주도 획득하고 싶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가라벨 12나, 화란의 휘카·VFW F-28-2000 등, 스트랫지형의 신예기도 자취를 보였으며, 서독의 단거리용 VFW-614도 초비행을 목전에 두고, 널리 선전을 하고 있다.

◇ STOL기 경쟁시대 ◇

미·소·불 3국의 강력한 경쟁선에서 남모르게 나타난 소형기중에도 초출장을 하여 주목을 끈 기종이 있다.

군용수송기로서는 이태리의 휘아트 G222, 스페인의 CASA 212, 경수송기에서는 영국의 스카이반 3M, BN 트라이란더, 이스라엘의 IAI 알바, 거기에 체코의 L410 터어보레트 등이 열심히 매각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가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새로운 개발의 경향으로서 계획이 일치된 STOL 수송기라고 할 수 있다.

와이드·보디기 경쟁의 다음에는, 근거리용 STOL기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다.

미국의 록히드·조지아사의 기준에는 STOL 허큐리스가 출품되고 있었으며 화란의 휘카 VFW사는 F-27을 4발화(4發化)한 P. 301계획이 자취를 보였다. 캐나다의 이미 알려져있는 DHC-7 외에, 캐나다사에서 가변취부각(可變取付角) 주익을 사용하여, CL-246 계획이 출품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영국의 BAC사가 제안하는 QSTOL 계획과, 불란서의 에어로스메살(SNIAS)사가 계획 중의 A. 904STOL기이다. 두기가 모두 롤스로이스/SNECMA의 M45S/EBB410을 4기 사용하여, 조용한 터어보웬 STOL 수송기를 꿈꾸고 있으며,

◇ 구라파의 항공공업 ◇

그 크기도 성격도 거의 비슷하다.

양기(兩機)가 최대 130~140석으로, 1977년이나 1978년에는 실용취항을 시키려는 것이다.

또하나 실용화를 바라는 계획은, 이태리의 아에리타리아사와, 미국의 보잉사 STOL 여객기 개발을 하려는 것으로 이것은 1974~1975년까지 완성 시키려는 것이다.

이들의 STOL 수송기의 각 계획은 현재는 출현되고 있는 안은 거의 공통성이 있으며, 실용 개발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국제공동의 방식이 채용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도 STOL 수송기의 장래에는 충분한 주목의 요소가 있다.

이런 계획과, 서독이 일보 앞서 개발에 착수한 돌니에스 Do 231 등의 VTOL 수송기 계획과 어느 쪽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의 근거리 중형 수송기의 주류가 될 것인가는 장래의 수송기를 점쳐 볼 때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다채로운 모양이 점차 사라져가는 평이 있는 파리 에어쇼는 전통적인 미래에의 서광을 보이는 의의를 결코 잃지 않고 희망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의 주역은 현실에 비행하고 있는 기체에 대해서도, 계획으로서 전시되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민간 수송기가 중추의 자리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할 바 없다.

<박대통령 문언록>

◇ 한 집안이 잘 사는 길은 그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주부의 현명과 헌신에 달려있듯이 조국 근대화의 성패를 가늠하는 판건은 바로 공무원들의 성실과 박력있는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다.

◇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단 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인격과 행동의 저변에 잠재하는 확고부동한 정신적 자세이다.

초음속시대에 있어서의



항공우주의학 연구기관 문제점

소
속
일

○ 항공의학의 정의

항공의학이라는 것은 항공의 의학적, 심리학적 문제를 연구하는 의학의 특수 분야로서,

항공의학은 비행에 관련된 생리학적 문제에 대한 임상의학, 기초의학 및 관련 과학을 통합하여 응용하며 연구해 나가는 분야인 것이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 (1) 조종사의 선발, 능률 및 건강증진, 비행활동 기간의 연장,
- (2) 항공안전의 유지,
- (3) 조종사, 정비사, 항공관제사 등 연관직업 특유의 질병, 부상예방,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4) 고공생존의 요구한계를 이겨내기 위한

◀ 초음속시대에 있어서의 항공의학과 그 문제점 ▶

제장비의 개발과 설계,

(5) 공중구조, 구명 및 병자, 부상자의 공중수송에 관해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항공기의 비행고도는 유인항공기의 경우 저고도로서 별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으나 초음속기의 비행고도처럼 19,000미터 이상의 고도일 경우 체내의 혈액과 체액이 비등하게 되어 생물은 20초가 못되어 그 생명을 잃게 된다.

이 고도 이상은 의학적으로는 우주의 상당고도에 도달하여 있는바 항공의학은 무중량학과 달 등 타 천체의 저중량의 학과도 관련, 항공우주의학이라는 신분야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의학은 당초 유럽의 고산 등반객들에 대한 고산의학으로서 발달되어 온 것이다.

항공의학의 선구자들은 가혹한 항공환경의 희생으로 대부분 그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1857년 볼란서의 뒤산, 뒤엘 등 3인은 기구비행을 실험하다가 고도 8,000미터에서 모두 의식을 잃었고 마침내는 이 중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1933년 미국의 포스트는 가압복 테스트 비행 중 사망하였다.

(고도 13,000미터 이상은 가압호흡을 실시하지 않으면 산소가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

1958년 미국의 이가 대위가 음속의 벽을 돌파하기까지 많은 우주 파일럿이 생명을 잃었다.

현재도 많은 연구가들이 항공우주환경의 개척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 세계의 항공우주의학 연구기관

세계에는 다음과 같은 약 30여개의 항공우주의학 연구소와 연구시설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아폴로 달 착륙 수행계획을 위하여 항공우주의 학연구소가 증설되어 우주공간의 생명유지계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훌륭한 성과를 얻고 있다.

1. 미국, 캐나다

(1) 미공군 항공우주의학 사단 예하 항공우주의학 연구소

항공우주의학고

항공의학연구소

극지항공의학실험소

(2) 미해군 소속 항공의학 가속도 실험소

해군항공우주의학연구소

- (3) 미육군 소속 육군항공의학연구소
- (4) 미연방항공국 FAA 민간항공의학 연구소
- (5) 항공우주국 NASA 유인우주센터, 우주의학부 랑그레이연구소 생명유지
계 개발부
- (9) 기타, 존홉킨스대학, 캘리포니아대학, 이리노이대학, 오하이오대학 부속연
구소 또는 연구시설이 있다.
- (7) 캐나다 공군항공의학 연구소.

2. 유럽

- (1) 불란서 항공의학 교육센터 공군 항공의학 연구소
- (2) 영국 공군 항공의학 연구소
- (3) 서독 항공의학 연구소 공군 항공의학 연구소
- (4) 이탈리아 항공의학 연구센터 공군 정신생리 연구소
- (5) 스웨덴 「가로린스카」의학연구소 내 항공 해군의학 연구시설 「룬트」 대학
의학부 항공의학 연구시설
- (6) 노르웨이 항공의학 연구소
- (7) 스위스 항공의학 연구소
- (8) 스페인 「마드리드」대학 항공의학 연구소
- (9) 소련 공군 항공의학 연구소

3. 동양

- (1) 대한민국 공군 항공의료원 연구부
 - (2) 일본 방위청 항공자위대 항공의학 실험대, 나고야(名古屋)대학환경 의학
연구소 제 5부
- 자혜회의과 대학 우주의 학 연구실
- 상기한 바와 같이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항공 우주의학 연구소를 두고 그 연
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초음속 거인기 시대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 의한 인류사상 최초의 동력비행이 성공을 거둔
이래 겨우 60여년이 지난 오늘, 항공기술의 발달은 인종과 국경의 한계를 초월

하여 우주 과학분야의 개척발전을 가져왔으며, 이제까지 안온히 생각되던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키 어려운 업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군용기가 음속의 장벽을 무너뜨린 이후 민간기의 발달은 급속도로 진전되었
다. 1970년 드디어 보잉 747, 잠보제트기가 나와 무려 5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1972년에는 영·불 합작의 초음속기 SST 콩코드가 마하 2.2의 속도로 취항을
시작하리라 한다.

1975년에는 마하 3의 SST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소련도 마하 2.4의 TU-144를
개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더글러스 항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HST 1985년 경에는 극초음속 여객기가
완성 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소련도 10년 이내에 마하 8 내지 10이상의 극
초음속기를 제작하여 한번에 1000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 나름대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1970년도 이후부터 SST다, HST다 등 초 스피
이트 초거인기의 출현에 의하여 1958년 세계의 항공계가 제트기에 의하여 그
면모를 일신케 된 이상의 수송혁명을 일으킬 것이 확실하다.

현재 미국의 F4 팬텀기나 콘베어 F-106, F-104 등은 마하 2를 넘고 있으며 소
련의 MIG-21과 최근 취역한 MIG-23은 마하 3 이상의 속력을 갖는다고 전해지
고 있다.

이와 같이 항공계는 마하 2, 즉 음속의 2배나 넘는 초음속기의 시대로 접어
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민용이건 군용이건 간에 이와 부수하여 초음속기와 항공의학
의 연관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 초음속기의 의학적인 문제점

1. 기내 가압장치 고장 시의 대책

현재 장거리 제트기의 순항속도는 1만미터 전후, 초음속기의 경우는 2만 미
터 전후가 되겠는데 양자의 경우 이와 같은 고도에서는 상온으로는 체액의
비등점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 고도 이상을 나는 전투기들은 꼭 가압(또는 여압) 비행복을 착용
하며 기내 가압(또는 여압)장치 고장에 대비하고 있다.

민용 초음속기에 있어서는 가압장치 고장 시에 승객 이 생존할 수 있는 상태

로 조종사가 조종능력을 급격히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군용 전투기에서 보다 간소한 가압복의 개발 사용이 요구되며 가압호흡의 보조장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용 초음속기가 실용화됨에 따라 기내 기압은 고도 1,800미터 이하로 하고 현재의 아음속기의 기압유지법보다 우수한 방법을 택하여 승객들의 저산소증과 감압증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그에 관한 연구 개발이 좀 더 활발해야 할 것이다.

2. 충격파

초음속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는 마치 지상에서는 우뢰나 천둥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곧 소닉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생긴 충격음파는 지상에 도달하면 생물체에 큰 피해는 물론 건물을 진동시키고 벽을 파괴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아직 이것에 관한 정확한 연구진전이 없으며, 연구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3. 우주선 각종 방사선 및 오존의 문제

초음속기 위 비행고도에 서는 오존의 농축에 의하여 기관지자극증상을 일으키기 쉽다. 또한 은하계로부터의 우주선과 2차 우주선의 영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콩코드기의 경우 그 조종실에는 시시각각 기록계에 의하여 이들이 기록되고 그 방사선의 영향이 강한 경우는 고도를 낮추어 방사선의 강도를 내리고 있으며 방사선이 강한 북극을 도는 비행 시에는 특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이 속도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태양은 외관상 지구적도의 주위를 시속 약 마하 14(1,700km)로 일주하고 있다.

마하 2의 초음속기로는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날면 태양을 추월하여, 태양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게 되고 시간은 정오에서 아침으로, 어제에서 오늘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승무원, 여객의 피로와 함께 큰 문제 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일본의 항공사고에 관한 연구실태와 그의 항공의학 개발현황을 살펴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진 우리나라 학도들의 연구에 도움과 참고가 다소나마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한다.

일본 항공의학 실험대의 연구 대상을 간추리면,

(1) 항공사고의 인적요인

(2) 항공 건강관리

(3) 구명 장비품

(4) 항공 인간공학의 4부분이다.

○ 항공사고에 관한 연구

1965년 항공자위대 항공 의학 실험대가 중심이 되어 과거 20년간의 세계 주요 항공의학 및 심리학적 견지에서 발표된 항공사고의 문헌을 집록하였으며 분류항목은 항공사고 일반, 통계, 사고요인, 긴급탈출, 항공사고 병리 및 창상, 비행안전, 구난 및 구명, 개인장비품에 관한 것으로 수록 논문 수는 2,139편.

(1) 항공 종사자(특히 조종사)의 의학, 심리학적 특성(스트레스, 피로, 착오, 생활시간) 사용약품, 연령에 따른 기능 변화

(2) 항공안전에 관한 인간공학적 연구

조종자의 심리적 변화, 조종동작의 응답특성, 조종사 시계동태, 조종감, 이륙시의 유효표시 방법.

(3) 항공 종사자(특히 조종사)의 적성검사 기준

(4) 비행안전상의 인간공학적인 체크리스트 작성

(5) 조난시 혹은 긴급시(화재, 동사, 기내 가스발생) 피해를 최대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의학적인 조사연구.

(6) 통신과 인간공학적 연구

조종석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 신호와 잡음의 대비, 해독율과 조종사의 피로와의 관계, 음성통신의 착오점 등의 검토 연구는 비행안전상 극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의학계의 주요과제로 남아 있다.

○ 건강보험에 따른 문제점

일본의 경우는 이미 각 기종별로 피로조사가 실시 완료되었다.

현재 자체 조사법 위를 확대시켜 특별 조사의 방법으로 정비관계 요원들에게도 실시되었고 시설 및 급양분야의 개선에 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저온 저압장치, 원심력 실험장치, 순간 감압장치의 완성과 함께 이상항공환경과 생체와의 관계가 여러면에서 뚜렷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의 성과는 항공생리훈련의 실무와 항공사고의 인적요인 분석에 폭넓은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산소중독 「테레-미터」에 의한 비행중의 생체현상,

일본 최초의 충격장치에 의한 생체충격실험, 공중방사능 물질의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여타의 연구와 함께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 인간항공의학

인간공학은 인간의 특성과 항공기의 특성을 결부시킨 접합점의 연구학문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항공기의 조종석 구조, 조종방식, 계기 및 경보의 인간공학적 연구와 항공기의 비행항공조사 등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 연구되어 왔다.

또한 조종자의 작업자세별로 나눈 동작분석, 조종관속과정 등이 살펴지고 있다.

이 이외에도 연구 대상으로는

항공용어(영어)의 오청과 신뢰 성에 관한 연구, 반향실(소음환경실)의 완성에 의하여 소음부하시 음성학적 분석과 항공사고시 남긴 「테프」에 담긴 조종사의 육성으로부터 개인식별과 음성분석에 의한 불명통신의 해석 방안 등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

○ 구명 장비품

1962년 F-104 전투기 승무원들의 가압복 제작을 위해 일본인 조종사의 생체 측정에 의한 기준치를 도출해 내었다.

구난시의 내한 내수복의 개선, 소음보호구, 「씨트킷」조립 관계부분의 개량, 가스 마스크의 개량 등을 보았다.

참고로 일본 항공실험대의 면구실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고도 15,000미터, 거리 18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항공기로부터 생체정보(심전도, 맥박, 호흡, 뇌파 등) 계속
- (2)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측시적 체중 변화를 기록
- (3) 시계추적기의 개발과 조종사의 시계추적
- (4) 뇌파의 전화반송과 전자계산기에 의한 온 라인 해석
- (5) 순간 감압장치, 충격실험장치, 공간식별 실험장치의 개발

○ 항공의학의 장래

현재 일본항공의학계가 보고 있는 주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인적요인에서 본 공중충돌 방지
- (2) 긴급대처시의 심.신 반응
- (3) 항공관제관의 정보전달능력
- (4) 항공사고시 인적요인의 전자계산기에 의한 해석 분석
- (5) 항공임상 심리법의 개발
- (6) 조종사의 전자계산기 사용에 의한 자동건강관리
- (7) 조종사의 전리방사선 피복 측정
- (8) 각종 구명복(여압복, 내한내수복)의 개발
- (9) 공간식별능력 상실(야간 운중비행시 위치의식 상실 등)에 대한 연구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항공우주의 학회가 1968년 「프로리다」, 1969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의 항공우주학자들의 열띤 토의를 벌였었다.

이 자리에서의 주된 테마는 다음과 같다.

- 1) 항공우주환경 (저압 산소와 헤리움환경, 무중량, 방사선, 조단파, 장기생활)과 생체, 우주에서의 생명유지계.
- 2) 초음속기의 환경제어.
- 3) 공중수송병원
- 4) 대서양 횡단 헬리콥터에 의한 항공 의학적 조사.
- 5) 항공 중 및 우주유영 시의 심장혈관의 생리.
- 6) 아폴로 유인비행의 생체 정보측정, 심박 출 량 및 호흡치의 온라인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등.

○ 국방의학의 정의와 그 문제점

국방의학이라든가 방위 의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 일가?

첫째, 국방과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방 분야에 있어서 국방의학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 볼 때, 역시 국방 그 자체가 인적인 것으로 구성된다는데 그 존재의의가 뚜렷해지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인적요원이 항시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여야만 최대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궁극의 목적하는 바는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상태를 항시 훌륭히 유지시켜 우수한 인적 전력을 개발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 국방의학은 평상 일반적인 의학과 그 처치상황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즉 단체 내지 조직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사라면 백사람의 환자가 있을 때 이를 일일이 살펴 치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의는 인과 같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국방의학에서는 그 상황이 매우 다른 것으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 예로 태평양 전쟁당시 동경이 대 공습을 당해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했을 때, 바로 피난지역 부근에 두 병원이 있었다고 한다.

한 병원의 원장은 대학 조교수를 그만두고 개업했고, 한 군데는 야전병원 근무를 마친 예비역 군의관이 차린 병원이었다 한다.

전자의 환자 취급 방법을 보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살펴 수술할 것은 하고 기타 응급치료를 요하면 이를 행하고 끝까지 환자가 한사람 죽을 때까지 시술 투약을 계속하였다 한다. 그 병원 문전은 환자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후자의 병원의 경우는 그 원장은 우선 환자 취급에 있어서 치료해서 살 수 있는 환자와 살 수 없는 환자를 즉석에서 판단 가려내어 따로 분리 치료했다고 한다.

환자분류에 의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한 환자의 치료시간에 뒤이어 죽어 가는 수많은 환자,

더욱 불치의 환자를 치료할 시간에 뒤이은 희생자들의 수를 구할 수 있는 유능한 의사의 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클래시휘케이손」을 순간적으로 판단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위의 예는 한 의사가 우수했기 때문에 수백 수천의 환자를 돌보아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6·25 당시 미국은 전선 부상병들을 8시간의 수술을 거쳐 일본에 후송 치료하였다.

이때 수술시간을 견디고 살 수 있는자들만 판단 처치하였다고 한다.

이 경우 두뇌가 직접 전선에서 활동하는 셈이 된다. 이 두뇌가 방위의학에 서는 제일 필요

한 것이다.

즉 다수의 사람을 순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능력의 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국방의학은 모든 것을 전력과 연관지어 전력으로서 가용적인 것부터 우선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바로 조직체, 집단관념에 의한 사고방식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전체를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며, 군대 내 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시켜 국가비상시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나오는 결론인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의학적인 모든 응용방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 군의관 전체의 자질이 문제가 될 것이다.

개개인을 놓고 볼 때는 우수하나, 마치 올림픽 출전선수의 종합 평점에서 나타나듯 전체적인 수준이 오르지 않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무용의 것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 볼 때 군진의학

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개인의 치료위주의학에 집단치료의학을 합한 것과 같으며, 세부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매니지먼트의 기술을 요하고 있다.

가령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면 보통의 의사가 하는 것과 전체를 통괄하는 매니지먼트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에 각자의 소양증진이 요구되고 있다.

평시 그러면 군진의학은 어떠한 연구를 하여 왔는가.

이 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여하튼 평시에 비상시에 대비한 실력을 배양치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일단 전쟁이 터진 뒤 허둥지둥 실물연구에 모든 심혈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이는 평시의 일부분만 같지 못한 것으로 평소부터 알차게 본질적인 실력을 기르는데 연구를 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는 자위대에서 하는 재해활동이 있다.

또 미국 같은 나라는 이러한 가상훈련에 막대한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제2차 대전시 사용된 광도급의 원자탄이 투하되었을 경우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도로폭, 교량의 내구성, 차량수, 인간의 행태,

이에 따라 교통상태가 어떻게 진전 변형되어 가는가 등등을 예의 검토, 연구해나가고 있다.

군진의학은 그 자체가 좋은 실험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매일의 생활을 일정한 형식 속에서 영위하고 있는 군대라고 하는 대집단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기초적인 요소를 추출 연구함에 있어서 제1의 조건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 대비한 연구는 세계 각국이 예의 검토, 연구중인 것으로 가까운 예로 일본 자위대의 항공의학 실험대의 연구시설, 요코스카의 잠수의학실험대 등의 시설과 연구 활동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견까지 있다.

즉, 만일 전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UN과 같은 방대한 기구가 계속 생길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지진 등 천재지변, 대재해가 따르는 것이요, 이럴 경우 이를 유기적으로 처치, 구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바로 그 조직 그 자체의 힘밖에는 도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 각국별로 살핀다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란 군대 밖에는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면 군진의학의 발달과 그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전쟁 수행시는 이러한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평시의 경우는 경험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쉬운 예로 철모를 들어보자.
이 철모는 일·로 전쟁 때만 해도 실전에 쓰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전사자들을 살펴본 결과 두부에 충상을 입어 전사한 사람이 많음을 발견케 되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이러한 피해로부터 인명을 구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하고, 철모를 만들어 정면에서, 또는 측면에서 소총을 쏘아 그 반사경도, 치시울(관통울) 등을 연구케 되었다. 이러한 예는 평시의 조직적인 연구,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 말기 에페드린이라는 불면홍분지속제가 있었다.
이 약이 생기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당시 남경 폭격에 나갔던 파일럿들이 장거리비행인 관계상 귀로에 졸다가 포격도 안 맞았는데도 추락하곤 하는 사태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돌아올 때까지 잠을 안 자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 끝에 이를 개발 복용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본 바 이러한 모든 활동이 곧 전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력 유지에 국방의학의 본분이 존재하는 것이라 하겠다.



보잉 737의 새얼굴

콘코드에 관한 내일의 꿈
-80년대에는 지구상을 1일 왕복권으로-

탄생

코드 SST의 태동은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제1시대의 제트여객기」가 등장한 후 전투기가 마하 2 정도를 겨우 유지할 즈음이었다. 기술자들의 머리에는 어느덧 일반여객을 초음속으로 수송하려는 생각이 싹텄던 것이다.
이 싹은 드디어 영·프 양국의 「공동개발협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형체를 정리하게 이르렀다. 그 이름조차도 콘코드(협조:協助)라

고 명명하여, 초음속여객기가 정식 계획으로서. 발족한 것은 이 협정조인의 날, 1962년 11월 29일이다.

이에 의하여 기체의 설계와 개발은, 불란서측 슈드사(현재의 SNIAS사), 영국측은 BAC사가 담당하며 엔진은 불란서측이 SNECMA사, 영국측은 부리스틀·시드 테사(현재의 롤스로이스사 부리스틀사업부)가 담당하기로 되었다.

콘코드 SST는 당시 그야말로 「대담한 야심적인」계획이었다.

초음속이라는 점에서는 전투기에 전례가 있어 제트여객기도 이미 취향해 있었다. 그러나 「초음속 여객기」는 기본적인 전연 새로운 분야이며, 많은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었다.

예를 들면 같은 마하 2의 속도에도 운용기는 계속 시간이 짧다.

그러나 콘코드는 이 속도를 거의 3시간에 걸쳐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기체와 엔진은 그간을 가열이 계속되므로 여기에 견딜만한 구조와 재료가 아니면 안 된다.

더욱 소요되는 페이로드는 전투기를 훨씬 상회한다.

또한 장시간의 항속성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총중량은 마하 2의 전투기보다 훨씬 크다.

반대로 그 만큼의 크기와 중량을 갖는 항공기에 음속의 2배라고 하는 속도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엔진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아주 새로운 기술 분야를 개척하는 일이다.

기대하던 최초의 비행

또 하나는 기체 가격면에 있어서 절대로 비싸서는 안 된다.

군용기와 달라서 SST의 구입비는 민간시장에서 받아드려, 운항비는 다른 항공기나 교통기관과 경쟁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경제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비싼 상황을 갚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참아 나갈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만 한다.

콘코드의 경우에는 30,000비행시간을 보증하기로 돼 있으나, 이것을 확보하기에는 장기에 걸친 팽대한 복잡한 구조, 강도, 테스트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상용기로서는 가동율이 문제된다. 높은 가동율을 유지하기에는 지상 정비에 손이 걸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성에 관해 서는 군용기 보다는 훨씬 높은 보증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지의 요소가 다소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모든 계통, 모든 장치, 모든 계기에 대하여 100%의 신뢰성이 필요하며 특정한 것은 2중, 3중의 웨이루세프장비로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기타여객기로서의 피적성이나 소음의 문제 등 콘코드 전에 부딪치는 애로는 너무나 많다.

이 때문에 당초의 설계도 개발이 진행함에 따라 변해갔다.

원형기와 양산기(量産機)간에 상당한 차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며, 현재의 양산형 사양이 최종적으로 굳어진 것은 1969년 7월이었다.

그동안 개발비도 당초의 계획보다는 훨씬 증가하였다. 설계 변경에 따라 테스트 항목도 늘어났으며, 인프레나 평가의 절하가 있었던 때문이다.

현단계에서는 원형기, 전양산기, 지상테스트기를 각 2기씩과 올림파스 엔진 60기여를 제조하여 지상테스트용 주요 장비품의 제작, 비행테스트 및 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개발비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발비는 영·불 양국이 균등으로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양 정부가 공히 장래 어느 정도까지 회수될 수 있을 것인지의 확실한 판단은 없다. 채산을 도외시한 계획은 그만큼 양국외 「국가의 위신」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광과 기제를 가지고, 최초의 원형 2기는 1964년의 설계사양에 따라 건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7년 말에 불란서측의 001이 완성하였으나 각종의 주행테스트와 개수에 시간이 걸려, 최초비행을 한 것은 1년 3개월 후의 일이었다.

비행 테스트

6단계의 기본테스트

콘코드의 원형기는 지금 001의 남·불(南佛) 쓰루스에서, 002가 영국 남부의 웨아호드에서 기본테스트의 최후의 손질에 바쁘다.

이 비행테스트가 시작된 것은 2년여 전 1969년 3월 2일에 001가 최초 비행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4월 9일에 002가 비행한 때부터이다.

그후 10월 1일에는 001이 마하 1의 음속에 달하였으며, 또한 1970년 11월 4일에는 마하 2를 넘었다. 그리고 현재 원형 2기의 「기본 비행테스트」는 드디어 최종단계에 이르렀다.

이 기본테스트는 고충빌딩을 건조할 때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급후의 실용면에 주안을 둔 테스트를 위한 항공기로서의 특성과 안전성, SST로서의 성능확인이 그 주요한 목적이었다.

이제부터는 그 토대 위에 「초음속 여객기」라고 하는 빌딩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 2년여의 기본테스트는 6단계로 나누어지며 엄밀한 공정에 따라서 진행돼 왔다.

제 1단계는 각 원형기의 비행특성 의 테스트가 3개월로서 종료하였으며, 그 후 1개월여의 지상점검을 받았다. 제 2단계는 마하 0.93까지의 아음속비행, 실제로 기체, 엔진이 다같이 양호하므로 마하 0.93까지 기록되었다. 제 3단계는 천음속(遷音速) 테스트이다.

오린퍼스 593-1을 파워업한 593-2A로 확장한 001이 처음의 초음속에 달하여 최종적으로는 마하 1.56을 기록하였다. 이 단계에서 특히 주목된 것은 하중배수 12G 정도의 강체구조를 갖는 전투기와 달리, 2.5G의 경량탄성 구조를 갖는 콘코드의 홀라터 특성이었다.

홀라터현상은 아음속에서 마하 1.5까지의 속도 범위에서 일어난다고 돼 있으나 002는 이를 확인하여, 더욱 양호한 반응을 표시하였다.

제 4단계는 마하 2까지의 초음속테스트, 이 단계에서도 테스트는 아주 호조이며, 작년 11월에는 양기 모두 어려움 없이 마하 2에 도달하였다.

테스트는 그대로 제 5단계로 들어가 마하 2의 연속비행(약 1시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략 3개월을 경과하는 즈음 001에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71년 1월 26일 마하 2에 가속된 001의 엔진 공기 취입구의 조절 도어가 파괴되어, 그 일부가 엔진속으로 들어갔다.

기체는 난기류에 들어간 것처럼 요란한 진동을 일으키고 제 4엔진의 이상을 알리는 경보램프가 점등됨으로써 1발이 정지되었다.

001은 나머지 3발만으로 무사고로 귀착하였으나, 그 후 2개월여에 걸쳐 001~002의 조절도어의 보강공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사고의 원인은, 아프다바나의 폐지에 의하여 일어난 엔진의 사정이었으나 양산형에서는 이와 같은 이상 사정을 일어나지 않게끔 개선되고 있다 한다.

또한 「이 사고는 엔진이 마하 2에서 돌던 고장이 일어나 작동을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조종성에는 하등의 곤란도 없음을 실증하였다.」고도 한다. 수복된 001은 002와 같이 4월부터 비행을 재개하였다.

제 4단계의 테스트이다. 내용은 저속시와 고속기의 이상상태에 있어서의 테스트이다. 예를들면 마하 2에서 날면서 4기의 엔진을 갑자기 줄라매는 4발 정지 테스트가 바로 그것이다.

즉 「콘코드는 마하 2에서 수평 직선 비행이 될 뿐 아니라, 급격한 조작도 가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때까지의 비행시간은 2기 합하여 약 450시간. 그중 110시간이 초음속이며 비행회수는 220회이었다.

원형기에 의한 테스트

이와 같은 기본테스트에 의하여 2기의 원형기가 개발한 실증 비행범위로 다음과 같다.

최고도~17,600m	최소속도~18.3도
최대마하수~2.075	최대이륙중량~152,500Kg
바퀴내림속도~275Kt	엽바람착륙~16Kt
기수를 올린 속도 5도~405Kt	이착륙시의 CG범위~51.5~53.0%
12도~270Kt	비행중의 CG범위~51.1~58.5%
17.5도~275Kt	

최고속도는 17,600m—노선 취항후의 양산기도 이 부근에서 취항비행을 하기로 돼 있다.

최대속도는 마하 2.075 최종적으로는 전 양산형이나 양산형이 마하 2.35까지의 테스트를 한다.

이륙중량은 최대 152,500Kg, 이륙속도는 현재 200Kt로 지면을 벗어나고 있다.

또한 착륙속도는 중량 104,300Kg에서 157~160Kt. 착륙 조작은 결코 곤란하지는 않으나 익숙하지 않은 파일로트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수초 빨리 접지할 수가 있다. 이는 눈의 위치가 활주로면에서 15m나 높았던 때문이다.

또한 기체가 지면에 가까워지면 강한 지면 효과가 느껴져 기수가 내려간다.

횡풍(橫風)착륙은 풍속 16Kt까지 행하여 졌다.

최종적인 형식증명에서는 30Kt의 횡풍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콘코드의 횡풍 착륙도 조종 기술상에서는 델타익의 아음속기와 하등 다른 점이 없다.

고속비행중의 엔진정지테스트는, 편측(片側) 2발을 세워도 문제는 없었다.

초음속에서 엔진이 고장 나면 단지 속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요잉(한쪽으로 흔들림)이 생겨서 타의 엔진공기 취입구의 기류를 흔들게 하며, 그 엔진의 불을 꺼트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위구마져 있었다.

그러나 1발 정지하였을 때는 방향타도 꾸부린 것만으로 충분하며, 편측 2발의 경우는 8번 꾸부리면 되는 것이 명백해졌다.

특히 원형기에는 방향타의 자동 콘코드장치가 있어, 이것이 고장된 엔진의 주력저하를 감지하여 방향타를 조절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에는 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마하 1.8에서 1발 및 2발의 정지 테스트를 한적도 있으며, 양산기에서는 불요한 것으로 돼 있다.

콘코드의 조종성은 극히 좋다.

BAC사의 주입 테스트 파일로트는, 지상 100m의 얇은 구름을 활주로의 중심선에서 2.5Km 정도의 곳에서 빠져 나갔으나 그대로 S자형의 변화가 있었을 뿐 착륙을 할 수가 있었다.

연료이동에 의한 CG(重心位置)트리프의 조정도 호조. 양산기에서는 이것이 자동화될 예정이다. 002의 경우, CG는 보통 53%의 위치에 조절해 있으며, 상승중에는 57%로 이동한다.

초음속 비행에서는 57%와 58%에서 테스트가 행해졌다.

기체의 각은 18.3도까지 테스트하였다. 이륙상승중의 각도는 최초의 1분간이 16~18도. 거기서 서서히 내려 8~9도이다.

7기의 콘코드

콘코드 원형기에 의한 이와 같은 테스트는, 원형기의 비행특성이나 성능을 명확히 한 것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양산기의 성능을 추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산기와 원형기는 엔진이 다르며, 기체의 형상 및 크기가 다르다.

예를 들면 양산기의 페이로드/항속성능을 주장하는 경우 원형기가 단순히 구간을 날으며 연료소비율을 조사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충분히 안정한 기류중에서 일정한 고도와 속도와 자세를 유지하면서 공력적인 항력, 엔진추력, 스로틀 일정시의 연료소비율 등 정확한 데이터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상의 레코드에 기록된 무수한 데이터는 컴퓨터로 체크되어, 안정한 비행에 의하여 얻어진 데이터인가를 확인한 후에 분석된다.

이 분석용 컴퓨터의 프로그램은 양산기의 기체형상이나 양산엔진의 추력연료 소비율 등을 근본으로 하여 원형기의 실측치(實測値)에서 양산기의 성능을 알아낼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하에 행하여진 원형기의 테스트에서 양산기의 보증 성능이 산출되었다.

실제에는 001과 002의 데이터 간의 차이도 적으며, 추정의 결과는 제법 확도

(確度)가 높다고 한다.

이 결과는 새로 전양산형 2기와 양산형 3기에 의하여 추증된다.

SNIAS사에서 제작중의 02가 1972년 봄에 진공한다. 02의 기체형상은 공력적으로 양산형과 아주 동일하며, 엔진도 새로운 TRA 노즐을 붙인 올림퍼스 602를 장비한다.

이 02를 사용하면 원형기에 의하여 추정된 양산기 성능의 거의가 실제로 확인될 것이다.

동기(同機)는 또한 에어라인(항공회사)을 위해서 플라이트 메뉴얼(비행규정)의 작성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최후에 1972년 말에서 73년 봄에 걸쳐서 3기의 양산형이 테스트에 참가한다.

이들의 양산기는 보증 성능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실증하여, 형식증명을 받는다. 또한 약 1,500시간을 소비하여 에어라인과 같은 조건에서 노선비행테스트를 행하게 되어 있다.

또한 양산형 3기는 테스트 비행 후 최종 확인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 양산 18, 19, 20호 기로서 탄생 될 예정이다.

이 동안 기본테스트를 마친 원형기는 001이 기내 체계통의 테스트, 002가 엔진의 개발테스트와 속도시험을 한다.

이 와같이 해서 7기의 콘코드에 의한 비행 테스트는 금후 새로 3년 만에 걸쳐 계속되지만, 총비행시간은 아래와 같다.

콘코드의 기체별 테스트 비행예정 시간

원형 001 (불) ~ 560시간	양산형 1 (불) ~ 340 "
002 (영) ~ 526 "	2 (영) ~ 330 "
전양산형 01 (영) ~ 635 "	3 (불) ~ 1,050 "
02 (불) ~ 410 "	합계 3,851 "

성능 메이커측의 보증성능

콘코드 SST가 에어라인의 요구성능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평소의 문제점이었다.

확실히 페이로드 25,000lb(11,340kg)을 싣고, 파리←→뉴욕간을 마하 2.2로 비행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메이커측은 지금 원형기의 호조한 비행테스트로서 억지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이르렀다.

BAC와 SNIAS의 제안하는 보증성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4년 가을 취항당시 콘코드는

파리 ↔ 뉴욕간을 최소한 20,000lb 9,100kg)의 페이로드로서 겨울에 앞바람을 맞으면서 무착륙으로 비행된다. 그리고 1976년 초에, 엔진출력의 향상하는 양산 41호기에서는 페이로드가 25,000lb로 증가한다고.

이 비행에는 물론, 예비 연료도 신지 않으면 안 된다.

예비연료는 진입미스, 돌아가는 항로 공중대기(고도450m, 속도 250kt), 계기 진입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30분간을 계산하고 있으며, 속도가 빠른 카테고리 III의 자동 착륙성능을 향한 콘코드의 경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또한 이들의 수치는 메이카가 에어라인 각사에 보증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성능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테스트의 결과에도 이를 상회하는 성능이 추정되고 있다.

그것은 파리 ↔ 뉴욕간의 취항 당초의 페이로드가 24,000lb(10,900kg)이 될 것이라고 한다.

즉, 거기까지의 성능을 예상하면서 기체대로의 중량에 ±(플러스, 마이너스 4,000lb (1,800kg)의 바락기가 있다고 해서, 최저 보증치를 20,000lb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반대로 가장 조건이 좋은 경우는, 28,000lb(12,700kg)의 페이로드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정기편(定期便)의 37%는 마하 2.2%

1976년의 보증페이로드가 5,000lb(2,270kg)증가한다는 것은 이것을 연료탑재량으로 계산하면, 항속거리가 250-270km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렇다면 파리에서 와싱턴까지 날 수 있으며, 런던에서는 테트로이트나 토론토까지 날 수 있다.

그리고 뉴욕까지라면 후랑크홀트, 함부르크, 쥘리, 코펜하겐 등의 구주 각지에서 단숨에 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파리 ↔ 뉴욕 간을 3시간 40분으로 -

이와 같은 성능을 갖는 콘코드양산기가, 파리에서 뉴욕으로 날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 활주로의 길이는 현상만으로 특히 문제되는 점이 없다.

상승속도는 250kt. 소음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도 300m를 넘어선 곳에서 아프다바나를 짜르고 속도 250kt로 매분 150m의 상승율을 보지한다.

고도가 900m가 되면 400kt로 가속. 또한 1,500m에서 엔진을 최대 연속출력으로 가속 상승으로 옮긴다. 이 때의 기체의 상승율은 최대 3,000m/분, 통상에

서 2,400m/분이다.

고도 8,000m 가까운 곳에서 다시한번 아프다바나에 접화된다. 기체는 단숨에 음속을 돌파하고 12,800m에 달하면 아프다바나가 잘라진다.

콘코드는 보다 더 가속하여 1,000km부근에서 마하 2~2.05의 순항속도로 들어간다. 이 때의 고도는 15,800m이다.

비행기는 그로부터 뉴욕까지 대권(大圈) 코스에 들어가, 전부를, 거의 5,500km을 비행하지만, 바람의 영향은 거의 없다.

이 고도에서는 바람의 강도가 비교적 얇을 뿐 아니라 콘코드의 실질적인 속도가 큼으로 제트기류가 뒷 바람이나, 앞바람을 막론하고 그다지 문제 되지 않는다.

따라서 SST의 경우는 언제나 대권 코스를 택하는 것이 최량으로 돼 있다.

꿈의 실현을 위하여

—이미 기초는 마련됐다—

콘코드의 개발은 1962년 가을 발족 이래 「대담하고, 야심적인」 계획에서 현실적인 계획으로 성장해 왔다.

물론 전도에는 허다한 장애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가장 곤란한 문제이며 콘코드의 성부는 관건이 되었던 페이로드/항속성능이 에어라인측의 요구에 응하게끔 이르고 있다.

이 「개량형 콘코드」는 대략 1975년까지 설계가 굳어져 개발생산이 결정되면 1980년까지 완성될 것이다.

또한 또 하나의 생각은 아주 새로운 설계 개발이다.

이 SST는 새로운 초음속용 타보웬·엔진을 장착하여, 스틸이나 치타늄 등의 구조재료를 생산하여, 개발 중지된 보잉 SST 이상의 크라스를 노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도 1980년대 후반에는 실현가능 한 것이 될 것이다.

전후 얼마 되지 않아 대양횡단형의 장거리 여객기가 출현하여 모든 사람들은 대륙간을 1일 이내에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시간거리」는 드디어 제트 여객기의 취항에 의하여 10시간 이하로 단축되어, 또한 SST의 성공에 의한 점차 반으로 단축되어 가고 있다.

콘코드 안내서의 최초의 페이지에 보면 초음속 여행의 꿈—「정적 속에 음속의 2배를 비행하는 쾌적한 여행. 지구상의 제약무리 먼 곳이라도 하루에 왕복할 수 있다…」 이러한 날은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없을는지…?



세계가 발전한다고 함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한국에서만도 매학기마다 수십명씩 박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새롭게 지식의 세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말한다.

현대의 몇년간 팽창한 지식의 폭은 과거 몇십년 몇백년에 해당하는 실로 놀라운 발전이다.

인간의 지혜가 우주 속까지 파고들어 가는 경지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아직도 인간에게 있어서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그날과 그 때이다. 이 죽음이라고하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인공 위성을 조정하여 달나라에 가는 우주 조종사도 수백수천 개의 부속품을 알고 조정하지만 자기 생명의 끝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죽음들 때문에 생겨나는 비극과 불행을 우리는 주변에서 본다.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 자체가 인간에게 비극이지만 그 죽음의 순간을 모른다고 하는 비밀 때문에 그 비극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그러므로 성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후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는 즉 깨어서 준비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또한 죽음의 그 때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이요, 인생의 총결산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절실한 문제가 따르게 된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군종코너>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준 종교이다. 어느 때 어떤 순간에 찾아오더라도 그 죽음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세계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긴 승리자요 영생과 부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사는 자는 죽음이 결코 위기가 될 수 없다. 또한 진리와 자유와 사랑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행동하는 기독교인은 “그 때”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되므로 그 죽음의 순간이 어느 때 오더라도 정죄받는 심판이나 책망받는 결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죽음의 위기를 준비하고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간의 문제”로 귀착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에 문제의 열쇠가 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믿음에서 죽음은 극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죽음 앞에 그 생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문명한 새 세계에 대한 희망 가운데서 충실하고 생동하는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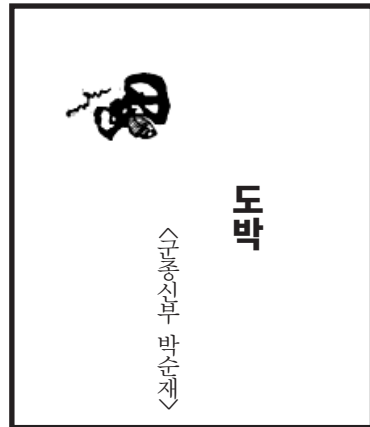
그런데 위기의 순간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있고 민족과 국가에도 있다.

한일합방, 6.25사변, 4·19의거, 5·16혁명 등은 민족과 국가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1970년대를 북괴와의 관계에서 위기로 내다보고 있으며 안으로는 경제성장과 함께 빚어진 빈부의 격차, 퇴폐풍조, 부정부패, 외국차관, 대일관계 등의 문제점을 위기의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위기의 순간이 언제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밖으로부터 뻗히는 붉은 마수의 축수가 언제 거동할지 모르는 이 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안의 상처가 언제 심장을 멈출지 모르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각적인 자주국방의 모색, 서정쇄신, 퇴폐풍조 일소화 운동 등이 모두 필요한 준비 작업이라는 데서 희망을 걸어본다. 그러나 여기에도 진정한 해결의 열쇠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안에 있는 그림자는 암흑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

<군종코너>

가 밝힐 수 있으며, 밖으로부터 오는 붉은 세력도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환난, 핍박, 기도, 위험, 같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 이 조국에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기로 삼고, 그 안에서 만전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다.



도박이라면 본격적인 놀음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으나, 요상이 흔히 「도리짓고 땡」정도를 연상하기 마련이다. 관습상 트럼프는 어린이들에게도 허락되었었지만, 얼마 전만 해도 화투는 어른들만의, 또 특수층의 놀이로 취급된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서민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대중오락화 했고, 더욱이 군인들의 오락 중 랭킹 제1위가 화투가 아닐런지. 화 투가 「꽃꽃이」, 「산수공부」 등의 애칭이 있는 것이 이 때문이지만, 특히 여기에 도박성이 가미될 때 스릴과 진미가 있다. 「나이롱뽕, 고스톱」이 그렇고 또 「섯

다」가 그러하다.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주당의 기분을 알 리 없고, 금연가가 꺾연(喫煙)하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이라면 「섯다」의 묘미탄 밤을 꼬박새는 정도의 팬들만이 바로 알 것임에 틀림없다.

신앙의 문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종교의 내용과 그 본질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만 신앙이란 역시 일상생활의 체험을 통해 체득하는 인간형 성이며 생활관인 것이다.

물론 인간의 본질적 면을 다루는 종교와 또 생활의 수단으로서의 오락이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섯다」의 생태가 이론에 앞서 경험을 전제하며 또 신앙이 지식 이전의 순수한 내면적 고백이며 인격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하는 말이다.

소설 「데미안」의 경우처럼, 신적인 것 「아프락사스」 과 악마적인 것의 결합인에 대한 가신앙(假信仰) 속에서 초월적 신을 부정하며 인간의지(意志)를 절대화 함으로써 종교의 영역인 궁극적 의문

<군종코너>

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얼마 전 영화 「스잔나」 「아빠와 함께 춤을」 또 소설 「러브 스토리」등은 의사의 진단 결과 죽음의 시각을 선고 받은 비극적 소재들이었다.

죽음을 향해 수명을 단축시키며 그 나머지 생애를 처절하리만큼 값지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왜 비극적일까?

이기적 자기중심의 생활이었지만 반복이란 있을 수 없는 그토록 귀중한 시간 이면서, 그 소녀가 왜 남을 위해 헌신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

너무나 순수한 사랑이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되지만 죽음의 운명 앞에서 그것이 과연 영속적 행복이며 희망이 되었을까?

확실히 인간의 생애는 투기이며 도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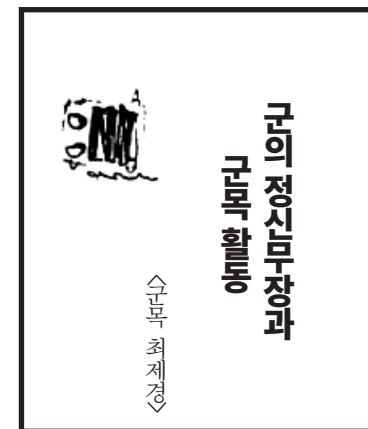
소극적 의미로 죽음을 직면한 순간의 순수하고 냉철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신적(神的)인 것이냐 또는 인간중심이나 일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죽음을 통한 미래의 세계가 계속되느냐 또는 현실로서 끝나느냐의 문제이다.

파스칼은 종교적 신앙을 갖는 것을 도박이라 하였다.

정와의 구현으로서의 상선별악의 진리가 현세로써 불가능하며, 한없는 욕망으로서의 사랑의 완성이 현생으로 실현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간의 의지는 절대적 가치가 안정되어야 하고 인간적 행위는 절대선으로서의 진전이지만 이것은 최종적 완성인 초월적 신에 귀결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다.

화투놀이가 군인의 여가와 불가분의 것이라면 1종교는 인간의 성숙과 완성의 길인 것이며, 화투 팬이 도박의 스릴을 맛보듯 신앙인들만이 그 희열을 체험하는 것이다.

신앙을 갖는 것은 도박에 비유될 수 없겠지만, 신앙이란 지식이나 설득 이전의 겸허한 고백이며 내면적 반응인 것이다.



서론

군대의 생활은 일반인의 생활과는 다

른 점이 많다. 그 생활의 양식이 다르고 또 지향하는 목적과 지닌 사명이 다른 것이다. 그 사명은 국가의 평화나 행복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최일선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볼 때 정신무장 강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력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바울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델 때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에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다. 특히 여기 갑옷이란 말은 정신무장 혹은 영적무장(Spiritual armament)을 뜻한다. 그런데 현대의 정신주의 운동에 속하는 것으로써 허다한 주의와 운동이 있었거니와 단순한 이론이나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생생한 힘 또는 원리로써 지금까지의 불순한 역사의 조류를 밀어 쫓고 나갈 강력한 정신무장을 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마음과 굳센 의지가 있어야 하겠다.

서구 기독교 국가 사람들은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봉사를 해야 만족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진실하신 예수님의 희생, 봉사의 정신을 배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진실한 선생이요 표본인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남을 위해서 사셨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 하셨다. 그들은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정신을 배웠다. 그래서 오늘의 영국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 이상을 한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한 공기 속에서 그러한 공기를 호흡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피터 수상은 지원병을 모집하게 되었다. 불과 수 주일동안에 백여만명이나 지원해와 나중에는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이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것이며 오늘날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실천에 옮기는 국민정신으로 된 것이다.

며칠 전 부대 정문에서 찰스·그레이(Charlie Gray)라는 미 공군소령을 만났는데 그는 항법사로서 밤낮 비행하기에 바쁘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그는 자신의 업무를 모두 끝내고 나서 또 남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했다. 그가 나에게 부탁하기를 “엔젠라 고아원의 창문 유리들이 깨어졌던데 추운겨울이 오기 전에 엔젠라 고아원의 유리를 끼워주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시면 같이 유리상인에게 가서 비용이 얼마나 들런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는 것이다. 그는 모범적인 장교요 교인이다.

나는 그에게서 임무에 충실하고 남는 시간은 봉사하고 일하는 정신이 곧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을 배웠다.

오늘날 군인의 정신무장에 있어서의 군종활동 중 사대업무는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종교 활동, 인격지도교육, 상담활동, 방문 그리고 개인의 신상과약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정신무장을 하는 일들이 있으나 필자는 그중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신 무장강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1. 전군 신자화로 정신무장

우리가 미국에 가보면 청교도(Puritan)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영국에서 살면서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신앙을 지켜가자는 정신무장을 한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들이 진정한 미국인들이요 선조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건국의 정신적인 기초는 청교도의 정신 바로 그것이다.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자기의 고국을 떠나 저 멀리 미국의 원시림 속에 들어가서 그곳을 피와 땀과 노력으로써 개척했다. 그들은 먼저 교회를 세우고 모든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 정치, 경제, 교육,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 땅을 개척하고 나라를 세우며 모든 문화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를 지도하는 자리에까지 이른 나라는 세계 역사상 매우 보기드문 일이다. 그것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통한 정신적 강한 무장의 불꽃이 오늘 미국의 문화와 생활에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세우고, 부흥을 일으키고 승공을 해야 살 수 있다.

미국 덴버(Denver)시 <미국 코로라도주에 있음>는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관광도시이다. 하늘은 우리 한국 가을같이 항상 푸르고 높다. 소낙비도 한 시간 이상 오지 않고 겨울에는 눈이 한국과 같이 많이 온다. 여름에도 높은 산상에는 눈이 산마루를 덮고 있다. 록키(Rocky)산맥에는 많은 곧은 나무들이 하늘 높이 솟았고 굵은 나무들이 부러져 땅에 그대로 썩고 있으나 누구 하나 가져가지 않는다. 주청 소재지인 덴버시에는 인구가 100만명인데 미국에서 21번째 큰 도시라 하는데 교회는 400개나 있다. 주일이 되면 모두 집집마다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각기 자기 교회로 간다. 교회로 가는 것이 문화생활인 줄로 알고 있다. 교회에 안 가는 집은 좀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이다.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마다 두차례 혹은

<군종코너>

세차레 예배를 보는데 교회마다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성대한 예배를 드린다. 필자는 미국 가기 전에는 미국교회는 모이지 않는 교회인줄 알았는데 많이 모이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다. 브라이언 윌슨(Bryan Wilson)이 쓴 종교의 사회(Religious Society)란 저서를 보면 미국사람들은 주일이면 전 인구의 45%가 교회예배에 참석한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의 예배인 동시에 국민의 교육, 문화, 도의, 정신 무장운동이며 애국운동이요 국민의 정신적 센터인 것이다. 우리가 산에서 절을 발견하듯이 그들의 산에서 피서객과 유람객들을 위한 교회가 많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민간교회에도 어느 교회나 제단 옆에 십자가와 국기가 비치되어 있다. 나라와 종교, 국민과 종교는 두터운 관계에 있다.

그런데 덴바에서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클로라도·스프링(Colorado Spring)이 70마일인데 10여차 갈 때마다 사관학교 교회에 들러 보았다. 지금은 우리 한국 공군생도 최, 김 두 생도가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공군사관학교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이다. 방문객마다 굉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건축비 500만불)을 보고 감탄하곤 한다. 그야말로 사관생도들의 영적, 정신적 무장 센터요 안식처이다. 윗층은 모두 기독교 샌크투어리(Sanctuary)로 사용하고 아래층은 천주교와 유대교가 샌크투어리로 사용하는데 전 생도가 예배시간에 참석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교회는 정신적 센터요 위안처이다. 그리고 군목의 수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그야말로 완전무결함을 느꼈다. 과연 미국군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종교를 통해서 영적 정신무장으로 강군을 이루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도 타군 모 부대 사령관께서는 기독교 신자로서 대대를 편성하여 보다 더 정신적으로 강한 군대를 이룩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따라서 전군 신자화로 강력한 최강 화대의 정신무장을 함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다.

1970년도 미국에서 캄보디아 사태 때 학생들은 정부반대의 데모를 했으나 열렬한 교회지도자 매킨·타이어 박사 같은 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Trust God)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공산주의와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공산주의와는 타협이 안 된다”고 대대적으로 시위운동을 하였다. 그 당시 모 신문을 보니 전 국민의 60%가 대공 강경제를 지지한다는 기사를 읽고 마음이

<군종코너>

든든하였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이 강한 반공주의자들은 성경의 근본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다.

2. 종교행사를 통하여 정 신무장

예배순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모두가 정신수양, 인격함양, 인간개조, 신앙무장, 보다 더 장병들에게 유익한 정신무장의 도장으로 알고 서로 권장하며 적국 노력해야 하겠다.

(1) 찬송

찬송은 감사, 격려, 기도, 간증, 고백, 사죄, 책임, 충성, 승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 예로써 찬송가 「풍우대작 할 때와(Jesus, Lover of My Soul)(282장)」는 단순하고 성스러운 신앙에서 우리나라 찬송인데 종교인만 아니라 모든 국가, 군인, 정치인, 학생, 사회의 모든 단체가 위기에 처해 있던 18세기의 영국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되었으며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사람을 위기에서 부축하여주는 감격찬 노래가 되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자기 자신은 물론 듣는 이에게 생각 밖의 큰 감명을 주는 것이다. 크롬웰(Cromwell)의 군대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성가를 부르며 진군하였다.

특히 우리는 찬송가 선택을 잘 해야 할 것이다.

(2) 성경봉독

성경은 세계에 있는 다른 모든 책들의 효용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공헌을 인류에게 하여 왔다. 어느 세계를 막론하고 성경은 진정된 문명의 선구자 노릇을 하였다. 죄악으로 인하여 암흑에 처했던 인류에게 참된 지식의 새벽을 고했던 것은 성경이었다. 수억만 노예의 멍에와 착오를 풀어준 것은 성경이었다. 위대한 자선가들과 박애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업에 일생을 바치게 한 것도 성경이요, 많은 병원들과 자선기관들이 성경의 교훈을 받들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군인들에게 많은 용기와 정신무장을 통하여 승리를 거둔 것이 성경이다.

(3) 설교

설교는 일상생활의 관계가 깊고 믿을 만한 실체문제, 즉 청결, 정직, 인내, 극복, 신념, 책임, 의무, 봉사, 희생, 권위, 충성, 애국, 사랑, 자살방지, 승리, 정신, 신앙, 용기, 복무, 군내의 문제, 종교, 공산주의 감사, 진리, 행복, 죄, 속죄, 회개, 중생 구원, 자유 등을 택하여 철두철미한 기독교 인생관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참된 자세를 확립

하고 경천애인의 정신을 함양함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4) 기도

세계 제1차 대전시 영국의 가장 유명한 앤드류대학에서는 1천불 현상을 걸고 기도에 대한 논문을 세계적으로 모집하였는데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또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영국은 1940년 5월 26일, 9월 15일, 1941년 3월 23일, 1942년 9월 3일, 1943년 9월 3일을 기도일로 선포하여 기도하였으며, 조지·워싱턴, 링컨, 넬슨 장군 등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서 기도함으로 장병들이 힘을 얻어 승리하였다. 기도는 그 어떠한 힘보다도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결론

제 2차 세계대전이 독일에서 종말을 고한 직후 어느 날 같은 점령지구에서 미·소 양군의 병사가 보초를 쳤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미군병사가 “우리 나라에서는 고마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당신네 나라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련병사는 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들은 위대한 동무 스탈린에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탈린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간단히 오고간 대화 속에서 하느님과

땅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완전무결하신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이고 스탈린은 불의의 악의 상징이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스웨덴의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너는 커서 무엇이 되겠니?” 하고 물으면 “자동차 타이어가 터져 고생하는 사람을 돕는 차 고치는 사람이 되겠어요” 혹은 “전기불이 꺼지면 전선을 수리하는 전공이 되겠어요”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통령, 장군, 국무총리 모두 높은 사람만 되겠다고 한다.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과만을 기대하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다.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가 전군 신자화로 전 장병의 인격을 신앙으로 무장할 때 개인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나 그의 정신과 생활은 아주 새롭게 변화되며 자기를 진정한 새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 더욱 나라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것이며 새로운 신념과 확신을 실천에 옮기게 될 것이다.

<항공실화>

동체 비상착륙수기

김영선 역
조셉 스토크 작

『과랑새 편대』

「브라우닝」중위는 학생들에게 외쳤다.

『고공으로 상승하여 대기하라! 연료 소모량을 최소로 줄이면서 순항을 계속하라』

그는 그들의 연료가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충분히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라우닝」중위는 급속히 「터어키」대위와의 비행 간격을 좁혔다.

「터어키」대위의 뒤를 쫓고 있는 그의 비행기 속도계는 시속 600마일을 조금 넘어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하마터면 그 고장 난 비행기를 지나치리만큼 굉장한 속도로 날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급히 속도를 줄이고 「터어키」 대위와 나란히 날기 위해서 그의 왼쪽 날개에서 2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잡고 비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고도를 유지 하라』

「브라우닝」중위는 소리쳤다.

『라아저』

「터어키」대위의 음성은 처음으로 힘이 있어보였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비행 속도는 얼마쯤인가?』

『300』

『속도를 줄여라』

『라아저』

『속도를 줄이겠다. 어느 정도로 줄일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줄이겠다.』

- < > -

1955년 5월,

해맑은 초여름 아침녘이었다.

「아리조나」주 「류우크」 공군기지에서 떠오른 한 조종학생은 조종간에 달린 기관총 「보턴」을 눌렀다.

그의 F84「전더 제트」전폭기의 묵묵한 기수로부터 「칼리버」50 기관총탄이 무서운 불꽃과 함께 발사되었다.

그는 남부 「아리조나」의 황량한 사막 12000「피이드」상공에서 비행기가 달고 가는 표적물을 조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표적을 맞추는데 실패하였다.

요기의 동체를 정통으로 뚫고 총탄은 지나 갔다.

그 제트기는 조종학생의 눈에 띄지 않는 전방 하부로부터 막 선회하여 사격 라인에 들어섰던 것이었다.

후에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것은 돌발적인 사고로서, 극히 보기 드문 일이었다.

제트 조종사가 요기에 발포한다는 것은 오직 전시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는 발생하였던 것이다.

제트전투기란 결국 과학자가 제트기를 발명해 낸 만큼의 모험적인 것 이상인 것이나.

이러한 모험적인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제트 조종사는 덜어질 수 없는 최소한도의 모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 바로 훈련의 뜻이 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특수한 사고는 그 직후의

긴장과 공포의 12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만 넘겨 버리면 그대로 잊어 버려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한 사람은 불멸의 용기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초인적인 침착성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공적은 전시 아닌 평시의 미 공군에 있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위대한 공적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소년티가 채 가시지 않는 깔끔한 조종사 「리차드 터어키」대위는 그날 아침 일찍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날 첫 비행훈련조의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의 아내 「버니」와 귀여운 세 자녀를 거느리고 「류우크」 공군기지에서 2, 3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굳이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행복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었다.

여섯 시에 그는 집안 식구들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집을 나와서, 일곱 시에 부대에 도착 그 날의 비행에 관한 브리이핑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제트 조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종에 있어서도 노력한 솜씨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종군한 바 있는 그의 비행시간은 2천 4백 시간을 넘고 있었다.

이날의 그의 임무는 공중사격 「공대공」훈련 교관으로서 비행하는 것이었다.

세 명의 조종학생과 편대장인 자기 자신으로 구성된 그의 마음속 F84 편대는 「류우크」기지 서남방 70마일 상공에서 비행 표적물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시속 500마일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동 표적에 대해서 규정된 횟수의 사격 패스를 한 다음 귀환토록 되어 있다.

「터어키」대위의 공중에서의 호출부호는 엘파인이었다.

그는 엘파인 편대장이었고 그의 편대원들은 엘파인 2.3.4번기였다.

이들 세 조종학생들에게 편대장인 「터어키」대위는 초면이었다.

그와 함께 비행하면서 교육을 받은 적이라곤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이들 세 조종학생들은 모두 상호방위 원조계획의 일환으로 잠시 「류우크」기지에 파견되어 있는 외국인들이었다.

이 계획이란 두 말할 것 없이 미국정부가 우방제국을 원조하기 위해 그들의 비행사들을 초청 각 기지에 분산, 훈련시키는 계획인 것이다.

<동체 비상착륙 수기>

오전 7시 40분,

「터어키」대위의 편대는 우렁찬 폭음과 함께 대지를 박차고 은익의 날개를 번뜩이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잠시 후 또 다른 F84 편대가 그 뒤를 이어 요란한 폭음을 뒤로 「류우크」 기지를 이륙하였다.

이 편대 역시 1명의 노련한 교관과 외국인 조종학생 2명으로 짜인 편대였다.

편대장인 이 노련한 조종교관은 「브라우닝」중위였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호남행인 그는 전형적인 텍사스 남아였다.

50년대 초에 공군에 발을 들여는 그는 아내 「케더린」과 두 자녀를 거느리고 기지 주변 관사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 가고 있었다.

「브라우닝」중위와 「터어키」대위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그러나 「브라우닝」중위는 「터어키」대위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당시 중군한 바 있는 실전 경험을 풍부히 쌓은 베테판 기록을 갖고 있었다.

이날 아침 그가 할 일은 그의 편대를 이끌고 저고도 대지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광막만 사막에는 전장을 방불케 하는 모의 탱크, 트럭 및 기타 병기들이 널려 있었다. 「브라우닝」중위의 호출부호는 블루버드 「파랑새」였다.

오전 7시 50분

「터어키」대위의 편대는 표적물을 단 비행편대와 마주치게 되었다.

늦봄 광막한 사막의 상공은 구름 한 점 없이 햇볕이 따가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고도를 점점 높여가며 내려다보이는 사막은 초코렛 물을 진하게 풀어 뿌린 것 모양의 암갈색 바다와도 같았다.

여기 저기 솟아 있는 바위로 덮인 붉은 산들은 마치 초코렛 크림 거품처럼 보였다.

눈 아래 펼쳐지는 대지는 단 하나의 인간도 존재하지 않고, 더욱 비행 실수로 인간이 그 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를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냉엄한 금단지역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터어키」대위는 표적물을 단 비행기와 통화를 시작했다.

『엘파인』편대장으로부터 표적 건인기에게 사격준비 완료!』

곧 표적 건인기의 조종사로부터 응답이 왔다. 『라이저, 준비완료!』

「터어키」대위는 표적물로부터 1마일

<동체 비상착륙 수기>

좌측으로 1마일 가량 떨어져 고도를 높여 가면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제트 전투조종사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는 공대공 사격 연습도 그 밖의 모든 비행훈련에 있어서 보다 한층 사고방지를 위해 극도의 세밀하고 정확한 훈련 계획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비행기가 달고 가는 표적은 먼 곳에서 보아도 전후좌우로 흔들리며 끌려가고 있어 공대공 사격은 극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동작은 세밀히 계획된 것이었다.

비행기와 비행기 사이의 간격은 일정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고 각 비행기의 위치는 일초의 여유나 착오가 없이 정확히 규정지어져 있었다.

기울성의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안전성의 문제는 특히 공군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의 제일의 적인 것이 되어 있다.

이날 비행시의 상호 연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로 되었다.

조종사가 목표를 향해서 굉장한 속도로 급강하를 시작할 때,

「엘파인」편대장 진입한다.

<이하 요기는 234번기로> 각각 말하기로 하고,

기총사격을 마친 다음 목표물을 단비행기 바로 밑으로 쏜살같이 지나갈 때, “「엘파인」편대장 이탈한다”라고 말하기로 되어 있었다.

목표 비행기 밑을 사격 후 지나치지 않으면 안 될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비행기들은 다른 세 대의 비행기를 명백히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터어키」대위가 목표에 대하여 향한 제1 패스는 실탄을 발사하지 않은 채로 의 패스였다.

「터어키」대위는 2번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으나 그다지 위험하다고는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의 편대원들에게 두어번 패스를 하게 하여 그 때까지도 2번기가 간격을 넓히지 않으면 그때야 주의를 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제1의 사격 패스를 시작하였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들은 다시 제2 패스로 들어갔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은 제3 패스에서 생겼다.

「터어키」대위에 접근해서 따라 오던 2번기가 그의 기수 앞에서 밑으로 빠져나간 편대장기를 시계에서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목표를 향해서 급강하하면서 기관총 보탄을 어루만지고 있던 그는 그의 앞에

<동체 비상착륙 수기>

서 목표로부터 이탈하면서 대기선을 향해서 급상승하고 있는 비행기를 보았다. 그는 그것이 「터어키」대위인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터어키」대위 앞에 나간 4번기였다.

그는 「터어키」대위가 이탈한다고 말한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4번기가 말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목표가 눈앞에 다가오자 2번기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탄은 무서운 불을 내뿜으며 기총을 떠나 발사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터어키」대위의 비행기가 2번기의 사격라인 바로 전방 하부로부터 떠 올라왔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도 공포 속에서 즉감한 바로 그 학생은 보턴을 누르고 있던 손을 즉시 떼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지났었다.

총탄은 발사되어 그 중 5발은 「터어키」대위의 비행기 명중, 그 중 2발이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던 것이다.

한발은 「콕핏트」(조종석) 앞에 맞아 산소 라인을 절단하고, 그로 인한 폭발과 순식간의 화재는 비행속도계를 못쓰게 만들었다. 또 한 발은 「콕핏트」에 맞아 캐노피 사출장치를 작동케 하였다.

캐노피는 공중으로 튀어 올라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그 다음 그 포탄은 조종사의 오른쪽 다리를 뚫고 지나 갔다.

조종사의 허벅다리 살이 한 두파운드 떨어져 나갔으며, 근육과 신경을 찢어 길이 12인치 넓이 3인치, 깊이 1인치라는 끔찍한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그는 좌석에서 깊이 안으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혹심한 추위와 공기의 흐름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왼손으로 비행기를 조작할 수 밖에 없었다.

오른손으로는 출혈을 막아 보려고 허벅다리를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비행할 수 있었다.

그는 생각하였다.

설혹 내가 낙하산으로 뛰어 내린다할지라도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기지로부터 헬리콥터가 날아오기 전에 나는 사막위에서 출혈 때문에 죽고 말 것이다.

공중에서 나를 발견한다 해도 그것은 30분 혹은 한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만일 아무도 나를 발견치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라디오의 송신 보턴을 눌렀다.

『여기는 「델파인」편대장,

메이 데이!』

그는 힘껏 외쳤다.

<동체 비상착륙 수기>

『여기는 「앨파인」편대장,

메이 데이! 메이 데이! 메이 데이!』

그것은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비행사들의 공통된 신호였다.

그 다음 목표물을 단 비행기의 조종사에게 말하였다.

「앨파인」, 편대장으로부터 목표물 견인기에게

『내가 보이나?』

이윽고 답이 왔다.

견인기로부터 「앨파인」 편대장에게,

『라아저, 보인다.』

『나는 총탄에 맞았다.

나를 놓치지 않도록 감시하라』

표적물 견인기에서는 무슨일이 생겼는가를 알 도리가 없었다.

그는 그 순간에 생각나는 오직 한가지의 충고를 하였다.

『「앨파인」편대장,

「브라보」를 불러서 「질라 벤드」와 연락하라!』

「질라 벤드」는 「류우크」기지에서 서남방을 약 40마일 떨어져 있는 비상착륙 기지였다.

그 사격 구역 내에서의 모든 행동은 「질라 벤드」에서 통제하고 있었다.

그 구역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조종사는 「질라 벤드」와 연락하도록 되어 있었다.

「질라 벤드」의 「콜싸인」은 「브라보」였다.

『라아저, 계속해서 나를 잘 감시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터어키」대위는 말하였다.

그러나 그때 표적물을 단 비행사의 시계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목표물을 단 비행기의 조종사는 이렇게 외쳤다.

「터어키」대위는 공중에서 홀로 되고 말았다.

그는 「브라보」로 라디오의 스위치를 돌렸다.

『「질라 벤드」여기는 「앨파인」편대장, 긴급하다. 나는 총탄에 맞았다.

출혈이 심하다. 「류우크」기지로 돌아 갈 수 없다.

출혈로 죽게 되었다.

그곳의 활주로에 동체 착륙하려한다.』

극히 짧은 순간이나마 그는 매우 똑똑히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말을 듣지 않는 다리로서는 조종석의 어떤 폐달도 밟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브레이크 없이는 지상에서 비행기를 조작할 수 없을 것이다.

<동체 비상착륙 수기>

따라서 착륙을 한다면 바퀴를 넣은 채 동체로 착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질라 벤드」에게 물었다.

『그곳에는 어떤 의료시설이 있는가?』

그 비행장은 아직도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질라 벤드」의 대답은 굉장히 가냘프게 들려왔다.

『「델파인」 편대장, 여기는 「질라 벤드」 이곳에는 「엠블런스」 한 대와 위생병 한 명이 있다.』

「엘파인」 편대장으로부터 「질라 벤드」에게 『군의원은 없는가?』

「질라 벤드」로부터 「엘파인」 편대장에게 『군의원은 없다.』

비록 라디오를 통한 대화였으나 「질라 벤드」는 「터어키」 대위의 음향에서 필사적인 느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류우크」 기지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해 보겠다. 나에게는 군의관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그는 정신이 혼란해지기 시작했다.

충격과 출혈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몇차례나 「질라 벤드」에게 군의관이 있느냐고 물었다.

『군의관은 없다.』 매번 대답은 똑같았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묻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군의관이 필요하다. 군의관이 없는가?』

「터어키」대위보다 23분 전에 「류우크」기지를 이륙하였던 「브라우닝」 중위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듣고 비로소 부근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브라우닝」중위와 그의 학생들은 「터어키」대위가 위치하는 곳에서 동쪽으로 약 10마일 밑으로 15,000피트 떨어져 있는 구역에서 지상목표에 대하여 최후의 사격 「패스」를 하고 있었다. 기지로 기수를 돌리면서 「브라우닝」중위는 「질라 벤드」를 불러 연락을 하기위해 서 「브라보」로 스위치를 돌렸었다.

그때 그는 「터어키」대위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출혈하고 있다..... 「류우크」 기지로 돌아가 보겠다』

그 다음에 그는 군의관에 관한 이상한 대화를 들었다.

「브라우닝」 중위에게는 즉시 도와줄 생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조종사들은 다른 조종사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는 한 함부로 도움의 손을 뻗치지 않는 것이다.

<동체 비상착륙 수기>

그러나 그때 「브라우닝」 중위는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 군의관을 찾는 것일까 그자는 「류우크」기지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는데 왜 그는 처음 부터 「류우크」기지로 향하지 않을까?

그때 「브라우닝」중위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부상당한 조종사는 혼자 몸이다. 그가 누구이든 또 어떻게 해서 부상을 입게 되었든 문제가 아니다.

그는 홀몸이고 곤경에 빠져 있다.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브라우닝」중위는 급히 불렀다.

『「델파인」 편대장 여기는 「블루버드」 편대장 내가 도와 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터어키」대위에게 마치 흥분제와도 같이 작용을 하였다.

그 수 초 전만 하더라도 의식이 불명해짐에 따라서 그의 음성은 꺼져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음성은 똑똑히 날카롭게 그리고 힘차게 들려왔다.

『물론이다 나는 몹시 피를 흘리고 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나의 날개 가까이 와서 나의 비행속도를 알려줄 수 없겠나?』

이미 심한 출혈은 「터어키」대위의 시력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겨우 계기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속도계가 고장이 나서 바늘이 제로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다만 계기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일 비행기를 착륙시키려면 모든 단계에서 그의 비행속도를 알아야만 언제 속도를 늦추고 정지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브라우닝」중위는 말하였다.

『「엘파인」편대장, 귀관의 위치와 고도를 알려라』

『나는 「질라 벤드」 서남방 15마일에 있다. 「류우크」기지를 향하고 있다. 고도는 13,000』

「터어키」대위의 비행은 경이적인 것이었다.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시력은 몽롱해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육표를 찾아서 마치 비둘기모양 똑바로 귀환 코오스를 취하고 있었다.

다년간의 비행에서 체득한 모든 경험과 훈련과 규율은 그를 인간계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성이 약화되었을 때 이 기계는 본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터어키」 대위의 「제트」기를 조종한 것은 바로 이 본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의 실수를 하고

<동체 비상착륙 수기>

있었다. 그는 비행속도를 측정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교대로 내면서 비행하고 있었다.

실제속도에 가까울 만큼 너무 저속으로 나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속력을 냈다.

그리고 음속에 가까운 고속도로 날고 있을 때에는 맹렬한 공기의 흐름으로 「헬멧」이 날아 갈 것을 두려워하였고 혼란된 정신 속에서도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실수는 훨씬 중대한 것이었다. 「터어키」대위는 무의식중에 기수를 약간 숙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차로 그와 지상과의 귀중한 공간을 좁히고 있었다. 그는 지상 100피트 이내까지 내려와 있었다.

초록빛 나는 갈색의 먼지가 날개 밑을 지나갔을 때 비로소 그는 조종간을 뒤로 힘차게 잡아당겼다.

그것도 역시 순전히 본능적인 작동이었다. 「터어키」대위가 위험을 감지한 것은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재의식이었다.

그 때 「브라우닝」중위가 그의 고도를 물어본 것이다.

희미한 눈으로 고도계를 한참동안 들여다 보고 있던 「터어키」대위는 13,000으로 읽었다. 그러나 사실은 1,300이었던 것이다.

「브라우닝」중위는 「터어키」대위가 아직도 고공에 있는 줄 알고 학생들에게 따라오라고 신호하면서 그를 찾기 위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학생들에게 그와 「터어키」대위와의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브라보」로 스위치를 돌리도록 명령하고 있었다.

그들은 「터어키」대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의 오른쪽 다리에는 꽤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즉시 착륙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지 않더라도 공중에는 부상당한 조종사가 있고 그들은 그 사람의 탐색을 도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탐색은 헛수고였다.

그들은 「터어키」대위가 측면의 어느 곳에 있는 줄로 믿고 있었으나 그가 약 2마일 밑에 있다는 것은 알도리가 없었다. 「브라우닝」중위는 다시한번 「터어키」대위의 위치를 물어보았다.

그는 대답하였다.

『나는 「백크아이」상공에 있다』

「백크아이」는 「질라밴드」와 「류우크」

<동체 비상착륙 수기>

기지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이었다.

그 2, 3초 후에 「터어키」대위는 그의 말을 시정하였다.

『아니다. 나는 「백크아이」상공에 있지 않다. 나는 제6「육질리어리」상공에 있다! 그것은 사막 위에 있는 비상활주로이며 「류우크」기지의 조종사들이 귀환에 이용하고 있는 한 육표(陸標)였다.

「브라우닝」중위는 미친 듯이 좌우로 선회하면서 뒤와 위를 내어다 보았다.

그러나 비행기는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넓었다.

살살이 훑어보기에는 너무도 넓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야 한다. 지금 곧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브라우닝」중위는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학생 중의 한사람이 「터어키」대위를 발견하였다.

『블루버드』편대장』

하고 그는 외쳤다.

『그는 11시 방향에 있다. 고도는 매우 낮다.』

「브라우닝」중위는 즉시 찢어지는 듯 한 소리를 내면서 급강하를 했다.

이제 그는 자기보다 훨씬 앞에서 그리고 훨씬 밑에서 사막 위를 아슬아슬하게 저공으로 날아가는 은빛 물체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터어키」대위를 본 「브라우닝」중위는 흥분했다.

그를 따라야 하겠다는 갈망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비로소 「브라우닝」중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었다.

「터어키」대위는 그가 그도 13,000피트를 날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13,00을 잘못 읽은 것이 분명하다.

거의 실명상태에 빠지려고 하는 부상 입은 조종사가 단신으로 혼란한 비행장에 동체 착륙을, 감행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터어키」대위의 비행기를 힐끗 쳐다 본 「브라우닝」중위는 「캐노피」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전에는 그런줄 몰랐던 것이다. 『다이브·도어』를 내려보면 어떨까』 하고 「브라우닝」중위는 말하였다.

그것은 통명스런 명령이 아니라 경험있는 조종사의 위신을 본능적으로 깊이 고려한 제의였다.

그러므로서 「터어키」대위는 그의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살아서 그 속에서 빠져 나오는데 필요한 자신을 얻게 될 것이다.

「터어키」대위는 「라이저」라고 말함으로써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브라우닝」중위는 비행기의 동체로부터 무거운 철제 「서터」가 맹렬한 공기의 흐름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항력을 발생하여 비행기와 속력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공손하고 사려 깊은 제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돌연 「터어키」대위는 그 낮은 고도를 잃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의 비행기는 아슬아슬하게 앞에 보이는 나무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다.

『당겨라! 당겨!』

하고 「브라우닝」중위는 외쳤다.

그 때 「터어키」대위는 조종간을 당겼다. 비행기는 불과 몇 「피트」를 남기고 나무 위를 지나갔다.

이제 그들은 「류우크」기지에서 10마일 내외의 거리에 도달하였다.

「터어키」대위는 코오스를 이탈했고 그때마다 「브라우닝」중위는 그를 올바른 코오스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좌로 3도 이동하라!』

『라아저』

그리고 또—

『우로 2도 이동하라!』

『라아저』

그들은 「블루버어드」편대장으로부터 「엘파인」편대장에게와 같은 형식적인 용어는 오래 전부터 쓰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장구구락부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단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있었다.

「터어키」대위는 적당한 고도와 속도를 유지하고 올바른 코오스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때는 아무런 지지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브라우닝」중위는 여전히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였다.

그는 「터어키」대위에게 자기가 바로 옆에서 감시해 주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유지하여야 했다.

『잘한다.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 이상은 염려없다.』

이렇게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터어키」대위는 근심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근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수 분 전에 동체착륙해야 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잊고 있었다.

『블루버어드 편대장』하고 그는 초조한 듯이 말하였다.

『나의 랜딩·기어는 어떠한가? 나는 비행기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 「랜딩·기어」로 착륙할 도리는 없을까?』

『무슨 소리야! 동체 착륙해!』

그러나 착륙문제는 「브라우닝」중위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다.

「류우크」기지에 있는 두 개의 평행하는 활주로는 남서쪽으로부터 북동쪽으로 뻗어 있었고 그들이 비행하고 있는 방향도 그와 같은 방향이었다.

그러나 비행기의 이착륙은 그 반대 방향으로부터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올바르게 착륙을 하려면 그들은 기지상공을 선회하여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터어키」대위가 그들이 날아온 사막을 향해서 기수를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착륙하는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브라우닝」중위는 「터어키」대위를 그대로 착륙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 부상을 입은 조종사를 일초라도 필요 이상으로 공중에 남겨둔다는 것은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브라우닝」중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터어키」대위는 선회도중에 의식을 잃고 추락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때에 「터어키」대위는 의식이 몽롱하였다.

『이 이상 더 정신을 차릴 수 없다』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들은 기지에 접근하고 있었다.

「브라우닝」중위는 「모빌·콘트롤」을 불렀다. 「모빌·콘트롤」이란 비행장 끝에서 매 2, 3초 마다 있는 「체트」기우 빈번한 이착륙을 조정하고 있는 「라디오」를 장비한 트레일러였다.

『모빌·콘트롤』하고 「브라우닝」중위는 말하였다. 『「엘파인」편대장이 2분 후에는 활주로 반대방향으로부터 착륙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는 동체착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는 「킥핏트」안에서 출혈로 죽을 지경이며 반 실신상태에 반맹목이다.

이어서 「모빌·콘트롤」은 소리쳤다.

『모든 비행기에게 전한다. 이착륙을 금지한다! 활주로는 폐쇄되었다! 소방차와 「애플런스」는 2배로 출동하라!』

「브라우닝」중위는 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속에 그려 볼 수 있었다.

「체트」전투기 기지의 큰 기구 전체가 아연 활발해졌다.

장병들은 즉시 맑은 마 비상부서로 달려가고 「트럭들은 활주로를 향해서 달려갔다.

착륙하기위해서 기지 주위를 선회하고 있던 비행기들은 급히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 넓은 지역으로 날아갔다.

모든 라디오는 파장을 맞추어 그 멜로드라마를 청취하고 있었다.

이제 「브라우닝」 중위는 위험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터어키」대위로 하여금 「브라보」로부터 「모빌 콘트롤」이 사용하고 있는 「에코오」로 라디오 스위치를 돌리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브라우닝」중위의 말을 「모빌·콘트롤」과 「터어키」대위가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조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다. 「브라우닝」중위와 「터어키」대위는 그들을 연결하고 있는 라디오의 스위치를 끄지 않으면 안 되며 실신상태에 빠지려 하고 있는 「터어키」대위는 「브라우닝」중위가 기다리고 있을 「에코오」를 찾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두 사람을 연결하는 통신의 생명선은 영원히 단절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모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앨파인」 편대장, 「에코오」도 전환하자』하고 「브라우닝」 중위는 억지로 태연스럽게 말하였다.

『라이저』

「터어키」대위의 음성은 약하였다.

「브라우닝」중위는 「에코오」로 스위치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델파인」편대장, 잘 들리는가?』

하고 그는 말하였다.

1, 2초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터어키」 대위의 음성이 들려왔다.

『잘 들린다』

그의 음성은 거의 쾌활하게 들려왔다 「브라우닝」중위는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뿜고 다음에 「모빌·콘트롤」을 불렀다.

『「모빌·콘트」를 잘 들리는가?』

『잘 들린다』 그리고 「모빌·콘트롤」은 계속해서 말하였다. 『20초마다 신호탄을 발사하겠다』

그것은 원래 「라디오」통신이 통하지 않을 때 비행기에게 신호를 하는데 사용하는 적색과 녹색의 신호탄이다.

「브라우닝」중위는 앞에 신호탄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와 「터어키」대위가 올바른 「코오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행장 자체를 보기에는 너무도 고도가 낮았다.

그렇다고 해서 「브라우닝」중위는 감히 「터어키」대위를 상승시킬 수는 없었다. 「터어키」대위는 안정되어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브라우닝」대위는 혼자 100피트 내외를 상승하여 바로 앞에 활주로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때 「터어키」대위는 손의 힘이 빠져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는 지혈기에 대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혈기가 있으면, 있으면 좋겠는데 지혈기가 있어야 하겠는데』

이제 그들은 1마일 내외의 거리에 접근하고 있었다.

마치 한 줄로 합치려는 것 같이 보일 만큼 가까이 접근해 있는 두 줄의 활주로가 변칙이고 있었다.

『비행장이 보인다』

「터어키」대위가 돌연 소리쳤다.

『활주로도 보인다! 그러나 내가 보는 활주로가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하고 「브라우닝」 중위가 말하였다.

「브라우닝」중위는 1, 2초동안 그것을 모르고 있었으나 실은 그것은 옳은 활주로가 아니었다.

좌측 활주로를 향하고 있어야 할 「터어키」대위는 우측 활주로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 우측 활주로는 수리하기 위해서 폐쇄되어 있었다.

그 변두리에는 「트럭」이 산재 되어있었다. 「브라우닝」중위는 무선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직각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터어키」대위가 만일 최후의 순간에 활주로를 변경해야 된다면 그는 불안정한 균형을 잃고 추락할지도 모른다. 여하튼 비상착륙을 하려는 조종사에게는 폐쇄된 활주로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때에도 「브라우닝」중위는 트럭과 노동자들이 기점을 하여 아스팔트 위를 달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활주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몰랐지만 모험을 해볼 수 없었다.

그들은 활주로 앞에 있는 맨땅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다.

앞을 힐끗 쳐다 본 「브라우닝」 중위는 소방차, 앰블런스 그리고 「터어키」대위가 그의 비행기를 들어올려 「킥핏트」로부터 그를 구출하기 위한 「크레인」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활주로가 시작되는 곳에는 방책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반대방향으로부터 착륙하는 제트기가 활주로를 너무 지나갈 때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 옆으로 뻗쳐놓은 쇠사슬과 나일론 망이었다.

그것은 낮추면 되는 것이었으나 「트럭」에서 나온 사람들은

「터어키」대위가 다른 활주로에 착륙하려는 줄 생각하고 그 위에 있는 방책을 낮추어 놓았다.

『우로 2도 이동하라!』

「브라우닝」중위가 말했다.

「터어키」대위는 이동하였다.

『조금 속력을 줄여라!』

「터어키」대위는 속력을 줄였다. 그리고 난는 『「다이크·도어」를 올린다』고 말했다.

「브라우닝」중위는 안심하였다.

「터어키」대위의 이성온은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이크·도어」를 올리면 비행기가 땅 위를 더 잘 미끌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치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용기를 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그들은 불과 2, 3피트의 고도에서 맨땅 위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들은 시속 150마일 이내로 날고 있었다. FS4는 시속 약 140마일에서 착륙하는 것이다.

「브라우닝」중위는 속도의 부족으로 위험하게 비행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 공중에서 떠 있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감히 「터어키」대위 옆에서 착륙할 수도 없었다.

『엔진을 꺼라!』하고 그는 외쳤다.

『끄고 있는 중이다!』하고 「터어키」대위가 말하였다. 그는 엔진을 완전히 끄고 있었다.

그때 「브라우닝」중위는 공포에 몸이 오싹해졌다. 「터어키」대위는 너무 일찍 착륙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활주로나 미치지 않은 맨땅을 치고 방향을 향해서 돌진할지도 모른다.

더 지나서 방향을 피하라!

「브라우닝」중위는 긴장된 고민 속에서도 「터어키」대위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억지로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다음 그는 주시하였다.

그리고 「터어키」대위의 비행기가 마치 거대한 인형사의 실 끝에 매달린 것처럼 불과 몇 인치를 남기고 방향 위를 아슬하게 넘어가 아스팔트를 향해서 미끌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OK!』

하고 「브라우닝」중위는 소리쳤다.

『활주로 끝에 도달하였다! 성공하였다 굿럭!』

그리고 그는 속력을 냈다.

그는 활주로의 절반을 스쳐 지나가 사막 상공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터어키」대위의 비행기는 아직도 「스파이크」와 구름같은 연기와 먼지를 내면서 동체로 활주로 위를 맹렬히 미끌어

져 가고 있었다.

근 1마일이나 미끌어져 간 다음에 비로소 비행기는 멈추었으며 비행기의 밑바닥은 부서지고 찢어졌다.

「터어키」대위가 총탄에 맞은지 12분이 지났다. 트럭과 사람들이 그 파손된 제트기에게로 달려왔다. 소방대원들은 주위에 흘러진 연료에 불이 붙지 않도록 급히 주위의 아스팔트와 비행기 밑에 담요를 깔았다.

키가 크고 체중이 290파운드나 되는 「짐·노크타」라고 하는 소방대원은 맨 먼저 「킥핏트」로 달려간 한 사람이었다.

『비행기에서 나오시오!』

하고 「노크타」는 소리쳤다. 비행기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일이었다.

『난 움직일 수 없다!』

좌석의 벨트를 풀면서 「터어키」대위는 외쳤다.

「노크타」는 「킥핏트」옆에 있는 날개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175파운드 되는 「터어키」대위를 좌석에서 들어 올려 준비되어 있는 들것으로 올려놓았다.

『지혈기가 필요하다. 지혈기가 있어야 하겠다!』하고 「터어키」대위는 중얼거렸다.

그를 들것에 눕힐 때 헌병 하나가 급히 자기바지에서 허리띠를 풀어내어 「터어키」대위의 허벅다리에 졸라 댔다. 마침내 「터어키」대위는 지혈기를 얻은 것이다.

「노크타」의 말에 의하면 「터어키」대위는 들것에 눕혀 지자마자 의식을 잃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나 「터어키」대위는 그때도 자기는 아직 의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고 「애플런스」가 기지병원을 향해서 급히 달리고 있을 때에도 『군의관님 다리를 짚으시는 말아주시요!』하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병원에서 「터어키」대위는 즉시 수혈을 받았고 항공군의관 「C. R포오만」대위가 상처를 응급치료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터어키」대위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 「버니」는 옆에 앉아 있었다.

『염려할 것 없어!』하고 그는 말하고 또 다시 의식을 잃었다.

「류우크」기지에는 특수한 정형외과 시설이 없었다. 따라서 그날 오후에 「터어키」대위는 비행기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남동쪽에 있는 「파악스」공군기지 병원으로 수송되었다.

그곳에서 그 이튿날 비로소 그는 자기가 폭발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부주위로 「터어키」대위에게 사격을 가한 그 학생의 성명과 국적은 공표되지 않고 있다.

<동체 비상착륙 수기>

공군에서는 그로 하여금 훈련을 끝마치도록 허용하였고 그 후에 그는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한 편 「브라우닝」중위는 그의 학생들을 인솔하고 사막에 있는 비상활주로에 착륙하였다. 그 활주로는 2, 3분전에 「터어키」대위의 학생들이 착륙한 바로 그 활주로였다. 후에 기지로 귀환해서 비로소 「브라우닝」중위는 「류우크」 공군기지에서 두 영웅이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 중의 하나는 「터·터어키」대위였고 또 하나는 「하워드·브라우닝」 중위였다.

「브라우닝」중위와 「터어키」 대위는 6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상면하였다.

그때 「브라우닝」중위는 아직도 「터어키」대위가 입원 중에 있는 「파악스」 공군기지까지 특수한 임무로 비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터어키」대위는 그의 다리를 잃지 않았다.

다리에는 움푹하게 들어간 큰 흉터가 있고 중요한 신경과 근육이 절단되었기 때문에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비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제트기를 조종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직도 「류우크」기지에 있는 「브라우닝」중위는 「터어키」대위의 다리가 상했던 상하지 않았던 간에 그에게 다시 조종할 것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자는 아마 잠을 자면서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을거야』 이렇게 「브라우닝」중위는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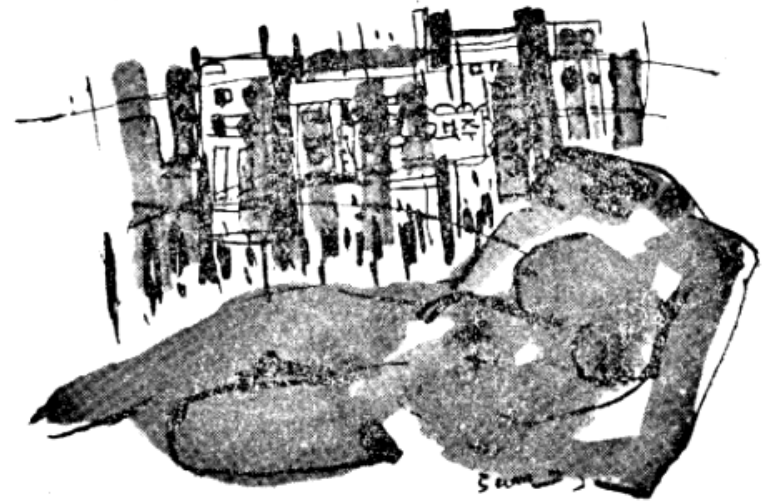
공군에서는 「터어키」 대위에게 평화시에는 극히 드문 항공십자훈장(D·F·C)을 수여하였다.

한편 「브라우닝」중위에게는 수훈 금배가 수여되었다.

그들의 사령관 「T·C라이저스」 준장은 그들의 공적을 『우리 공군조종사들의 탁월한 조종능력과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난관을 극복하는 그들의 능력을』여실히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물론 동 사건을 군대식으로 찬양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터어키」대위를 치료하고 그 후에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민간생활로 돌아간 전 항공군의관 「포오차」씨는 그와는 약간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공군에 2년 동안 있었다. 그동안 나는 어리석은 짓, 피부림, 멍청이 짓을 보았고 또한 활발한 군인정신을 보았다.』



단편소설

『명동야화』(明洞夜話)

김병로





퇴근길에 곧장 집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도 생겼으면, 생각하며 연구실 안을 서성대는데 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호기심에 가슴이 뜨끔해짐을 느끼며 수화기를 드니까 뜻밖에도 군대 동기인 임(林)사장 한테서였다.

내가 약간 놀랜 어투로 웬일이냐니깐 그는 그저 저녁이라도 같이 할까해서 그런다 천연스레 말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얼른 확답을 못하고 어물렁대는 나에게 임 사장은 그림 오는 줄 알고 기다리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황 끊어버렸다.

난 혼자 잠깐 어색한 제스처어를 하다 말고 수화기를 놓았다.

아까도 내 입장을 말했지만 못 나갈 사정은 아예 없었다. 차라리 시쳇말로 “왔다!”라 할 수 있을 만큼 때를 얻은 초대였다. 다만 임 사장이 평소에 안그러다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초델 하니까 무슨 불순한 저의라도 깔려있지 않나 여겨져서 약간 껄림칙할 뿐이었다. 그랬다. 껄림칙했다.

껄림칙 하지만 이제 와서 초대를 물릴 순 없었다. 그야 새로 전황 걸어서 적당한 핑계를 내세우고 뒷 거름질 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물리는 방책보다 내 입장이 더 문제되었다.

집에 일찍 돌아가면 난 그만큼 긴 시간을 아내에게 시달려야 했다. 두툼한 돈뭉치라도 들고 들어가지 않는 한 요사이 아내의 발악은 거의 빠짐없이 매일 있었다.

아넌 날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도저히 한 가정을 이끌고 나갈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으로 점찍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날 내팽개쳐 두질 않았다. 무능한 사람은 달달 뽕기나 해야 뭐라도 좀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녀는 나에게 거의 여유를 주잖고 극성스레 굵고 훑고 했다.

이런 아내의 병을 입시로나마 고치는 방법은 돈을 쥐어 주는 것 뿐인데,



훈장이 돈은 없고 해서 난 그 병을 고칠 생각은 않고, 내가 그 병상을 보는 시간을 줄이기로마음 먹었다.

줄이되 최대한도로 줄이자, 이거였다. 줄이자면 내가 집에 체재하는 시간을 줄이려 했다. 아침 출근시간까지 앞당길 순 없고, 저녁 퇴근시간을 늦추는 수밖에 없었다. 늦추되 술에 거나히 취하는 편이 더 좋다. 맹송한 정신으로 늦게 대문을 두들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난 이런 내 입장 맵에 끝내 임 사장의 초대에 응하기로 했다.

마침 밖엔 실비가 내리고 있어서 술마시는 땃손으로 어울렸다. 비는 아침부터 내리고 있었다. 이제 삼월이니까 봄비라겠는데, 장마비스레 종일 추적거리고 내리다가 저녁손에야 실비로 바뀌었다.

비 맵에 난 종일 끈적거리는 환경에서 음울히 지내야 했다.

머칠 전까지 함박눈을 쏟은 이상기온은 생각 않고 월력이 가리키는 날짜만 기준해서 스텝주길 끊어버린 대학 구내는 비 맵에 원통 스산한 기운이 돌고 있었다. 교실엘 가도 연구실에 앉아 있어도 몸들 곳을 모를 만큼 썰렁이 춥고 축축했다.

이런데서 하루를 보내니까 저녁손부터 목이 간지러웠다. 알코홀이 통과해야 가라앉는 간지러움이였다. 정말이지 따끈한 정종 한 컵에 불갈비 한 대 뜯고 싶었다. 그러면 몸이 훨훨 풀릴 것 같았다. 이런 나에게 임 사장이 전황 건 것이었다. 아내 때문인 내 입장이 원동력이었지만 술에의 연연한 생각 또한 날 임 사장에게로 물고 가는 추진력의 일부가 안 되었다 할 수 없었다.

실비에 외견 코우트가 후줄근해 질 만큼 먼 골목길을 걸어서 난 버스에 올랐다. 임 사장 사무실이 있는 시청 앞으로 가는 버스였다.

버스 안에서도 난 껄림칙한 마음을 지닌 채였다.



임 사장과는 군대 동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가 못 되었다. 군에 있을 적에도 서로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군복을 벗고 넓은 활동무대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지금, 둘의 사이가 더 서먹해진 건 당연한 추이였다.

물론 제대 후에도 둘은 몇 차례 만난 일은 있었다. 그러나 번번이 길거리에서 우연이었다.

만나면 둘은 곧잘 다방에 들어가곤 했다. 동기생끼리인데, 길거리에서 손이나 잡아 흔들고 그냥 헤어지기가 뭣해서 비용 적게 드는 다방이라도 들리는 것이었다.

다방에선 차를 마시며 이야길 하게 되는데 주로 임 사장이 했다.

임 사장은 말이 많으면서 능변이었다. 누구와도 그랬지만 그는 나와 마주 앉기가 무섭게 오른손으로 연신 홀렁 베껴진 앞 머리를 쓰다듬어 올리며 알뜰한 입술을 능란하게 놀리기 시작하곤 했다.

화제는 자기 사업 이야기가 주였는데, 남에게서 라면 싱거울 정도로 평범한 이야기가 그의 입을 통과하면 재미있고 구수하게 변했다. 그래서 난 어물어물 그의 이야기에 참척해 버려서 꽤 많은 시간을 그와 소비하곤 했다.

그는 이야기 할적마다 시종 자기를 내려 깔고 남을 대단스레 추키는 표현을 하는데 결론에 가서 보면 감쪽같이 반대의 효과가 되어 버리곤 했다. 그런데도 알미웁지가 않고 귀가 기울여지는 것은 전혀 그의 능한 화술 때문이었다.

그의 말의 삼 사십프로는 거짓말로 알아야 실수 없다고 그를 아는 사람 들 거의 모두가 이야기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것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데는 역시 그의 말에 마력의 작용이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유창한 어조와 호탕스런 웃음이 범벅 이 된 그의 화술은, 전등불에 번쩍



이는 마빡을 쓰다듬으며 육중한 체구를 흔들거려 피우는 제스처와 조화되어 듣고 보는 사람의 혼을 빼기에 족하였다. 이런 임 사장의 화술때문에 난 길거리에서 만났다가 다방에 들어가는 일을 애써 피하지 않았 댔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그를 진짜로 좋아한 건 아니었다.

이런 우리들의 사이를 생각하면 난 버스 안에서 깨림칙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사장실 문을 노크하고 안에 들어섰을 적에 그는 <야, 와쥬구나>하고 감격스레 외치며 맞달려 나왔다. 그리고 귀빈에게 하듯 내 오른손을 두손으로 감싸 쥐어 흔들며 소파쪽으로 끌었다. 그러다가 내 젖은 코우트를 벗겨 걸어 주기도 했다.

「야, 와쥬서 정말 고맙다 야」

임 사장은 날 소파에 앉히고 담배를 권하면서 한번 더 기쁨에 겨운 음성으로 말했다.

「너 왜 이러지?」

난 그가 켜 대는 가스ライター불에 담배를 붙여 빨며 이렇게 의아스레 물었다.

「너야말로 왜 이러지? 오랫동안 동고동락 만나서 반갑다는데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임 사장은 장사꾼들이 곧잘 보이는 흘김 눈을 하면서 능청스레 대꾸했다.

「암만해도 얼떨떨해서 그런다」

「실은 그렇게 됐지. 그동안 내가 사업에 쫓기느라 널 한 번도 저녁에 초대하지 못했으니까 말야. 그런 내가 불쑥 널 초청하니까 아마 좀 어정쩡해진 모양인데…… 모두 내 잘못야. 내 잘못!」

임 사장은 자기 특유의 너털웃음을 웃어 제꼈다.



「그 점에선 나도 같이 사과할 입장이지만.....」

「암튼 장삿 속에서 널 부른건 아니니 맘 놓고 어서 저녁이나 하러가자구...」

그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너 아직 차 없니?」

회사를 나오면서 난 임 사장에게 던짓이 물었다.

「차가 다 뭐야.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너두 역시 장사꾼이구나, 무조건 앓는 걸 보니....」

「아냐, 사실이야. 아직 차 가질 형편이 못 돼.」

회사 앞에서 우린 갈 곳 땀에 얼마간 실랑이를 벌였다. 난 날씨를 감안해서 어디 오붓한 대포집에라도 가자 했다. 가서 정종에 불갈비나 몇 대 뜯고 치우자 하였다. 하지만 그는 반대였다. 고급요정을 들먹였다. 기왕인데 큰집 안방에서 눈안주 놓고 흠뻑 마시자 하였다. 난 그건 낭비라며 절충안을 냈다. 불고기집엘 가자 했다. 그는 동의했다. 택시 잡기 힘든 시각이라하여 지름길을 택해 골목을 한참 건다보니까 임 사장의 코우트도 후줄그레 젖었다. 대수롭잖아 보이는 빈 데 정작 그렇지 가 않았다.

둘이 들어간 집은 프로판가스를 쓰지 않고 숯을 쓰는 불고기집이라 하여 사람이 많았다. 임 사장의 안면이 아니면 그냥 돌아섰어야 할 정도로 거긴 붐비고 있었다.

우리에게 배당된 방은 종업원들의 침실이였다. 그 집 전체가 그렇긴 했지만 그 방은 유달리 험했다. 누에 친 종이처럼 누룩누룩 얼룩진 신문지가 덕지덕지 발린 천정은 울룩불룩 배가 튀겨나오고 아주 색이 바랜 벽지가 붙은 벽은 기우뚱해 있었다. 방 구석지에 쌓인 땃국이 흐르는 이불더미에선 쿼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다. 방바닥도 까지고 꺼지고 해서 반반한 델 골라서



엉덩일 놓아야 했다.

「이 집은 이 맛이라. 뼈딱하고 후줄그레한 방, 빈대 바퀴냄새가 섞인 쿼퀴한 냄새 나는 방에서 불고기 먹는 맛 말야...」

방 한 구석에 엉겨주춤히 앉으며 내가 비위가 뒤틀려 하는데 임 사장이 아무데나 풀석 앉으며 이렇게 소리 질렀다. 난 내가 택한 곳(어느 집이라 지적인 것은 아니지만)이어서 암말았고 그냥 앉아 있었다.

곧 숯 풍로가 들어오고 정종과 고기가 왔다. 풍로의 고기를 안주삼아 따끈한 정종 몇 잔을 들고 나니까 내 엉겨주춤했던 앉음새가 풀렸다. 껌립칙함도 쿼퀴한 냄새도 없어졌다. 분위기에 두루 동화된 셈이었다.

임 사장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번엔 다방에서 만났을 때보다 늦게 시작되었고, 어조도 느리고 활기도 없었다. 화제도 늘 하던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저스렵잖게 가정주부 이야길 꺼냈다. 만 여자 이야기라면 그의 입을 수 없이 통과했지만 가정주부 이야긴 나로선 처음 듣는 것 같았다.

그는 가정주부들을 신랄하게 비방했다. 집구석에 앉아서 남편이 벌어들여 주는 돈으로 편히 지내면서도 남편을 아끼고 섬길 생각은 않고 되려 훼방만 놓는다 했다. 사치만 하려들고, 남들과 어울려 쏘다니며, 게다 춤이다, 도박이다, 술이다로 돈을 낭비해서 남편을 고민케한다 하였다. 시가집 식구들과 등을 지고 남편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다 하였다.

「오늘 밤은 화제가 색 다른데?」

난 임 사장의 흥분된 이야길 듣다가 이렇게 슬쩍 쇠길박았다.

「그렇지? 그럴거야... 아마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길 하긴 처음일 거다...」

「마누라 하고 티각테각이라도 있는 거 아냐?」

내 질문에 임 사장은 얼른 대답을 않았다. 엉뚱한 데에 시선을 두고 힘



없이 넉적넉적 고길 씹으며 침묵을 지켰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 어느새 수기(愁氣)가 덮혔다. 언제나 생기가 돌던 그의 얼굴에 말이다.

「바로 봤어. 미누란지 여편넌지 하고 한바탕 했지. 바로 어젠데...」

그는 다시 말을 끊고 짙은 한숨을 쉬었다. 얼마 후에 그는 저스렵잖게 차분히 가라앉은 어조로 자기 가정이야길 엮어 나갔다.

그의 아내는 그가 사장이 되면서 바짝 더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물론 전에도 아내에게 그런 버릇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무때까지는 가끔 얼렁뚱땅해서 돈 뭉치를 안겨 주곤 했기 때문에 그녀의 보챔이 그리 심하지가 않았었다. 근대 사장이 되면서 그는 그녀에게 뭉치돈을 가져다줄 수가 없게 되었다. 전무 때까지야 봉급 받고 남의 밑에서 일할 때이니까 이력저력 사장의 눈을 속여 뭉치돈을 만들 수가 있었지만, 회사가 자기 손에 들어온 뒤부터는 그럴 수가 없었다. 한 푼이라도 더 회사에 투자해야 할 입장인데 집에 뭉치돈을 가져갈 수가 있겠는가. 그게 아내로 하여금 바가질 급게 했다.

아내를 화내게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사장이 되면서 그는 세 동생을 모조리 회사에 끌어넣었다. 바로 밑에 동생을 전무 자리에 놓고 나머지 둘도 요소에 앉혔다. 남을 믿어서는 안 된단 걸 자기가 남의 밑에 있을 때에 톡톡히 체험한 그는 자기가 사장이 되면서 자기가 맡았던 전무 자리는 말할 나위도 없고, 판 중요한 자리도 남을 해고하면서까지 동생들을 앉혔던 것이다.

아내는 이걸 싫어했다. 형제가 남보다 못 믿을 세상이라며 그랬다. 더구나 못 믿게 되었을 적에 남이라면 밀어낼 수도 있지만 형제간에 그럴 수도 없고, 입장만 난처하게 된다 하였다.

그는 아내의 이론이 틀린다고 생각치는 않았다. 하지만 자기 동생들은 남과 다르다고 생각 했됐다.



해방 후 고향 평양서 월남할 적에 저네를 등에 업고 손을 잡고 온 형, 그리고 6.25때에 목사인 아버지가 인민군에게 학살당한 뒤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네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에 넣고 제대시킬 때까지 힘을 아끼지 않은 형인데 감히 그들이 자길 배반하겠는가 생각했었다.

근데 실재는 아내의 기우가 맞아 들어갔다. 그들은 어이없게도 형의 눈을 속이고 알금알금 부정한 짓을 했다. 해서 저네 여편네들이 사치하는데 보태줬다. 그걸 아내가 눈치챘다.

아낸 눈에 쌍심질 세우고 시동생들의 부정을 캐내었다. 그들의 부하들을 매수해서 자상한 증거가 결드린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공개하며 악을 썼다. 당장 그들을 몰아내라고 떼를 썼다.

임 사장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비위(非違)가 미웠지만 다 자란 동생들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다. 또 그렇게 다뤄지지도 않을 놈들이었다. 내 쫓는단건 더욱 생각 못할 일이었다. 그렇다고 아내를 설득할 수는 더욱 없었다. 도시 형제간에 서로 좋게 지내자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저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다. 아내는 그를 조르다 안 되니까 낭비를 시작했다. 본래 낭비벽이 있는 그녀는 열을 가해서 돈을 뿌리기 시작했다. 반항의식에서 이기 때문에 그 뜻수는 심했다. 그가 돈을 안 주면 빚까지 얻어서 야단을 부리는 것이었다. 임 사장은 부득불 아내를 달래려 들었다.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날것만 같아서 방관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의 이야길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숫제 말도 붙이지 못하게 시리 설쳐댔다. 붙는 불에 기름붓기로 나날이 심해 갔다. 그는 얼르기도 했다. 정 그런담 이혼이라도 불사하겠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콧방귀로 맞서는 것이었다.



참다 못해 그는 손 발을 켜다. 열전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것도 시작은 그가 하지만 진행은 번번이 아내쪽이 주도했다. 한대 때리기가 무섭게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매달리며 굵고 할키며 죽여라!를 외쳐댔다. 윈 동리가 떠나갈듯이 발악을 해서 구경꾼을 모으고 중인(衆人) 주시리(注視)에 남편을 굶어댔다.

열전이 끝나면 이어서 냉전이 벌어진다. 남편에 대한 일체의 수발을 끊고 부단히 남편의 가슴을 후벼대는 독설만 퍼붓는 것이었다. 조반도 못먹고 나가는 남편의 등 뒤에서 독살스런 말을 통통 튕겨서 맥폴리게 했다. 이런 날은 종일 채수가 불잖아서 그는 장사에 허탕을 치는 수가 많았다.

「그럼 요사이도 냉전 기간이겠구만?」

난 그에게 불쭙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렇지. 오늘 아침도 내가 출근한다고 현관에서 신을 신는데 뒤에서 그년이 뭐라 씨부린지 알아? <그놈의 회사, 불에나 홀랑 타버리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회사!> 이러는 거야!」

「그래도 가만 있었어?」

「가만 안 있음 어떻게 하니? 배알 같아선 획 돌아서서 년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마빡을 현관 콘크리트 바닥에다 짓궂어 주고 싶었지만 그래 봐야 뭣하난 말야....」

그는 또 짙은 한숨을 뿔었다.

불고기가 까맣게 타면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자, 어서 고기 먹고 술 마시자...」

난 이렇게 분위기 바꾸면서 그의 잔에 술을 찼다. 이렇게 해서 술이 몇 순배든 뒤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우연의 일친진 몰라도 년한테 고런 사위스런 이야길 들었더니만 오늘도



통 사업이 안 돼네. 무려 열 뽕군데의 흥정이 있었는데 한 군데도 성공을 못 시켰어. 내 기분이 암울하니까 도통 사람 대하기가 역겹더군...

「사업에 기분이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말야, 그래서... 생각 끝에 널 불러낸거야!」

「그래서 널 불러내다니?」

난 약간 놀래며 반문했다.

「아무래도 내 가정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사업이고 뭐고 될 텐데 이 해결을 내가 좀 지어줘야겠다 해서.....」

임 사장은 진지했다.

「내가 해결을?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임 사장은 일단 이야길 끊고 앞에 놓인 술잔을 들어 비웠다. 그리고 잔을 나에게 건네어 술을 따른 다음 여전히 침통한 어조로 이야길 계속했다.

임 사장은 자기 아내가 나의 글의 애독자라 했다. 그녀는 과거에 문학지망 소녀였고 현재에도 그 방면에 꽤는 관심을 두고 가끔 문학작품을 읽는데, 그가 날 군대 동기생이라고 알린 뒤부터 그녀는 내 작품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 작품의 애독자라기 보다 호기심에서 읽어주는 모양이었다.

「애독자 하고 부부싸움 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난 그가 다시 술잔 비우는 틈을 타서 이렇게 물었다.

「상관이 있어. 왜냐하면 그녀는 작가라면 약간 존경하기 때문이야. 판사들에게겐 별 관심 안 두지만 작가에게는 웬만큼 관심을 둔단 말이다!」

「그래서 나더러 어떻게라는 거지?」

「가자, 이거야. 여기서 일어나면 곧장 우리 집으로 가잔 말야. 가서 우리



여편넬 좀 설득해 달라 이거야」

임 사장은 정말 심각했다. 땀에 난 그의 애소를 가볍게 다룰 수가 없었다. 한참 생각했다. 생각 끝에 갈 수 없단 결론을 얻었다.

「그건 안돼. 아무리 아주머니가 작가에게 관심을 둔다고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남의 부부싸움을 들먹일 순 없는 거 아니겠어?」

「처음 만나면 어때? 동기생의 마누란데 그게 어떠냐 말야. 그런 걱정일랑 말고 꼭 가줘야겠어. 가서 이야기 좀 잘해줘야겠어. 내 한턱 단단히 할게. 네 어느 작품엔가 이런 이야기 있지? 여자의 밋고 고움은 얼굴에 있지 않고 마음에 독기를 품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단 말야. 넌 그 글에서 여자의 독기를 뚫디 뚫은 여름의 땀감에 비했지. 땀땀하고 시퍼런 땀감을 비어 물면 입에 하나 가득히 땀음이 차서 튼튼 배알을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소금독에 넣어 뒀다가 꺼내면 말랑말랑 노리끼한 단감이 되어서 입맛을 돋군다 했지. 그리고 그 소금은 예술일 수도 종교일 수도 철학일 수도 있다 했지. 또 어떤 심각한 자극일 수도 있다고 썼지. 암튼 오늘밤 우리집에 가서 여편네에게 네가 그 소금을 좀 쳐 줘야겠어」.

우린 얼마동안 술도 고기도 잊고 간다 못간다로 실랑일 벌렸다. 난 속으로 역시 공짜술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면 계속 그의 집에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도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고 버티어댔는데 결국은 나에게 지고 말았다. 난 절대로 갈 수 없단 전제를 마음에 두고 버티었기 땀에 이길 수 밖에 없었다. 「좋아. 정 그렇당 다음 기회에 가도록 하고 오늘밤은 기왕 나선 김에 명(明)교주한테나 같이 가지?」

「명 교주?」

「음. 전에 한번 말하잖았어. 명 대위 말야. 동기생 명 대위!」



「아, 꼬마 명 대위 말야?」

「그래 그래」

「그친 영등포에 있다 하잖았어?」

「그렇치. 근데 뒤텔 전에 명동으로 이사 왔어. 명 교주가 자리할 곳은 아무래도 명동이 어야 한다면서...」

「명자가 같다 이거야? 자식, 재미있군!」

「보통 재미있는 친구가 아냐. 아마 너도 게 가면 재미있어 죽을라 할 거라. 또 얻는 것도 있을 거고... 특히 소설의 소재 같은 거...」

「야야, 그런소리 마. 명 교주란 자식 내가 그런 직업의식에서 온줄 알면 대번에 내쫓고 말게다. 그 성격에 가만있겠어?」

「하긴 그런 줄 알면 짜식 팔작팔작 뭉갸지?」

「크지도 않은 몸이 말이지?」

「하하하. 너도 그놈의 그 상투어를 잊지 않고 있구나?」

「음, 그놈을 들먹이니까 문득 그 말이 떠오르는군」

난 임 사장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집에 돌아가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임 사장도 분명히 나와 같은 입장에서 판테로 새려 하는 모양인데 동병상련 하는 의미에서도 그냥 헤어질 수가 없었다.

우린 불고기집을 나왔다. 밖엔 실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는데, 우린 빗속을 명동까지 걸기로 했다. 우산장수 아이들이 더러 설쳤지만 우린 아랑곳 않고 비를 맞으며 그냥 걸었다.

〈빗속을 그대와 함께 걸으며...〉

빗속을 걷는 동안 마음이 풀렸던지 임 사장은 불쑥 이렇게 유행가를 흥얼대며 내 팔짱을 껴다. 나도 마다않고 그가 하는 대로 팔을 맡기고 따라 걸었다. 속엿 생각은 서로 판판이면서도 우린 술 땀에 걸으며 이렇게 다정



할 수 있었다.

명 교주의 운명연구소는 명동 P빌딩 삼층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까만 바탕에 흰 글씨가 쓰여진 장난감같은 간판이 모으로 붙은 두툼한 문을 임 사장이 노크했을 적에 안에서 들어오란 악받친 소리가 들렸다. 임 사장이 명 교주의 대답이라고 나에게 말하고 획 문을 열었다. 순간 임 사장은 멈칫했다. 방 안에 명 교주 외의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석유난로 언저리에 둘러앉아서 한창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서 들어와 대머리 개새끼!」

문 쪽에 검은 베레모바람으로 앉았던 명 교주가 악 받친 소릴 질렀다.

「들어오라면서 왜 욕이지?」

임 사장이 겁죽겁죽 안으로 들어가며 명 교주 못말게 악 받친 소릴 질렀다. 난 엉거주춤히 임 사장을 따라 방안으로 들어섰다.

「오늘은 결달리개까지 다리고 왔구나, 대머리 개새끼!」

명 교주가 날 눈여겨보지도 않고 빈대떡을 짓갈로 꺼지럭거리며 악을 썼다.

「결달리개 좋아하네! 대학교수 나리가 나타났는데도 결달리개야?」

임 사장이 빈정댔다.

「뭘, 대학교수?」

명 교주가 딱딱 고개를 들며 비로소 날 봤다. 순간 그는 눈이 울롱해지며 이게 누구야 강 영호 아니가?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폼 재가며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다. 난 그의 손을 잡아 흔들며 너무 가냘픈 손이구나, 생각했다. 축축히 습기가 도는 손이 힘주면 아서질 정도로 가냘팠다.

나 땀에 약간 공손해진 명 교주가 주선해서 우리 둘은 차갑고 딱딱한 철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막걸리 파티에 한몫 끼어든 셈이었다.



「뭣하러 왔어, 대머리 개새끼!」

우리 땀에 서먹해졌던 좌석이 다시 가라앉았을 적에 명 교주가 탁 풀린 실눈을 치켜뜨며 맞지 게 물었다.

「원숭이 같은 명 교주놈의 재롱 보러 왔다. 막걸리도 얻어 마시고, 잘못된 거 있어, 임마!」

임 사장이 명 교주보다 더 큰 소리로 응수했다. 미리 앉았던 허수룩해 보이는 청중들이 꺼병한 채 있었다.

「그리고 소설가 개새끼야!」

명 교주가 이번엔 느닷없이 날 노려보면 소리쳤다. 난 가슴이 섬뜩했다. 방금껏 나에겐 임 사장에 게와는 달리 제법 정중히 구는 것 같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욕지기이니까 당황해졌다.

「.... 넌 뭣하러 왔어? 혹 소설 소재 얻으러 온거 아냐? 그렇담 용서 않는다? 크지 않은 몸이지만...」

명 교주는 눈에 독스런 빛을 띠며 손을 불끈 쥐어 흔들었다.

난 천만의 말씀이라 하였다.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말했다. 속엔 임 사장이 명 교주를 이야기했을 때부터 소설의 소재에 관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었는데 걸으론 그렇게 대답(?) 했다.

「좋았어, 그렇담 좋았어! 어서 이 술잔이나 받으라구, 소설가 개새끼!」

나의 대답한 답변이 있자 명 교주는 대변에 얼굴빛을 밝히며 나에게 술잔을 건네었다.

「그 개새끼 소리 좀 뺄 수 없을까?」

난 술사발을 들고 술을 받으며 술 따르는 명 교주에게 시비쪼로 물었다.

「안 되지. 그건 내가 가장 애용하는 말이니까 안되지. 그 소리 듣기 싫거든랑이 방에서 나가야 하는 거야!」



명 교주는 딱 잘라 말했다. 난 따는 그렇다 싶어서 더 말을 안했다.

「야, 이쯤 됐음 서로 인사라도 나눠야지?」

임 사장이 마시고 난 술 사발을 맞은편 생소한 사람에게 건네며 명 교주에게 말했다.

「참, 그렇군! 근데 이 교주가 손수 나서서 수고할 수는 없고 각자 적당히 인사하도록 하지...」

곧 인사가 교환되었다. 난 명 교주와 임사장을 빼고 나머지 셋과만 인사를 나눴다. 그러니까 선(宣) 대령을 통하는 육군 예비역 대령과 고(高)사장을 통하는 명 교주와 초등학교 동창인 어느 출판사 외판원과 그리고 명 교주의 비서격인 김군 이렇게 셋과 엮였다.

근데 특이한 점은 그들 셋이 한결같이 허수레한 차림새로 군색기를 풍긴단 사실이었다.

눈치가 명 교주는 이렇게 허질구레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자세엿 열심히 포교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그들 셋은 명 교주의 신도들인 것 같았다. 조금 전까지도 명 교주는 이런 무난한 청중을 상대로 자기의 원갖 지식을 동원해 가며 열심히 포교하고 있었던 눈치였다. 그런 판국에 우리가 들어 닦친 모양이었다.

「자, 어서 막걸리를 마시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서먹할까? 술이 덜 돼서 그런거야. 어서들 마셔, 마셔! 참, 빈대떡이 떨어져 가누나, 임 사장 개새끼 심부름 좀 할래? 요 밑에 있는 <한강>카는 대포집 알지? 께 가서 이 명 교주가 달랜다면 안다!」

명 교주가 시치미 딱 떴고 분부했다.

「못 가겠다. 이 개새끼야!」

임 사장이 진짜로 이마에 핏대를 올리면 쏘아댔다.



「교주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김군이 일어나며 말했다. 「좋았어. 자네가 갔다와. 대머리 개새끼 빈대떡 먹지마!」

이렇게 소리질러 놓곤 명교준 큰소리 내어 웃었다. 크지도 못한 몸을 뒤로 제켰다. 앞으로 굽혔다 해가며 호걸스레 웃는다. 애를 썼는데 그게 몹시 어색했다.

「야, 재수없다. 뱀새가 황새 흉내내는 꼴 정말 못봐주겠다!」

임 사장이 여전히 심통스레 비꼬았다.

「아하, 자네 왜 이리 심통스럽지? 목사의 아들임 좀 점잖은 데가 있어야지...」

명 교주의 목사의 아들이란 말에 선 대령과 고 사장이 약간 놀랜 표정을 하고 임사장을 쳐다봤다.

「목사소리 들먹이지 말아. 목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야?」

임 사장도 꺾는 당혹해 하며 이렇게 소릴 질렀다.

빈대떡이 오면서 좌석은 다시 먹고 마시는 데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엔간히들 취했고 배들도 불렀을 텐데 뜨끈거리는 빈대떡에 끌려서인지 아직도 먹고 마시는 데에 활기가 있었다.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을 적에 임 사장은 선대령이랑 고사장, 그리고 김군과 이야길 나눴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들 셋도 집에 붙어 있기 싫어하는 축들이었다. 싫어한다기보다 붙어 있을 수 없게끔 환경이 되어 있었다.

선대령은 6.25때의 역전의 용사였다. 듬직한 몸에 어울리게 호탕하고 호인스러운 성격이 었보였다. 비록 지금은 그것들이 이우려져서 비굴하다리 만큼 풀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 천성을 아주 지우진 못하고



있었다. 그는 실직자였다. 제대 때에 받은 일시금을 미리 제대한 옛 전우들에게 홀랑 사기당한 뒤부터 그는 열빠진 사람처럼 꺼병해져 버렸다. 취직할 생각도 않고 막연히 놀기만 했다. 하는수 없이 아내가 도봇장수를 시작했는데 근 십년동안을 아내의 양품보따리에 기대 살고 있다. 셋방에 살고 있는데, 방 세 올린다고 집 주인이 방 비우라 성화를 부리지만 나가면 방 얻기 힘들 것 같아 버티고 있는 중이라 했다. 집주인이 어떻게 눈총을 보이는지 집에 머물기가 죽기 다음가리만큼 싫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인 명 교주한테 와서 살다시피 했다. 고사장은 책 팔러 다니다가 명 교주에게 걸린 모양이다. 돈벌이 시원찮아서 찢찢매는데다 아내가 폐병으로 오래 누워있어서 그는 집을 공동묘지만큼이나 싫어한다 하였다.

김군은 모 정부 고관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돌아간 뒤에 새로 들어온 서모가 보기 싫어서 수째 집을 뛰쳐 나왔다 하였다. 다니던 대학도 집어 치우고 지금은 명 교주에게 사사하며 운명 연구를 하고 있다 하였다.

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 대령, 고 사장은 나이 사십이 넘은 힘살이 빠진 것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데에서 뒹굴어도 괜찮지만 새파랗게 젊은 김군은 이런 데에 두기 아깝단 생각이 들었다. 마치 흐르는 물에서 싱싱히 헤엄치며 노니는 고기를 썩어가는 흙탕물 속에 잡아 넣은 느낌이었다.

「나한테는 가정형편 묻잖나, 대머리 개새끼!」

임 사장이 명교주한테는 하마디도 묻잖고 지나니까 명 교주는 이렇게 소리 질렀다.

「뻔한데 묻긴 뭘 물어?」

「뻔한거 좋아하네? 변했던 말야, 변했어!」

이렇게 전제해놓고 명 교주는 변한 자기 가정형편을 말했다. 얼마전에



아내가 도망쳤다 했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점쟁이하고 살 수 없다 하며 넷이나 되는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고 했다. 혼자 사는 늙은 고모를 모셔다 집을 맡기고 있는데, 자기도 집이공동묘지 다음 가는 삶은 곳이라 했다.

「너두 고향을 잃었구나?」

임사장이 침통한 어조를 말했다. 급격한 변화였다.

「고향을 잃어?」

명 교주는 여전히 발끈했다. 하지만 그는 얼마 못가서 <하긴 그렇군>했다. 그 어조도 침통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아까보다도 더 큰 소릴 질렀다.

「대머리 개새끼 이거 사람 올리겠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구 .. 자, 우리 술을 들자, 술을!」

「술 드는 것도 좋지만 교주님 아까 하시던 이야기나 마저 하시죠!」

김군.

「이야기가 뭐냐, 설교지!」

고사장.

「어쨌든 좋아요. 이야기든 설교든 들어봅시다. 야, 명 교주, 어서 해봐!」

임사장은 나에게 뜻 담긴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정 그렇담 하지 !」

명 교주는 이렇게 다짐하고 나서 작은 몽둥아릴 추스르고 검은 베레모를 벗었다. 다시 쓰며 말을 시작했다.

「한마디로 증명서 버는 이야기야!」

「증명서?」

임 사장이 반문했다.

「증명서도 모르냐? 돈이야, 돈. 어디 가나 통하는 돈이 증명서란 말야!」



「돈을 번다 이거지?」

「그래.」

「취미 있다. 어서 말해라.」

「짜아식, 공짜로 돈 버는 법 배우겠다... 하지만 어렵겠다 임마, 이건 아무나 하는 사업이 아냐.」

「뭔지 모르긴 하지만 내가 하는 사업이면 나도 자신 있다. 꼬마 사기꾼아?」

「사람고기로 통조림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에게 수출하는 사업을 할 자신이 있다 이거지?」

「뭐? 사람고기 통조림? 그따위 허망한 소리 작작 하라구!」

임사장이 콧방귀를 폈다. 그러나 명 교주는 지금까지의 농담기를 씻고 진지하게 대들었다.

「허망하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야말로 허망한 놈이다. 임마! 이 계획이 왜 허망해 응? 세계 각국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외화를 벌어들인 건데 허망해?」

임사장은 대뜸 그 자원이 뭐냐고 따졌다. 명교주는 서슴없이 꼽아 나갔다. 각국에 있는 빨갱이를 비롯해서 깡패, 사기꾼, 밀수꾼, 부정을 일삼는 부패한 관리, 위선적인 종교인, 돈만 아는 교육자, 정치인, 군인, 저울눈 속이는 장사꾼, 유해식품 만드는 악덕 실업가, 살인강도, 어린이 유괴범 등을 단숨에 줄줄 외어 나갔다.

「사기꾼 속엔 너 같은 관상쟁이도 끼어 있는 거지? 어수룩한 부녀자들 속에서도 돈 뜯는 악질 사기꾼들 말야!」

임사장이 악질이라고 엑센트를 올렸지만 명 교주는 까닥않고 말을 이었다.

「날 사기꾼이라고? 천만의 말씀! 난 이래봐도 이백이 넘는 신도를 가진 종교의 교주란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단 사실도 모르는 무식꾼인가. 넌?」



「종교? 교주? 그러지 말고 깨끗이 사기꾼이라고 자백하지. 그렇게 한담 너만은 깡통 속에 들어가서 식인종의 밥이 되는 운명에서 건져내 주지!」

「깡통을 누가 만드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내가 만든다 하잖았어?」

「그러지 마. 이 사업은 너 같은 장사꾼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실현되는 사업이야. 바꿔 말해서 나 같은 정신면을 다루는 학자....」

「뭐 학자? 네가 학자야?」

임 사장이 어이없다는 듯이 큰소리 지르고 이어서 힘에 겹도록 크게 냉소했다. 판 사람들도 약간 냉소하는 빛을 보였지만 명 교주의 눈길에 부딪치는 순간씩 얼굴빛을 바꿨다.

「왜 웃어? 내가 학자가 못 된단 말야? 여기 이 책들을 보란 말야. 모두 일본 책들인데 이걸 난 모두 독파했던 말야!」

명 교주는 한쪽 벽에 기대놓은 서가에 꽂힌 삼 사십권의 낡아빠진 책을 가리키며 소리질렀다. 그쯤 되는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학자 대우를 받아도 조금도 잘못된 게 없다는 자신만만한 태도였다.

「야, 정말 너 이렇게 웃기기가? 남의 나라 고서적 몇 권을 읽었다고 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냉수 마시고 속 좀 차려야겠어?」

「학자 뿐 아니라 난 문필가도 된단 말야!」

임 사장이 어이없어 하는데 약이라도 올리려는 듯 명 교주는 이렇게 한 가지를 더 덧붙였다. 임 사장이 가만있질 않았다. 문필가이면 어느 신문 어느 잡지를 통해 데뷔했나 따졌다. 명 교주는 태연스레 xx지를 통해 데뷔했다 하였다.



xx지가 도대체 뭐냐니깐 어느 직장에서 계간으로 나오는 PR지인데 거기에다 그는 <무병 장수비법(無病長壽秘法)>이란 제하에 글을 썼다 하였다. 꼭 한번 읽은 일이었지만 자긴 그걸로 문필가가 된 줄 안다 하였다. 임사장은 <에라, 이 미친 사기꾼아>하며 배를 안고 웃음을 못 참아했다. 그리고 나더러 이놈의 수작을 통박해 달란 눈짓을 했다. 그러나 난 거게 개입하고 싶지가 않았다.

임 사장과 명 교주는 통조림사업과 학자, 문필가에 관해서 더 많은 논쟁을 했다. 나를 포함한 만 사람들은 넌지시 관전을 하면서 술과 빈대떡만 축내고 있었다. 김군이 몇 차례 더 밀엘 내려가서 술이랑 빈대떡을 날라왔다. 모두들 술에 흐느적이게 되어 가고 있었다.

「자, 이제 그만하고 가자」

임 사장과 다투던 명 교주가 갑자기 큰 소릴 질렀다.

「시간이 열 한시야. 가자. 집으로 가는게 아니고 단골집으로 가는 거야. 선 대령 알지?」

선 대령이 소처럼 씩 웃으며 안다는 표정을 했다. 명 교주가 손 위에 손을 겹쳐 까불리고 전신을 배배 틀며 이런 거 하러 가자 했다. 그는 껏껏 치성까지 올렸다.

「재수없다. 요 꼬마 사기꾼아!」

임 사장이 손바닥으로 허리를 꼬고 치성을 올리는 명 교주의 마빡을 때렸다.

「실음 그만뒤, 대머리 개새끼!」

명 교주가 동작을 멈추며 악을 썼다.

「싫긴 왜 싫어? 공짜면 양젖물도 삼킨다는데!」

「좋았어. 술직해서 좋았어!」

명 교주가 소리 지르며 일어나자 모두들 우 일어났다.

「김군, 대략 치우고 뒤따라 와! 알지? 전번 갔던 데 말야.」

「네, 압니다.」

일행은 비트적 거리며 가까스로 계단을 내려왔다. 골목에 나서니까 아직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다. 명 교주를 선두로 일행이 골목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같이 가, 이 친구!」

내가 뒤쳐져서 머뭇대니까 뒤돌아 온 임 사장이 내 팔을 잡아 나꿔채며 으박질렀다.

「아니야, 난 집에 가야 해!」

난 임사장에게 붙잡힌 팔을 떨쳐 빼며 겹연스레 말했다.

「정말야?」

임 사장이 주춤하면서 물었다.

「너도 집에 같이 가!」

임 사장은 아니라며 뒤돌아 명 교주 일행을 쫓아 뛰었다.

난 거게 우뚝 서 있었다. 서서 골목 외등불에 비트작거리며 걷는 명 교주 일행을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내 머리엔 <실향자(失郷者)>, <탈궤자(脫軌者)>, <무중력환자(無重力患者)>, <좌표(座標)분실자> 등의 낱말이 어지러이 붙임했다. 그러나 무조건 그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을 것 같았다.

명 교주 일행과 뒤쫓던 임 사장이 골목을 돌아 자취를 감췄을 적에 비로소 난 날 찾았다.

난 집제로의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덜미가 선득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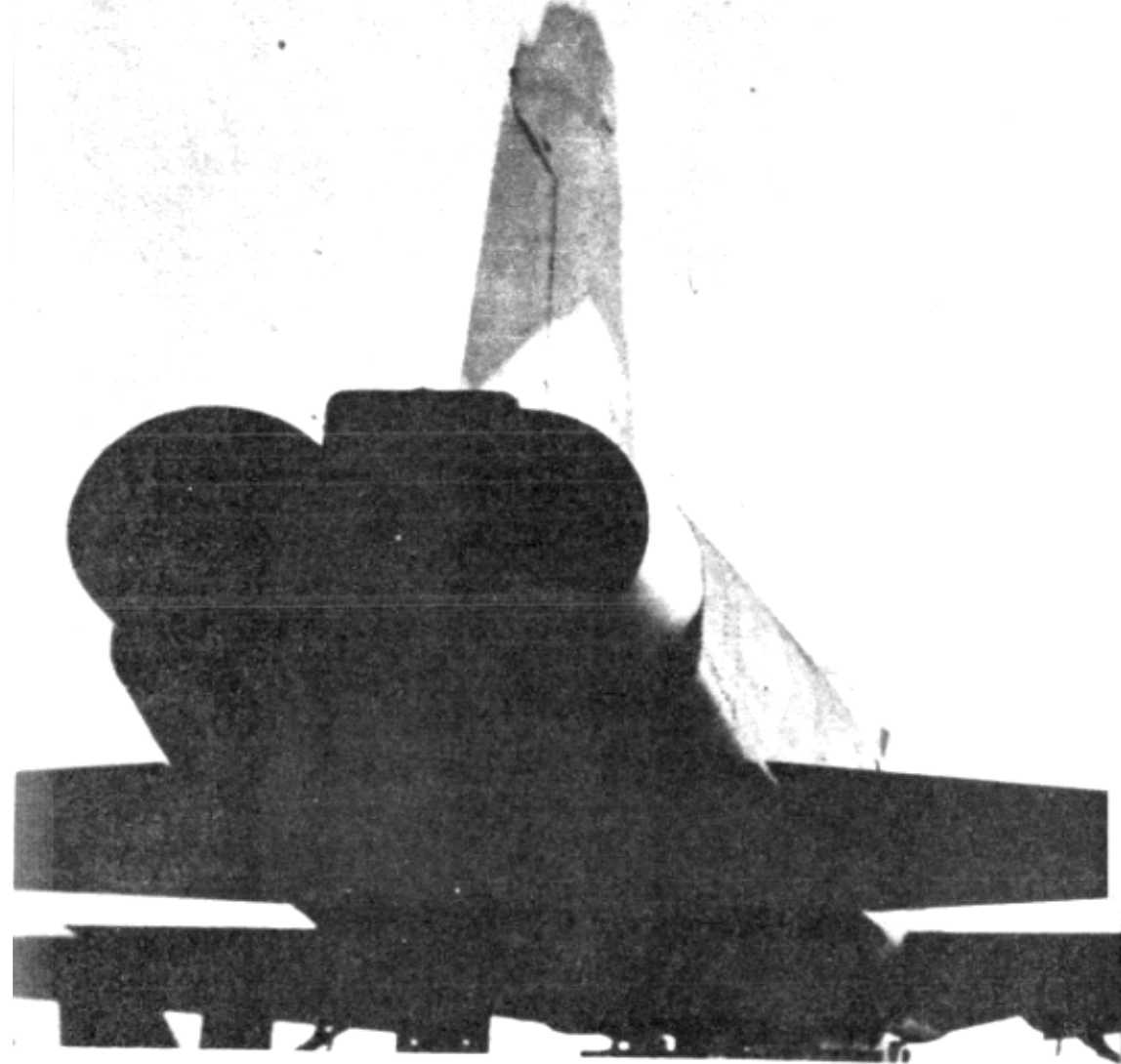


상: 신. 구 군사정전위원회 한국측 수석대표가 1월 20일 신. 구임 인사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환담을 나누었다.

하: 주한 외국무관단이 신년하례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정 예 공 군 되 자



명단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